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쟁점

민주시민교육 기초조사분석연구사업 녹취 · 참관자료

2002. 12. 10

연구책임자: 한승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정민승 (한국디지털대학 교수)
정선애 (함께하는 시민행동 교육국장)
이영이 (광명YMCA 총무)
박혜경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고상준 (아데나워 재단)

연구보조자: 허 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강현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노일경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윤창국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 졸)
홍은광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
이지연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녹취>

- 녹취 1 : 민주시민교육기초조사 분석 연구 워크숍, 2002. 9. 17
- 녹취 2 : 민주시민교육기초조사 분석 공동연구자 1차 회의, 2002. 9. 18
- 녹취 3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래밍 워크숍, 2002. 9. 26 ~ 28
- 녹취 4 : 민주시민교육기초조사 분석 공동연구자 2차 회의, 2002. 10. 9
- 녹취 5 : 주민자치분과 1차 회의, 2002. 10. 29
- 녹취 6 : 환경분과 회의, 2002. 11. 5
- 녹취 7 : 미디어분과 회의, 2002. 11. 7
- 녹취 8 : 주민자치분과 2차 회의, 2002. 12. 2
- 녹취 9 : 주은경(성공회대 사회교육원) 2002. 09. 25
- 녹취 10 : 박성희(민주노총 교육국장) 2002. 10. 25
- 녹취 11 : 조준호(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교육위원) 2002. 11. 14
- 녹취 12 : 박성희(민주노총 교육국장) 2002. 11. 20

<참관자료>

- 참관자료 1. 노동사회 연구소 '노조간부기본교육과정'참관자료. 2002. 10. 06-08
- 참관자료 2. 성공회대 사회교육원 '노동대학' 참관자료. 2002. 10. 14.
- 참관자료 3. 민주노총 '노동자 학교' 참관자료. 2002. 10. 30.

[r](#)

1. 녹취 및 참관 일정

1) 회의 및 워크숍 녹취 일정

	날짜	참가자	목적
민주시민교육 기초조사 분석연구사업 연구팀 워크숍	2002. 9. 17 ~18	책임연구자 1 , 공동연구진 7 , 각 시민 단체의 교육 전문가 11 , 연구지원팀 6 !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들과 공동연구진들의 첫 만남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 그리고 비전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됨
공동연구자 회의(1)	2002. 9. 18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5 , 민주화기념사업회 담당자 1 , 연구지원팀 6 !	향후 연구진행과정, 방식 등에 관한 회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래밍 워크숍	2002. 9. 26~28	11 의 민주시민교육 포럼에 참여하고있는 시민단체의 교육전문가들 30 , 1 , 공동연구자 2 , 연구지원팀 3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래밍 워크숍
공동연구자 회의(2)	2002. 10. 9,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4 , 1 !	시민교육 연구 부문의 연구 진행 상황에 관련된 향후 연구 진행 방향에 관한 토의
주민자치 분과 워크숍(1)	2002. 10. 29,	주민자치 시민단체의 교육전문가 6 , 민주화기념사업회 담당자 1 , 연구지원팀2 !	그 동안의 교육활동을 정리해보고, 교육담당자로서 느꼈던 한계를 나누고, 원 단계에 대한 진단과 향후의 비전을 제시하려는 것
환경 분과 워크숍	2002. 11. 5,	책임연구자, 환경단체의 교육 전문가 15 , 공동연구자 1 , 연구지원팀2 !	각 환경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내용을 정리하고 경향을 파악하여 향후 환경교육의 방향과 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디어 분과 워크숍	2002. 11. 7,	미디어교육 전문가 6 명과 공동연구자 1 , 연구지원팀 2 !	미디어 교육의 현재의 모습을 드러내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려는 것
주민자치 분과 워크숍(2)	2002. 12. 2	주민자치 시민단체 교육전문가 4 . 연구지원팀 1 !	1 : 워크숍 결과 공유 및 주제별 심화 토론

2) 면담 일정

면담자	소속기관	면담날짜
J 씨	S 사회교육원	2002. 09. 25.
P (1)	D 체 교육국장	2002. 10. 25.
C	K 동조합 교육위원	2002. 11. 14.
P (2)	D 체 교육국장	2002. 11. 20.

3) 교육기관 참관 일정

	날짜	참가자	내용
노동사회연구소 노조간부 기본과정 참관	2002. 9. 4-6 10. 8-10	30 명의 노동조합 간 부, , 연구지원 팀 2	노조 활동과 나, 건강한 생활, 노동운동사,
성공회대 노동대학 참관	2002. 10. 14.	약 40 (여 연령 이 다양하나 대부분 노조 간부,) 연구지원 팀 1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운동
민주노총 노동자 학교 참관	2002. 10. 30.	약 20 명 및 연구지 원팀 2	노동운동의 미래와 간부의 역할

2. 녹취 자료 1 - 민주시민교육 기초조사 분석 연구 워크숍

일 시: 2002년 9월 17일
장 소: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다솜관.
참 가 자: 공동연구자, 참여연구자, 연구지원단.
진 행: 고상준. 한승희.

1. 이해의 시간 : 2002. 9. 17 19:00-20:00

1. 프로젝트 및 참가인원 소개

·진행: 고상준
·방식: 잡지 광고 페이지를 참가원이 하나씩 선택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형상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

사회자 : 저는 처음에 안면트기, 마음 열기를 맡은 고상한 남자 고상준입니다.
이거, 진행을 이렇게 할꺼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5분에서 10분사이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일어나셔서, 여기 보시면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뽑아둔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중에 한 장을 뽑으시구요. 그 한 장을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이란. 난 이거라고 생각한다. 라는걸 소개하시는데, 일단 자기소개하구요, 누

구누군데 어디서 일하고 있고 어떻게 됐다, 나는 민주시민교육이란 이 그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생각에 민주시민교육이란, 한잔의 찜 한 오래된 십칠년 묵은 술이다. becaus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제가 지금부터 아주 좋은 이문세 음악을 틀어드리고 5분에서 10분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한 장씩 뽑으셔서 이 그림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시민 교육이란, 이걸 담아내시고 나중에 이걸 소개하시면 되는겁니다. 요것만 끝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해도 되요. 민주시민교육이 나왔으니까. 각자 생각하는, 그죠?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각자 소개할 시간을 드릴테니까요. 지금부터 5분에서 10분정도는 이 그림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이란' 여기다 맞춰서 소개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부다 하실겁니다. 모든분들이 다 하는겁니다. 모든 분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이란. (____ 선생님은 제일먼저 뛰어나오시더니 아직도 못고르고 계시네요.)

도저히 한 장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하시는 분은 두장을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뒤에 있는 그림이 더 낱아요

사회자 : 뒤에 있는 그림이 더 낱을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그림은 무작위로 선택했기 때문에 편하게 선택하세요.

혹시 목감기가 걸리신 분들은 제가 약을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2분뒤에는 우리가 소개하는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_____에서 민주시민교육에 우리가 얼마만큼 와있나를 고민해야되는 땀데 시작도 그걸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혹시 자기소개를 하고 싶

거나 하신 분들은 이왕 고생하는거 우리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모습, 상들을 한번 소개하면서 서로서로를 알아가는...(?)

이 노래가 끝나면 시작합니다.

이쪽부터 할게요. 저기에 제신 분들도 다 여기에 제신 분들 얼굴도 보고, 다 누가 오셨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사하는 시간만큼만 일어나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한 : 저는 _____ 김성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한 장의 그림을. 다 아시는 가수죠. 전인권 가승데. 이분이 가수이고 워낙에 노래를 잘하니까 유명하지, 이분이 노래를 잘 못하고 음치이거나 유명하지 않으면, 이사람이 옆에와서 대면(?), 조금 꺼려지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시민 교육은 바로 전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쫘 이상하게 생겼고, 비범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한사람의 인간으로 (자유로워)지는 그런교육, 그게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애처롭게 보지 않더라도 인간이라는 이름만으로도 _____ 그사람의 다양성을 존중해준다면 그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진관 : 저는 전교조에서 교육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홍진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사진은 광화문 사진입니다. 전 이게 새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차들이 거의 없죠. 지난 6월달 여기 모여 있었던 붉은 악마들을 떠올리게 하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거는 시민들에게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광장의 여유로움, 삶의 여유를 보여줄 수 있는, 찾아주는 것 이것이 민주시민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광장을 돌려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공희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노동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구요, 하는 일은 노동 조합 간부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선택했는데요, 이 차 가격이 보니까. 거의 1억원에 가깝네요. 제가 왜 이 차그림을 선택했나 하면, 차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이 차가 코너링을 하면서 이런 갈등요소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힘차게 질주하는 그런 교육이, 그런 교육을 하는게 시민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은로 :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노동교육연구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은로라고 합니다. 저는 발레리나의 발 사진을 골랐는데요, 민주시민교육이라는게 땅에 바르게 서는것이 아닌가. 이 발을 통해서 바르게 선다는 것은 힘을 가지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을 때 바르게 서서 잘 살아갈 수 있을텐데,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 때부터 걸음마를 배우면서 육체적으로 바르게 서는 것은 잘 하지만 어떤 인식적인면에서, 도시적인면에서, 사회적인면에서의 진립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서 제발로 서있지 못한 많은 시민들이 자기발로 튼튼하게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서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운이 좋았는데, 뒤에 보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읽으면 민주시민교육이 되겠더라고요. 숨어있던 즐거움이 가득한 천혜의 휴양지, 민주시민교육. 온 가족이 행복하게, 신혼부부는 달콤하게, 직장인들의 편안한 쉼터.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오십시오.

조재학 : 열린사회시민연합 조직국장이구요, 조재학입니다. 어딜가나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줄을 잘못 서가지고, 저는 아까 저런걸 할때마다 아주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느낍니다. 그 고통스러웠구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단체에서 내부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굉장히 웃기지도 않으면서 웃겨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있거든요, 그, 오늘은 그런거 없이 줌..

제가 어떤 머리의 한켠데요, 남녀가 사랑을 하는 것 같은, 독일말로 써있어가지구... 이게 무슨 가족계획에 관련된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제가 생각한 민주시민교육은, 물론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개념규정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좀 확장된 개념으로 생각했을때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영어로 얘기하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말로 의사소통, 소통. 이것하고 좀 의미가 다른 말이라고 누군가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사이의 어떤 정서적인 교감이라든가 이성적인 교감이든, 통합된거라고 얘기하는데 여하튼 사람과 사람사이에 어떤 자율과 연대성에 기초한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혜경 : 안 웃기는척 하면서 웃기시네요. 저도 그냥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을 집었는데요. 젊은 여자들과 남자가 있어가지고, 몸은 젊지 않지만 마음은 젊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선택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시민교육은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머리가 길든 짧든, 검정색이든 노란색이든, 남자든 여자든, 또 배꼽이 보이든 안보이든, 다양한, 이런 다양성을 서로 인정해주면서 다양한 부분들간의 소통이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게, 목적있게 민주시민교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노동사회연구소에서 교육위원을 맡고 있는 박혜경입니다.

은영준 : 오늘모임이 제가 이번일로 만난 그룹중에서 제일 큰 그룹이구요,

2002년도에 운수대통했다. 참 좋은분들 만나서 잘 풀려나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림도 뭐라고 하는데 독일말로 되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꼬끼오 꼬꼬꼬꼬 이런 소린거 같아요.

사회자 : 그걸 다양한 언어로, 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등
등등등

은영준: 아 잘 생각했네요.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 닭들이 보통 한 이십마리 삼십마리씩 시골에서 보편은 먹이
쟁탈전도 하고 암컷, 수컷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과정을 뚫고 나가는
것이 다분히 과정적인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아닌가. 대신 바라는 것은 닭들 사
이에서는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 서열이 정해질텐데, 그런 동물적인 서열이 안 정해
지길 바랄뿐이고, 어차피 그러나 이러한 싸움들은 좀 우리가 겪어야 할것들이 아닌
가. 이것을 슬기롭게 겪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

허준 :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과정에서 박사과정인 허준입니다. 저는
이걸 선택했는데요, 선택할 당시에는 생각이 없었는데..._____. 자세히 보시면, “유
행복식”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어떤 획일적이고, 뭐라그럴까 하나로 몰아가는 것들
을 장사지내고, 한사람 한사람 마음의 불을 밝혀서, 세상을 밝혀나가는 것이 민주시
민 교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승희 : 제가 고른 그림입니다. 제 버릇 뭐 못준다고.. 아마 이게 뭐가 쌓인 책
같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위에 옷이 걸쳐져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죠? 어디 한구석에 쌓아놓고, 그냥 아무것이나 걸쳐놓을 수 있는. 그래
서 기능성으로보면 이게 책이라기 보다는 책상이나 걸개썸 되겠죠, 그죠? 교육하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속에 있는 연수원, 이것도 그중
에 하난데요, 두 번째로는 두툼한 교재, 세 번째로는 말잘하는 멋진 강사. 이 세가지
중에서 최소한 두 번째꺼. 교재부분은 우리가 이미 버렸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안
에 살아있다. 라는 의미로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했습니다.

정선애 : 저는 학교 안의 시민운동에서 인터넷 신문학교 하고 있는 정선혜구요.
그, 굉장히 예쁜 여자였을거 같아요. 이여자가 아침에 딱 나오면서. 눈에다가는 이
색깔을 칠하고, 입에다가는 이색깔을 칠한 다음에. 이런 옷을 입으면 굉장히 내가 예
뻐보일꺼야. 이라고 나왔는데. 어, 제가 이걸 고른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것, 혹은 나에게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것, 뭐 그런 것들. 편견
이나 오해일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거에 일격을 당한 다음에야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게 민주시민교육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것을 _____.

주선희 :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주선희
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골랐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아 맛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이런걸 보면, 아 맛있겠다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어떤, 맛이 딱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레몬은 레몬 나뭇대로의 맛
과, 크림은 크림 나뭇대로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섞어서 먹을 때는 그 두가
지가 잘 섞여 조화로운 맛이 나는. 그런게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희숙 :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교육위원장으로 있는 임희숙입
니다. 저는 이 그림을 선택했어요. 우선 뭐가 먼저 눈에 띄시나요? 안경입니까
_____입니까.

다갈이: 안경이요.

임희숙 : 아 안경이요, 저는 눈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
시민교육은 이렇게 아름다운 눈으로, 때로는 호기심으로, 때로는 의혹에 차서 시선을

던질 것. 그리고 그 시선을 던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나누면서 something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이 : 안녕하세요 광명 YMCA에서 일하고 있구요. 이름은 이영이입니다. _____ 저는 이 그림을 선택을 했는데, 조금전에 먹는거 선택하신분이 저기 또 한분 계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이유에서, 방금전에 저녁밥을 푸짐하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먹는거를 골라봤습니다. 그 이게 볶음밥인데요. 볶음밥의 각 재료들이 한 그릇 속에 담겨져 있을 때 그것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지. 그런 것들이 각 재료들이 애초에 자기 맛을 버리고 새로운 맛으로 변신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현주 : 안녕하세요,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는 강현주라고 합니다.

아까 어떤 한분이 자동차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_____ 저는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고,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는데 올해 봄에 박사과정에 공부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구요, 어, 그래서.. 반갑습니다.

사회자 : 지금 이 민주시민교육이란 어떤것인가에 대한 것에는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멀리서 오신 또 가까이서 오신 몇몇 분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저 멀리 광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주전승선생님이신데, 잠깐 얼굴좀 뵙죠.

김전승 : 반갑습니다. 흥사단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간을 냈습니다. 함께 앞으로 많은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 그다음에, 경실련에 제합니다. 김태현 선생님...

김태현 : 예, 저는 경실련에서 미디어 강습 교육을 맡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서 어떤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잘 몰라서 또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그다음에..._____

김미란 :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사회아카데미 전직간사로 있던 김미란이구요, 지금은 아직 아이 육아 휴직이 안끝나서 아직 복직은 안했습니다. 만나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사회자 : 예, 반갑구요, 아직 인사를 제대로 못하신 두분이 계신데, 한분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전부다 적으시느라고 바쁘시고 또 한분은 저기서 지금 저걸 찍느라고 바쁘신데 이 두분다 서울대학교에서 평생교육 전공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이것으로 인사하는 과정을 마치고 본게임으로 후딱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두 번째 시간에 _____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연구계획 논의.

한승희 : 이방이 작아서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들리겠지만요, 저희가 오늘 하는 것들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경험들이구요, 저희가 나누는 얘기 하나하나가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의 본질과 비전과 문제와 가능성과 한계와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내는 _____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마이크를 쓰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만나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승희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얼마전에 일차레 미팅을 가지면서 만났던 분들도 계시구요.

일단 그..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아, 우린 학번사회니까. 80학번입니다. 그래서 마흔을 갓 넘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만으로 마흔을 넘을 때의 심정이 참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확산적 사고를 하고 뛰어다니고 그랬다면 이제는 인생을 딱 보니까 반쯤 산 것 같아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 이제는 좀 수렴적 사고를 하고 수렴적으로 살면서 정리를 좀 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84년도에 중학교 교사를 한 _____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그때 같이 다녔고,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고, 그때 대학원 다닐때는 교육사회학 쪽을 했습니다. 박사, 그 석사과정 끝나고 나서는 서울기계공고에서 삼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가기전에 89년도에 저희 전교조가 결성됐고, 그이전에 민교육, 전교육때 같이 활동을 했었고, 또 _____에서 중등교사 모임할 때 같이 했었고, 그래서 _____ 그런 분들 계속 왕래를 하고 있구요. 미국에 가서도 사실 전교조를 하면서 저희가 쌓아왔던 경험들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었고. 과연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발견한 말이 이 'popular education'이라는 거였어요. 우리말로 민중교육인데 외국에서의 popular education은 주로 _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사회교육 쪽에서 학교보다는 성인교육, 노동교육 시민교육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쓰여지는 개념인 것 같고, 그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관련된 공부들을 쭉 하고 있구요. 제작년에 모교에 있었습니다만, 매일정제하고 일을 같이 하게 되는 바람에 사상검증을 받는, 그러니까 이제 신자유

주의자가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원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에서 이런일을 같이 하게 되서 참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선생님들을 모신 이유는 잠깐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 사업의 취지는 조사 연구입니다. 기초 조사 연구. 대개 이제 기본, 보통 학자들이 얘기할 때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연구 대상이 있고 연구 주체가 있고. 말하자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대상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게 민중교육에서 쓰는 방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말하자면 민중이 주체고, 그들의 생각이 주체고, 행동이 주체고, 모든 경험의 주체들이기 때문에 외부자로서 들어가는 현상을 제대로 볼수 없다. 민중의 살아있는 모습들 속에서 그들이 참여해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구다. 이런 개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연구 라고 하는데,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경험을 축적하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사실 연구의 agenda도 설정하고, 그다음에 다시 분석도 들어가고, 또 그 과정에서 해결점도 모색하는 이런종류의 집단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일차적인 하나의 workshop이 오늘 모임이 되겠는데요, 일단 이 자리에는 저희와 구체적인 연구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이 계시구요. 공동연구자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그다음에 또 별도로 초빙된 분들은 참여연구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별 구분은 없어요. 공동연구자라고 불리는 분들은 이 전체를 책임지고 끌어 나가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함께 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현실속에 처한 문제들을 함께 분석하는데 지각을 함께 해주실 분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백지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기존의 시민교육프로그램같은 경우는 수차, 민주시민교육이란 뭐다 이런걸 읽고서 하셨을꺼고, 나름대로 잠정적인 definition을 가지고 제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자리에는 노동단체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시민 포럼같은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 ___베이스로 해서 우리는 일단 처음에 아주 작은 것,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규정하고 시작한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다시한번 의문을 제기해본다. 그런의미에서 단계별로, 과연, 민주시민교육의 이 전체적인 본질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인데요. 뭐 말은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만, 골치아플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만나서 즐겁게 인사 나누시고, 경험 나누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느낀점들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시너지가 나타나면 또 새로운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그래서 그룹토의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과정에서 저희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기록을 할 겁니다. 1차 기록이 끝나고 나면,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이 생기겠죠. 그걸 가지고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컨택을 해서 그 문제를 더 명확히 하고 이런방식으로 정리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요, 지금이 인제 7시 한 40분경 됐는데요. 지금부터 약 한시간정도. 전체토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민주시민교육은 필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설정해야되겠느냐 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에 합의를 해야 그다음 단계의 논의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금 우리가 practise 한 것과 비슷한 경우데요. 어 우리가 잠정적으로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명료화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구요, 그다음에 8시 반부터 열시까지 두 시간 반동안은 저희가 그룹을 셋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세덩어리로. 하나는.

일단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에 보시면, 12페이지를 보겠는데요. 12페이지에 요구분석팀, 교육방법팀, 거시전략팀. 이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요구분석팀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학습자의 입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사람들은 왜 오는 것이며, 어떤 교육을 원할 것이며, 또 어떤 방식의 교육방법을 원할 것인지. 혹은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면 적어도 학습자의 입장에서 봤을때에 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했는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를 일단 분석하고. 여기서 요구분석이 분명 배우는 사람 뿐만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도 _____할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경실련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면, 왜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려고 하는지, 결국 이 두가지가 만나게 교육의 수행(?)이니깐요. 어떻게 이 두개가 만나서 교육의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얘길 좀 해보구요.

그다음, 교육 방법팀은. 프로그램의 내용에 걸맞는 방법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방법들을 쓰고 있는지.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겁니다.

세 번째는 거시전략팀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팀은 그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환경이 있을겁니다. 법테두리 환경, 또는 사회역사적인 흐름이라든지 혹은 기관대 기관이 연계된 _____이라든지, 이런것들에 대해서 좀더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그 안에서, 만약에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함께 모여서 A, B, C 팀이 발표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총체적인 그림을 모자이크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자이크가 끝나고 나면, 음방 확인되는건 뭐냐하면, 빵구난 부분이 있을겁니다. 뭐 40개 조각맞추기, 그림맞추기 이런걸 하다보면, 어딘가 그림 하나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이 발견되는 것처럼. 저희가 얘기를 해 놓고 나면 거기에서.. 어.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지기 위해서 반드시 빠진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 라는게 확인이 되겠죠.

이런 사이클을 오늘밤 한번 돌고 나면, 다음달 계획서는 이제 다른날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연락될 수도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피드백하면서 보충해가는 과정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전히 또 마찬가지로 제가 딱딱하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버릇 개뿔준다는데 바로 이겁니다. 재밌게 말을 못하는 저의 한계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제가 사회를 보면 안되는데.. 고선생님 계속 하실래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으니까. 그러면 사회를 좀 보세요. 지금부터 한 여덟시 반까지, 기본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은 이렇게 봐야 된다. 라는 것에 주안점을 뒀서 개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길 할텐데요. 아까 노동팀이 따로 여기서 모이셨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던진 질문이 뭐였나하면 노동교육과 시민교육은 많이 다릅니까. 그다음에 노동교육을 성공적으로 하면 그자체가 시민교육을 성공적으로 했다는게 _____합니까. 그런 질문들을 드렸거든요. 말하자면 이안에는 노동, 시민이라는 다른 영역이 존재하고, 이 안에 환경, 여성 분야별로 다양한 분들도 계시구요. 또 국가에서 경영하는 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NGO단체에서 오신분들도 계시고 다양성이 오늘의 대화의 활력소가 될꺼다. 그런 생각이 드는거죠. 그럼 저는 계속해서 선생님들 말씀하시는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1. 옴니버스트론 2002. 9. 17 20:00-23:00

1.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에 대한 참가자 토론

사회자 : 여덟시 반까지 개념과 정체성에 대해서 사회를 맡은 고상한남자 준수한 남자 고상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앉아계신 구조가 상당히 전체가 얘기하기에는 조금 불리한 구조라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좀더 넓어야 되는데, 이팀이 뒤로 좀 가서 이렇게 넓혔으면 좋겠는데 그럼 ... 일자로 해도 상당히 좁아보이죠. 협소해서.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앉아계신 자리에서 두명에서 세명정도씩 짝을 지으십시오. 아무나 좋습니다. 글쓰는 사람하고 짝짓기 하지 마시고. 글쓰는 사람 빼고 두명에서 세명정도씩 짝을 지으시구요. 한 3분에서 5분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뭐냐하면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자 그거거든요. 지금부터 가능하면 좀 펜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하시다가도 가능하면 펜을 드시구요. 지금부터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주옥같은 아이디어나 그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을 기초조사하는 이 단계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재삼 재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대화가 나오는지, 두분에서 혹은 세분에서 이야기하시면서 나온것들을 _____ 하신다 생각하고 편안히 적어내십시오. 혹시 종이가 필요하시면 저쪽에 가면 무척이나 많은 종이들이 다양한 종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깐. 펜도 있구요 그러니까, 3분에서 5분정도 시간을 드릴테니까. 두분에서든 세분에서든. 그냥 우선.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정체성. 내가 아까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었다 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숙제 내는게 아니구요 우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두분이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쓰시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가지 말구요. 그냥 두사람이. 어차피 혼자

선 얘기를 못하거든요. 두분이 얘기하시면서, 아까 내 그림에 비추어봤을때 이렇게 말을 만들면 되겠더라. 편하게.. 아까 그림을 보셨으니까.(판독불가)... 30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그만할게요.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것이 어쨌든. 어떤 정답을 찾아내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잠깐 섞어보겠습니다. 여기 세분 일어나시구요, 오른쪽에 계신 세분 일어나시구요. 이 세분은 일루 가시고, 세분은 저리로 가시구요. 자 짝바꾸기입니다. 자리를 바꿔 앉겠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앉아서. 이번에는 모르는 사람하고 만났죠? 역시 3분에서 5분정도 시간을 드리겠는데 이번엔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뭘 할꺼냐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걸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걸 이야기하시면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효율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선 두분에서 세분정도만 짝지셔야 되는데 네분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분이 함께 하시면 효율성이 약간 떨어져요. 세분이나 두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대충 이걸 아니다. 아닌걸 걸러내기는 제가 30초에서 1분만 더 드릴게요. 자 이제 정리해 보시고 제 얘기좀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잠시후에 자리 배치를 좀 바꾼 다음에 모두가 다 얼굴 볼수 있는 배치에서 각자 자기가 이야기 할껍니다. 내가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정체성은 이거다. 설명할텐데 가능하면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봤던것이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옆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소개할때, 내가 보았던 민주시민교육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등등,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주제는 환경이었다. 미디어였다. 청소년이었다. 뭐였다. 등등등. 아주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 정체성을 그려주시고, 개념을 정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잠시 시간을 드리고 그 후에 모두가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구조로 앉아

서, 한사람한사람씩, 한분한분씩. 자기가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을 정의해주시고. 정체성을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이런것들을 나는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혹은 지금 방금 했던것처럼, 이런이런 것들은 민주시민교육적이지 않은 구조다 등등 이렇게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는 동안에 중앙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오시구요. ... 딱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을 차근차근 천천히 한번 적어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설명하시거나 소개하실 때 누군가가 자기랑 겹치는 것이 있을겁니다. 그때 — 선생님이랑 의견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누구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한번 정확하게 각자가 생각하시는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고 제시죠? 시작할까요? 좀 더 시간 드릴까요?

먼저 시작하실분을 제가 임의로 지적하겠습니다. 김미란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서 들께요. 김미란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드릴까요.

김미란 : 저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 일단 시민성이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나구요. 이러한 시민성은 사회구조원으로서의 그 관계속에서 발생하는 것 같고 주로는 권리와 의식에 관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수 있을까요?

김미란 : 일단, 예로 하기 참 어려운데,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어떤 관계에서든 놓여지는거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나라는 주제 외로 벗어나면 사회가 되는거고, 학교가 되는거고 뭐 이런

나 이외에 가정을 벗어난, 그렇게 됐을때. 어떤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의식의 총체가 될 수도 있겠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수 있는 변별력 이런것도 포함될 것 같은데 너무 말을 많이하면 다른 사람이 겹치게 될 것 같아요.

은영준 : 충분히 옛날의 기억이 나도록 제 생각을 정리를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결국 생각이 짧으니까 정리를 할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그 일단. 사람이 사는 이 한 곳이, 장소가 상당한 혼란속에 있다고 생각할 때 민주시민교육을 아마 인간답게 살기 위한 질서잡기의 지나온 과정들,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민주시민교육이 아닌 것은 무엇이나. 결국 아무리 좋아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요되는 것들은 절대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없다. 봐라, 좋지 않나. 이런건 필요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전 이것이 구체적인 사례를 세밀히 묘사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터전이나 관계속에서 결국은 책임질 수 있는 자치의 문제가 아닌가. 자치를 할 수 있는 훈련, 이런것들이 결국 민주시민교육이 얘기하는 본질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짧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영이 :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민주시민교육은 일단 지속적으로 자기변화와 성장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보구요. 그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은 과정중심의 교육이 되어야지 결과중심이 되서는 안된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가장. 그 이 교육의 실천과정으로부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삶의 일상적, 그 속에서 어떤 매개들을 잡아서 민주시민교육으로 연결시킬것인가 하는것들이 중요하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소모임들이 있는데 그 소모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데 그 영향이라는 것이 어떤 강사를 불러다가 하는 그런식의 모임이 아니구요, 자기들의 어떤 삶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가다보면 어느순간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가 놀라는.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그 과정이, 그 체험의 과정이 민주 시민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성한 : 저는, 교육을 받는 수강자들이 교육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는 그런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은 북한문화 사랑방모임이라는걸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자유주민들이 북한의 생활, 문화, 습관, 풍습 이런거를 얘기하는데, 기존의 자유주민들이 와가지고 강의하게 되면 한시간 또는 한시간 반동안 우리체제가 훨씬더 낫고 북한체제가 훨씬더 못하고, 북한은 아주 피폐하고 어렵고, 이런 내용을 짚 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내용은 거의다 경찰청이라든가 국정원쪽에서 많이 강의를 하고 있고 이게 대규모 강의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교육인데, 저희들은 그건 별 교육의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북한문화사랑방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인가 하면 이런겁니다. 소규모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를 들면, 초, 중, 고, 대학교 한 학급만, 그사람들을 대상으로 미리 질문을 모으는겁니다. 북한 문화, 생활, 습관. 우리 또래 사람들은 어떤생각을 하고 있는지. 북한 사람들이 미리 두세사람 짝을 지어서 ___을 통해서 질문을 모으고, 모은거를 갖다 놓고 강사를 소개합니다. 이사람은 북한에서 뭘 했었고. 언제 내려왔고. 지금 뭐하고 있고. 직업은 뭐 었습니다. 간단한 정보만 주고. 미리 모아놓은 그 질문을 가지고 두세명에게 질문을 던지면 질문에 대한것만 바로 답을 해주는 방식인데. 한시간 또는 한시간 반동안 진행했을 경우에 그 교육에 대해서 좋거나 관심없어 하는 사람이 없다는걸 발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사가 얘기했을때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강사가 계속 즐즐이 얘기하게 되지만, 이런 교육은 내가 궁금해 하는 것, 내가 알고 싶은 것, 바로 그것을 내가 직접 적어내고 강사에게 직접 듣기 때문에 귀를 쫑끗 세우고 하는걸 들어보았고. 한시간이지만 계속 질문이 터져나왔을 때, 저는 수강생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강요된 답을 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강생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궁금해 하는 것, 그 사람들의 need를 잘파악해서 전

달해 주는 것, 그것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재학 : 좀전에 말씀하신 북한문화사랑방이라는 것을 ___활동가들을 양성해본적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효과성이 높은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사족을 한마디 덧붙이구요. 민주시민교육. 개념 규정이 잘 안되는데요. 전문적인 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규정하는데 굉장히 많이 부담이 가는데. 저는 주로 방법적인 측면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___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개념규정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말그대로 민주시민교육을 풀어보면은 민주주의 사회에 어떤 운영원리가 있다고 하거든요.그걸 자유와 평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기초해서 시민들을 교육하는게 민주시민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구요. 일반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꼭 그런 의미로만 쓰여지는 것은 아닐걸로 보여지고 있고. 어쨌거나 사회운영적인 측면이나 이데올로기 적인 측면에서는 좀 구분해서 봐야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구요. 약간 이제 좀, 시건방일수도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 내부적으로는 이제 민주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의 자각이나 어떤 권리, 이런걸 중심으로 한. 이런. 교육이라고 보는 편이구요. 약간 그런. 그 꼭 대비는 아니고.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런 자유와 평등이라는거 말고 박애라고도 표현할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표현할수도 있는데. 그런 요소들이 사회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이데올로기나 운영원리로서 되는 사회가 바뀐 사회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말은 안될지 모르지만, 공동체 시민교육이다 이런 말도 써보는데, 그런 것이 좀 혼재되어 있어서. 저도 현재 헛갈리는데 좀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어떤 것이 개념이 맞다. 이런 말씀은 아니구요. 이상입니다.

주은경 : 안녕하세요. 저 늦게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공회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은경이라고 하구요. 저는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했을때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공공성의 가치를 스스로 느끼고, 사고하고, 성찰하고,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사는 사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한 이해. 관계에 대한 이해. 거기서 인제 연대가 나오고, 사고 존중이 나오고, 교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어떤 공공성과 더불어 함께 살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민주시민교육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혜경 : 저는 민주시민교육. 이라는 이 단어중에서 민주라는 부분에 좀 방점이 찍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구요. 그래서 민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교육인 거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관철되는 사회. 다수가 존중되는 사회. 이런부분을 지향하는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점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법이라든지 민주적이지 않은 다수가 존중되지 못하는 법. 제도 이런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각종 교육 부분들. 그 다음에 현사회를 비민주적이지 않은 요소들을 발견해내도록 하는 교육. 이런부분, 또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의 민주성,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는 교육. 이런 영역들이 민주시민 교육이 아닐까 하는생각들이 들구요. 그렇게 진행이 될려면 방법적인 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여적이고, 이런부분들이 녹아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희숙 : 저는 옆에서 하신 분 말씀에 덧붙여서 시민교육자체에 민주화가 기본으로 깔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구요. 개념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시민일반을 주제와 대상에 따라서 세분화하고 그 세분화한 각각의 적합한 내용과 방법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교육이다. 그렇게 개념규정을 해봤구요. 정체성을 생각해볼때에 우선. 획일적이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것은 배제하면서, 참여는 참여지만, 참여도 소극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연대를 만드는데 그 연대를 만드는 것 뿐이 아니라 그가운데 만족과 기여, 각각 이바지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시민교육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홍진관 : 제가 생각한 민주시민교육이란, 보통사람들의 공동체속에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자각하고 성숙되도록 하는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다수에 의한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구요. 말이나 구호가 아닌 그 내용,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서도 예전에 반공교육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던 것들이 요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그 실제 내용이나 이런것들은 많이 변화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관변단체들이 학교에서 하는 즐짓기라든가. 이런 공모라든가 이런건데. 그러한 것들, 말이나 구호가 아닌. 내용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이런것들이 민주적이어야 민주시민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선혜 : 저는 간단한 예와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아이들과 함께 7일동안 제주도에 환경탐사를 간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비가 많이오던, 태풍이 엄청나게 불던 날이었는데, 그날 사실은 성산일출봉을 가고 ___를 가기로 했다가, 위험하다고 해서 거기를 가지 않고 원래 하기로 했던 일정중에 몇가지를 하지 못하고, 도보로 걷는 일정을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그 도보로, 걸어야 할것인가 아니면 그냥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야 할것인가를 아이들과, 전체, 그 토론이라고 하면 좀 그럴수도 있지만, 전체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또래들의 아이들이었는데, 반대를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그냥 아이 안가요. 이게 아니라 왜 내가 비싼 돈을 내고 와서 거기에 정말 가기 싫은데 비를 맞고, 비웃은 물론 있지만, 비웃입는 의미가 거의 없거든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거기를 가야하나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몇몇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한 10킬로 좀 못되는 거리를 숙소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제가 얘기를 일방적으로 전달을 한거죠. 우리 그렇게 오늘 가야해. 그렇게 얘

기를 했더니 왜 거길 가야하나고 강하게 반발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애네들을 그냥 데리고 갈뿐가. 아니면 무조건 그냥 걸어. 그렇게 얘기를 할뿐가에 대해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걸자고 생각하는 사람과 숙소로 그냥 돌아 가자고, 가서 쉬자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유를 각자한번 얘기를 해보자. 인제 얘기를. 애들이 뭐. 한. 4 일이상 같이 지낸 아이들이기 때문에 전체 한 아홉명, 열명이 한 모듬이고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은 잘 되고 있는 상태여서 편하게 얘기들을 막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결론을 내리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럼 한번 걸어보자. 어쨌든 결론은. 불만이 있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고, 걷고, 그리고 돌아와서 원래보다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인제 모여서, 걷지 않으려고 했던 아이들만 대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전의 마음과 걸은 후의 느낌과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게 그런거였어요. 아이들이 본인들이 직접 그걸 하고 그것을 느낀것과. 생각이나 아니면 부딪혀보기전에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 민주시민교육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끝, 내가 결정해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는 변화과정을 스스로 느끼는 것.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방법은 좀 다양할수 있고 방법은 뭐 사실 일방적인 전달이라 할지라도. 다양성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주체성을, 주체성이나 다양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거의 같은 예로 아까 말씀드린...

참여자중심의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민주적인, 민주주의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인식과 실천을 통일시키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시민사회교육은 내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사회를 보는 안목을 시각을 좀 길러주는. 길러주면서 어떤 갈등이라던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해

결해 나갈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공식적인, 공공적인 측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민주시민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는게 노동조합 간부교육과 같이 하는 시간이 많은데. 대부분의 교육들이 주입식교육, 일방적으로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다가 요 근래에 들어서 참여식 교육 기법이 다양하게 도입이 됐는데 그 시간중에 찬반토론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찬반토론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노동조합 간부라고 하면 굉장한.. 어떤.. 대개 관점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찬반토론속에서 지켜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토론문화라는게 굉장히 좀. 익숙치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노동조합간부라면 최소한 회의라는지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토론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구요. 그래서 그런 해결 능력을 좀 키워주는게 민주시민교육이 둘째라고 생각을 하구요.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거는. 또 예를 들면 상대방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지침들. 그런것들이 가장 저는 비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것들이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선애 : 저는 그냥, 시민교육이 사실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시민교육이라고 했을때 우리가 관습적으로 생각해왔고, 보고 왔고, 이런것들하고 차별화 하기 위해서. 민주라고 하는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관을 앞에다 갖다 붙인게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어쨌든. 시민교육을 시민만들기 교육일텐데.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기가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지니고 사는 것이 공공선을 위해서 좋은건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거는.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이해관계가 다르고 나와 처지가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존중하고 좋아하고 서로 맞추면서 살

천가 하는거를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청소년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기초조사를 하던 과정에, 아 이게 청소년 교육하고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교육이 다를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청소년들이 자기네들끼리 막떠드는 데서는 뭐 왜 두발을 제한하느냐 막 웅성웅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이자 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자기네들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네의 적이에요. 선생님도 적이고, 시민단체사람들도 적이고, 뭐 자기네들 이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하여튼, 그 자기 주장만 옳은거고 그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잃고 놓치면서 자기네들끼리의 운동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걸 보면서 청소년운동이라고 하는 것, 청소년 교육이라고 하는것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청소년의 존재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 너네가 어떤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다 이런걸 알려주는게 아니라, 다른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그걸 극복해야되거나 뭐. 나와 이렇게, 뭐. 이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런거를 인식하게 만드는게 시민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제가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습득하는 지식이나 정보는 이제 살면서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사회인으로서의 인식을 갖게 해주는 것(?) 그 속에서의 자신의 어떤 가치나 어떤 행동양식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 사실 이런 것을 지식이나 학교 교과과정을 통해서 다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것을 제공해주는, 기준과 방향들을 모색할수 있게끔 그런것들을 제공해주는게 가장 중요한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서울에 있는 30개정도의 중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가장 큰 것은 결국 민주시민교육에서의 결합해야될 부분들은 본인이 생활속에서 변화를 체득해나가고, 그것이 생활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

면 그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단적인 것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한다든가.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커리큘럼이라든가 강의식의, 이론식의 접근이라든가. 들으면 아 유용한 것같다라고 할수 있지만 그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지식적인것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생활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저희 미디어라는 것이 생활에 가장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이들이 그것조차도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식으로 방법을 취하나 하면, 본인이 미디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과 다 단절시켜서, 그거외에 미디어를 접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생활이 무엇일까. 경험해 보게 해요. 그러다 보면, 저도 제 스스로가 놀랄정도로 전화부터 시작을 해서 미디어와 단절되어 있는 생활이라는 것을 한번도 경험해본적이 없고 끄꺾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이외의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 내가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아무 생각없이 접해 왔었던, 그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받아왔던 것이 어떤것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무절제하게 사용했던 것은 어떤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것과 마찬가지로 그런식의 어떤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생활, 내가 어떻게 살아야하는 것인가를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주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은로 : 민주시민교육 참 어렵네요. 방법론에서 참여교육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노동교육에서도 참여교육이 방법이 유행을 해가지고 저희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 토론이나 발표를 할때에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우거지상을 지으셨는지 이해가 참... 저는 이게 학문적으로 엄밀히 정의를 내릴려고 하는 그런자리는 아닌 것 같구요. 아까 짧은 토론과정에서 저는 좀 몽매함을 깨우친것의 하나가 저는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이 성인교육, 사회교육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토론과정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사회성원 모두, 그러니까 청소년에서 청소년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사회성원 모두에 대한 교육이 되는 것 같구요. 대상면에서는. 그럼 내용면에서 볼때 저도 주체성이라는 측면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회의 주체인 시민이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를 민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일깨우는 인식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 민주적이라는 것을 다시 정의 내려야지 이게 제대로 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례로 노동교육이 당연히 민주시민교육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노동자를 자기 존재속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안에서 처지를 인식하고 그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주체적으로 변화시켜 갈, 그러니까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처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대립관계. 이런부분들에 대한 인식하면서 그 현실을 변화시켜 갈수 있도록, 그 인식의 변화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약간 민감할수도 있고 무거울수도 있는 얘기를 잠깐 드리면, 한승희선생님께서 아까 노동부분 모임에서 노동교육 과정에서 민주시민성이 재고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저희한테 던지셨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간 말이 부차적, 부수적으로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점이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를 민주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했을때 민주주의란 문제는 민주주의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데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유럽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그런 민주적이라는 개념 자체로부터 복잡한 문제가 파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시민교육안에 계급적 사상적 입지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점에서 자유민주주의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는 면의 교육들이 지금까지 변창하고 있는 교육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부딪힌 문제는 그런문제보다는 이제 크고작게 나타나는 계급운동과 시민운동간의 갈등, 그런것들이 이제 교육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내용적으로나 부딪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생각이 듭니다.

고상준 : 예, 여기 앉아 계신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말씀하셨구요 저도 한 구성원으로 제 개인의 이야기를 드리고 이 마이크를 한승희선생님께 넘기는게 나올 것 같아서 저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이란 성숙한 시민을 만드는 교육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시민이란 자기가 속해있는 공동체, 그것이 무엇이든 가족이든 학교든 사회든 직장이든 거기에서, 공동의 사안에 대해서 함께 결정내릴 수 있는, 능력과 의무를 다한다면 성숙한 시민이라고 보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몇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절대로 강요되어서는 안된다는거죠. 그 강요가 의도된대로 교육이 흘러가게끔 모든 것을 다 강요하고,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계산된, 민주적인 것으로 보이는 방법의 사용조차도 금해져야 한다고 보구요. 그래서 의도된 바로, 의도된대로 이끌어내는 모든 교육은 민주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구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본다면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 조차도 민주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모두가 생각하고 나머지 ___로 그것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서로가 각자의 자기입장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관철시킬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구요.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조건이 되겠는데 결국 이 교육을 받은 후에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행동변화를 지향하는 그런 교육. 어떤 방식으로든 행동변화를 지향하는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세가지정도의 조건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의견을 다 모아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한승희 : 예, 한바퀴 쪽 도는데, 모르겠어요. 머릿속에서 많은 그 생각이 교차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름대로, 민주시민교육이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거나, 지향점이 있거나. 혹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거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죽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 자체를 말씀하고 계신다. 다른 교육과 구분이 안된다. 그거가지고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분명 차이점이 있긴 있을거에

요. 그죠? 어, 쪽 말씀하신것들이. 음.. 지속적인 자기 변화, 자립의 일상성, 고백, 학습자 주체성, 요즘엔 그냥 교육해도, 애들 학교교육도 말로는 아이들의 주체성, 그다음에 그들의 민주적인 시민의식 등등등을 말을 하거든요, 그랬을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또 다른 종류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아무거나 다 들어와도 좋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념도 여러 가지 다 포함해야 된다, 또 영역도 제각기 다르다, 아주 쉽게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각자 몸담고 있는 기관에 정직하게 그 조직의 발전과 이념의 전파를 위해서 교육활동을 하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지금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얘기하는게 아니냐. 라는 느낌도 사실 받아요. 근데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여태까지 말씀하신것들을 정리해보면 몇가지 특징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관변단체들은 배제한다는 말씀에서 NGO중심으로 간다는, 특히 민주'자를 붙인 시민교육은 그런 NGO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게 아니냐. 그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운동적인 요소들을 여기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개인 보다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더 뜻이 가있는게 아니냐. 또 하나 재밌는건 보통 사람이라는 말을 쓰신 분도 계시고, 직접적으로 계급이라고 말씀하신분들도 계신데 분명히 이것은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여기서 드러나는 것들은, 나름대로 보통사람, 일상적인 삶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특혜를 누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계급성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방법론쪽에서 대화와 참여에 관한 얘기가 쪽 나왔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게 뭔지는 규정이 안됐지만, 그것이 대전제가 되는 것 같고.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참 어렵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로 못한다 뿐이지. 이미 긴것과 아닌 것을 딱 구분하실수 있잖아요. 그렇게 또 실천을 하시고 제실꺼고. 조금더 분명히 하는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또 담론싸움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념투쟁이라던지,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운동성이라는 것에 힘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포

괄적인 의미에서 규정하는 것을 한단계 넘어서는 이 일이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중에 하나다. 라는 생각을,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터요, 사실 원래가지고 있던 안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팀을 나눌때 요구분 석팀이 있었는데 그걸 지우구요. 개념부분을 조금 더 한팀이 더 다뤄주셨으면 좋겠 어서 아예 질문을 세 개를 잡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민주시민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팀입니다. 이걸 개념팀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팀에서 답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교육을 어떻게 잘 할수 있습니까. 라는. 이게 두 번째 방법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그 중에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니까. 이게 전략팀에서 다뤄주실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세 개를 잡구요. 각각 관심있으신 곳에 join해 주시는데요. 모르시겠는 분들은 행사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매우 비민주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기다가 사인을 해주시구요. 자기 이름을 좀 써주시는데 뭐 쓰실꺼 없어요. 다시 만들면, 다시 1팀, 2팀, 3팀 이렇게 만들꺼니까. 거기에 저희 조원들이 골고루 배치가 될꺼구요. 가능하면 시민팀과 노동팀이 고루 잘 앉을수 있게 자리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시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옵미버스 토론 이후 발표

한승희 - 1팀

오늘한 얘기들이 정리가 되면 어떻게 모자이크가 되는지, 사실 이걸 오늘다 모자이크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하게 되면. 오늘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했구나 느끼실겁니다. 그러면, 1,2,3 이런순서대로 ... 결과 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사실 저희는 숫자는 제일 적고, 그랬는데 몇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질문이 뭐였냐 하면, 왜 사람들이 오는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고립되어 있다 혹은 무기력감을 느낀다. 그것을 위해서 연결고리를 찾는다. 그와 함께 연결, 삶을 확장 하는데 있어서 사회를 읽고 싶어 한다. 읽을수 있는 클루를 주고 관점을 줄수 있는 것들을 찾아간다. 말하자면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점을 만들어간다고 하는 두가지 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가운데서 그 관계, 그 사회를 읽는다고 할때에 새로운 가치를, 매뉴얼을 창출하고 퍼스펙트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창출해주는 방식이 다 다른거 같아요. 여기 세분이, 한분은 참여연대에 제시고 한분은 YMCA에 제시고, 한분은 노동조합쪽 교육을 담당하십니다. 이 세가지가, 컨텍스트가 매우 다른 세 기관인데. 참여연대같은 경우에는 오픈되서 교육을 하지만, 사람들이 와서 그 교육을 받고, 참여하는데 있어서 어떤 적극적인 조직화는 안한다. 일단 열려있는 상태다. 그리고 주로 하는 활동이 대중성을 가지고 활동한다.라는 컨텍스트구요. YMCA같은 경우는 생협이 예가된 건데, 작은 소모임들중에서 이걸 관리한다. 예를 들면 교육부의 그 교육파트 사람들을 지역단위로 이렇게 조직화하면서 이렇게 활동이 매우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 특성이 있구요. 노동조합같은 경우는 이미 그 자리에 온사람이 결정이 되니까, 이미 온사람들이 결정이 되니까 교육이 될 내용들도 이미 어느 정도는 구획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세가지 특징을 갖거든요. 그랬을때에 이제 이 value라고 하는것도. 참여연대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 하면, 누구를 닮고 싶어서 온다. 저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다. 같은 생각을 갖고 싶어서 온다. 박원순 변호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보다 더 가까이 그 장소에 다간다. 그죠? 그런종류의. 말하자면, 뭔가 사회적으로 띄워진 value를 쫓아가는 이런쪽의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반면에 YMCA같은 경우는 생활의 필요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작은 조직들을 하지만, 어떤 그것 자체가 어떤 띄워진것이라기 보다

는, 생활속에서 조금조금씩 구체화되가는,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된다. 노동조합같은 경우는 그런 value보다는 좀더 경제주의적인 것에 가깝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리고 획득할 수 있는 가치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 임금 이런 것에 더 포커스가 주어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누가 무엇을 요구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방식이 이게 확일적으로 하나로 답해질수는 없는거죠. 그리고,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활동의 특성, 성격,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식 등에 따라서 죄다 요구하는 방식들이 다르고 거기에 모인사람들의 색깔도 다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종류의 무슨, 뭐 어떤 강의를 듣고 싶어할 때, 강의를 들을때 일부러 참여연대를 찾아간다. 근데 동네에서 YMCA에서 지역Y가 하는 프로그램에는 절대 안간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구요, 그다음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그런 뭐 공개 강의야 들어보아야 뻔한거다. 혹은 뭐 그런 좋은거는 다른데서도 얻을 수 있다. 대신에 나는 내가 가서 불박이로 할수 있는 곳을 찾아간다. 이런 사람들도 있구요. 그다음에, 그런 허황된 가치들 보다는. 나는 조금이라도 정말 나에게 필요한것들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거구요. 그쵸? 이런종류의 굉장히 다양한 demander들이 존재한다는걸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진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요구를 한다 이런것들은 좀더, 나가봐야될 질문인 것 같구요. 저는 사실은 이 시민포럼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다 같은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두분마저 엄청나게 다르더라구요. 그리고 옆에서 보니까 좀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과장을 좀 했습니다만, 사실은 요구분석이라고 하는 그자체가 좀 어려운 일이구요. 또 어떤 ... 답이 주어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이답이다 라고 제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을 발견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자, 두 번째 팀.

고상준 - 2팀

어, 그런 식으로 보자면 그..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거길 왜 참여하십니까. 그건

그분들이 선택하시는거죠. 그런데 그렇게 학습자 내지는 수요자, 교육에 참가하는 학습자입장에서 보지 말고, 그걸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 저희는 이제 그런 쪽입니다. 진행하는 쪽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현재 실패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요구조사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매니아 그룹이 있다는거죠. 그래서 함께한 시민운동은 함께한 시민운동의 주제대로 매니아 그룹이 있고, 환경연합(?)은 환경연합에 맞는 매니아 그룹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교육을 찾아오는 수요층이 이미 만들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들에 의해서 선택되어집니다. 그 선택되어지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교육에서, 교육학에서 말하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론, 이 수준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민주시민'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이 가지는 프로그램 개발의 그 모토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요구조사와 요구수준 파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용개발이 되고, 다양한 교육기법이 갖춰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이되고 그래서 여기로 다시 돌아가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잘된 교육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어 요구조사를 할때 우리가. 그러면 몇사람에게 이렇게 요구조사 설문지를 돌리고 그대로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고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의 그 정도까지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면 기획자가 선택한다. 기획간사가 선택하고, 거기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단점이라면, 기획간사가, 기획간사의 역량만큼만 교육이 간다. 그사람이 기획한 의도대로만 교육이 가고. 그사람의 양만큼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편에서 기획팀을 만들어서 기획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기획팀대로 안하고 우리는 우리가 선택을 한거니까. 근데 그게 나쁜거냐.하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분도 나름대로 요구조사를 하고 오는데 어떤 식으로 요구조사를 하나하면, 몇가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교육,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에서 만난사람들을 통해서 요구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어떤 사람에게 묻지 않더라도 현재 내가 A란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에 B를 기획할때는 A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그걸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동안 했던 경험을 쭉 볼때, 안된 교육은 왜 안됐는가. 그래서 그걸 역으로 짚어가는거죠. 그게 잘된 교육이라면 이게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이미 나와있는 데이터를 놓고 그걸 조사를 하고 들어가구요. 아니면 매번, 이걸 이렇게 바꾸면, 저렇게 바꾸면 각자의 요소를 바꾸어 나가면 어떻게 교육이 바뀌어 지고, 교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걸 통해서 실험적으로 요구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통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한 것을 보자면, 그리고 그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하느냐고 했을때 굉장히 많은것들이 나왔거든요. 적절한 교육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든가. 그다음에 진행자의 질과 강사의 질이 만들어져야된다. 등등 이런것들이 쭉 있는데요. 이런것들은 여기 나와있는 교육쪽이나 교육학에서 말하는 프로그램개발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그래서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걸 갖다가 한가지정도 보여드리자면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 프로그램 전과정에 학습자가 참여한다. need파악, 기획, 진행, 평가, 후속프로그램까지 다 파악한다. 교육방법을 참여....의 요구에 의해서 좀 비슷한 쪽으로 가는걸 느끼실 겁니다. 수강생들이 커리큘럼작성에 참여한다. 프로그램 개발 전 과정에 학습자 참여 보장. 참여자 모두 말하기, 다 말하기. 다양한 참여식 교육 기반 개발. 결국 맨처음에 나왔던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이라는 것. 민주적 교육방법이란 결국은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요구분석이 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모든 과정에 다 학습자가 중심이 된다는 것, 학습자가 중심에 있다는 것, 그런 것이 잘된교육이라고 일단 보고. 이걸 역시 우리가 분석할 때도.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봐야지 어디 요구분석이 잘됐다면가. 그 기관의 특성에 맞다면가 하는게 아니라, 기관의 특성에 맞게 그 당시, 그 기획의도에 맞게 된 것은, 좀 정확히 아까 사용한걸 보자면, 하위의 목적이고. 그보다 더 큰 상위의 목적이란 민주적이고, 그것이 아까 우리가 되었던 용어를 좀 보자면 각자각자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지만, 어쨌든 민주성을 개발하고, 민주주의식이 있고, 혹은 시민성이 갖춰지고, 성숙한 시민의 모습으로 가는 어떤 전체의 모습이 이 모두에서 다 반영되고 나타나게 됐

을때 좋은 교육이다,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걸 보고. 향후 저희들은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요구 파악이나 분석에 있어서 그 민주시민교육에 걸맞는 어떤 그 요구 분석이 되고 있고 파악이 되고 있는가, 혹은 내용 개발도 지금 그런식으로 되어지고 있는가. 되고 있다면, 반영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다음엔 기법엔 뭐가 있는가. 그리고 그 검증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다시금 교육을 개발할 때 반영되고 있는가. 이런것들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어떤 큰 틀속에서 저희가 해 나간다면, 프로그램과 관련되서는. 남은 한 두달동안은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한승희 : 질문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그럼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따로 뭐 특징이 없는 것 같네요. 그죠? 그냥 교육 일반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죠?

2팀 정선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쪽 늘어놨더니 저기 학생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이건 그냥 교육에서 얘기하는것과 다를바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틀린건지 저희가 인제 이거를 토론을 했던것과 연결을 해서 보면은(?) 방법론에서 그 가치의 실현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교육이 뭐 환경(?)교육이다 그러면 이 일회용 컵을 쓰는데 있어서 문체제기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지요. 이 부분을 가장 절약해서 쓸수 있는 방법 뭐 자기이름을 써서 오늘 중에 한개씩만 사용을 하자라는 약속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전체 분위기 그다음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모든 방식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대로 그 과정속에 녹아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것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수 있rT는가. 저는 그 부분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팀 또 다른 여자분

그래서얘기한 것이 사실은 뭐 방법론적인면에서 보면 수요자 욕구조사 해야되고, 참여자 중심으로 해야되고, 누구나 다 하고 있는것이며 이게 인체 민주시민교육 이라고 얘기할때에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일의 가치, 이게 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다른교육과 구별되는 특징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쪽 하다보니까 굉장히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얘길 했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에 방법론에 해당하는 얘기가 거의 뭐. 3분의 2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가치에 대한 문제는 사실 왜 안했지? 우리가? 이라고 보니까. 이제 얘기하기를 우리도 분야마다 다르니까 그런 분야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할수 있는 얘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제빼고 방법 얘기아니었을까 하는 이렇게 얘기가 된거죠.

한승희 : 그경우에는 주제하고 방법이 이렇게 매치되는 것은 없나요? 어떤 분야에는 어떤 방법, 어떤분야에는 어떤 방법...

고상준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우리가 공동적으로 한가지, 너무나 단순하게 진행되어오는 과정중에서 하나 놓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냐하면요, 결국 저희 중간에 제시 분들이 아까한거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이 펼쳐면, 한분은 환경에 제시고 한분은 미디어에 제시고 ...어쨌건 시민교육쪽에 제시구요. 주민단체쪽에 제시고. 기독교 윤리와 하여튼 뭐 종교.쪽에 제시는데.. ..할것이 아니라 ...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될건 이런부분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거라고 아까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미 규정을 우선 정확히 하구요. 각 단체가, 환경, 청소년, 시민, 지방자치, 지역 그 외의 여러가지 분야에 있어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일단 그 틀에 맞는 것이 ... 필터기능을 한 다음에 필터링 되어서 선별된것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묶어내는 하나의 것이 되어만이 프로그램에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이나 그 어떤 바람직한 상을 만들어낼수 있지. 맨처음에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그 의미나 규정을 정확히 공유하지 않은채 분야만 이야기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민주시민교육이라면, 결국 그건 큰 틀의 교육일뿐이고, 그 교육에 있어선 이 이상이나 이 이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 특징적인 것들을 ..하긴 어려우니까 먼저 되야할 것들은 민주시민교육을 할때 환경교육은, 이런이런 것이다. 미디어 교육은 이런이런 것이다. 혹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 역으로 좀더 어떤 큰 틀거리는 정해줘야 나머지것들이 그 틀거리를 지나가면서 필터링되고 그, 어떤 모아져서 그들의 특성을 구별해낼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하면, 학습자중심성이 얘기됐잖아요. 그죠? 그거 자체가 무조건 받아들이는 성질의 것이냐. 교육이라는건 어차피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를 전제로한 일인데, 그리고 분명히 각각의 단체들은 이사람들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는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있구요. 그 목적이 달성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교육이 실패했느냐 아니냐를 가름이 되는데, 이부분속에서 학습자가 모든과정에 참여하고 그들을 끌어안는 것이 얼마만큼의 가능성과 한계를 가지느냐 말이죠.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선 논의가 된 것이 없나요?

고상준 : 논의는 되지 않았지만 이율배반적인 것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그것이 이율배반적인게 여기보자면 프로그램개발의 전과정에 학습자참여를 보장하자고 이렇게 기획하시는 분들이나 교육을 공급하시는 분들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러면 요구분석에 있어서 학습자들을 참여시키느냐.하면, 어. 참여시킵니다. 참여시키는 방법이, 참여시킵니다. 시키긴 시키는데 어떻게 하나 하면, 우선 그분이 가진 전문성을 필터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구요. 자기가 가진 전문성을 갖다가 필터로 사용하는거죠. 예를 환경련에서 하고 있는 어떤 교육에 대해서 비춰본다면, 직접제시니까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분이 지금하고 있는 교육중의 하나가 중월의 우리나라말기 라는 그런 프로
 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
 시민교육으로서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특징
 을 가지고있느냐하면, 아닙니다 저분 혼자 결정한겁니다. 저분 혼자 결정했는데, 저
 분혼자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교육을 계속해왔더니 환경교육은 굉
 장히 비싼돈을 들이고 가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했던 어떤 경우는 오십만원
 이 들었데요. 한번 참여하는데. 어떤건 오십만원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참여할 수가 없더라는거죠. 그래서 이분이 중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이 적게
 들고 할까. 그런데 이 요구는 본인이 생각한게 아니고 교육을 계속 진행하면서, 사람
 들은 많이 만나면서 가능하면 산교육, 싸다? 이게 아니고. 비용이 적게 드는 교육.
 두 번째는 접근성이 가능한 교육. 접근성이 용이한 교육을 찾아달라는 need가 굉장
 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걸 필터로 자기 경험을 사용해서 찾아 본거죠. 그래
 서 접근성이 있고, 비용이 적게들면서 환경교육에 가장 걸맞는 장소가 어디냐. 이걸
 갖다 계속해서 고민하는거죠. 그걸 고민하는 과정에서 중월이 거기에 맞다는걸 파악
 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1차 진행됐고, 1차 진행되고
 나서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이 와가지고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이번에 후반부에 또
 진행을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두 번째 똑같이 진행되요. 그런데 굉장
 히 많은 사람들이. 요구가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중급단계, 고급단계로 점점 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잘먹고 잘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경
 우에 있어서는 그 요구분석이 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전적으로 학습자의 요구에 대
 해서 그것만을, 마치 왜 우리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아. 출구조사식으로 현장에
 서 나오는걸 갖다 바로 반영하는게 아니구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모은다음에, 본인의
 전문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갖다가 총체적으로 사용해서 요구조사가 되어지
 고 있더라는거죠.

2팀 다른분

일단 좀 보완을 하자면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소비자 욕구조사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겠다고 느끼는 것, 가치있다고 느끼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런 상황(현실)이죠.

고맙습니다.

질문 : 저기 저는 질문시간이 뒤에있는줄 알고.. 아까 왜 오는가 발표하실때요. 노조쪽에서 오는 분들이 다른경우에 비해서 눈에 보이는 선택할수 있는 가치, 경제 주의적인 욕구로 온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런뜻은 아니셨겠지만

아니, 여기서 나온 얘기에요.

이은로 : 저도 그게 재테크강좌나 돈이 되는 경제 강의에 오는 욕구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생활적 관계나 연대.. 쯤 듣기에 거부해가지고. 정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동교육의 욕구 need는 그런게 아니라는거죠. 재테크나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는게..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

한승희 : 아. 그건 아니죠. 예. 표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정민승 - 3팀

저희는, 아, 마이크를 쓰니까 굉장히 크네요. 쓰지말고 얘기할까요. 그래도 되죠? 아.. 녹음 때문에.. 저희는 그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할때에, 그 어떤 외적인 조건, 환경, 사회적인 처지. 이렇게 어떤가 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습자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과정, 우

리가 아까 방법적인 차원에서 학습자의 주체성이 유지될수 있도록 하는 외적인 조건이 뭔가. 이걸 일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점차 이제 몸담고 있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실제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교육학적인하는것들이 몇가지가 나왔고, 민주시민교육단체기 때문에 좀더 주목해봐야 겠다 라고 하는 몇가지가 나왔는데. 사실 얘기를 굉장히 경험에 기초해서, 아주 절실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참 정리해서 얘기하면 안되는데. 라이브로 방송을 해야되는데. 하여간 그 뭐랄까 삭제틀.. 하면.

우선은 대개 환경조건을 이야기할 때 흔히 딱 생각을 할수 있는거는, 우리가 이걸 학습자 집단이라고 볼때, 학습자 입장에서 일단 기관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되겠고 그리고 물적인 조건이 좀 갖춰져야 될꺼고. 교육자가 교육을 잘 해야될꺼다. 그리고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체제가 되어 될꺼다.라는 공통점이 뽑아 질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것도 다 경험속에서 나왔던거를 여기에다 쓴거예요. 그러니까 진행한 방식이 얘기가 나온거를 요약해서 여기에다 쓰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틀로 나온건 아니고. 경험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다고 했던 부분들만 써논거예요. 훨씬더 다양한 이유가 있을수 있겠지만, 여기 이런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각각에 있어서도 그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느낀 문제는 예를 들면, 물적인 조건부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예로, 우아한 카페 노점상 실제로 시설이 잘 되어있는 기관에 가서 학습자가 학습할 경우에는 학습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대개는 이제 재정적인 문제로 노점상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 어떤 노점상..들은 너무 서럽다. 아무리 내용이 잘되었어도 평가부분에서 시설 이런면들이 많이 어려움에 접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구요. 그다음에 기관의 차원에서는 이제 기관장이 왜 문제가 되냐하면, 대개 이제 민주시민교육의 기관장들은 그전, 다른 영리기관 기관장들하곤 좀 다르잖아요. 거론데 실제로 교육자의 차원에서 갈등이 일어날수도 있다는거죠. 교육자가 학습자들을 어느정도 신뢰하느냐. 이거는 다 사람들마다 다르다는거예요. 그

러니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때 교육자가 예를 들면 청소년이다 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자 할때 교육자들이 자기가 청소년들은 신뢰...를 할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한다는거죠. 성인들에 대해서도 어느정도까지 학습자의 아까 여기서 얘기된것처럼 어느정도까지 학습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학습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다 이거예요. 이럴때 기관장의 어떤 학습자 자체에 대한, 학습자 중심권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일정하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점에서 그 교육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중의 하나가 아까 여기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을 좀더 얘기를 하면, 학습자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학습자중심을 인정해야된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습자가 판단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거죠. 그럴때 이 교육자가 학습자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정도를 가늠할수 있는 척도. 이런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하튼 이런 신뢰가 있다라고 했을때, 이런 기관장의 지원 이러한 것들이, 큰 영리집단에서, 비영리집단에서는, NGO나 이런경우에서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죠. 예산부분은 조금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원이 되어된다. 이런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었구요. 그것은, 조동, 민주노총같은 경우는 거부하는. 그것은 조직의 자생력을 떨어뜨릴수 있는 방식의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구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예산 지원과 기관장의 학습자에 대한 믿음, 학습자에 대한 교육자의 신뢰, 이런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되어되겠다. 그다음에 교육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교육자의 능력 부분에서 요구파악의 전문성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상상력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자의 전문성 그러면 교육요구분석을 잘한다거나 그냥 교육현실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짠다거나 ... 이런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기관의 지향성을 고려한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작용할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상상력이 현재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보고계셨어요. 대부분은 여

기에 동의하셨구요. 그래서 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는 교육자가 기본적인 자질에 이런 두가지 정도를 ...할수 있었고. 이런 교육자를 기
 본적으로 키워내는 시스템이 없다. 그게 현재 사회에 있어서 큰 문제다. 근데 그 시
 스템이 없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는거예요. 기본적
 으로 교육자를 키우려, 어떤 부분의 전문가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민주시민교육의 주기는 3
 년, 길어야.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난뒤에도 계속되는 프로그램은 굉장
 히 잘된 프로그램에 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지가 형성이
 되려면, 이정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정도 이런 지속성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런 교육자가 전문적인 영역으로는 커나가기 어
 려운 상황. 그리고 연계된 교육체계가 좀 없다는거. 실제로 어떤, 그 예를 들면 수준
 별, 내용별 연계가 되줘야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환경, 여성, 뭐 이런식으로 덩어리
 덩어리로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 덩어리가 아니고. 실제로 좀더 구체화 해서 사례
 는 예를들면 학교..에서도 윤리교육이나, 미술교육, 무슨교육, 무슨교육과 연결이 되
 듯이 사회의 ...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연계적인 요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다.
 그런 것이 일단 문제가 좀 된다는 ... 였고. 그래서 이 교육자들을 계속해서 키워
 내면서 이런 전문적인 능력을 키워줄수 있는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좀 확보가 되어
 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교육자들을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도근에는 조직적인 차
 원에서의 보수성이라든지, 교육자들 스스로의 감수성, 학습자들의 감수성을 개발하지
 않는 문제, 권위주의적인 문화 이런것들이 있다, 자성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많이 나왔
 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동조합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타이피스트 따로두는
 이런 케이스까지도 가끔 발견이 된다는거죠. 어떻게 보면, 저위에도 썼는데 자본의
 힘에, 빨리 돌아가고 어떤, 노동을 착취라고 주로 얘기하지만, 하여간 노동자를 관리
 하는 방식과 비교해보면 이런 교육집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얼마
 나 좀 치열하게 자기 능력을 키우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시민성의 영

역은 다른영역에 비해서 한단계 좀 떨어져 있는게 아니냐. 이런 풍토를 개선하는것 자체가 지금 사회적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얘기할 수가 있겠구요. 그다음에 학습자집단에서의 학습결과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인정이 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인제 뭐. 얘기가 아주 자세히 나왔던 부분은 아닌데, 예를 들면 교육상품을 좀더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브랜드 네임 같은것들을 교육 단위에서 좀 만들어 내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이제 좀 딱 이름만 들어도 아 이거 뭐구나 라는것들이 좀 많이 창출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것들이 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 그학습을 받으면 뭐. 어떤효과를 누릴수 있다. 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는 시스템이 되어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이벤트라던지 이런 경우에 ...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자기의 학습에 대해서 만족하고 충족한느 이런 꺾어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되고 있지 못한. 이런것도 좀 있지 않느냐. ...case, 이런 케이스들이 좀 좋은 케이스들이 얘기가 됐는데 현재 있어서 제언을 좀 드린다면..... 그래서 민주 시민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특수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차피 교육의 영역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자기 개인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것도 아닌데 그렇게 바보짓은 안된다는거예요. 그런점에서 지금 여기서 특수성이 뭐냐 하면, 실천과 결합이 되어있고. 그리고 자기의 인성적, 어떤 삶의 질..의 고양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인데, 사실 제일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 한번 딱 듣고 실천현장으로 갔을때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다는거죠.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 하나 본것처럼 하고 사회로 돌아가면 사회에서는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실천할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다라는거예요. 그랬을때 민주시민교육이라는게 일회적으로 들날 수 밖에 없고 일회적으로 끝나게 되다 보니까 풀이 좁고, 그렇게 풀이 좁다보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상황에 처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억압적인 사회분위기, 사회의 어떤 유지되는 방식이라든지 자체가 사회가 유지되는 방식이 교육이 유지

되는, 교육이 구성되고 제의되는 방식과 차별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은 아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얘기할때도 분명히 많은 분들이 실천에 있어서의 변화라고 얘길했는데 그 실천에 있어서의 변화를 이장면에서도 창출하지 못하고, 이장면에서도 창출하지 못한다는거죠. 그렇게 되면 일회적으로 끝나고, 일회적으로 끝난다면 현재 다른 멋있는 매스컴이나 이런 굉장히 근사한 곳에서의 어떤 교육을 따라갈수가 없다는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천적인, 그 연결고리, 이런것들을 만들어내고 이 안에서 실천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뭔가라는 것을 여기 교육자체내에서도, 실천장면에서 좀 찾아내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건, 실제로 학습자들의 조건이 열악하다는거죠. 이런 기관단위나 학습자단위가 압력집단화해야될 필요가 어느정도 있겠다. 예를들면 기부금세제혜택이 오십만원밖에, 상한선이 오십만원까지밖에 안되다라든가. 이런거는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유급휴가제, 실제로 시간이 없고, 교육을 받고 싶어도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돈이 없고 이런 사람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부분들을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연계해서 법적인 차원의 조건을 마련해준다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기의 어떤 좀 환경쪽에 열려있는 선택을 민주시민쪽으로 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였어요. 결국은 영세한 상황인데, 영세한 상황속에서 현재에 있어서는 어떤 교육에 있어서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의 최고 수준을 우선은 좀 마련해야될것이고. 이런 마케팅이나...압력집단을 통해서 현재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이 뭔가 이런걸 좀 만들어내고 사회적인조건과 기반의 조건, 그러니까 이쪽이 사회적인 시스템이라면, 기반의 조건과 학습자의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는 이런 시도들을 좀 하는 것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조건들이 개선될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3. 모자이크 및 전체 그림 추출

한승희 :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얘기를 좀 하실 시간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만 정리를 하고 여러분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관해서 함께 다뤄가는 그런시간을 할텐데요. 일단 민주시민교육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제 1차의 목적이고, 그안에서 물론 개인의 변화는 같이 따라가는거지만, 그것을 위해서 일단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게 한 축이라면, 또 하나는 무엇을 어떻게 바꿀것인가 하는 비전과 내용을 설정하는게 또 한축이 될것데요. 그래서, 개인의 변화라기 보다는 공동의 변화, 그래서 사회가 변화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도 그과정에서 지적되는 것이 뭐냐하면, 말따로 행동따로, 내용따로 실천따로, 이걸 안된다. 이걸 교육이 실패한거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현재 지금 프로그램이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이 느낄때, 담당자들이 느낄때 그 근거라고 하는것들이 대개가 반응이 좋았다. 만족해하더라. 웃고가더라 혹은 감동받았어. 그 정도.. 일차적으론 그정도지요. 이차적으로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냐, 근데 이 퍼센테이지는 즉시적으로는 굉장히 적을뿐더러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문제다. 라고 하는. 그 애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지금 성공한 프로그램이나 실패한 프로그램이나를 판단할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단 얘깁니다. 게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고하는 틀내에서 보면 대개 사람들, 전형적으로 강의 생각하는데, 실제로 강의를 원한데요. 저는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아니 연대를 원하고 새로운 가치를 원한다면 같이 가서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세시간 강의실에 앉아가시고, 두시간 강의실에 앉아가시고 그 지겨운 얘기를 듣냐말이죠. 저라면 절대 안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원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명망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데요. 왜그럴까요. 도데체. 이게 질문인데. 만약에 우리가 실천과 가치관, 연대가 필요하다면 이런강의 자체가 없어져야 되거나 그런 질문 드렸더니, 아니라고 막..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있는 교육 형태의 것들. 사람들이 오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약간의 뒷풀이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헤어지

는. 이런방식의 것들이 근본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냐. 오히려 그것보다는 다른 종류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시킬수 있나라는 생각이 훨씬더 많은데. 소위 우리가 교육이라는 이름 때문에, 교육담당자라는 이름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에 굳이 얽매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려봐요. 저도 아니라고 해야 밥벌어먹고 살 겠죠, 그죠? 혹시 그런 질문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아까 그랬어요, 내가 지역자 치에 관심이 있다면 지역자치에 관련된 단체에 소개를 해주고. 노동자 소개(?) 하듯이. 맺어주고. 그 안에서 서로 얘기하게 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하고 얼마든지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습득할수도 있을텐데 굳이 학교 형식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이유가 뭐냐. 이문제에 대해선 해답이 되어야 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이런 종류의 공식적인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조직내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하고, 이 둘이 얼마나 연계 성을 가지고 있는거냐. 이게 같이가는 종류의 것이냐 하는 질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나름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린거고.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 니다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질문거리들이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테이블앞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먼저잡은 사람이 입잡니다.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가능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상준 : 어, 제가 뜬금없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저 세 번째것 보면서 계속 생각나는 질문인데요. 지금 저기 보면 어떤 기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사회적 시스템. 이쪽 부분에 ...서 이야기 하고 있고, 기관이나 학습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이 결국 어떤 기관이나 학습자의 수준의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저런 나머지것들보다 국가적인 것, 사회적 것이 먼저 고려되어야되지 어떤 한 단체나 개인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될것 이..... 예를 들면 청소년교육이 있고. 시민교육적 청소년교육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도 다 마찬가지로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이 있고 민주시 민교육적환경교육이 있다는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해가 더 쉬우실텐데. 어떤 한 단체

에서 한 상근간사가 3년간 지속하지 못하더라도. 국가에서 어떤 시스템이 있구요. 국가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어떤 한 청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곳에서 3년이고 5년이고 계속해서 민주시민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 지역에서 사용할수 있는 교재를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내려보낸다면 그 상근간사가 바뀌어도 그 프로그램의 지속성은 유지가 되는거거든요. 민주시민교육이란 국가적차원에서 국가의 통치이념에 맞추어서 되는거죠. 예를들면 미국이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고 북한이 민주시민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통치이념에 민주주의가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그나라를 유지하는 골간에 민주성이 필요했던건데 우리나라도 역시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구조나 통치구조에 민주성이나 민주시민교육, 시민성이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그 교육을 하고 모든 것에다 그 교육을 붙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질문이...

내용이 매우 ...이 들을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시민교육이라는거에, 그리고 각 기관에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굳이 민주시민적인 환경교육이다. 민주시민적 청소년 교육이다, 이걸 굳이 강조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저는 그런생각이 들어요, 일단, 예를 들어서. 교육 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 학습자들과 만나는 과정 자체가 이미 교육으로서의 의미가 충분히 있는 일인데, 교육자가 아무런 생각없이 환경교육하겠어요. 아무런 생각없이 청소년 교육을 할건 아니라는거죠. 근데 민주시민교육이라는게 반드시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을 한다면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민주시민교육의 역사가 매우 뭐랄까 서구에서의 그런경우와 좀 다르게 정치적인 존속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비판이 핵심을 갖고 있는데 다시 전 국가적인 수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또 그런 잘못을 안을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고상준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는 민주시민교육의 여러 가지 형태와 갈래들을 종합하고 요약해나가고 장

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에 국가적인 시스템이 들어가야되는 부분은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개개의 교육의 자발성이나 이런 부분들이한 다음에 이것들이 요약되어서 집대성 되는 것과 전국각적인 차원에서 통치이념으로 짹짹 내려가는 것과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교육의 상들이 나올수 있을까. 전 그런건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봐요.

고상준 : 바라는 교육의 상을 좀만....

A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바라는 교육의 상이라는데. 저는, 어떤 교육장에서 어떤 교육적인 내용을 가지고. 학습자들과 어떻게 소통하는가를 바라는 것은 다 비슷할꺼라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고상준 : 그런데, 그 바라는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나

한승희 : 예, 여기서 짚어야되겠다.국장님, 본인이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다고 느껴세요?

정선애 : 저는... 핵심은 국가가 어떤 시스템을 뭐, 이게 아니고 앞에 인제 저희가 민주'자를 붙여가지고, 민주자를 붙이면서 사실 그 이전의 교육과 선이 그어지는 효과가 있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붙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개념의 혼란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중요한거는, 저는 제가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아까 그 필터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요소가 아닌가 싶은데. 첫째는 사회를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가치와 지향이 교

육내용에 담겨져 있느냐 아니냐. 이게 제일 결정적인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것들을 담고 있는가. 내용적으로나 방법적으로나. 어쨌든, 그런 큰..뭘 환경교육이든 미디어교육이든 분야별로야 여럿이 나누어지고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그 두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는가 아닌가 시민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시민만들기를 하고 있느냐.....

한승희 : 저 끝에 별로 말씀 안하신.. 한저레... 한말씀 좀. ..

B : 제가..인제..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가선생님께서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문제는하여간 이런방식이어서는 안된다는거고. 사실은 이제, 민주시민교육은 제가 보기에 정치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일반청소년교육에서의 환경교육이 있고, 민주시민교육 내용의 환경교육이 있고. 민주시민교육적인 청소년교육이 있다. 이런... 반드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 정치적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정치라고 하니깐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회의식과 역사의식과 시민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어떤 토론 내지는 참여자중심의 교육이 그런 것을 우리사회가 좀 발전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배려나 제도화가 필요한게 아니냐. 이런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것이 인제 특정기관에서 특정한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전 ...단체에 지칭 뭐 이런거 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권위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성과가 있을수가 없는거고. 그거는 훨씬더 민주시민교육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인제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그정도는 확보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형태의 민주시민교육이 재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지는 시스템은 우리사회에 필요한게 아니냐. 이런생각을 좀 하는편입니다.

C :

한마디만 잡고 넘어가면,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떤 시민을 만들려고 하는가. 하고 말하면 안될까요.

주은경 : 제가 이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civil education을 주제로한 어떤 이제, 아시아지역의 회의를 가서 느낀게. civil education에 글자 가르치기, 직업교육, 그다음에 여성들한테 뭐. 하여튼 별에별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얘기했던, 내 주변의, 적어도 여기 모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민교육의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는 전혀 통하지 않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저는 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다를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물론 그거는 국가의 상황이나 뭐 이런것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글자를 가르치든, 직업교육을 하든 뭐.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환경교육을 하던, 내가 얼마나 좋은 물을 마시고,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이런 부분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와 공공적가치를 높이기위한 교육이 라는게 분명하게 시민교육에 들어가야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지금 뭐. 포괄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가 다루는 주제에서는, 그래서 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 : 맥락을 이해할 필요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민주라는걸 어떻게 이해할꺼냐에 대해서 두가지 정도를... 하나는 운동, 그러니까 민주화되지 못한사회에서 민주라는 것들을하고 민주주의식에 내용들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하나는 시민들은 민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성을 강요받는 대상화해야되고, 이렇게 분리되어있는그런게 있어서 일각에서는 민주'라는 말을 빼고 시민교육만 하자. 그렇게 하는 의견들도 있고. 그리고 저

는 한국 민주교육의 특수성, 한국시민교육의 특수성에서 민주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는 저희들 몫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감감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나 아니면, 민주라는 어떤 실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여기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우리 세트메뉴 좋아하잖아요. 왜 세트메뉴를 좋아할까. 편하거든요. 그리고 각각을 잘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잘 차려진 식단을 우리가 그냥. 쉽게 찾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메뉴를 들어가다보면, 그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뭐가 들어가서 영양적으로 뭘 어떻게.. 모르니까. 쉽게 차려진 것들이 그래서 강의중심의 형태로 흘러가게 되는, 우리의 자성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가치의 핵심들에,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의 핵심들에 뭘 포함시킬건가. 그런 이야기를 조금더 이야기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시민교육이나 시민교육에 대해서 너무 분리해서 사고하거나 이런거 하지말고, 굉장히 복잡한 문젠거 같아요.

주은경 : 그래서 저는 민주에 대한 어떤 가치부여나 의미부여를 하기보다는, 어떤 시민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느냐.로 얘기를 하는게 조금 더 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승희 : 근데 어떤 시민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요.

주은경 : 시민되기 말고 시민 만들기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A : 바람직한 시민상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민주시민아니에요? 좋은 방법이지 지금, 민주시민에 의해서, 시민'자를 떼고 시민되기를 만드는거랑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민주라는 용어가 이제...

민주주의적 가치질서나 가치나 이런거는 또 다른 덕목하고는 다른 요소가 크게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민주라는 문제로 환원하는게, 민주라는 용어자체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념 처음 얘기할 때 민주주의가 뭐냐 하는, 민주적이다 했을 때민주가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가 있고 한국적민주주의도 있고. 그래서 유신정권때 한국적 민주시민교육을 했었던 말이죠. 그래서 그 민주라는 용어가 좀 어렵고 부담되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 같아요. 제가 볼때...

민주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인데, 그것만을 떼어서 앞에다 붙이니까.

한승희

자, 이제 저쪽으로 모여서 자유롭게 얘기하시겠습니다.

(판독불가)

한승희

.....얘길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됐다. 만족한다. 라고 하는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었을꺼고.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을꺼고. 반면에 이거는 의도했던대로 왠지 안됐다. 실패했다. 근데 아마 실패한 것 얘기하시긴 좀 꺼려지실텐데요. 사

실은 우리가 지금 모종의 개선을 위해서 이런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환자가 아픈 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죠. 그런데 어차피 서로간의 트렌드를 이야기하다 보면, 잘된것도, 못된것도 얘기들이 좀 나올꺼예요. 문제점이 뭐가 있고. 단체가 한 4,5년 되셨으면, 이런 흘러간 과정은 그 변화가 왜 발생했다. 그 가운데서 이런경우는 우리 참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했는데 반대로 이런점들은 참 우리가 아쉬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방에서 얘기를 하듯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한 십분, 정도씩 말씀..해주시구요. 중간에 질문있으면 막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한경우가 있으면 거기서 바로 얘기를 하고. 아마 저를 빼놓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서로가 뭐하는지 대충 다 아실테니까. 너무 잘알려진 부분들은 얘기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따로 질문할게요. 지금 이수준에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준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궁금한게요. 잘됐다 못됐다를 평가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그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전에 했던거 또 올해했던거, 같을수도 있고 다를수도 있고 그런데, 목표를 세운다면 어떤수준의 목표를 세우는지 (안들려요...) 알고싶어요.

구체적으로, 제 경험은 구체적으로 특별히 효과를 검증할수 있을만한 기준을 안세우고..했던 것 같아요.

한승희 : 대개는 이제 말씀을 하시다 보면 그 안에서 명시적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이런기준이었구나 하는게 나중에 드러나겠죠. 일단 얘길 좀 하시면. 실제로 어떤 목표들을 세우고 하세요? 세울 것 같은데. 목표없이 하긴 어렵잖아요. 그 목표가 예컨대 50명 정원, 100명 정원 이렇게 숫자로 갈수도 있을꺼고. 예컨대, 어떤 결과

를 놓고 사람들의 행동변화가 이렇다. 이렇게 갈수도 있을꺼고.

근데 이게 구독률 때문에 신문 내용이 좌지우지되는 이런거처럼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환경운동연합부터 들어볼까요.

주선희 : 저는 이제 목적은 세웠구요. 목적이나 목표나 그걸 하면서 옛날에는 뭐 뭐를 하게 한다. 이런식으로 목표가 세워진거 같은데,스스로 한 문구 자체..... 보통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이나 성인들이나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에너지에 대한 교육이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주변에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를 안다. 이런 목적들이 사실은 많아요. 목적을 세울때는 이런식.....

한승희 : 나중에 그거 평가할수 있나요?

주선희 : 근데 그 목적을 가지고 그..... 평가하는건 아닌거 같구요. 예를 들면 이제 보고서를 쓸 때 제안서와 보고서를 인제 저희가 비교를 하거든요. 보고서를 보면 옛날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게되요. 그리고 준비일정이나 홍보나 이런것들이 처음에 예상했던대로 진행이 됐는지. 진행은 했는데 예를들면, 사람이 적게 모집이 됐는지. 그다음에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적게 모집이 됐는지. 그런 평가 . 그리고 가능하면, 참가자들로부터 평가를 한두장이라도 받아보고, 담당자가.. 평가를 하게...그렇게 요구하는 편이구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 놓고는 뭐. 예산대비. 다른건 다 잘했는데 돈을 손해봤다. 그건 전 실패했다고 봐요. 그리고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사람이 예상했던것보다 더 작아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것도 실패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봐서 이것을 다음에 또 할것인가 말것인가. 계속 한다면 비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것인가. 예를 들면 예산을 넘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쓸데없는 지출을 하지는 않았는지. 밥을 덜 먹어야 되는

건 아닌건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홍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할때까지 최소한 한달은... 그거는 잘됐는지이런거에 대한 평가를

한승희 : 하다가 제일 안된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사례는 어떤 것이..

주선희 : 그. 지금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하고 담당간사하고 생각이 좀 다른것도 있고요. 평가를 하고, 지금 좀 잘 안됐다고 하는게 예산과 인원과 이런것들이 분명히 목표치에 항상 미달해요. 이게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사실 이거 밖에 없거든요. 매달.... 한번 등록을 해서 5회내지 4회 수업을 받고 활동을 하고, 두 시간 수업시간이면 한시간은.... 한시간은 작업. 그리고 네 번 오고. 한번은 현장으로. 예를들면 이번에 숲에대한거다. 이번달 주제가. 그거에대한 작업과 이론을 배우고, 시청각을 하고. 한번은 가볼만한 가까운 북한산을 간다든지 청리산을 간다든지 현장과 연결이 되게끔 수업을 하는데 인원이 이제 보통 열다섯명에서 이십명, 적을땐 열세명정도까지도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런평가에서 낮은점수를 줄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학기중에도 아이들을 환경교육을 꾸준히 시킬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라는걸 생각해봤을 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딱 잡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평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 주문을 막 하지만..... 이 열명이나 열다섯명, 많게는 스무명의 아이들이 받는애들이 계속 받아요. 계속 주제가 틀리니까. 매달 그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한 3분의 2에서 반정도는 한번이상 받았던 아이들이거든요. 한번이라고 하면 5회이상 오는거잖아요. 지금 그런 평가를 내린다고 했을때도. 아 아이들이 나중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해야되는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이...

한승희 : 목표로만 보면은 잘되고 있는거 아니에요?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주선희 : 기본적으로 그 문서상으로 세우는 학습목표나 뭘 하고자 했는가에 대한 목표는 잘...

한승희 : 혹시 의도했던거와는 달리 학습자들의 반응이 싸늘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선희 : 지금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전문강좌의 경우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한승희 : 전문강사요.

주선희 : 전문강좌는 지금 한 94년, 95년에 굉장히 잘된 프로그램이었구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백여명 이상씩. 강의식 수업에서 한강좌에 10강에서 12강정도. 예를 들면 환경과 해가지고 12강정도 진행했었고. 환경과 경제 이렇게 해가지고 12강정도 진행했었는데 그거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졌지만, 96년 이후엔 잘 안되가지고 폐강을 했거든요. 어쨌든.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내일 개강을 하는데요. 12강 정도로 해가지고. 끝나고 가야되요. 개강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전에는 실내강의만 하다가. 이번에는 실내강의와 현장교육을. 수요일에는 실내강의를 하고 저녁에, 토요일에는 현장을 가게 배치를 했는데 현재 수강생이 스무명밖에 안되요. 등록된 사람이.....

한승희 : 수강생걱정 제일 많이 하시네요.

주선희 : 제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다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수강생들 걱

정은 거의 안해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리고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반기에 인제 교사교육을 했는데 초중교사 교사교육을 했는데 생각보다 인원이 많았고. 잘됐는데 우리가 약속했던거 있잖아요. 심화과정이나 후속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키질 못했어요. 하반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항의를 했어요. 왜 하겠다고 해놓고 안하느냐고. 죄송합니다.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무마를 한 상텐데. 해야하는데 여러 가지 사실은 뭐. 하반기에 하기에, 제일 중요한게 저희가 즐겁게 우리교육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교육에서 담당자가 없어지면서 우리만 하게 된.. 뭐라 그러지 힘에 부쳤어요. 프로그램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구. 홍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많고. 상반기로시켰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무국에서 단독으로 결정한거잖아요. 학습자들하고 약속한 부분인데. 이러이러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선생님들이 기획을 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실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우리가 그냥 이번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많이 잘못했고. 그런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많이

한승희 : 성공회대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단체들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주은경 : 성공과 실패라는건 사실.....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뭐 예상했던 사람보다 떨어져서 왔던 경우도 많지 않았던것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의 1차기준이 했는데 안왔다. 했는데 횡수가 거듭될수록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간다. 이게 1차적인기준이 되는데 사실 저는. 갑자기 질문하니까 좀..... 평가를 그렇게 열심히 안하거든요. 평가를. 한. 예를들면 노동대학같은 경우도 1회 2회 진행하면서는.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저 얘기만 듣다가 이 질문을 받아서 어떤말부터..

한승희 :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면됩니다.

주은경 : 그러니까 평가서를 작성을 하는데, 평가서가 너무 기술적인 부분의 평가가 되버리더라고요. 정말로 무엇을 지향하며, 내용에대한 근본적인 평가가 안되다보니까. 그런 평가를 굳이 할필요가 있을까 싶어, 그다음부터는 별로 평가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이렇게 만약에 학습자들하고 평가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얘기가 나올까라고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이제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깊이 들어가는 개별인터뷰로 제대로 하는게 아니라면은, 어떤 감으로 자기가 체득하는 것.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저희한테 성공과 실패라는걸 물어본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 이제 저희학교에서 노동대학, 교사아카데미, 뭐 그거 말고 또 고전읽기 라는 프로그램, 고전읽기. 취지가 인제 .. 공자 맹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읽은게 별로 없고 고전을 들어서 알지 읽어서 아는게 없다. 직접 읽고, 그거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하는게 목표인데 사실. 교육을 하다가. 요번 봄에 굉장히 무슨 일이 많아서 교육이 잘 안되고 해갖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그 프로그램이 북한문화에 대한 이해로 갔어요. 고전읽기반에 그걸 넣는게 어떻게 보면 안맞을 수도 있는데 북한에서 고전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예술을 이해하는 것도 맥락에서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신청자가 열명정도 들어오고 직접 온사람이 한 여섯명정도 왔어요. 그것도 저는 별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그 주제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올 주제가 아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런 미스 저런 미스가 같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폐강시키지 않고 그냥 갔던 이유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몇사람이라도 기회대로 충분히 공부하고 이런 의미에서. 십만원정도 드렸거든요. 저희가 강사비를. 평소에 우리가 십오만원을 드리는데, 한 다섯명. 하고나서도 저는 별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요.

한승희 : 전교조같은 경우는요. 사실. 가르치는데는 전문가잖아요. 어때세요.

홍진관 : 아이들 가르치는데 전문가지. 전교조에서는 크게 이제 종합교육하고 교사들의 직무와 관련된 직무연수로 크게 갈라지는데, 국가나 환경, 통일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한 연수같은 경우에는 방학때, 주로 방학때 많이.....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하여튼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친다라는 의미가 워낙 교사가 많으니까. 예전엔 국어교사모임같은거 할때는 전국단위로 한번, 한군데서 모여가지고 백명 백오십명 많게는 뭐 이백명까지도 뭐.하고. 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참여식... 보다는 사례발표중심으로 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그런정도 숫자가 지역별로 영남권, 호남권. 이제 좀 나뉘서 하더라도 신청자들이 그런 연수들의 요구는 이제 상당히 많다. 흔히 말해서 인제 관제연수하고 차별성이 자기가 오면서.....

한승희 : 교사들은 하도 관제연수에 질려가지고.

홍진관 : 거기에 대한 평가는뭐 항상좋아요.

한승희 : 좋은지 어떻게 아세요?

홍진관 :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직접 담당해서 아니고..... 교과모임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비슷해요. 숫자가 많으니까. 이건 좋다. 다음에는 반응이 뭐난데.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뭐. 면접이나 이런걸로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끝날 때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쁘다는 얘기는 잘 안하잖아요. 안할까봐 그러는건지. 대신 우리도 이제 나오는게, 예전보다 좀

좋아지려고 하는게 예전에는 아무데서나 해도 불만이 없었는데 이제는 웬만한 시설을 갖춰주지 않으면 불만이 있어요.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좋은데다 잡아서 해야 되겠다. 그런 불만들. 어쨌든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생생한 사례들 중심으로 실제로 해왔던걸.. 예전에는 성공 사례들을 중심으로 오는 사람들 기를 팍팍 죽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실패사례도 가끔해보니까 어떻더라. 같이 나누는. 이런것들을..... 가고 있어서. 문화리더가 이런 쪽은 ...배우는거니까. 일반적으로 교사들가운데...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인원을 모집한다거나 하는데는 별로 아주 힘들지는 않아요. 그런거고. 종합교육과 관련되가지고는. 저희, 뭐. 강제로 할당해서 몇명씩 와라 뭐 이런식으로 하는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뭐. 이런거.. 약간 차이가 있죠?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네요.

홍진관 : 저희도 인제, 뭐. 창조(?) 아카데미 이런거 해가지고서 강좌들을 해봤어요. 그다음에 통일교육과 관련해가지구서 몇강좌. 거기에는 한 처음에는 한 칠십명정도 등록을 했다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오십에서 이렇게 좀 더 떨어지고. 이직 이게 계속 몇차례 돌리면 사람들이 더 떨어질지 모르는데 아직은 그정도 수준에서.. 처음 해보는거니까. 그런것들이 조직에서도 어쨌든. 참교육...주체속에서 이루어지는거니까. 어떻게 하면 각각의 기호에 맞게 통일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통일, 환경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환경. 각 주제리더가 아니면 교과리더가. 그런쪽에 맞춰서 좀 할까. 좀 더 세분화되는 상태, 국어교사에서도 또 예전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교육과정 전체속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있는, 강사가. 사례들이 있는 이런걸 중심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 목적의식속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걸 해서 준비를 해가고. 그 필요한. 기획하는 것 자체도. 아직은 우리가 주최하는 교사모임들을 통해서 해 봐야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이지. 단체 회

원들에게, 조합원들에게 어떤 강좌가 필요하고 어떤 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거를 물어서 하는건 아니죠. 다음강좌를 요번 할때 다음엔 어떤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거를에는 있는데 그것이 크게, 제가 여태까지 해봤지만.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은 안들어요.

잘되고 있는 연수들의 형식이(판독불가)

홍진관 : 우리는 그렇게 하진 못하구요. 4박5일. 방학때. 요즘은 또 선생님들이 워낙 또 바쁘더라고요. 해외여행 붐이 불어가지고. 날짜잡기가 상당히 애매.하긴 한데..

사회교사 연수 이런데 많이 따라다녔는데.(판독불가)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교과과정에 맞춰서 그 단원에서 할수 있는 실제 수업을 보여주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하면되는.....목표나 동기의식도 분명하죠, 사람들도 동질적이죠 그러니까. 실패할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은로 : ..어제 전략팀에서 나왔던 조건의 문제, 유급교육 휴가라던가. 교사들같은 경우는 그런 중요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방학이라는게 있으니까...) 만약에 일반 시민이나 노동자들도...휴가속에서 이런걸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홍진관 : 그래서 지금 주 5일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 고민이에요.

이은로 : 끝나고 7시에 와서 피곤하게 강좌듣고 월차를 개인적으로 내서 1박2일, 2박 3일 이렇게 ...할게 아니라 근무가 대체되는. 제생각엔, 전교조가 잘되는건 교사가 많아서라기 보다는. 노동자들은 훨씬더 많은데도 안되요. 어제 그 3번팀에

서 말한 그 사회적인 조건. 그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게 더 결정적인거 아닌가.

고상준 : 근데 조건이나 제도면에서는 양면성을 가질수 있어서 교사들이 그렇게 시간이.. 방학때는 교육을 받을수 있고 한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방학때밖에 시간이 안된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구요.조차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사회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무슨..학기중에 토요일날 방과후에 모여서 민주시민방법론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저한테 오기로는 총 30명이 올 것이다. 근데 갔더니 열몇명이 모였어요. 30명이 다 안오고. 그러니까. 주중이라서 못왔다. 그다음에 이걸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네시간에서 여섯시간을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왜 불만족스러웠나 하면, 이분들이 상당히 동질적이에요. 이 동질성이라는게 받아들이는 폭이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이나 하면, 기능적으로 받아들여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디가서 칼질을 할까. 그러니까 결국. 제가 그분들한테 드린 방법이라는.. 방법이라는건 어떻게 보면 칼하고 포크 이런 거잖아요. 쓸어 먹는거잖아요. 쓸어 먹는걸 일단 가르쳐 드렸는데 그 뒤에는 분명히 어떻게 먹는가, 왜 먹는가가 숨어있는데 이분들이 이걸 잡아마자 좋아 이시간 탁탁 탁탁 칼질을 하고 이미 계산해서 발표를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방법이상의 것으로 민주적인 어떤 성숙한 시민을 만들어내는.그러한 의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교과단원에 이걸 이렇게 써야지, 하고 이미 계산이 되버리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갔던 그 교육은 저로선 실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판독불가)

고상준 :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제도나 조건이나 시스템은 반드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가진 한계를 갖다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되고. 교사교육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것들이 반대로 역으로 악재로 작용할수도 있다는거죠.

저는 굉장히 교사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련 : 저희도 지금 학교 선생님들하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에 미디어교육을 출강할 때.....제가 한계에 부딪히는 가장 큰 것은 학교로부터의 요구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미디어 강사라고해서 일정하게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출강을 해서 ...복잡했어요.하다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엄청나게 쏟아져 오는 요구들을 ... 다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이제 나름대로 탈출구를 마련을 한게 학교교사를 훈련을 해서 저희가 지금 30개 학교면, 지금 그 학교에 있는 학교선생님들이 일정한 시간을 거쳐미디어교육의 교육자로서하게 되면 그학교는 그선생님한테 맞기고 저희는 다른데로 간다.는 ...하에. 학교선생님들하고의 교육을 시작했어요. 아까 고선생님 말씀하신거하고 비슷하게 저도 느꼈어요. 방학기간에는 시간을 좀 길게 해서 프로그램을 쪽 길게 잡고. g가기중에는 매월 1회씩. 그날은 특별한 날이까. 저녁을 일찍 드시고 여섯시까지 모입니다. 해서 아홉시나 아홉시반정도에 끝나요. 근데 저희 교사분들이긴 하지만. ...사회과 교사분도 계시고 국어과 교사분도 계시고 다 다르죠. 그리고 오셨을때의 목적은 미디어교육을 본인의 어떤 재량시간이나 아니면 CA시간에 활용해보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오셨는데. 거기에 층이 굉장히 다양하게 좀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기술적인 부분. 잘, 내가 이걸 가지고 한시간짜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보여줘봐라. 동시에 내가 그걸 가지고 가서 다시 재현할수 있는 그 품을 원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젊은 층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것과 관련된 더 다양한 방법에 대해..... 그러

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든지. 그런 과정속에서. 좀 어려움을 느꼈고. 또 한편에서는 교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월에 1회긴 하더라도 시간을 맞추고, 그 시간에 다 모여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저희는 처음에 교사분들한테 의사타진을 좀 해서 저희가 이걸 연수기간을 지정을 해서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부담이 덜 하긴 하지만, 그걸 또 많은 시간 계속해야되고 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보는 여기에 대한 어떤. 극 나가야되겠다라는. 사실은 안나가도 ... 이게 또 일정한 기간동안 쪽 가는거기 때문에 소홀해지는 듯한.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8월달에도 한 3일동안 교육프로그램의 교사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일정을 ... 잡았는데 근데 그 기간에 교사분들이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교사분들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특히나 외부 참가단체에서 주관하면서 진행한다는게 굉장히 어렵구나. 그런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8월달에..... 고것을 맞춰내는 것. 학과수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 그 외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직화하고. 그 프로그램을 쪽 ... 일회성이 아니라 끌고 가면서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홍진관 : 독일에서는 막 군인들도 학교교육에 들어와가지구서 강의를 하고,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가 유달리폐쇄적이예요. 그래가지구. 외부에서 들어와서 뭘 한다는..... 자존심문제를 가지고..... 제가볼때는 그것밖에는 아니예요. 다른 이유는 없는데 자기 수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개입하는거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학교밖 교육하고 진짜 연계가 잘 안되고 있어요. 특히나, 인제 젊은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할려고 하는데도, 교장들이 아직까지도 교장선생님이나 이런분들이 허락을 받아야 그런것들을 해야되는데. 그런걸. 외부에서 들어오는것에 대해서 교감, 교장선생님들이 막는 경우

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이걸.....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교사들 같은 경우에가. 사실은 무지 바빠요. 방학때도 그 여유가 있는 시간들.. 우리도 인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볼려고 하면, 아까 잘된다고 했지만 전체, 조합원, 사회과교사들 놓고 보면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으면 좋은거예요. 그러면, 그 방학동안에만 잡아봐도 일주일동안 한다그러면, 방학 4주면 4주 연속해서 다른 사람들 데려다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충족이 되는. 그런건데. 전체교사수에 비해서 여름방학때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소수거든요. 다수가 그런교육에.....별로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기 보다는 옛날 나의 방식 그대로 간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기능적으로 아주 쉽게 접근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자기시간을 보내느거외에 다른 여유를 갖고 있지 못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 .일종의 활동... 교사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학교자체가 좀 폐쇄성도 있고. 학교의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기획자의 교육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고 하는거고, 그 평가를 아주 깊이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해도 강의내지 프로그램, 수준이 잘 흘러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프로그램이, 교사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사들이 도대체 왜 이런가?' 그 다음에는 '교사의 문화에 대한 성찰'로 주제를 잡고, 제가 프로그램하면서 생각했던 것, 평가한 기준에서 그 다음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평가는 안하시죠

평가서 쓰면서 평가 하는게 아니라 - 감으로 한다 이거죠

교사 프로그램하면 80%가 여교사고 20%가 남자교사인데 도대체 이거는 뭔가, 이게

도대체 왜 오는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교사들의 태도의 문제 남자 교사들 여자교사들 대화의 문제를 쭉 보면서 주정부 교사와 동신부 교사들의 갈등문제 그리고 남자교사 여자교사 이해하기 혹은 들여다보기 그런식으로 주제를 잡았어요. 그거와 함께, 우리나라 교사문화의 특성을 옛날 4.19때 교원 노조운동 그런 시대적 배경하고 봤는데, 그거를 강의를 처음에 했던 분이 2,3분의 토론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한테 굉장히 기분 좋게 들렸던 내용은 청소년 문화만 계속 얘기하던 교사들이 교사문제를 갖고 모였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진보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고맙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사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라고 할까, 자기를 거울 속에 놓고 들여다 보듯이 하는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원래 후하기 때문에, 후하게 주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저는 뭐를 할까가 무지하게 만나오더라구요. 감이 만나오드라구요. 감과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만나오는데 그때는 제대로 된 평가와 뭔가가 들어 갔어야 했는데, 요번에는 인제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육의 페러다임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사회가 갖고 있는 교사가 갖고 있는 학생이 갖고 있는 학부모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부분을 해가지고 교육페러다임을 바꾸자라는 걸로 홍보중이거든요. 10월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신청속도는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사실 프로그램 홍보 나가면서 그게 굉장히 신경을 쓰게 만드는데, 요번에 저는 어떻게 될 것인지 두고 봐야 하는데, 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 자체가 성공과 실패 자체라고해서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써가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 성공적인 요소가 있고, 모든 프로그램에 부족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속에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다음 것이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이 오더라도 프로그램이 성공적일 수 있고, 돈이 수억이 들어가도 성공적일 수 있고 사실 성공적인 것은 다 섞여 있는데, 그 중에 크레디컬하게 몇 가지

조건들이 서바이벌해서 만드나, 죽이게 만드나하는 이런 크리티컬한 칼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말씀하긴 것들은 대개 환경이나 참여연대나 지명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큰불편함이 없는 것들이거나, 전교조처럼 확보됐거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한다면 교사이외에도 이런 종류의 특이성을 가진 집단들이 있을텐데, 예를 들어 의사를 대상으로 한다던가, 무슨 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모종의 특성들이 있을텐데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좋겠는데요. 조선생님 말씀하실 때 일단은 이런 색깔이 드러나지 않는가, 불특정 다수고 예컨대 열린사회시민연합이라고 하면 사실 저도 '뭐하는데지'하는 공급자 색깔도 잘 드러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안에서 성공,실패를 부탁할까요

소재를 좀 바꿔서..역시, 교육문제에서는 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딱 들었던 생각은 '기획자의 동물적인 감각이다.'생각하죠. 실제로 어떤 객관적인 지표에 드러날 수 없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걸 통한 어떤 평가의 점들이 실제 평가에서도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구요. 근데 다만 사람이 동물이기도 하지만 사람이니까 거기에 새로운 요소들 객관화할 수 있는 요소, 과학화 할 수 있는 요소를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구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준이 뭘까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다 다를텐데 그것이 얼마나 실현 됐는가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적으로 평가가 중요할 수 있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나왔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해당 프로그램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거예요. 분야별로 목적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저희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나 목적과 연계성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개별 프로그램으로는 굉장히 훌륭했다 하더라도 저희 단체의 목적,이념 이런 것들이 약하다고 한다면은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질이나 효과도 있을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활

동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구체적인 주민들의 참여 그 다음에 주민과 밀착하는 형태의 운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하는 것 중 한 가지는 이 프로그램의 지속성-후속 활동들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얘기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저희 활동과 관련해서 단체 특성이나 이런 것이 반영한 게 아닌가 보여지고,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평가나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객관화하기 위해서, 동물적 감각 외에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사업이 공동체 시민교육사업이라는 전체 큰 주제하에 지역마다 활동들 포함해서 한 17가지 정도의 사업들을 묶어서 했는데, 다 이제 다르죠. 조금씩 다른데, 그걸 이제 평가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독교사회발전협회에서 만든 주민참여형프로그램 평가매뉴얼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응용을 해서 101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나눠줘가지고 말씀드릴거나 이런 건 없는데 그런 것들도 해보고 있다는 것. 짧은 프로그램중에, 이걸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모더니스트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잘 됐다고 내부에서 평가가 됐어요. 원래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을때 우려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프로그램에 통해서 저희 단체에서 고민하는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이런 모티브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봤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저희 단체의 내부 조직 활동이나 여러 가지 주민 사업에 있어서 연계될 수 있는,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대단히 강하다. 이 두가지 포인트로 봤거든요. 실제로 참가자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모임으로 만드는 게 잘 안되는데 그런 것을 하자는 열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확산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잘 된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실천 활동과 연계되는 것들이 잘 된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과후 아동 지도사,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한다

거나, 그건 물론 넓은 의미의 암묵적인 교육활동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겠지만 소외 계층에 대한 집수리 사업을 하는데 자원 봉사라는 초점을 두고 하는 것이거든요. 수리라고 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기술직이나 일용직 그 분야 전문가들이죠. 이분들이 주체가 되고 결합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되는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부모 역할에 관련되서 이것들이 어머님들의 친목모임이기도하고 자원봉사 모임이기도 한 이런 사례들이 한두가지 될 것 같구요. 이번에 보편은 교육의 의미를 넓게 생각했을 때, 주민들과 밀착하고, 애초부터 기획에서부터 주민들이 들어오는 요소로 구조화 되는 근데 공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일단 잘되는 프로그램으로 보는 편이에요. 그거는 이제 해당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진행하는가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얼마나 연관되는가 이런 것은 숫자나 이런 걸로 표현 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는거죠. 이제 잘못된 프로그램으로 보이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공동체 시민 교육 전체를 볼때, 개별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잘한 프로그램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모더니스트 프로그램 같은 것.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전체를 총평했을 때에는 물론 저희들이 사회시민교육사업을 과거에는 정치적 과제 중심으로 했던 것에서 조금씩 시도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규모있게 해보는 형태여서,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이나 실험적인 그런 요소들은 처음부터 감수했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목적자체가 애매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그런편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드리기는 좀 책피란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이 뭔지도 모르고 회원들하고 주민들은 모아서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것을 할때 강사선생님하고 문제가 있었는지, 뭘지는 모르겠지만 감수성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직작인들은 위한. 근데 물론 그 지구에 상주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기획의 한명이 설명을 하는데 감이 안잡히는 거예요. 본인도,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어떤 자료라도 달라 그랬을때 설명하시기를 비구조화프로그램이다. 진짜로요. (그럼 설명을 어떻게 해요. 어렵잖아요.) 모여가지고 실제로 효

과면에서도,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일부는 조직 동원해가지고 앉혀놨단말이에요. 근데 인원도 많은 인원이 아니었고 한 10여명내외 인원이었는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장악이 안되가지고, 물론 감수성이 무뎠던 사람들만 모여놨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결과들이 있었던 사례가 있고 그리고 제가 했던 사업 중에서 이제 이거는 '엑스자'라고 했던 것은 저희가 상돈활동가를 교육하는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최근들어서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상근자들 학습소모임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약간 반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주로 내용이, 사상적인 문제에 대한 요런 것들을 주로, 옛날 같으면 사상씨클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비록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회 근본적인 변화나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공유를 하지 않는 것은 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 중에 신입상근자라고 하든가 전통적으로 학생운동을 해서 성장해오지않은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워낙 그걸 묶다 보니까 지부도 안배해야되고, 여러가지 '나는 여기 끼네' '못끼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연령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 애매한 사람들 묶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제가 담담을 했는데 일시 중단이 됐고 지금 다시 모의하고는 있지만 그것 같은 경우에 실패의 원인은 첫 번째, 이름이 잘못됐다. 이름이 바보나무거든요. 두 번째는 전하려고 하는 기획하는 의도나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대상에 따라서 달라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느낀거죠.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방식 - 교재 나눠주고 세미나 하는 방식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사상 학습에 관련되서는 익숙한 편인데, 하는데 안되더라는 거죠. 이제 불러서 개별로 만나서 한편으로는 사정도하고 한편으로는 협박도 하지만 이게 안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는 이제 상근자 학습모임을 하면서는 그러한 것들을

수용해서 거듭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련해서는 그렇고

들으면서 생각이 낮았는데, 자발적인 참여, 아, 내가 여기와서 뭘 배우고, 여기와서 뭘 하고 싶다는 의도를 가지고, 정말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무작정으로 아니고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인데, 다들 그러시겠지만 한 프로그램을 하고 정리가 되면 저도 모르게 내 스스로 매기는 점수에, 아무한테도 가르쳐주지 않는 내 스스로의 점수에, 몇 점 정도 될거다 그런게 있잖아요. 아마 제가 교육한 이후에 최하위의 점수를 냈고, 그래서 평가를 하기도 싫고 다른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실패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떤 거였나면, 저희가 처음부터 기획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왜 한화그룹에서 그룹의 임직원들의아이들이 하는 캠프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굉장히 돈은 많이 들어왔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돈도 없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덤석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워낙이 4박5일, 3박 4일 정도가면 얼마정도 내는 금액, 보통 3만원 예산을 하면 5일이면 15만원내인데 그 아이들이 한 2,3만원 정도만 안 낼수 없으니까 내고 나머지는 한화에서 지원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숙소는 어디어디 콘도여야 하고, 그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랬는데, 대상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이어야 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정해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획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기획을 했어야 했고, 아이들의 생각이 저희들하고 너무너무 틀렸거예요. 저희가 아이들이 보통 40명,80명오고 성인들인든 아이들이든,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면 하는 곳이 다 틀리고, 생각하는게 굉장히 많이 틀려도. 내가 여기와서는 뭘 해야 할꺼다라는 이미 생각을 미리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궁궐에 와서는 궁궐에서 어떤 나무들을 오늘 볼 것이다. 오늘 생태 교육관에 와서는 뭘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데, 이 생각들이 너무나도 다른 아이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도 저희가 10명의 반에 교사가 두명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교사가 20명이 조금 못돼게 들어가는거죠.

반은 저희가 항상 프로그램하면서 같이 하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나 어머니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다라는 거의 나만큼 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고, 반은 한화그룹에서 자원봉사. 부서에서 되서 나오신거예요. 10명의 반에 두분의 선생님들이 계속 생각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전체를, 4일을 지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아까 조직동원이라는 말을 할때, 그 프로그램이 딱 생각이 났었는데. 제가 그 이후로 외부의뢰 프로그램을 잘 안하는 이유가 일단 해서 좋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하고나면 에너지도 너무 많이 낭비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와 맞아떨어지는 프로그램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참 많은데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은 그 퍼센트가 굉장히 작다는 거죠.

말씀하실 것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말씀이 없으시네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참 많이 다르니까요. 저희는 이미 어느정도, 전체 조직이 어디쯤 가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교육을 배치할 것인가를 구성원들과 합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99년부터 저희가 마을만들기 운동을 해가지고 이게 YMCA를 중심으로 하다가 동네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합의를 전체적으로 가져가면서. 마을만들기 쪽으로 쪽 가져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좌 같은 걸 마을로 들어가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마을들은 그 전에 교육에 관한 합의 과정들을 미리 해나가면서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되는데, 여기서 마을이라는 것은 도시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마을들은 이제 그게 불충분 한거죠. 그 전의 그러니까 동력자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교육이 들

어갔을 경우에 결국은 참여자가 없는 거예요. 오신 분들은 어쨌건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아예 안와버리니까요. 저희가 교육을 배치하는 것은, 마을 만들기 운동에 보다 활력을 불어넣고, 마을 만들기 운동에 비전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고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인데 거기에 참여를 안하니까 그 이후의 마을 만들기가 성공적으로 안되는 거죠. 사전에 참여자들의 동력을 만들어내는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구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효과가 바로 사실은 나타나요. 그래서 바로 검증이 나타나거든요. 각 조직이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 되는 부분들이 있구요. 어떤 조직은 교육을 하고 나니까 조직이 깨지는 경우가 생겨요. 최근에 의정부 YMCA가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 주마다 교육을 배치하는데 다 주부들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일주일에 1번씩 하니까 기존의 자기의 일상적인 조직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4주 정도 가면 괜찮은데 이게 8주 정도가 짧아요. 2달이 일상 활동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결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오히려 조직 활동을 깨는 경우가 생기는 구나를 그 쪽에서 경험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수준의 차이가 있지 그런 부분이 같이 있어요. 일상 활동이 매주 단위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교육 때문에 해서,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참여하는데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따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갭이 생겨버려요. 교육을 들었던 사람들은 비전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가슴이 뜨겁고 그러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냉담한 거예요. 다음에 모여보면, 그러면서 자기들의 사이에서 갭이 생기버리니까 참여하지 안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는 많이 평가를 하죠.

구체적으로 그런 참여자들의 경향, 특성들은 어떨지?

작년 저희가 일년이 위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체적으로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고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면 오래되신 고참들은, 나는 이제 고참이니까 빠져야 된다. 그리고 신참들이 해야지 아직도 내가 저결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신참들은, 난 아직 모르니까, 이려고 중간이 비어있다 그런 생각이 팍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걸 놓쳤구나 그런 위기 위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 지도력들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지도력들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았나면 지금 하여간에 고참들하고 신참들 사이에 갭이 있는데 중간층을 안 만든 것은 결국은 자기들의 잘못이다. 결국 자기들이 그 부분을 케어를 못했기 때문에, 하여간 후계자 양성을 자기들이 못한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들이 져야한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타계를 하게 했느냐 수련회에 그 고참들이 가서 집중적으로 이제까지 우리들의 활동방식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사전에 기획자체를 그런쪽으로 쪽 해나갔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결단을 한 게 고참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소모임의 리더가, 리더를 안 한지가 벌써 오래된거죠, 다시 리더로 들어가서 우리 활동들의 전향을 고참들이 다시 만들어 내는 것.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린 이제 무너진다. 그래서 올해 그걸 다시 만들어 냈는데, 그 과정이 철저하게 우리 방법론에서 배운 것 갖고 많이 활용해요. 굉장히 재미나게 하는데 결국에는 비장한 자기결단들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것 까지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그 구성원들하고 사전에 합의했던 기획을 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과정이고 이 시기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우리한테 주고 있구나 하는 자각, 이런 것들이 심어지니까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실 결단을 어떻게 할꺼라는 것도 기획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거죠. 그러면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내고, 저는 그게 어차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이라는 것들이 그런 구체적인 결단을 하게 하는 그런 것 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대중 강좌가 아니면은 그런쪽으로 기획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죠. 소모임같은 경우에도, 강좌에서도 분임토의같은 것을 하면, 어

편 모듬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 모듬에는 누가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모아 낼 것인가 하는 것을 사전에 같이 하죠 기획하면서, 그래서 전과정을 조직한다
 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초창기에는 저희가 그렇게 할만한 지도력들이 없
 었기 때문에 기획자 혼자서 북치고 장구 치고 다 이렇게 했던거 같구요. 지금 한 3
 년 정도 누적이 되니까 지도력들이 생기니까 그 분들한테 거의 전적으로 의사결정들
 을 맡기고, 실무자는 옆에서 진행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돕고 하는 이런 구준데 그 진행자들의 동력이 떨어져 있을 때 실패하죠. 그냥 이 지
 도력들이 마음이 절실하지 않는데, 실무자들이 우리 또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게
 있으니까 모여서 의논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그러면 걸로 보기
 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거죠 다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문을 열어 놓으면요. 안되거든
 요. 안되는 게 이 분들이 별로 동력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끌지 않아요. 그게
 저는 그 결과가 숫자고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요. 출석
 부를 해가지고 체크를 다 하죠. 교육 끝나가지고 평가서 받고, 저희는 평가서가 형식
 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아니고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적나라하게 쓰는
 편이고 출석부 갖고 체크를 해서 전부 참여한 사람들이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분
 석을 해 보면 대체로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주 정도 조직활동이 가동되
 다보면 그 교육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죠.

말씀하신게 일반 주민교육이 아니고 회원교육

예, 그렇죠

그러면 광명시 같은 경우에 보시면, 회원교육이 죽은 교육이예요 광명시라는 어떤
 제한된 공간 안에서 특히 거기서 아파트가 계속 있구요. 주민 교육이 회원 교육과
 큰 차이를 두지 않는

일정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이미 어떤 조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겠죠. 그 조직 자체가 개방적이라는게 조금은 다르겠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상태로 열려 있는 상태겠죠

그렇죠

거기도 여기에 비슷한 교육활동 시스템인가요? 말하자면 소모임 중심으로 보고

그거는 제가 Y운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들이 있을거다. 소모임 활동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구요 또 다른 형태의 역할들에 대해서 소모임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동산 산업 환경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는 16주가 됐는데, 구리시, 정원은 100명이고 한 강좌가 2,3시간씩강좌, 주말에는 현장 활동을 하고, 거의 시간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문제는 거의 100명씩 채우고, 물론 홍보활동도 들어갈 때도 있지만, 물론 지금까지도 정원을 확보하는데, 물론 몇가지 요인이 있죠. TV방송사에도 나오고 홍보도 해 준다는 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저희 자리를 잡는 것 보면

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교육하고 환경봉사대원 활동하
 고 그 이후로 이제 부동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단체간 협의체였다가 거기
 에 유지되는 조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교육이 갖고 있는 나름대
 로, 어쨌든 우리가 물론 강의식이지는 않지만, 주말에 참여활동을 함께 부동산에 대
 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는 환경문제, 문화유적,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강의 및 토
 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조금 조금씩 이뤄진다는 것이 발전적이고, 그 이후에 조
 별로 모임을 계속해나가는 것을 통해서, 또 필요하면 문화재 보호활동, 단순히 문화
 재 보호활동만 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개발하려고 하는 행정에 지역에 대한 저항,
 투쟁 이런 것들이 비롯되면서, 그런 것이 상당히 교육과 연결된 프로그램으로써인
 게 아닌가 것이 성공한 사례로 보고요, YMCA같은 마을만들기, 책자도 나오고 그러
 는데 그런 것은 지역의 세미나 내지 교육방법이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과는 다르게
 브레인 스톤이라든지, 브레인 라이팅 기법으로 2박 3일, 1박 2일 과학 교육과정 일반
 그 분위기가 한 3,4년 있었고 그걸 이제 대표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프락티
 스 컨설팅 이라고 해서 원 교육, 지역교육, 시민단체에서 하는 이런 교육들과 관련을
 해서 자치위원들을 활용을 했어요. 기법상 방법상의 문제이지는 한데, 새로운 것은
 없지만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 그런 기술적인 것을 통해가지고 2박3일 동안 도입 단
 계에서 끝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 방법을 활용해서 하기는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활용을 해 가지고 민,관 파트너쉽 형성을 위한
 워크샵을 한 3년 동안 해 봤어요. 민간단체는 행정단체를 비판 하든가 그렇고, 행정
 단체는 민간 단체를 불신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해 보고자 이제
 민간쪽에서는 단체장들, 책임자들,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행정쪽에서는 최소한 계장
 급, 시 같으면 주임, 계장, 과장 6급에서, 그런 간부들이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쉽
 형성인데 분야별로 했어요. 환경이나 교통, 사회복지, 이런식으로 분야별로 파트
 너쉽 형성을 해 봤는데 상당히 참여자들이 동의를 느끼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워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행정은 그 시

간에 딱 출장을 오니까 되는데, 민간 단체에서는 굉장히 바쁘니까 인사만 하고 간
 다든가 끝까지 참여하는 건 없고 자기들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 그런 하나의 일만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무장들은 시간을 거의 못내고, 이제
 들어온 실무자들을 보내고 이래가지고, 행정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거나, 비난을 받
 는 거죠, 아침에 보편은 공무원들만 나온, 어떤 그룹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부담스
 러워서 올해는 도저히 그런 자신이 없어서 올해는 안했는데, 협의회 차원에서는 해
 야겠다. 단 제가 하기는 뭐하니까 넘겨줬는데, 어쨌든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예를
 들었구요. 저는 사실은 학부모 대학을 하고 싶어가지고 한 3년 전에 학부모 교실,
 전문 강좌 중심으로 학부모 교실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예산지원을 받고 이래가지
 고 재밌게 잘 했어요. 50명 정도가 이제, 전문강사와 강좌, 그리고 상담 같은 경우
 에는 토론하고 사례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재밌어하고 그래서 예산 전혀 안
 받은 가운데 다음에 계획을 했는데 그때는 더 이상 안 됐어요. 얘기도 있고, 실무자
 얘기도 문제가 있고, 홍보라든가 그것에 대한 학부모들이 자기의 필요성 저 같으면
 그것을 통해서 단위학교의 봉사활동을 하거나 참여하는 학부모교육 시민운동, 교육
 시민운동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강했는데 단순히 자기 자녀 교육을 위
 해서 오면 좋겠다해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실
 천하도록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것인가가 제 고민이기는 한데, 직
 접 그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실무자들하고 그런 토론을
 많이 하는데 당장에는 실무자들이 그것을 받아주고 가는데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애기가 중학교를 다니고 있고, 우리 실무자들은 또 아이들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학부모 교육 필요하기는 한데 교육 시민
 운동이 의미가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정말 자기 문
 제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꼭 그것이 하고 싶어서 그걸 코치를 담당해야 얼
 만큼 여유가 없고 또 갈등을 빚고 있는게 제 고민이기는 한데 어쨌든, 기획자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하고 자기의 구체적인 이해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그게

또 기획자의 의도가 교육참가자들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연결될 것인가, 그 이후에 현장에서 실천적이 활동이 연결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의 3박자가 맞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시민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실천적인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을 해보는 것이 현재의 제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공무원 교육 같은거요. 시민교육이라고 할때 공무원이나 어떤 관들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열린 사회 모임이라는 자체 복지 활동이 있고 최근에 이제 드러날 수 있는 사업이 주민자치단체, 동사무소가 이제 센터로 전환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지역 커뮤니티로써 가능성을 보고 사업을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지역의 학교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활성화 거기에 이제 교육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대상별로 보면은 활동가들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자치 위원들 이렇게 크게 나뉘지거든요. 이런 주민자치위원들이라고 하면은 쉽게, 흔히 얘기하는 관별인사들이 대부분이죠. 거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데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중요한 센터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워낙 부족함도 많고 교육의 의뢰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교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고, 차라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동원이 되거든요. 위에서 누가 딱 때리면은 일단 모이거든요. 근데 주민자치 위원들은 참 모으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희도 이제, 이건 다른 얘길 수도 있지만, 어떤 프로포즈 진행하는데 원래 의도는 주민자치의원들을 교육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참여형 방법 교육을 개발해서 할려고 하는데 리더십을 중심으로해서, 근데 조직단체에서 계속 난관에 부딪치는 거예요. 모으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가지는 현재의 지점에서 주민들 센터와 관련해서 공무원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있고, 약간 옆으로 썼는데, 저는 단순히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테크닉만을 의미 한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저희가 같

은 내용을 가지고 거의 같은 대상을 가지고 공무원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을 데리고 교육을 했을 때에도 전달식으로 하는 교육하고 무언가를 가지고 끌어내서 하는 교육하고는 확연하게 말로 표현할수 없을 정도의 질적인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고민을 많이 하는게 이상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그게 단체의 이상이던 개인의 이상이던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글을 봤는데 '이상은 방법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하는 글제목이었어요. 내용은 안 읽어봤는데, 미루워서 짐작만하고, 그 거기던지는 어떤 문제의식 이런게 일반적으로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낮게 평가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이 고민이 되는 거죠. 대상에서도, 저희 물론 주력을 하는거는 주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회원들이 주된 영역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것이 고민되는 거죠.

그야 말로 인터넷이 그 역할을 해요.. 방법으로 생각을 해요. 처음에 학교에서 '아이씨 파견교육' 이렇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도구나 교재로 생각을 하고, 저는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인터넷을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많이, 편하게 강좌를 들을 수가 있다. 강의 전달식으로 가는거나 테스트 위주로 강좌를 하는거나 그렇게 큰 질적인 차이를 내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저도 처음에는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3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하다보니까 이번에 웹기관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됐거든요. 코스너개발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신경써서 하고 있는데 어느날 중간 평가를 해보니까 단체의 사람들은 민주시민의 목표, 가치, 주제 그러게 중요하지 왜 이렇게 방법에 매달리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예요. 저는 특히 인터넷이라고하는 조건을 사용해서 교육을 한다고 많이 인식되서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부딪치는데, 제 생각은 뭐냐면 이게 학습의 과정에 설제로 되어 있으면 훨씬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과정을 돌아보거나, 남의 얘기를 듣거나 하는거

가 좀 더 전면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 면에서 방법이 단순히 주제 하위의 도구다 하는 얘인지 어떻게 보면, 제가 성공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개념을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보학습 사이트를 개발을 해 한동안 게시판에서 나가하는 얘기 내가 하는 얘기 왔다갔다 하는 거라면 내가 무슨 얘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를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과정으로 보여 주면서 '아, 내가 처음 생각이 이랬는데, 끝에는 이런 말을 했구나. 중간에 이런 논리적인 모습은 있어' 이런거를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 주는게,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 기술은 자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만들고 있는거죠.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나. 저는 실패할 수도 있다 저는 모험 적인 일이어서 하는거예요.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욕심이예요. 방법이 라고 하는게 그런 위치를 가질수도 있다. 이런 걸 보여 주고 싶은 거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계속가는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있고 거기 담겨있는 내용이 있듯이 교육을 하는 것도 내용과 방법이 있다. 그런식으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도 우리가 이중성 얘기를 할 때 '난 널 사랑해' 내용과 방벙의 일치가 안 됐을 경우에 거기서 오는 파급같은 것이 결정력들이 있을꺼다. 어떻게 먼저다 이런건 아닌 것 같고 제가 10분내에 대화를 끝내려고 하는데 아직 저희가 말씀을 못들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무작위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지 않고 저희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회인데,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에 시민이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아

무나 참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대상을 분명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반 종교시민교육을 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성숙한 시민, 건강한 교회 구성원을 생산해 내는데, 시민으로서의 성도, 성도로서의 시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니깐, 큰 목적은 그런거고,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교육실 회원되게 만드는 것 그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 관심있는지를 체크하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정보를 주어서 우리 기운실로 들어오게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큰 목적인데, 저희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세트를 나눠가지고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여기다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99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재단의 도움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다음 2000년도에도 진행을 했었는데 첫해에는 그나마 사람이 좀 왔어요. 25명 30명 그 정도 와 가지고 사이즈가 딱 맞았는데 2000년도에는 그거 보다 좀 적었어요. 왜냐하면 총선이라는 게 걸려있어서, 우리가 전력투구를 못해서, 1999년에 ?의 후원으로 교육이 잘 된 것을 소문이 난 거죠.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기독교 단체에서 벤치워킹을 해가지고 똑같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이게 한두 단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여러 단체에서 하니깐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육했을 때 사람모으기가 힘든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계층을 분명히 하거든요. 분명히하니깐 이 강좌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굳이 기운실이 아니어도 들을 수 있으니깐 그쪽으로 빠지다보니까. 우리가 수강생 모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우리 기운실은 고급 인력들이 많고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을 전문가들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15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과 사람, 수고나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체크천 마크를 딱 찍었더니,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교

육은 우리에게 효과성이 없겠다. 결론을 내려서 돌파구를 마련하자해서 만들어 낸 것이 온라인 교육을 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세계관 교육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게 뭐 흐름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안 바뀌기 때문에, 짝어서 동영상으로 개편했습니다. 2000년부터 동영상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15명, 20명이 받던 교육을 전국에서 동시에 들어오고, 해외에서도 들어오는데 다섯강좌에 5,000원이었던 150명이 들어오고, 그사람들이 회원 가입을 하고 이메일일 있으니까 계속 정보를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참여 할 수 있고 또 글이 활용할 수 있는게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이트를 올리면 제가 보고 확인하고, 진행권을 교수님께줘요 교수님이 답을 해가지고 저한테줘여, 아니면 게시판에 달도록 만들면, 특별히 우리가 그사람들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정보를 줘서 우리 기운실에 뛰어들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요, 또 하나는, 그래도 동영상 교육을 하면서 또 다시 오프라인을 해야한다 이래가지고 하고있는데, 오프라인 교육이 어려운 점이 기운실 회원을 하고, 기운실 운동에 뛰어들게 만드는 것이 단계라고 했잖아요. 무작위로,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다 기독교 신자는 아니잖아요. 너무나 폭이 큰 거예요. 나이차도 크고, 관심문제도 폭이 큰데 같이 교육 한다고 해서 한교실로 묶어서 교육을 한다든가 정보를 주기에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더이상 기독교 일반인들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교육하기에는 이게 별의미가 없겠다 해가지고 이미 조직되어있는 단체에 찾아가서 교육시민아카데미를 가서 하는거죠. 예를 들면 교회, 청년단체, 아니면 어떤 신우회, 아니면 학교 그런데 우리교육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기운실 만든 얘기를 하고 기독교에 대한 세계관, 가치관을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면 회원가입받고, 조직은 이미 굴러가는 구조로 되어있으니까 조직은 그 사람들이 조직하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있다가 우리가 뭔가 이슈가 있을때는 연락을 주면 그 사람이, 그 단체가 조직적으로,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관리할 필요도 없고 아군은 늘 있는거고 한사람 한사람을 빼오는 것이 아니고 아예 단체를 삭 빼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적은 수고를 해서 교육효과

도 높고 계속해서 동영상을 돌리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들어와서 보고 싶으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편이 있어서

실제 그런 빅 이메트에서 싹싹 달려오든가요?

어떤?

어떤 운동을 할때...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해서 설명을 해야하는데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왜 하는지 이미 사전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도 우리를 아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팩스라든가 이메일을 보내면 거기서 별 의심없이 '우리 이거 해야돼'하면 들어오는거죠.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이 이미 전제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이 동의 하지는 않아요. 어떤 분야는 일반 시민 단체와 정면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면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이거는 우리의 가치관이다, 우리의 세계관이다 하는 의도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전체를 봤을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전체 시각으로 봤을때는 민주 시민교육

근데 거기서 우리는 '기'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구죠? 말하자면 어떤 사업을 벌이겠다. 어떤 사업을 벌일 때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대게가 그 전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냐고 하는 것. 대게 그 사람들이 교육 주체가 될 거라고요. 교육플랜을 짜고 내용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교육받고 대게 거기에 같이 얻어타기 이런 방식이 될텐데 이것도 이룰테면 이끌고 이끌려가는 시스템이고 이게 시민교육 안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 자체를 문제로 지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학습자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누군가는 끌어가야 한다라는 것. 이 두개가 어떻게 되나요?

주로 일단 기운실이 어떤 특정한 액션을 취해야 하는 이슈에 대해서 관제를 맺은 단체에서 오케이 싸인을 받았다고 할때, 결정하는 단체가 누구냐, 사무국아닌가, 모든 회원들 2백명,3백명 혹은 3천명, 4천명 회원들 이메일을 받아서 오케이 싸인을 받았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뒷감당을 어떻게 할라고 하는지 저같으면 그렇게 알할꺼거든요. 얼마전에 그런일이 있었어요. 지역의 모단체 5,6곳에 매달 소개해 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운동같지도 않은 운동을 해냈거든요. 조금 괜찮은 단체였어요. 근데 20세기의 비전이 뭐냐 하면서 기준도 마땅치않은 20세기의 리더를 몇명 딱 뽑아서 언론 발표를

지역단체에서요?

근데 이런 리더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고, 떨어졌는지, 안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게 아주 애매했고 이것이 순전히 정치적인 미래 지역정치의 인물을 미리 뽑아놓기 위한 이것도 일종의 민주 시민사회에서의 수작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주 막 광분을 하면서 이새끼들 돈을 다 회수해

버려 말아버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판단의 근거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데 내가 정말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얼굴이 나온 사람들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내 경험에서 나온 평가를 할 때, 과연 정말 리더가 될만한 사람들이 뽑혔는가 아니면 지역의 정치적인 역학 관계 속에서 대부분이 결정이 됐는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후자쪽이 조금더 작용을 한 것 같다는 그 느낌 속에서 제가 이제 광분을 한 것이죠. 물론 그 판단이 정말 주관적일 수는 있어. 정말로 100%확신하나. 할말없지. 현대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민주 시민교육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이루어져버리는 거지. 아주 몽땅 이로 말입니다. 그러면 타이틀을 보고 내용을 보고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소수의 민초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백퍼센트 회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부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내기도해요. 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얘기하는 점이 있죠. 거기에 대한 거스르는 반대 의견이 있는데, 일단은 성공케이스는 우리가 할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얘기하는 필터를 거쳐서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깃발을 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그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거죠. 예를 들면, 청소년 보호같은 게 있을 때 일반 시민 단체에서는 다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이메일을 보내면 2,3천명이 다 동의한다고 달려들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 2,3천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일단은 내용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요구 사항이 있어요. 행동에서. 모일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의 세습 반대운동이 있는데 기운실에서도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자고 통일이 되어지면 하는 거죠 하면 누가 하나
 면 기운실 회원이 다 하는게 아니구요.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는거죠. 어
 차피 우리는 운동 단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내고 그 사람들이 시위현장에 나
 오고 그 사람들이 글 올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운동을 진행하는 거고, 사회소
 비자운동, 문화소비자운동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기운실이라고 해서 다 문화소비자
 운동을 동의하는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걸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기운실에서도 엄청나게 반대의견을 내요 하지만 기운실 회원이기 때문에
 기운실의 모든 운동을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기운실의 운동중에 ‘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해서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소비자운동, 사회소비자운동, 문화
 교육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 한개가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는 거고, 여기서
 는 자료를 보내주고 운동에 대해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이 들면 또다시 의견을 표시
 하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물론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그 순간에는 내부적으로 반대의견의 저항을 받는 거죠. 내부적으로도 저항은 받으면
 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사를 중심으로 시민아카데미를 진행을 했거든
 요. 의사를 대상으로 분명한 집단을 놓고 했을때, 교육을 했더니, 한참 의학분업이
 진행되어졌을때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다 그 운동을 기자회견을 하고, 통해서 발
 표를 하고, 고발조치까지 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으니까 하나의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오프라인 교육을 할때에도 재미없었어요. 처음에는 99년에 보면 강의의주
 의 교육이었다. 너무 단순한 거 두개를 딱 했었는데 강의를 이전에 한시간
 반 강의를 했다면 교수님한테 강의를 40분 45분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질문을 모아
 서 했는데 그것도 박진감 있었고 재밌었고 사람들의 참여율이 높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방법론 도입이 교육의 또 강의 평가제를 도입하는데, 저는 교수님
 들이 강의를 하면 교수님 강의를 아웃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찢라가지고 그
 다음 단계 때는 안 세우는 거야. 이 사람이 좋았다 나에게 유익했다고 수상생들이
 표시를 하면 그 다음 강의를 선정했을 때 그 교수님은 강의를 나가는거야. 앞에 참

여했던 그 사람을 활용해서 자기가 실제 강의를 해봤을 때 뭐가 좋았고 안좋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과정을 알고 있으니깐 그 사람을 그 다음 회의할 때 참석해가지고 자원봉사형태로 계속 돕게 만드는 거야, 자기가 앉아가지고 난 이렇게 교육했을 때는 안 좋았는데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의 정의를 내리시면서 저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풀어가고 싶은데 지금쯤 그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제신분들의 다 각자의 우리라고 보고 그리고 이슈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진행을 하는 결과를 보면 좋은 프로그램은 말을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해서 됐다. 사람이 이렇게 왔고 이렇게 됐다. 우리라고 하는 각자의 기획자라든가 짤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분들이 제시구요, 그다음에 학습자가 있습니다. 참가자가 있는데 이 과정,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중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말은 뭐냐면 (기운실에서) 말한 교수,강사 그리고 선생님이 말한 것도 강사,교수 가 잘못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라는 사람들이 내놓은 이슈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결국 망했다. 결국 이걸 다시 풀어보면 우리라는 기획자가 있고 아이디어를 내고 학습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는 분명히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사용하는 것인가하면 주로 강사나 교사나가 사용을 합니다. 이런 일정한 과정이 있고 이것이 위의것이 아니라로 직접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중간에 이걸 누군가 또다른 매체나 그것이 미디어의 경우에는 매체가 되고 만약에 일반인이 강의를 받게 되면 강사의 강의 방법이라든가 그건 것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교육의, 많은 평가를 내릴 때 잘됐느냐 못됐느냐하는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거죠

그게 실제적인 프로그램이죠.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죠. 우리가 페이퍼를 작성하는

것은 프로그램 이전 단계이고, 아이고 시간이 계속가네. 혹시 여기에 한두가지 사례 이거는 꼭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거가 제시면 한 두분 정도

이거는 한번쯤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현재 어떤 의미인가를 평가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시민교육방법론이라고 하면 어떤 떠오르는 그림이 있으시죠. 민주시민교육하는 방법론 교육하면 조직이 바뀌고, 단체가 바뀌고, 그 이후에 후속되는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아까 ?선생님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하는데 용기를 얻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가 조제학선생님 말씀 그 모더레이터강의, 이게 순전히 방법론 교육이거든요. 교육방법론, 근데 그 방법론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단체가 그 이후에 교육될 방향을 틀어나가는 그런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럭키21같은 경우에도 방법론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전체의 교육의 틀이 바뀌는 기운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환경사업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단체에서 이상하게도 방법론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모든 교육의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선회하는 걸 봤는데 그 방법론이라는 것은 어떻게보면 역시 틀인데, 왜 틀 교육을 받은 다음에 왜 그렇게 커다랗게 방향을 선회하시는데 대해서 언젠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법론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상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말을 할 수 있는 집단과 말을 할 수 없는 집단의 차이는 클거다. 재미라는 조직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버벌커뮤니케이션도 아니고 거기서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집단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인간 집단 하교의 변화의 차이라고 하면은, 비유가 너무 극단적이지만 조직 구성체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그만큼 제한되어있다는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 대중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일대 다수에 대한,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돌아옵니다. 그걸 들을 귀가 있냐 없냐의 차이이고, 그 다음에 적어도 일대 다수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조차도 모종의 1:1. 다수:다수의 커뮤니케이션투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의 차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조직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그것이 결국은 시민교육방법론이 아닌, 교육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조직 방법론이라구요 전반적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법론 문제에서 그렇게 답을 얻으신 분들이 그렇게 선회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교육받은 학습자가 다름아닌 교육자기 때문에 그리고 표현의 담당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 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한 프로그램을 고정적으로 5년 정도 하면서 기관이나 학습자와, 프로그램 담당자가 있었을 때,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분위기다. 종합예술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코디네이터하는 교육프로그램 담당자가 연출자이기 때문에, 저는 성공예감을, 처음부터 계획단계에서 이걸 성공이다는 느낌이 드는 게 성공을 하는 거고, 프로그램 담당자가 자신이 없고, 전 프로그램을 기획을 조직화해내지 못했을 때, 저는 그 프로그램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봐요. 저는 프로그램 담당자가 한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의 실행에서 사후관리까지 전 프로그램을 조직화해 낼 수 있는 그 열정과 이런거 누가 단순하게 이슈를 하나 딱 던져줘서 그렇게 아이디어, 맥락에 닿지 않는 아이디어를 했을때는 담당자 자체가 그 전개를 못한다고 봐요. 그 내용 자체에 담당자의 확신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강생들과 열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자신이 없는거죠. 그래서 저는 결정적인 키는, 제가 아무래도 프로그램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런건데, 기관이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던져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프로그램 담당자가 우리 기관의 목적과 칼라가 분명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차피 학습자들은 자기들이 선택하는 곳으로 가게돼있어요. 우리가 많은 학습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기관이 분명한 색깔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 학습자

들이 우리한테 오는거지 참여연대 아카데미에서 일반 백화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보세요. 실패하거든요. 그거는 이 프로그램 담당자가 자신의 기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프로그램이 맥락 맥락마다 잘 들어갈 수 있게 소통할 수있게 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방법론 적인 것이 가미가 되었을때 프로그램이 성공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 교육이라는 부분은 일정하게는 프로그램 담당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거기에서 무슨 말씀하셨다면 ‘기관이 무슨 프로그램 하라고 주지 않거든요’ 그러셨거든요 그 자체가 문제네요 왜 안주죠?

글쎄 그거는 기관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안이 들어갈 수 있겠죠. 예컨대 이러 이러한 식이고, 이러이러한 시기이고,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텐데, 이러 프로그램을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오고 저는 충분히 교육활동이 주도적으로 되는거고 그 강의에서는, 이게 제안 단계나 프로그램의 취지 단계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단계를 종합적으로 해야될 수 있는 능력은 프로그램 담당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육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기관이죠. 기관이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공자라면, 교육담당자가 프로그램을 했을때에 담당자의 감과 동물적 그런 걸로 잘했다 못했다 혹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추앙되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 보다는, 어차피 교육 프로그램자체가 그 단체의 활동의 핵심이라면 자기 심장이 왔다갔다하는 일을 기관이 그냥 내버려 둘일은 없잖아요.

그니까 그런 거에는 여러 가지 이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교육을 전문으로 하

는 기관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활동이 주된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여 연대에서 부설 교육 기관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여연대의 지위와 역할 속에서 교육이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부수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논리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교육이라는 것을 빼놓고 조직활동이 가능한가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교육이라는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의 중심형의 패턴 이런 사고를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기획이 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조직화 시키고 운영이 되는 이런 전반적인 그 부분에만 국한을 들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면, 교육적으로 이게 강의실에서 하는게 동력자체가 완전히 떨어진 교육을 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삼성의 재벌의 변칙증여, 삼성문제를 놓고 얘기를 했을때, 국제청 앞에 일인시위의 캠페인이 유효했던 거는 만약에 그 일인 시위를 강의장에 옮겨 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어떤 맥락이나 분위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교육을 뭘 놓고 쓰나요? 어느 부분까지?

저는 그 자체가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방법적인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호작용의 문제인데, 예컨대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조직적으로 사고할 때,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일반시민에게 다가갔을 때, 가장 방향이 올 것인가 이런것들을 고민해 내는 것을, 담당자들이 변별해 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것이 삼성의 변칙증여 문제라든가 예컨대 이동통신요금 인하

이런 것들은 아주 광범위한 일반 대중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 온라인속에서 오프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동원해 내는 거라고 하면은 캠페인으로 계속 가자 이렇게 되면은 캠페인은 굉장히 오랫동안 조직적인 홍보와 조직적인 사람들을 계속 붙여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캠페인 장소가 썰렁하고 그러면은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거는 캠페인을 한번 가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걸 조직화내는 방법들은 우리가 국제청 앞에서 일인 시위를 하겠다. 일반시민들에게 다 자기 당번을 세우는 거 아니예요. 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이 시간에 정해져 있는 시간에 가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참가했던 과정, 79일 만에 국제청이 삼성에게 과세를 하게 된 이런 표면적인 사건에 맞서 함께 기뻐하고 그걸 자축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해서 문제가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고 이 사람은 구체적인 행동의 경험들, 행동의 장들 속에서 그때 우리가 교육활동들을 넣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자신의 모티브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바로 그 점에서 구태여라고 하셨지만 그 안에서 교육과정이 들어있잖아요 (들어있죠) 거기서 쓰는 용어 자체가, 용어를 너무 형식적인 것들 그걸 너무 의도적으로 한정해서 쓰다보면 교육이 중지되서

저는 기본적으로 참여연대에서 하는 교육활동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서, 모든 교육 활동에서 가장 커다란, 특히 시민운동단체가 하는 교육활동을 하는 가장 많은 부분은, 다양한 시민 활동교육, 어떤 교육활동이든지 참여하면서 교육자체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참여의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가져가면 그것 자체가 굳이 정형화된 교육으로 나타나지는 않아도 교육적인 기능은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 부장님께서 어떤 핵심적인 회의에 들어가시죠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구요. 전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적인 아이템들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것들을 각각의 센터에 있는 담당간사들과 이야기할 체계가 되죠 그러면 어떤 교육적인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나면 기업에서 삼성만해도 인력개발원의 부원장은 핵심 간부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이 잘 되요. 엘지만해도 안 들어갑니다. 현대도 못 들어갑니다. 왜. 이사가 아니고 부장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걸 자꾸만 덩어리로 지어놓고 굴리라고만 하게 되면 핵심 조직 자체도 힘을 잃고 교육 활동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자꾸 회의가 길어지고 있어서

질문 한 가지만, 방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내용, 철학이라고 하는 거하고 저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는데 방법이 되는 철학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고민이 되는 것은 통칭이 민주시민방법론이라고 정해져 있는 교육 방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담긴 철학이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어제 이선생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떤 철학적인 가치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생태주의라든가 사회주의, 신자유주의 등등에 있어서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서 가장 똑같은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제같은 그런 경우에도 나타났지만, 사회를 제공하는 대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일 수도 있고,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경우에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짧게, 지금 기운실이나 흥사단, 불문티21, YMCA.... 들은 각각

다른 철학이나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학교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묘하게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의 메시지를 갖다가 배우신 교회는 교회 자체가 너무 뒤집어져서 완전히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다 바뀌고 그런 것들 조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게 똑같은 사람들이나 ,, 교육을 한 기관이나 그렇지 않은 거라고, 그런데 그 기관이 이렇게 바뀌는데 변화되는 그 이유를 곰곰이 저 나름대로 보면 민주시민교육방법에는 어떤 철학을 전달하기 보다는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혹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제습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있다고 시인을 하는 거죠. 철학이 있다. 제습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는거죠. 이 교육장 안에서 근데 이 교육장을 벗어나면 철학도 있고 모순도 있고 다름도 있고 우리 교육장 바깥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질과 동질 혹은 싸우는 알력들이 존재하는데 교육안에만 들어오면 교수주의적인 어떤 한 사람이 교육만을 책임지고 있고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그것이 발휘를 못했는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그것을 딱 하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철학과 신분제습과 이념과 사상과 알려과 다름 그 외에 문화와 신앙까지도 전부다가 여기서 얘기 되어지고 검증되어지고 심지어는 주장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 것들이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현장에서 검증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재적용 되어지고 어찌 제가 말씀드렸던 실천으로써의 가능성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굉장히 여전히 하루를 꼬박 지냈는데, 처음 시작할때도, 노동과 시민과 기관마다 위치 질문하는 방식이 다르다. 특히 노동조합 , 민중에 맞추는 것 같고, 시민쪽은 시민에 관점을 찍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개념을 바라보는 방식이 자기 존재에 기반해서 바라보고 있고, 어쩌면 민주시민 교육은 다양한 개념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사회변화를 추구하는데 일단 다양한 실천을 담아낼수 있는 틀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모아져야 하는 부분은 있을거다 하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는 좀 더 구체화된 것 같아요. 근데 핵심적인 것은 실천과 교육장이면 교육장간의 상호연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념이 이 안에 들어와서 작동을 하던지, 여기가 사회의 샘플이 되어서 여기가 거치면서 실천을 하게 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사회가 교육으로 들어오고 교육이 사회로 나가는 것 같다는 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고리들을 아직도 여전히 다른데 통합해 나가면서 발견할거가 과제일가 싶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꺼와 오늘에 걸쳐서 굉장한 교육을 경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ㅇ는 끄떡일 필요없어요 제가 끄떡여야지 선생님들은 오늘 교수로 왔고 저는 학생으로 왔고,오히려 교수수가 학생보다 많은 즐거운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난 것들을 배웠고, 그동안 저와 주로 학교에 있는 사람들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없었다면

오늘 이렇게 참여 하면서 우리 식구들하고, 이제는 만나서 웃고 얘기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커진 , 이렇게 해보니까 코프레이션의 가능성들이 많이 있겠다. 대게가 그랬잖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 드렸던 것처럼 대학의 있는 사람들의 버릇 중의 하나가 자기 질문을 가져와서 던지고 자기 질문에 대한 대답만 갖고 갑니다. 그게 보고서로 나가는데 근데 그거 는 아닌 것 같다 질문도 여기서 나오고 대답도 여기서 나와야 된다. 그건 굉장히 장기간 이우요 외국에서도 그런 활동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간은 무지 길어야 돼요. 그건 마치 파도 타기와 같다 어떤 때는 확 크라이막스까지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그대로 빠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모임마다 성공한 모임도 있고 실패한 모임도 있고 다 그것 속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프로젝트가 12월12일에 끝내기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이전에 작은 단위로든 전체 단위로든 몇 번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때마다 저희들 좀 많이 도와주시구요 갈

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아까부터 칭찬하는 듣는 것 같은 데 이 프로르 후원해주신 기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회의를 마치기로 하구요 연 구진들로 모이신 분들은 잠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녹취 자료 2 - 민주시민교육기초조사 분석 공동연구자 1차 회의

일 시 : 9월 18일 11:00-12:00
장 소 : 아카데미하우스 내일울여는집
참 여 자 : 한승희(한)
정민승(정민)
정선애(정선)
박혜경(박)
이영이(이)
은영준(은)
고상준(고)
연구지원팀

1. 설문지

한 : 설문지를 어떻게 배포하고 회수할 것인가? 문항의 내용은 어떤 것을 포함해야하는가? 어느 정도 범위로 배포가 가능한가요?

정선 : 선택해서 나누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회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한 : 기관단위 프로그램은 기관 담당자 1인,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참여 실무자 복수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민 : 실제 설문 할 때 유형별(강좌 중심, 플뿌리 중심....)로 민주시민교육이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 각각의 영역에 맞게 설문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4-5개로 민주시민교육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한 후에 이에 적합한 형태의 질문을 구성해야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공통적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설문지 개발하는 방식이지요.

한 : 같은 설문지로도 유형별로 답할 수 있는 패키지 형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할 때 얼마나 설문을 배포해야할까요? 전국단위의 방식과 지역단위의 방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 노조의 경우 2-300부 정도 수거 가능합니다. 노동 쪽에서는 이미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2002년도 최신자료).

정선 : 본 연구는 전체적인 현황 조사인가요? 특정 사례에 대한 조사인가요?

한 : 전체 현황 조사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정선 : 배포와 수거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한 : 메일로 가능합니다. 4-50% 수거하면 성공적입니다.

정선 : 연대회의에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260-80여개의 단체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율이 매우 떨어질 것입니다.

고 : 지역별로 구역을 나누고 책임자를 정해 설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

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2주간...을 기간으로 삼고 집중적으로 수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선 : 지역을 나누고 담당자를 정해 하는 방식에 찬성합니다.

이 : 다음주 중으로 설문지가 나와야 합니다.

한 : 대표성을 감안할 때 모집단을 확실히 정해서 하는 방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선 : 이번 워크숍을 결과를 공유한 후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한 : 기존에 확보된 기관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50개 기관?

정선 : 연대 회의에 참여한 기관의 숫자일뿐이지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 양적연구에서 50개기관은 부족합니다. 100개 이상이 가능한가요?

고 : 80-100개는 가능합니다.

이 : 지역조직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한 : 설문지 개발과 배포와 수거는 정선애선생님 등 공동연구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초안을 작성하겠습니다(9월 23일). 민주시민교육워크숍 전인

수요일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 배포계획은?

한 : 수거된 것만 주십시오. 이메일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인터넷 poll 방식도 가능합니다.

<운영방식>

한 : 서울대팀은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연구자가 최종적인 집필에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를 주시고 이를 기반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논의 주제>

한 : 워크숍을 통해 많이 들어났고 구체적인 것인 조원이 개별적 면담을 통해 자료 수집이 될 것입니다.

<사례 수집>

한 : 어떤 방식으로 사례 수집이 이루어질 것인가? 무엇을 꼭 봐야할 것인가?

은 : 주민자치...광명Y, 수도권자치연구모임에서 나온 어린이공부방 모임(?),

정선 : 성인교육의 영역인가?

은 : 성인교육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교육과 성인조직화의 측면에서...

한 : 정형적인 교육의 틀거리는 버려야합니다.

이 : 녹색삶을 사는 여성들의 모임(강북)

정선 : 주민자치-다음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이름은 생각 안남)

한: 서울대팀 연락창구-한

정선 : 환경교육 :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생태보전 시민모임

박 : 시민모임 - 역사문화아카데미

정선 : 리더 때문에 잘 안드러날 수도

한 : 한겨레문화센터는?

정선 : 기능교육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별히 시사를 주지 못한다

정민 : 노동쪽은?

한 : 단위노조를 찍어주세요. 잘 아는 제보자가 있어야합니다. 단체 이름과 제보자 명단을 저에게 주세요.

<역할문제>

한 : 진행하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노동-민주로 갈 것인가? 영역별로 개념-방법-전략 으로 갈 것인가? 일로 구분 설문-...으로 갈 것인가?

박 : 서로간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반면, 영역별 상호보완이 필요합니다. 전 과정이 특수성을 유지한 채 서로 공유하고 공통적인 부분들을 뽑아내는 등의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한 : 기존의 노동-시민으로 가는 것으로 합니다.

정민 : 노동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고 그 안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시민 교육쪽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각 영역을 중심으로 특수성을 찾아보고 고유의 특성을 드러낸 후 양자간의 공통성을 찾아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선 : 노동교육 쪽에서는 어떤 관심으로 참여하는 것입니까?

박 : 노동교육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고 : 민주시민과 노동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 : 내용상의 분류가 아니라 조직상의 분류입니다.

정선 : 사회운동의 맥락에서도 다른 역사적인 길을 걸어왔습니다. 고유한 영역 또한 존재한다고 봅니다.

한 : 보고서에 두 개가 분리된 상태로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박 :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노동교육의 범주 안에서만 고민을 해 왔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으로 영역을 확대할 때 민주시민교육과 만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민교육의 경우도 그것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할 때 노동교육과의 접점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이를 위한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민 : 이론적인 접목성을 통해 실천적인 접목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체의 경험이 아닌 시민으로의 학습자를 중심으로 놓는다고 할 때 노동교육과 시민교육이 한 범주 내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습니다.

4. 녹취 자료 3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래밍 워크숍

일 시: 2002년 9월 26~28일

장 소: 동양인재개발원

참 가 자: 시민단체 활동가 20여명, 공동연구자, 연구지원팀

‘민주시민교육의 정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6시까지 할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것 읽어 보시면 누가했는지 정리를 굉장히 잘 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할려고 하면은 우리가 민주 시민 교육 방법론 트레이닝 해보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나누고, 민주 시민 교육의 목적과 정신에 대해 이야기 하기, 민주교육시민성, 시민교육, 시민교육을 해봤을 때의 성공과 실패 사례 나누기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우리가 1차때 여러분들 방법들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끌어 나갈 수 있는지는 각 조에서 알아서 하세요. 여기에 맞는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원하는거 다 하셔서, 브레인 라이팅하든지, 마인드 맵핑을 하시던지 다른 여러 가지 배운 걸 하시던지 그거는 각조에 맡겨진 거예요. 방법까지 틀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서 이런 얘기들을 나누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끼리 끼리 마음을 여신분들끼리 파벌을 조성해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 헤쳐모여 정말 양심적으로 민주 시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헤쳐 보여줄 좀 하십시오. 열린시민사회연합, 참여 연대.....

이 기등들이 책임, 의사소통, 기술, 기다림, 기라, 다양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그 재료들이 잘 버무려 저서 맛있는 음식, 예술이 되죠. 여기 빈주주의를 싫어하는 박통기념관도 있고,

보시면 충분히 설명이 되실, 다른 조 하시는 걸 보니까 이런 걸들에 대해 세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제목에 충실하게 민주주의 정신에 고민해보고 다 해놓고 서로의 경험들을 나누기는 했는데, 이렇게 시작점으로 한 데는 저희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한 번 주십시오.

저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브레인 맵핑을 할때 제가 잠깐 엇들어 보니까 구절이 설왕설래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 주실래요?

청소부와 대학 교수가 1.같은 발언권을 2.같은 결정권을 3.같은 월급을 받는 것 결국은 같은 월급을 받지않으면 그 앞의 발언권이나 결정권이 무의미 하지 않느냐, 분배적인 문제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까지 담아낼 수가 없었어요. 이런 부분하고 여기 유토피아, 홍길동이라고 쓰여진 이런 것들은 기타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 월급얘기 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견해들이 있었는지

그건 제 얘기가 아니기때문에. 있다가 물어보시면

그럼 저 쪽에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바로 해 드릴까요?

아니 문제점만, 같이 어떤 주장들이 있었는지, 너무나 다양성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들으신게 다인데요. 제가 쓴 얘기구요. 제가 썼을 때는 말하자면 저기서 우리가 어디까지를 민주주의의 충분한 조건으로 봐야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흔히 얘기 하듯이 민주주의는 공장문 앞에서 멈춘다거나, 민주주의는 학교 문 앞에서 멈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그건 것들이 아예, 우리가 우리 사회를 흔히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르지만, 그 작동원리 중에는 그다지 민주주의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들이 이 사회를 떠받치는 것들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발언권이나 결정권에 대해서 산술적 평균만을 얘기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구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 할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월급이 같아야 된다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저는 월급이 같아야 된다는 말은 좀 수사적인 표현이 되구요 그런류의 평등이 전제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저기서 합의를 못본거예요. 한쪽에서는 월급이 같아야지만 발언권, 결정권이 같아지는 거지 월급이 따로 받으면 형식적인 권한이 이루어지나, 말하자면 요식행위다 그 래가지고 저쪽에서 논란이 막 벌어지려고 하는데 제가 그거 저녁에 하시라고, 왜냐 하면 이제 다양성 속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스톱을 하고 저녁에 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되는가 1조에 대해서 질문있거나 그런 거 없어요?

기다림이라는 개념은 어떤?

저 기술이랑 같이 묶기는 했는데, 항목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

이거든요. 기다리는 것, 천천히 가는 것, 인내심 이런 것, 기다려 주는 것

처음에 말이 있을때 여러파가 나눠잡아요. 그것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림을 통해서 모으는 작업이 포함 되죠. 그래서 기술하고 같이 들어가지 않냐 하다가 그냥 썼어요

기다림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시간을 오래 가지는 것

보통 모니터해보면, 출발! 결정!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되거든요. 논의하는 것이 아무리 민주적이라고 쳐도 그런식으로 폭력적일 때가 많아요

교육계의 공간에서는 보면 기다릴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환경문제제, 이런 것 기다리지 못하는 문제가 합의되지 않은 채로 그냥 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워지는 상태에서 기다려 골프장이나 새만강 할때 그냥 기다린다고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니까 못 박아놓고 언제까지 안되면 밀어붙이는 그런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하는 근데 기다린다고 한다는 것은 조금 멜로적이면서, 조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멋대로 굴고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거죠

그건 액션적인 기다림이지 멜로적인 기다림이 아니죠

더 질문 없으세요? 그럼 2조 하실래요.

저희조에 미술교육을 전공하신 분이 제셔가지고 미적 감각을 담아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는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가요 이야기를 두가지로 나눠야겠다고해서 개념에 대한 것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한가지는 민주시민교육을 했을때 어떤 장점들이 주어지는지를 분리해서 나누자고 했어요. 개념 정리를 좀 했는데요.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기본이념, 가치관, 운영원리를, 다양한 교육기법, 방법론을 가지고 교육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정리를 했구요. 그래서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라면 민주시민이라는 말이 들어 갔듯이, 산수교육같이 1단이다, 2단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삶의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보고요. 그 민주시민 교육이 되려면 배려와 존중이 있고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되고, 지식습득에서 삶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삶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교육이 바로 민주 시민교육이라고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방법을 적용 시켰을때 얻게 되는 좋은 점으로, 직접 교육하시면서 경험들을 나누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처음에 비권위적인 교육-시킴이 아니라 스스로의 교육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교사와 학생 - 조금 더 지식을 가지고 있는자와 덜 가지고 있는자, 모르는 자와 아는자 이런 입장에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같은자, 동료된 입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르치는 교사가 권위를 내세워서 '나는 알고 있고 너희는 모른다'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가자 들어가자 이런 것에서 비권위주의적인 교육이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스스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교육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와 비교육자가 관계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데 함께 나눠가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에는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서로 공유를 하게 되고 서로 어떤 의견도 일정하게 되서 자발적인 참여도 이루어지고, 그

리고 해답을 스스로 찾아가게 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교사들과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불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뒤에서는 ‘치’하고 있지만 앞에서는 가만히 앉어있고, 그런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이야기를 하시고 그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스스로 해답을 찾더라고요. 제가 목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때는 분명히 불만세력들도 많이 있고 일도 안하게 되지만 서로 나누게 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한 의견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 저런 문제도 있구나.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서로서로 얘기를 하게 되면 문제 해결점을 스스로 찾게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찾은 문제해결점은 스스로하게 되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가 있다. 서로 얘기를 하다보면 재미있게 이루어지게되구요. 그리고 상호 작용,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평가가 반영된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런 활동들 강의식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평가가 좀 모호하잖아요 탁하고 탁끝났어, ‘오늘은 시선이 그렇군.’ ‘이런 건 안 듣는군’ 이런 정도지만 이런 활동들을 하다보면 서로가 다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공동체 자체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시민교육 방법론을 할 때에는 좀 다르게 변형을 하고 그 공동체에 맞게 변형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교육방법의 변화가 가능하게 되는거죠. 일반적인 강의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이 주제를 갖고 이 방법을 적용하지만,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거구요. 그리고 개인의 창의성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아주 깔끔하게 미적 감각을 살려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거나 그런분 계세요? 저희가,우리가 여러분 발표하신 걸 갖고 저녁때도 계속 작업을 할꺼거든요. 저녁에 작업 할 것은 우

리 민주시민교육이 이리이러한 거다라는 공통점이 나오고 있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토론을 해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르는 자와 아는 자, 교사와 학생 이 문제도 아마 경험에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아주 이상적으로 우리는 다 같이 안다. 얘기를 해보면 다 같이 해결이 된다. 그게 되는 집단도 있고 안되는 집단도 있고 저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막 화를 내더라구요, '니가 강산데 강사료 주는 데 왜 니가 안알아갔구오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것인데 자꾸 뭘 알아내라구 그러나 그럼 왜부르냐..' 민주시민 방법들만을 가르치는 문젠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러니까 막 화를내고 제가 살살 꼬서가지고 니가 하고싶은 ...해라 이렇게 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관계,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되는지. 그리고 말하자면은 해답을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는 성숙한, 말하자면은 이것은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에서 많이 해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도 의논을 해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지적해서 같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쏟아내는 꺾이니까 또 없으세요?

저는 거기에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는 각각의 정의가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을 하는 사회적 정의가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정의가 있고, 참여연대는 참여연대의 정의가 있는데, 단체에서 정의를 안 가르치고 다양성을 가르쳐서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도, 그걸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내버려 둘 수 있겠는지. 우리의 활동하고 특히 모순적이거든요. 특히 기운실같은 경우는 제가 단체를 대서 좀 그렇지만, 기운실은 특별한 도구만을 갖고 활동하는 조직인데 거기서 다양성을 인정한다는게 저는..

다양성이라는 것과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은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옳

고 그룹 문제에서는 저희도 이제 능동성을 가지고 있고, 근데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진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축적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그런 가치관을 있는 것에서 되고 있는 것 들을 일방적으로 전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하는거죠 그리고 다양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다양성을 그대로 내거화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걸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된다는거죠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저기서 추상적인 표현을 했던 말이예요, 민주 사회 운영 원리라는 표현이 있고 이념과 가치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배려와 존중 이렇게 있겠다. 예를 들면 공통된 가치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구요 저는 다른 가치관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기운실에서도, 다양한 가치관이 있는데 민주 시민교육이라고 할 때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범주까지가 민주시민교육에 포함 될 수 있는가, 다양성하고 다원주의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있어서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여하튼 민주 시민교육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들 말고, 어떤 가치관, 내용이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방법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주 엉뚱한 가치관을 심어주게 되면은 그걸 민주시민교육이라 할 수 있나,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다보면 민주시민교육을 하시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민주 시민교육을 할 때, 아무런 자기 스스로의 목적을 자기지 않지는 않거든요. 할 때 분명히 교육목적이 있단말이에요. 그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방법들을 쓰고 그걸 최종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의견내십시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는 교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 는거죠

지금 얘기하신 문제는 문제로 받아서 우리가 저녁에, 장히 큰 덩어리 문제니까.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 많이 나왔어요. 다양성과 다원주의도 다르고 그리고 옳고,그름을 찾아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논의를 통해서 훨씬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 개발하게 되니까 그거를 하나의 큰 덩어리로 해서 저녁에 의논을 갖기로 하죠. 그 다음에 더 지적할 문제는 없으세요? 같이 얘기해야 될 문제? 그러면은 3조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민주시민은 000다'. 각자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쪽 적은 거를 영역별로 분류를 해서 핵심 주제까지 뽑아내는 형태로 했는데요 다양한 민주시민 방법론을 배워봤지만 우리가 많이 해본 것이 브레인 라이팅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해서,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란 000다.' 하고 딱 시작을 하니까. 역시 크게 두가지 유형이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기법은 좀 약하지만 내용은 풍부하게 토론했구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들을 보면 '함께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다'라든가, '정의', '책임질 수 있는 시민', '다양성', '관용', '차별이 아니라 차이', '다양한 가치관', '각 분야,여성,환경 이런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관통하는 민주라는 틀', 이렇게 있다 민주 시민교육에, '학습자의 민주 역량을 키우는 것'이고, '공동체' 여러 가지 민주 시민교육의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실제적으로도 이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바로 현장활동하고 연결이 되더라, 실천활동할 수 있는 방법들, 여성소모임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나눈 것이, 하나의 다른 차원이지만 의미있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법론과 관련된 다양하게 쓴 것들 중 방법론 카테고리를 보면 역시 '자신의 생각이 자유롭게 표현이 된다'는 것에 상당히 의견이 많았구요, '놀이와 문화다' '개념의 전달이 아니고, 참여자를 배려하는 그런 영역', 그리고 '젊은 세대영역에 잘 맞는다'.

젊은 세대들은 듣기를 진짜 싫어한데요. 말을 계속하고 뭔가를 하는 걸 좋아 하는데, 축구하러 갔던 40명의 친구들이 이걸로 2박3일 아주 신나게 할 정도로 생생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성들도 이에 질세라 ,여성들도 잘 만든다, 여성회에 제신 분들은.

여기 붙이기에도 쑥쓰러운 얘기지만 실패사례 이런걸 하면서 ‘꼭 좋은 종이를 써야하나’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깊은 토론이 어렵다라든가 이런 문체 의식들이 있구요. 이런 여건들이 민주시민교육의 소그룹 단위나 토론식 할 수 있는 기회조차를 안주는 교육에서 청소년강의를 보면 600명, 700명 그런 내용이라든가, 조기 족구회에 민주시민교육하기 어렵더라 이런 기법이라든가, 얘기하는데 기안죽이는 거라든가. 슬먹으면서 목소리 큰사람이 먼저 얘기해버리면 되는 그런 것이 줄어들기 전에, 이게 청소년 교육과정의 상식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아무조에서도 생각 못 하는 것 저만 생각하는 기가 막힌 거를 뽑아냈거든요. 내용과 방법론이 있는데, 우리가 내용과 방법론을 이분화해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한분이 주로 많이 얘기 하였고 다른 분이 동조한 내용이, ‘방법론 자체가 내용이다.’하는 이것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방법론을 조금 해 보면서 ‘참여자들을 배려한다’는 것.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다.’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니고 ‘기다린다’는 이런 표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는 자, 모르는 자’ 그리고 청소년하고 있어서 ‘옳고 그름’ 이런 모든 개념을 방법론 자체가 주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더라는 말씀을 하는데, 다들 많이 동조를 하고 ,이게 오늘 우리의 의제로 뽑았습니다. ‘방법론이 곧 내용이다.’ 괜찮죠? 생각 못했죠 이거.

방법론이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은 아닌 것 같거든요. 방법론하고 내용하고 같이 묶은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 어떻게 있죠?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하하하)

바로 그런식이라고 하면, 논리적인 문제가 조금 있겠죠.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정의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방법론이라고 이름 지어졌었고 어떻게 하느냐를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구성원 전체 중에서 한사람도 억압받지 않고 말끼리 막히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법론 자체가 민주적이라는 내용을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대답이 됐나요?

저희가 1차 교육할 때 전부다는 아니지만 저희 정치교육사전이 발간된 이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정치교육사전 안에 보면 '방법'항이 있거든요. 방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정말 내용이다. 그 조직에서 아무 교육도 안받고 그거를 얘기 하셔서 제가 굉장한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거기계신 분들이 책을 들여다 보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사람과 그것을 전수받는 사람의 차이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큰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심오한 명제를 내 주셨고 미적감각도 있으신 것 같애. 감사합니다

다른 조하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참신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 제 말씀을 드리면, 한국청소년상담소에서 일했고, 전국여성단체연합에서 일하고 있어요. 맨날 남녀평등을 주장하지만 이렇게 많은 남자분들과 작업을 하는 것은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흥분되는데 쓸데없는 말부터 먼저 드리고, 경험을 제가 먼저 나누고자 했던 게 뭐냐면 저희 여연에서요, 3년전부터 프로젝트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남녀평등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비디오도 보고 OHP도 하면서, 애들끼리 토론도 시키고 해서 나름대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에 1차 시민교육을 맞으면서 너무 참신한 거예요. 이것을 한번 적용해보자. 이

번에는 방식도 6회에, 상당히 장기인거죠. 6회에 걸쳐서 같은 아이들을, 같은 선생이 만나는 형식으로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하자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시내에서 인문계에서는 하겠다는 학교가 전혀 없었어요. 여기에서 떨어지고 떨어져서 가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는 학교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특징에 맞게 굉장히 다운되어 있고, 열등감과 여러 가지 그리고 집중력도 거의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훨씬 더 잘 먹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많은 저희끼리의 훈련을 통해서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1회서부터 일단 아이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움직일려고 하지를 않고, 그리고 남녀평등에 대해서 이틀이면 모서리 게임 같은 걸 했는데 ‘그러거죠 뭐’ 이런식의. 그러니까 전혀 반응들이 없어서. 왜냐하면 이게 50분이잖아요, 아이들 들락달락하고 수업 다 끝나고 마지막에 수업이 설정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아이들 왔다갔다 하는데다가 그러니까 50분이 다 50분이 아닌 거였고 40분만에 그걸 다 소화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더라.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방법론이 교육내용인데 방법론이, 제대로된 방법론 대상과 세팅과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정말 적절한 방법론을 어떻게 고민을 할 것인가, 아까 청소년 여기서도, 저희 조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반감계, 실패담 여기에 썼잖아요. 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소규모라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을때 굉장히 힘들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래도 저는 이번 워크샵에서 해답을 좀 가져가야됩니다. 아직 2회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논의와 의견들을 부탁드립니다..

저기 같은 과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해봤으니까 청소년들한테 50분이라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면 이게 안먹혀요. 저도 교회가서 해 본 적이 있는데 시간을, 강 의하는 시간을 한 시간을 주면 이건 백발백중 실패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전 분위기 조성이나 여건들이 있는데 청소년들과 같이 캠프를 할 때, 처음에 거기서 성공 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성공을 하 줄 알았어요. 왜 안되냐면, 교실이라는 자

체는 안되요. 자기가 억압 되어있는 공간에서, 그것 도 학교 내에서 선생님이 해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장치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도이게 앞으로 계속 될 수 있다면, 요즘에는 봉사활동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교육적인 봉사로서 자치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동사무소 같은데, 방과 후라든지 학교가 양해를 하면 한나절 비워가지고 아예 소풍 나가는 기분이 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니면 여기 방법론이 곧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건요. 다 책상 맞춰놓고 우리끼리 하라 그러면 눈치보고 그래서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조직에 따라서 잘 되고 안되고가 있는데 그런거 생각하면 학교도, 저도 한별학생들을 데리고 금연 프로그램을 했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되게 혼났거든요 망친적이 있는데 그때 뭘 느꼈냐면 학생들하고 그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뭐 이런걸 한다고 되간디여' 안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애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남들 수업 받을 때 수업 안 받고 나와서 다른 곳에서 다르게 했으면 가능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시간은 절대적으로 3시간 이상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효과가 없어요

글쎄 우리가 말하자면 그런 교육경험을 통해서, 3시간 이상 있어야 되겠다라 공간이 중요하다. 이미 억압된 공간 세트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다 여기다 잘 적어 놓고 내일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실질적으로 다양한 경우들, 성공한 것, 실패한 것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할때 참고로 하도록 하고요. 저도 차라리 그 대상이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배워 그런 집단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거가 기대, 목적인데 이미 어떤 주제하고 연관되서 성적이라든가 이런거를 할 때는, 문제가 그러나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좋은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5조..

안되는에 두 번쨍니다. 저희는 직업훈련 교육기간 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직업 훈련을 받으러 오시는데 본인이 원해서 오시는 분들은 나이 관계없이 일단은 노력하시

고 따라하시거든요. 그런데 방법들 다들 좋아하셨고 다들 평가도 좋았고 그런데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은 50대 60대, 50대 넘어가시거나 이제 자활대상자들 있죠, 구조 대상자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원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억지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빨리 마치고 보내주면 좋겠다. 이 마음 뿐이고 일단은 마음을 안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쉼 처음 하시는 말씀이 30분듣고 마치자 30분 듣고 얘기할게 그래서 '짜라' 이라고, 어떻게할까 고민을 하면서 도입을 하다보면은 아까 여기 나왔습니다. 종이, 펜만 들고 나오면 무조건 거부 를 합니다.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이 분들이 의무적으로 따라 해주고 앞에서 진행하 시는 분들도 노력해주면 힘들게 자기를 위해서 지도를 하는 것 같으니까 도와주려고 협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본인들은 힘들고 잘 안되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점이 참 많이 힘들습니다. 저희 자활지역기관, 지역기관이다보니까 주변의 기관에서 의뢰가 많이 오거든요. 일단 필요한 부분은 쓰고(판서), 종이, 펜 들어가는 부분들은 일단 생략하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많이 해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종이,펜들을 싫어하는 여성들을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은 게, 실질적으로 복지도 해 보니까 철자법이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때 어떤 때는 못 알아 볼 정도로 철자법이 틀리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책피해 하시고, 그래서 여성들의 문맹 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좋구요 이거는 우리가 다 작업을 할꺼구요.

저는 참여연대에 있구요.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주로 신문에 청소년 노동 권이라고 하는 얘기랑 그것이 작년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애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주축이 됩니다. 연령 구조는 좀 다양한데, 같이 어울린다는 것이 틀리겠죠 이러한 일을 하게 된 배경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참여연대같은데에서는 좀 거칠게 표현해서 잡일 이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가끔씩 와서 편지 붙이느라 전화하는 것외에는, 그 친구들을 크게 하는 것이 없고, 이 친구들의 불만이 와서 크게 배우는 것이 없다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자기들의 할 것이 있으면은 거기서 많은 발전을 스스로 가지고 올 것이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캠프를 한 번 열었었죠 캠프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제가 몇가지를 소개를 하고 이 질문을 스스로 다 만들었죠 예를 들어서 '이발소'가하는 비디오를 보고 자기들끼리 동성에 대한 방법 동원해서 토론도 하고, 혼전 동거에 토론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습니다. 램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었구요. 특이하게 새벽 3시에 농구 시험도 해 보았습니다. 자다가 끌려나가서 농구해 보세요 어떤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의견들을 끌어모았었고 여름에 캠프를 나가고 가을에 10초에 구체적인 일거리들을 찾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브레인 라이팅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패스트 푸드에 관한 것과 주유소 총잡이, 생활비가 아직도 필요한데 끌어내리기 3개가 나왔었고 그중에 패스트푸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패스트푸드에 관한 모든 것 문제라고 생각되는 이거는 고쳐져야 한다는 모든 것들을 한번 끌어내 봤습니다. 방법에 관한 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그런 책자에 있는 방법들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상황에 있어서 변형에 관한 것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랬을때 패스트푸드에서 위생문제, 건강, 문화적인 압력, 제국주의, 초국적자본등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을 제가 혼자서 얘기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제별로 몇 명씩 학습동아리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학습동아리들을 구성을 하고 자기들이 학습동아리에서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놀랐던 점이 자기들이 일정 계획을 잡는데 실제 행동은 지금 진행되는 기간입니다만은, 이것까지 보더라도 대안적인 먹거리 그것을 실천하는 대안적인 사회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진행을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 3월에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

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서 페스티벌이라든지, 여론 조성 작업이라든지 다양하게 기획이 됐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 8월부터 삼류급 캠페인이라는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패스트푸드와 청소년 노동권, 노동권리 이런 걸 거론하기 시작했고 8월말에 알바페스티벌이라는, 대학내에서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널리 알려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고민을 했던 것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노동권이라는 것이 보는 시야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기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하자면은 한국 사회가 지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들 밑에 있는 세대가 그 위를 먹여살려야 하는데, 밑에 세대도 먹여 살려야 하는 이런 구조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운데 세대가 빈약하면은 위아래를 먹여 살리기가 어렵겠죠 청소년 노동은 그런 사회구조적인 부분과 개인들의 인권이라는 여러 가지들을 모아서 고민했던 겁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제가 적극 개입한 것은 딱 하나 있죠 절대 재밌게 해야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다 이말만 하고 하겠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어떤 정책적인 대안까지 활동으로 잡아낼수 있는

각자 생각을 모았었는데 약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민주시민 교육이 왜하는가 '정책성 찾기' '내 생각을 모아주는 것' '목표를 정확하게 하는 것' '뭔가를 변화시키는 것' 개인의 문제든 지역의 문제든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면서 이런것들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들을 교육하기 위한 방법들, 방법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방법과 과정을 '기탄없이 말하기' '자유롭게 말하고' 눈치보지 않고 눈치주지 않는 것' '솔직하게 하는 것' '누구나 손을 들수 있는것'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것' 누구나 참여 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되기보다는 천천히. 그리고 이런 민주시민교육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것'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지지하고 격려하고 타협하고 협상하는 것' '바라보는 것' '

기다려 주는 것' 그리고 굉장한 쟁점이 되는 이슈가 있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런것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이것은 민주사회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이야기 했었는데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이야기 하다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는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아주 극단적으로 놓기는 했는데 민주시민 교육이 먹히지 않는다. '싫어요' 많이 배운 사람. 교육이라고 하면 굉장이 유명하고 실력이 있고 그 분야에 능력이 있는 인정이 되는 분이라고 여겨져서 그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가 강의를 한다는것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서 그런것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거죠 그런것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니까 실제로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얘기를 꺼내서 내용을 만드는 이런것들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니가 강사면 이런것들을 해봐라 꺼내봐라'하는 식으로 얘기를하시는 분들이 많고, 대상으로서 교사분들을 이야기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다른곳에서도 그런 공감을 하신다고 교사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자원봉사단체에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교육을 할 때 의사이신 선생님들이 제셨었어요. 의사인지 몰랐는데 알고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이 절대 참여하거나 전혀 개입하지 않고 그냥 하라고 알겠다고 방법에 대해서 무시하시고, 저는 그 조를 섞기 위해서 조편성이나 이런것들을 했는데 그냥 앉아계시고 그냥 하라고 그 분위기가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걸 인정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거 같구요 청소년 대상으로 할때는 청소년 교육을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두고 다수를 두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도 청소년들도 그런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어떤 모임을 갖기 위해선 온 모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교육이거나 강의같은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구요. 나이많은 남자들은 고집이나 자기의 생각이 이미 확고화 되어 있고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사람을 받아들이거나 의견을 조율하는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좋아요' 덜배운 사람이라고 되어있는데 그야말로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꺼낼수 있는 분들 주

부님들 이시거나 아니면 좀 열려있는 분들이 이 방법을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나이많은 아줌마들 이것도 결국은 주부님들 이세요 주부님들은 자기의 삶의 대한 이
야기를 언제나 일상적으로 친구와든 이웃간이라하든 계속하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
를 듣고 잘되는거 같아요 아직 생각이 확고화 글지 되었지 않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
고, 민주시민교육이 곧 방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다들 교육을 할때는 어떤
목적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맞는 방법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가 아직 방법과 내용
이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에서 통해서 방법이 얼마나 잘 순조롭게 잘
이끌어 낼수 있는가 이런것들이

우리 같은 애깃꺼리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싫어요’의 학생청소년이 일반화 될 수 없다고 그 아이들이 끌려와서 강제로 하면
당연히 싫어할 것 같아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참여하는 조건의 문
제라고 보거든요. 통 자원봉사교육을 학교에 가가지고 하거든요 40분에서 50분 그
짧은 시간에 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들어와서 조용히 시키고 분위기 잡는
데 10분 20분 끝내는데 하면..애들은 그 시간에 대해선 집중을 한다든지 자발성이
있다든지 이런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생이라고 하는 집단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그 교육이 조건의 문제가 있
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일반화 시켜버리면 안했던 분들은 아! 학생은 안되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되죠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잘했거든요 제가 경험한 바를 봐도

저희도 이 민주시민 교육은 아니지만 참여학습으로 인성설계교육을 할때 보면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과 학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문계통의 학생들한테, 그리고 자기표현을 많이 해본 학생들은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억압되어 있거나 부정적이거나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서 청소년들이거나 집단의 특성,이런거를 우리가 많이 세분화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만들어 주는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셔서 우리가 작업하기에 굉장히 기본적인 자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온거는 좋은 얘기는 많이 참여하게 된다든가 자기 생각을 참여적으로 얘기하게한다든가 이런좋은 점들은 거의 비슷한거 같아요 공통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로서 같이 해결해야될 것은 다양한 것들을 어디선까지 인정해야되는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잘 안되는 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이 들어오면 성숙한 시민이라든가 비성숙한 시민 사이의 갭을 어떻게 매꿔야 하는가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는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것인가 크게 두가지 집약해서 과제를 나눠드릴께요. 여기까지 정리가 된거 같은데 혹시 더 정리를 위해서 도움말 주실분 있을세요 우리 앞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런점 조금만 고려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방법론 문제에서 어떤 주제가 와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사실 어떤 주제를 다루는 것과는 상관 없죠. 순수하게 우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거.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방법론 교육을 받았던게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무시하는게 공동체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게임을 했잖아요. 한 단계 더 높은 방법론적인 것인데 문제는 그게 그 게임자체를 다룬데다 써 먹으면 좋은데 그걸 구체적인 주제화 연결을 시킬때는 적용하는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주제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문제나 평등의 문제나 평화의 문제나 이런걸로 그런 방법론을 사용될때에는 사실은 주제에 관한 공부를 훨씬더, 시나리오에 가깝게 해서 방법론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점에 우리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거를 우리가 한단계 나아가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보면은 우리가 조금더 나아가는 프로그램을 쓸때 보면은 사례들을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사례들을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사실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소개받은 그대로 많이들 하고 하고 외국결로 하고 그런점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이번 2박3일동안 해낼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한번 대상에 따라서 그런것들을 만들어 내서 주제하고 어떻게 접합시킬까 하는 것들도 공동으로 한번 꼭 작업을 해봐야 될 문제 여성이면 여성 환경이면 환경 지역성이면 지역성 이런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보는 과제 또 하나 이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또 하나 큰 과제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밥먹으러 가기 전에 제가 아까 여러분이 쪽 하시면서 그냥 제가 진행자 교육인데 우리가 지금 진행자의 태도,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제가 나이가 조금 있고 제가 연장자이고 경험이 조금 더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에 자기 이름을 얘기 할때요. 이름은 또박또박 이렇게 해서 고.상.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요 고상준입니다. 하면 못 알아 들어요 사람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하신 것 보니까 거의다 고상준입니다 하더라고요 학습자들이 전혀 이름을 기억을 못하거든요 조.재.학.입니다. 이렇게 꼭 말씀하셔야 되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뛰어난 역량을 가진 활동가들 '어~ 유치해' 생각 할지 모르겠지만 퍼즐이 하나 빠져있다 생각하시고 조.재.학.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할때도 여러분들이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거가 '없다'하고 '아니다' 빼고 말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 얘기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쟁 많이 쓰는 말이 '없다'하고 '아니다' '그게 아니고' 뭐 '없어' 이러잖아요 애들 보고도 '너 숙제 안했지?' 그러면 애들도 열받잖아요 한 애는 한 애대로 열 받고, 안한 애는 안 한 애대로 열 받고는게 '안했지'예요. 왜냐하면, 한 애는 속상하잖

아요 '나를 믿어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안한 애는 '그래 안 했다'. 숙제했지' 남이 말을 얘기하거나 하면은 '그런 점도 있네요. 그리고 ' 이렇게 이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고' 그러면 열 받기 시작해서 우리 2박 3일동안 있으면서 '저게 무슨 민주시민교육 강사야. 떡칠을하고 있네'하면서 집에 갈 수도 있으니까. '아니다'하고 '없다'를 내 말에서 빼면서 말하는 것 하나를 숙제로 삼아보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작업하셨고 맛있는 저녁이 기다리고 있어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들 아시는 것이겠지만, 1.답보다 질문을 중시한다. 2.더불어 재밌어야 한다. 3.최종 결정은 수강자가 되어야 한다. 4.백조가 되어야 한다.는 우아하신 김??선생님과 앞에 앉아 계신 고상한 고상준 선생님께서 느긋하고 여유있게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시간도 이렇게 30분씩 늘려주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제시지만 실제로는 속에서 바짝바짝 애가 타시고 여러 가지를 조율하시느라고 힘드실텐데요 그런 거를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하신대로 5.적극적인 기다림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6.대상에 따라 다른 눈높이를 가져야 한다.'는 학습수준을 낮게 잡아야 된다가 아니라 대상에 맞게 우리 목적에 맞게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용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00%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7.신뢰감은 전공필수이다.' 앞에계신 분들이 모델이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구요. 8.여러 가지 방법을 환경에 맞춰야 한다.' 6번하고 같은 맥락일 수도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환경에 따라서 할 필요가 없이 다 아시겠지만 어느 집단에서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또 어떤 집단에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방법을 많이 써야 된다고 했구요. 그리고 9..인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상준선생님이나 김미희선생님이 저희에게 적극적인 신뢰감을 주시는 것처럼 10. 학습자에 대한 신뢰를 또한 저희가 가져야 된다. 했구요. 첨부은 이런 교사 밥맛이야 라는 쉽게 말해서 1번에서 10번까지 다 다른 것을 말하는.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실패 사례를 저희조에서 말을 했는데 6번이나 8번같이 그런 것들을 맞추고 처음에 그런 방법을 써서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다들 지역에서 직접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실패 사례를 1번에서 10번 다르게 해서 실패 사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저희 조가 많은 고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와 토론을 원하시는 분들은 의자를 항상 3개를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저희 조에 오셔가지고 직접 저희와 토론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구요 이후 질문은 김창혁선생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질문은 김창혁 선생님한테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조원이 대게 하는 것이 노조운동이나 노동운동자의 이해나 노동자가 의식을 갖게 하거나 하는 그게 되느냐 안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랬을때 그것을 되게 하는걸 분명한 목표로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것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그런 사태를 충분히 그렇지 않은 선택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것이 어떤건지?

최종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예를 들어 노조 교육에서라면은, 달라지겠죠.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되 그것이 아까 다양성이나 그런데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부분은 이미 암묵적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얘기와 방법들이 오가는 것처럼 노조교육이라든지 다른교육,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얘기가 되어야겠죠. 최종결정이 수강자가되어야 된다는 것

은 일반적인 부분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시민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교회 단체도 회원이 되게끔 하게 하는 교육이라는 그런 것 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회원이 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자기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데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질문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비슷한, 제가 직접 좀 여쭙볼게요 편하게 얘기해서 참여연대에서 재벌 개혁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과 주장이 있어요 이 건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서 있는데 그런걸 가지고 예를 들어 교육을 한다고 할때 회원이든 시민들을 교육한다고 할때 아까 말씀하셨던 최종 결정은 수강자가 돼야한다. 우리가 강요든 회유하든 협박하든 꼬시든간에 안되는건 안되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 말구요 방향에서 실제 저런 입장을 가질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재벌기업이 이런 과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교육 안 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객관적이 자료를 주고 하긴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이 논란 일 수 있죠 한편만의 이야기를 가공해서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과연 이런 것이 노동 운동에서만 나타나는 거냐. 다 운동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인도자', '최종결정은 수강자.'는 대립되는 건데 물론 저 자체는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저것 사이에 긴장과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인도자'와 '최종결정'에 관한 것은 그야말로 어떤 의미로 말씀 드렸는지는 아실테니까 그것을 다시 고착시켜서 말씀은 안하셔도 될 것 같구요 이런 부분이죠 노조교육과 비슷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에서 나타나는 것하고 사람들하고 말하는 흔히 말하는 교육에서 나타나는 풀어나가는 것하고는 범주가 다르다고 봅니다.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되는 그런 일들은 사업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만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거기서 어떤 의견들을 끌어나가고 뭔가 음

직임이 생겨나거나 또는 느낌이 와 닿도록 하는 것은 다르겠죠

대전제는 여하튼, 참여연대로써는 그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공개적인 강좌도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법들을 쓰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관리에서 해요

그런 것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억측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최종결정은 수강자가 해야 한다.'는 제가 내린 것이구요. 저희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 기운실은 기독교 단체이잖아요. 그런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이 분명합니다. 동성애 반대의 입장인데 한 선교단체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동성애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것은 동성애가 안된다는 것을 얘기 해달라는 거죠?' '예' 맞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 보다 동성애가 왜 안되고 왜 되는지를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 하고 그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방법도 괜찮겠네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동성애 인권연대 있죠 거기 연락해가지고 자료 좀 달라. 얘기를 했더니 '어느 단체냐' 그래서 '기운실입니다.' '절대 못 가져 갑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러저러해가지고 (동성애인권연대) 의견을 얘기해 주고 우리의 의견을 얘기해서 그 분들이 결정하고 판단하기 위한 자료니까 해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가져가라고 그래서 거기 의견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한참 논쟁이 되었을때 한겨레신문이라든가하는 아티클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을 많이 끌어냈잖아요. 그런 아티클을 모으고 기사들을 모았어요. 저희 기운실 신학요원들이 동성애가 안되는 신학적 근거나 이티클 이런걸 또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줬어

요. 됐는데 어떻게 결정이 났는가 하면 처음에 신호등토론을 했습니다. '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찬성, 반대, 모르겠다. 해주십시오.' 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반대'라고 입장을 내밀었어요. 그걸 확인 한 다음에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 논리를 만드시라고 그 다음에 방청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논쟁을 했었는데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났는가 하면 1/3은 여전히 반대였구요, 그 중에 1/5은 찬성쪽으로 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헛갈린다 쪽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안 된다는 쪽이었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이쪽으로(반대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회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동성애가 왜 되는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전도사님이라든가 목사님들이라든가 선교단체 간사님이라든가 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안되는 이유만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세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무조건 안되는 거예요 이유없이 안되는 거고 단 성경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그런 사람에게 되는 이유, 안되는 이유를 서로 얘기하게 만들고 안되는 이유를 결정은 당신이 하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다른 의견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기운실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입장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역효과가 났죠 가만히 놔두면 우리편인데, 그런 의미라면 기운실에서 저는 역적이지만 민주시민교육으로 봤을때는 이게 교육이다 왜냐하면 한쪽의 눈을 아예 감겨 놓고 이게 정답이다 하지 않고 보이는 두개를 다 이야기 해야되고 만약에 동성애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면 한쪽의 얘기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우리쪽 입장이 맞다고 설득을 시킬수 있어야지 한쪽의 의견을 막아놓고 우리 의견이 맞으니까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의미에서 '최종결정은 수강자가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옳구요 '인도자'라고 해서 말이 많은데 원래는 '진행자'라고 적으려고 했어요. '진행자'라고 적었으면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텐데 '인도자'라고 적으니까 좀 그랬는데. '진행자'라고 적었더니 한승희 교수님께서 무슨 MC같다 그래서 우리가 또 MC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자가 어떠냐, 존중해줘서, 인도자가 좀 그러신 분들은 괄호쳐서 진행자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희쪽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할테니까 미리 말씀드리면은요. 기운실에 있어서 제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 케이스에 국해서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려운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조직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서 치명적으로 다른 결론이다. 그런 사안일 경우 이걸 민주시민으로는 100점이지만 운동으로는 0점이거든요. 물론 운동은 과학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한가지만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잘 먹히지 않죠. 객관적으로 주고 이렇게 필요하기는 한데, 그 이면에는 저기도 나와있지만 '참가자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든 경우에 다 그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일하는 조직에서 교육을 하는데, 정체성을 뒤 흔들 수 있는 그런걸 토론해 가지고 다른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이 조직은 해산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운실은 동성애를 반대하잖아요 결과는 다르게 나왔어요. 근데 운동은 누구를 붙잡고 해야 되는가 하면 두 가지를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으로 온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고 운동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의 눈을 속여놓고 잘 못된 결론을 도출하게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운동을 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속이자는 말씀이 아니구요. 그 말씀은 오해고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에 우리가 연세대에 할때 안 오셨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놓쳤을 수도 있는데 그 때우리가 많이 논의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결국 운동이라는

것은 사명,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 이미 시민이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교육장치에서는 다양한 옵션들과 자료들을 제공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진행자인 거죠 그 다음에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속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는 단어로 연상이 되는데 '선택'이라는 말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택하는 거는 수강자가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조직과 다른 대치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운동은 '0'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이 운동성을, 말하자면은 어떤 사안에서는 역기능을 할 수 있겠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순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직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누가 규정하느냐는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사회를 만들자' 이런 소사건에서 그 몇몇이 정체성을 규정하는가, 조직들도 변하는데 사람들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한 것이 영구불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또 다른 회원들이오고 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유연하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이 될려면, 조직이 이 민주시민교육하고 이렇게 접속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실버타운 비슷하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반드시 떨어져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기본적인 원칙이나 방향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운동을 하는 초기에 있잖아요. 그게 새로운 방향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 사회적으로 소수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왕따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랍권에서 여성운동을 한다고 할때, 사람들의 의식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내용을 담아낼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재학선생님이 얘기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도 얘기 했지만 정말 시민이 성숙하

고, 함께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장 좋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런 기본적인 신뢰에 대한 거가 결국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가 아니죠 정말 그럴까 저도 교육을 해보면은 학습자들, 여러분들은 제가 전적으로 믿고 '하세요'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나 플러스 알파를 줘야되지 않나 이런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거는 또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민주시민교육에서 포기하지 않아야 할 원칙은 사람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다 그런 면에서, 진행하는 사람이나 앉하는 사람이나 그런 면에서 동등하다.라는 기본적인 믿음 같아요

자꾸 그런 류의 질문들이 몇 번씩 이어져 오는 거에

'머리가 아닌 두 귀로 먼저 듣는 법'. 이걸 뭐냐 하면 귀라고 하는 것은 남의 말을 듣는 귀가 있잖아요 근데 머리는 남의 말을 판단하거나 자기 사고를 형성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전제나 원칙이 되는 것은 일단 남의 말을 듣는 거가 먼저 되어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의 말을 듣기 위해선 사실은 아까도 토론하면서 이제 나왔는데 비어있어야 된다는 거 이제 이런 의미예요 머리가 아닌 두 귀로 그것도 이제 두 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균형 있게 들으라 그거예요 한소리만 듣지 말고 이 얘기구요 이 시 구절이에요 너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교육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과정이지 일단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구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와 본성과 가치나 이런 거 자체를 충분히 드러내게 하는 과정이 교육이라는 생각이에요 그건 어쩌면 선택하게 한다 이런 거 하고도 나중에 연결이 될 테지만 일단은 그전에 드러나게 하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거 어떤 편견이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서로가 다르지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집안이나 자라온 배경이나 학력이나 뭐가 다르다
 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이 조화로워야 하는 것 교육의 과정 속에서도 이게 조금 시
 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사회적이라는 가방에 환경교육운동 다양한 관
 점 누가 썼는지 알면 진짜 저희 조에서 이분은 이분이 무엇을 허물어 뜨려야 되느냐
 허물어 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냐 대해서 이제 뭐 독일의 경우에는 뭐 인종이나 뭐나
 여러 가지를 얘기 하셨지만 사회정의라는 것을 얘기 하셨구요. 토론하면서 이런 얘
 기도 했어요 사회정의 이러면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잘 끄덕끄덕
 해 지지가 안잖아요. 전두환이 쓴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뭔가
 이런 '사회정의'다라고 할때 이것이 좀더 공감되는 표현이나 말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푸념이 없는 사회' 이런건 상이 오잖아요 그런 것
 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도 시구절이고 '잠이 오지 못하는 것' 변화를 위한 강한
 카피 섞은 거라 할까 이건 뭐냐 하면 교육은 사람을 걱정적으로 만들고 설레이게 하
 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나서 정말 설레서 잠이 못 오
 거나 화가 나서 잠이 못 오거나 아니면 뭘 해 보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잠이 못 오
 거나 밤잠을 설치게 해야 사람이 바뀌든 생각이 바뀌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만 교육이라 하는 거가 변화를 위한 강한 힘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구요 세상을 바꾸는 거는 저희가 토론 말미에 굉장히 맥이 빠져 있는 데 저기
 시 표현 하나로 세상을 바꾸는 카피가 있어서 '시민교육 하나로 세상을 바꾸다'
 이렇게 썼는데 시민교육만 세상을 바꾸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교육하는 사람들의
 아집 일 것 같아서 하나로써 빼고 냈더니 그냥 이렇게 밀밀하게 '세상을 바꾸다'.

나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걸 접해보지 않았나 그래서
 민주 시민교육의 핵심 개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일단은 정리했고 다 정리하
 는 게 힘들다 그래서 핵심개념, 구체적인개념, 또 약간에 더 붙어 있는 개념 그렇게
 떨어져 질 수록 다양성이 인정 되기도 하지만은 아주 떨어져 지면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대답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하진 않고 저희 조는 찬성, 반대, 유보, 다섯명에서 투표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뒷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룰 수 없었던 개념 세가지가 있었는데 정치적 무관심을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무관심을 해서는 안된다'는라는 것 이것을 민주시민교육의 핵심개념으로 삼을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한 찬성 셋, 반대 하나, 유보 하나, 이래가지고 일단 보류해놨어요 행동과 통일도 마찬가지로 유보로 해놨습니다. 행동과 통일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스테이트먼트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니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알아' 이런식으로 아무리 민주시민교육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것들은 니 맘대로 하게 절대로 놔둘 수 없다라는 성명서를 제출하게, '더불어 사는 사는 삶의 가치'는 꼭 들어가야 되요 가능한 현장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지만은 민주주의란 말을 썼고 종교, 나이, 성별, 학력, 재산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은 구체적으로 행동 또는 실천의 ,그다음에 성희롱, 가정폭력, 아동학대, 매매춘, 호주제가 없는 사회, 약자와 소수자의 보호 그다음에 생명존중 평화

나왔던 시나리오 젊은 여인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하는 게 건설적이지 않겠나 이왕 할려면 각자가 배역을 맡아서 역할극을 하자 그래서 사다리를 타서 한 사람씩 배역을 정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 데 사람들이 너무 역할에 몰입한 나머지 너무 몰입한 나머지 너무 자기 변호와 상호 공격에 발전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후에 저희 조는 다양성 인정의 문제로 토론이 시작했는데 폭력도 다양성으로 인정 될 수 있는나라는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역할극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다들 고생한 투쟁성과 그 서로 말 잘라 먹기와 그런 거를 거듭하면서 이제 너무 열심히 싸우다 자유는, 쫓는 저랑 나머지 네 분이 이렇게 달라져서 굉장히 달라져서 굉장히 열심히 싸우다가 또 싸우던 사람 허무하게 막판에 가서는 알고 보니까 비슷한 일인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결투해라, 얘기가 다르면 손들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탐구 나눠서 얘기 했어요 아까 얘기 한 건 탐구에 관련된 얘기여서 그 얘기는
 제가 다시 읽해도 될 거 같고 다만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방법론에 관한 거 였어요
 저희 토론을 어떻게 할 것 인가를 가지고 거의 30분 이상 시간이 걸려 가지고 저희
 모이신 분들이 걸으로 보기에 유순한 분들이어서 걸으로는 자기주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웬만하면 저줘야 하는 데 그렇게 얹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
 고 서로 오랜 공방, 결과적으로는 옆에 있는 조처럼 다수결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다수결을 따르자 이렇게 해서 했구요 저희 이전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
 면서 어떻게 논의를 해 볼까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기본 원칙을 어떻게 해결을 할
 까 등등등 논란을 격다가 그러면 한번 현재사회에서 맹점이 되고 있는 주제를 가지
 고 한번 그걸 나열해보고 그 속에서 다양성의 현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 이런 걸 알
 아보자 그렇게 됐구요 사회문화 측면, 교육 측면, 환경 측면 이런 큰 범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마시구요 저희가 충분한 시간이 아녘기 때문에, 하다가 나열해 본거
 구요 특별히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드릴게 없을 것 같아요 다 보시면 아
 시는 거고 이해가 가실거라 생각되구요 여기 지역이기주의와 원리 사회문화측면 마
 지막에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가지를 들어서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상권 문
 제 이런거는 어떻게 볼 건가 이런 것은 일방적으로 지역이기주의라고 대두할 수 있
 는 것 인가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 한거 저희가 처음에 접근하다 보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는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여기 있는 주제에 대해서 다 토론해 본 건 아니지만
 은 짐작컨대 실제로 의견이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6명이 모여서 얘긴 얹
 해봤지만 얘기는 조금 했어요 조금 하다가 했는데 안 봐도 아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의 능력은 채워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쪽 보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잖아요. 민주시
 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다루었으면 좋겠는 보다 좀 강한 비잖아요 그래서 여기있는
 것들은 대체로는 어떤 찬반 의견이 확실할 수 있더라도 그리고 어떤 경우엔 정리 할
 수 있더라도 상당히 그 나름대로 각자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나무

의 차이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대체로는 상당히 근거도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이성적인 능력이라든가 처지가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 이런 주제를 통해서 그런데 접근해 갈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 감상을 나중에 해봤습니다.

5. 녹취 자료 4 - 민주시민교육기초조사 분석

공동연구자 2차 회의

일 시: 2002년 10월 9일 18시

장 소: 사당동 음식점

참 석 자: 한승희 (한)

정민승 (정민)

김희은 (김)

정선애 (정선)

이영이 (이)

강현주(강: 기록)

정선: <시민교육과 학문체와의 관계> 정확하게 시민교육 이런 걸로 관심 갖고 논문 쓰고 글을 쓰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박사논문도 하여튼 별로 없어요 시민성, 시민사회분야로 제가 이번에 인터넷 시민학교 자료실에 주제별 분류자료실을 석, 박사 논문으로 봤는데 NGO나 시민 자 들어가는 박사한 사람은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NGO학과가 생겨나고 NGO 관련한 연계과정이 생겨나고 그래서 박사하시고 나면 자리가 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것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시민사회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한 분이 없고 하신 분들 중에서는

저희 사회교육 쪽하고 비교적 문제의식이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쪽 먼저 논문 검색이나 글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그래도 저희 문제의식하고 비슷하게 맞는 분을 찾은 게 그때로는 조용달교수님인데, 조용달교수님을 찾아가면 이미 왔다 갈 사람들은 다 왔다간거야 김미란도 왔다가고, 왔다갈 사람들은 다 왔다간거야 그래서 인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분이 직접적으로 관여 한거라기보다는 저희가 이런 뭔가 workshop이나 토론회장을 만들면 오셔서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주시거나 이런거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 중에 한분이 최원섭교수님. 강원대 최원섭교수님 그 분은 당신이 직접 '정동은 사회를 위한 교육운동 협의회' 지금은 일은 즐였는데 '정교육시민운동본부'인가로 이름을 바꾸시고 직접 현장의 문제에서 교육문제로 운동을 하시고 이러는 분이고, 그분하고도 관심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분은 따로 운동을 판을 벌이고 있는 분이셔서 근데 그 분이 하시는 것 중에서 저희가 관심 깊었던 부분은 사회참여라고 하는 걸로 학교현장에서 성과수업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어쨌든 저희 문제의식하고 상통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주로 청소년문제 '꼬마시민운동' '학생시민운동' 이런 차원에서 교육 문제를 접근하셔서, 저희하고 직접 뭐를 같이 뭐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어쨌든 선생님이 하시는 활동에서 모티브를 얻거나 그러기는 했었죠 마찬가지로 저희 무슨 워크샵이나 이런거 있을때는 그냥....

한: 시민운동쪽으로 훨씬 많은 분들이 특별히 교육에 관심이 있는....

정선: 없어요 선생님

한: 없어요?

정선: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알면은 보였을거예요 그 다음엔 뭐 그 두 분 정도고

그다음에 교수님으로는 이제 서강대에서 교양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인가 이 과정을 김영 교수님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눈에 보이니까. 김영 교수님을 이제 찾아가 "쫄쫄 이분은 제가 보기엔 특별히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걸 하는 건 아니에요. 정치학하시는 분이고 교양과정에서 나름대로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강좌를 만들어서 쪽 하신거죠. 그런거고 제 경우로 봐서는, 그러다 조교수님이 어쨌든 제가 인터넷으로 시민학교하면서, 교장으로 모셨다가 본격적으로는 일을 제대로는 하시지는 잘 못하셨고, 좋은 교사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이런 걸 운동을 해 볼려고 하죠, 생각이 있던 차에 그렇게 오신거 같고, 그런 다음에 제가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이제 한승희 교수님, 이해주선생님 찾아뵙거나 정확하게 관련 논문 쓰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웹기관 교육하면서 정민승선생님 찾아뵙거나 ..다 아는 ...

한: 아는 분들이 끼면 글비 다 꺾듯이.....

정선: 하여간에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모르는 건 아니죠.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더 있는데 저희가 못 보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한: 관련을 메면 메일 만 한 사람들은 다 있죠. 근데 표방을 못해서

정선: 표방만하면 글로나 뿔로나 표현이 되자나요 교수님처럼이나 시민단체교육에 대해서 한 소리나 해주시고 이러면 당연히 눈에 띄는데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과정에서 사회교육과에서는 학교 마다, 그런걸 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강원대쪽에도 있고 속촌가 어디에도 있고, 과정도 민주시민들 이런걸 하나 강좌를 개설해서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한: 요즘에, 그거 시민학교는 어떻게 돌아가나요

정선: 사이트 개발하는거요 아니면

한: 사이트 운영을 하시자나요?

정선: 지금하는거요. 제가 거기에다 썼는데 웹기관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자나요. 얼마전에도 보니까 어디지 무슨 미디어 교육하는 미디어 운동하는 단체데여. 거기서 미디어 ..시민미디어 교육센터가 뭔가를 열고 웹사이트 통해서 미디어 교육을 한다고 메일일 와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거든요. 어떤거냐면 동영상으로 강의하는 장면 보여주고 옆에다가 강의요약해주고, 보통 사이버 대학에서 하는 그런 식인데,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고 웹을 통한 웹상에서의 교육활동을 일어나는 거를 얘기를 하는거지 웹이 뭐를 도구나 이런거로 사용해서 하는 이런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는 다른 유형인데, 지금 인터넷 시민 학교는 크게 보면 두가지예요. 지금 하고 있는거는 기존하던 강좌를 온라인으로 텍스트로 옮겨서 하는 교육이자나요. 이거는 지금 한 3년 정도하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운영과 수요는 있는거 같아요. 예를들면, 거기는 지금은 정보전달이라고 하는거 하고 지식전달이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기본개념이예요. 거기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하고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의 교육영역이나 학습영역이 있는거니까요

한: 근데 그런 문제 하고자 하려는 것 있자나요 그것하고 시민의 운동하고 소위 운동성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려는 바하고 그게 한 두름으로 엮어지나요?

정선: 선생님, 제가 여태까지 워크샷하면서 참가자들, 글담당자들이 느끼는 문제 의식을 한 번 몇가지로 나눠봤는데 지금 정리는 못해왔고, 제가 파일로만, 그중에 대

표적인게 교육의 목표를 말할 때 이게 누구의 목표냐 이게 좀 다른 지점이 있는거 같아요. 저는 굳이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시민 행동으로 수렴이 안 되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구요 근데 이제 조직의 기관장들은 이것이 시민행동으로 수렴이 되기를 바래요. 수렴이 된다는 건 어떤거냐면 단순히 회원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서 그게 어쨌든 시민 행동에서 운영하는 시민 학교의 활동군이 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시민 행동에 자산과 외연을 넓히는 이런걸로 기여하기를 굉장히 바라죠

한: 관련되는... 예컨대 기업별로.... 기업내에서는 어떤 그건 좀 다른 의미겠지만 어차피 소속이 바뀌니까 하지만 교육의 효과가 기업내에서 분명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좁은 의미에서 보는 것이고, 어떤 종류의 교육은 어디에서 됐건간에, 노동자 교육 전체로 확산되기를.. 기여되는 교육이 있을거구요 그죠?

정선: 예

한: 지금 말씀은 예컨대 후자 쪽이다.

정선: 예.. 제 생각이 그런거구요

한: 그럼 그 점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의 학교가 하고 있는 활동이 어떤 점에

큰드롬에서의 시민 운동과 결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정선: 시민 행동이요? 시민 운동이요?

한: 시민 행동은 관계 없고 시민 운동전체. 그거하고 시민학교가 하고자 하는 것 하고 어떻게 매치되는지...

정선: 그니까... 지금은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강좌를 보면 '자치시민 K씨의 마을 만들기'가 있어요 그걸 보고 나서 당장 마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안들어요

한: 허허허

정선: 그리고 그런 특별한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활동의 지향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지금 단계는 그럼 거 거든요. 지금 단계는 다른 모든 강좌가 그래요

(어서 오세요...안녕하세요! 잘 찾으셨어요? 예.....연장자 대우를 다 이런 저런 얘기 하고 있었어요...)'김 희은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정선: 싸이버의 새로운 문화를 어떻게 볼건지 뭐 이런것도 저는 교육이 다양한 유형과 수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냥 단순하게 인식의 지평을 넓히거나, 한번 자기의 가치관을 되돌아 보게 하거나, 이런 수준의 교육이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필요한 하나의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게 그 단계고. 근데 제가 이게 최종 목적이거나 이것만을 하겠다거나 하는거고, 단지 지금 단계에 저희가 하고 있는 거일 뿐이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쪽 저는 저변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강좌를 여전히 할 거지만. 그 다음 단계로 해보고 싶은 것은 그 속에서 정말 활동과 접촉의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 그거야 말로 클리어한 시민들의 비전이 있어야 그려낼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이겠네요 그죠?

정선: 뭐 하여튼 그래서 예를들면 지금 사회참여 활동 사이트 만드 것도 그런거 예요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제가 어떻게까지 관여를 하나면, 첫사례와 모범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해서 가는 건데 거기에서 어떤 선생님이 애들을 데리고 학교 급식문제를 가지고 사회 참여 활동을 해보고 싶어해요.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을텐데 어떻게 시민운동차원에서. 운동차원에서 풀어 나갈 수 있을까, 교육이면서도 어쨌든 그게 단순하게 뭐 그냥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안다가 아니라 참여활동이 일어나게 해야되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급식운동하는 사람들을 쭉 한번 봐요. 그 중에서 어떤 이모라고 하는 분이 급식네트워크를 만드는 일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어쨌든 학교 급식 문제를 갖고 거의 목메신 분이 있어요. 그 분을 만나서 제가 먼저 전반적으로 그게 어떤 운동인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수준인지를 저도 이해를 하고 그분한테 인제 우리가 할려는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이 찾아올거다 선생님한테 이제 그런 활동에 과정이나 이러한 걸 조금 더 풍부하게 선생님이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얘기를 하고 이게 학생차원에서 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의논을 하라고 하고. 이러면서 그 사이트에서 그 하나를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은 이래요 급식문제가 지금은 학부모들의 관심사이거나 이해 당사자의 관심사로 되어있어요. 뭐 농협이나 한상진이나 이런 데서 난리야 급식을 어쨌든 직영을 해서 자기들네들 우리 농산물 공급하는 이해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혹은 학부모 문제예요. 학부모문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밥을 먹는 애들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애들의 참여방법이나 공간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거고. 지금 여기에서의 저희의 자그만 실험 지금이야 2,30명의 애들을 데

리고 선생님 하나가 하는 거지만, 그 실험을 해 봄으로써 다른 학교에서도 급식문제
로 애들이 어떻게 활동 할 수 있는지. 사례를 만들고 확산하고 그러다보면은 궁극적
으로는 제가 그걸 조직하지는 않지만 이제 지네들끼리 야! 우리 학교 급식문제 혹은
니네 급식문제 갖고 나서서 일하는 애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
니네가 갖고 있는 교육비디오 자료나, 이런거 우리 좀 빌려줄래' 이런 단순한 수준의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확산되어 갈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할 역할은 이거의 모
티브나 터나 이런거를 닦는거를 이 과정을 통해서 해보는 게 그 다음 단계에 해 보
고 싶은 거죠

<시민단체들의 자원봉사자 교육에 관하여>

정선: 20대는 제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해보면 대학생들은 듣는 걸 너무나
무 지긋지긋해 해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안되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구요 일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정선: 가장 이상적으로 하는게, 이제 참여연대에서 예를 들면, 영어를 할 줄 아는
대학생들이 개네들이 전적으로 참여연대의 영문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야. 그러는 거
지 정말 교육이 필요가 없는거야. 저희도 대학생들 자원 봉사가 오면 어떤 애들이
오냐면 예산 감시운동에 관심이 있는 논문쓰는 박사들이 와요. 그럼 개네는 다른 공
부가 필요가 없거든 정확한 역할과 역할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나눠주면 되는거예요.
다른 무슨 자원 봉사자의 자세,태도,기관의 역할 이렇게 필요가 없어 20대층. 30대
전문인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정민: 거꾸로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평생교육사 강의를 하자나요, 그러면 인제

학생들이 평생교육사중에 실습을 나가거든요. 실습을 나갔다와서 보고를, 이런 저런 얘기를 해보자 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친구들이 주로 4학년때 나가거든요. 나갔다와서 주고 하는 얘기가. 주로 YMCA를 많이 가요. 그리고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는데도 가죠. 그러면 별로 안 좋아 하더라고요. 그런대는 학생들이 와서 실습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피곤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기는한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친구들이 다녀와서, 그니까 이 학생들이 배우거 없이 착취 당했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습이라는 차원에서 보냈는데 .예를 들면 인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일 할수 있는 인원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 친구들한테 전혀 얘기도 없이 갑자기 ' 모든 활동을 지도해라' 이런 식의 과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녀와서는 자기는 시민 단체가 이런 된 줄 몰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진짜로 그렇게 웃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편을 만들 수 있자나요. 그 이후에 졸업하고 나서 이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구나, 근데 그 이유는 뻔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원 봉사자들 개개인을 care해 준다거나 방법을 가르쳐 준다거나 이게 없는데, 플러스 시스템의 뒷받침이 한편으로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박사 과정에서 문제 의식까지 있고 일만 하면 된다는 사람의 경우는 좀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건 필요가 없는거 같은데, 오히려 잠재력있는 층 이렇게 있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 대학생들 실습 나와서 돌보고 하는 사람들 상대할려면 그 사람용 사람을 하날 써야되요

정선: 그죠..

김: 근데 실질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가 남자들쪽이에요, 물론 남자만 있지는 않지

만 여성단체들은....

정선: 그런걸 혼성단체라고 그러두만 난 너무 놀랐어 갑자기 인터뷰를 나왔는데 여성개발원에서 우리를 혼성조직이라는 거야.

김: 애 그래도 그거는 나아져서 그런 거야. 옛날엔 다 남자단체라고 그랬어

정말?

...

김: 혼성단체들은 우리보다 활동 페이지가 우리보다 상당히 높더라구. 우리 60만원씩 주는데 사람 구하는데, 우리 여성 단체들 지금 비상이야. 참가안해 그러니까 뭐 자원봉사자들 뭐..관리 그게 뭐 악순환이겠지 뭐. 자원봉사자들 관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런데 그거 사실 대학에서 해야 돼.

김: 그거는 한군데서 자원봉사자들. 김구 선생님이 가서 하는데. 자원봉사를 개설한 사회복지학과에서 개설했는데 아니 도입됐데 자원봉사를 개설하는 학교가 그래도 꽤 늘어나고 있더라고, 옛날에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자원봉사 개념이 별로 없었잖나, 우리들도 사실 다 자원봉사로 보는거야. NGO이런거를. 이런걸 하고 자원 봉사를 할려면 조금 체계화하고 전문화한 교육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도 Y는 '아하! 성 상담센터' 있자네. 거기는 자원봉사자들을 우리가 교육원에서 위탁받아서 거기 한번 해 줬었는데, 거기는 대학생들이더라고 개네들이 성으로 특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성에 관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고객 맞이 하는 방법, 자기가 뭘 해야 되는가, 자원봉사자들이 잘 모르는 판에 들어가니까 이거이거는해라 지시를 해도 사람 일 시키면 그러자나요. 이거를 하라는 거는 아주 부분적이고 자기가 알아서 감 잡아

서 해야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알아서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감을 못잡는 애들이 있어요.

정민: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시민단체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데는 상담 기능을 갖고 있는데예요

아아

김: 그런데 사람들이 상담 기능들이 다 힘들어하고 그러면는 의무가 아니니까 다 빠지고...

정선: 그러게 그게 뭐냐면 가급적 업무가. 하는 사람이나 시키는 사람이거나 분명하게 구조가 되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김: 그런 일들도 안한다니까. 상담이 계속 평크가 나는 거야. 시간까지 다 줘. 상담 교육하고 그래도 일차적인 일은 자기 일이지. 그리고 또 여자들은 일이 많이 생겨요. 갑자기 시댁의 누가 아프다거나, 남편이 출장을 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평크를 많이내. 근데 참여 연대가 자원 봉사가 관리를 쥔 하지 않니?

정선: 잘해.

김: 거기는 어쨌든 할아버지들을 잘 조직해갔고, 회비받는거 이런 것도 잘하고

정선: 그래서 집회 나갈 때 청년들 할아버지들이 나가잖아

김: 왜냐하면 집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줌마이거나. .정년 퇴직한 아저씨데

....

정선: 근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 모든 그런 큰 조직에 회원 모임은요 사고가 나.

한: 사고가 나요?

정선: 어떤거냐면...어떻게 문제냐면 순순한 의도를 가지고 오시는 많아요 조직의 대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면 정말 시간이 많이 남아서 회의에 열심히 오면 드러나게 되었어요.대표가 되는게 비교적 굉장히 쉬워. 그니까 실천과 철학으로 검증되지 않고도 회의만 열심히 나오면 그 사람이 그 회원 모임을 장악할 수 있어요.자기가 대표가 될 수 있다고 맘을 먹으면 될 수 있어요. 근데 마음도 있고 뜻도 순수하지만 자기 일이 바쁜 사람이 거기에 이제 가꿈 가고 이래서는 그 모임을 주도할 수 없거든요. 그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오더라도 자연히 이제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직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직적으로 걸러지는 시스템이 없어. 어쨌든 회의에 열심히 나오고 이러면 땡이야.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보고) 명함 사달라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나라 공간을 지키는 모임이 있었어요. 예산 감시하는데..이제 그런 사람이 구청장이나 지방의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나라 공간에 이런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는 모르겠지만 ,예를들면 이런 식이라는 거야. '나는 참여연대 공간을 지키는 회장이다. 한번 만나자'그러는거야.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되기는 할텐데... 적법적으로 하거나 안하는. 젊은 사람들 모임은 그런 요소가 적어서 굴러 왔는데, 요즘은 참여연대에 가면 할아버지들 없어, 옛날에는 넘쳐 났는데

....

김: 시민섹타의 일백개의 큰 조직들이. 시민 섹타 그 안에서 관리가 되는 그 문
체.

정선: 여러면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람들도 왜곡시키는,

김: 품난난다 이래서 회원되겠다는 사람도 있자나

정선: 그럼요

김: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남자들이예요. 여자들은 여성단체 들어가야 품난
다는 생각 별로 안해.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인 공익성이예요. 여성들은 그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니까 사람이 아무렴 도사고
천사가 아니 다음에야 뭐 그렇게 다 순수동기로 일하겠어요. 지역사회에 가보면 여
성들도 활동할 때 그런 말들 쓰는 분들 많아요. 유명해져서 좋다. 왜냐면 단체 가입
되서 일하게 되면 유명해져요 지역사회에서.

정선: 지역에서는 진짜 유명해져요. 그래서 어디 모임 대표라도 되면..

김: 그런데 그게 다 동기인거지 뭐 인간은 그렇지않아요? 누군들 그런걸 갖고 완
전히 자유롭겠어요

정민: 라틴아메리카에서 그런 보고들이 있었는데, 지역의 그들의 팜프레케이션을
위해서 마을에서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팜프레케이션센터에서 교육을 막

시킨다 그래가지고 도로 보내자나요. 그럼 이 친구들이 다 어깨에 힘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지역에서 팝플레이케이션을 프로모토하기보다 오히려 망쳐놓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거예요. 계급장하나 달아주는 꼴이 된거라.

정선: 여러곳이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받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또하나 이제 청소년을 받을 준비도 안 되어 있는게 이제 앞으로는 (자원봉사를 청소년을 쓴다고?) 자원봉사라고 하는 영역이나 청소년이라고 하는 영역이나 시민운동에 다 같이 무엇을 하면서 가야하는데 그러구 있다구....(헤헤헤) 아직은 문제다 문제다 이리기만하지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못 찾구 있다.

김: 여성지 만들 때 청소년 포기했어요. 청소년. 그게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성쪽에서 일하다가 청소년업무를 보는데 그래도 청소년이 일하기가 훨씬 낫데. 여성이 일하기가 제일 힘들데. 일하기가 애들은 애들이기 때문에 업무도 상당히 단순하면서 ..

정선: 밤일은 없겠네요

김: 밤일이 왜 없니. 개 맨날 돌아다녀 밤에. 그리고 떠도는 애들 라면 먹이고,, 그거 얼마나 많이 하는데.

정선: 그런 밤일 . 어른, 아이 이렇게 좀 있으니까

김: 그리고 한두번 얘기들어주면, 애들은 쌓인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여성들 처럼. 그니까 그래서 덜 왜곡되었는거지. 조금만 잘해 주면 좋아하고.

한: 성인이 문제군요

김: 남자. 성인남자

정선: 우리나라는 성인 여성들이 문제이고, 성인 남자들이 진짜 문제예요

<정선애 선생님의 시민교육연구팀의 연구일정에 관한 발제>

씨실하고 낱실 같은 건데 유형을 크게 두가지로 나눴어요. 위의 첫 번째 유형별 조사 및 인터뷰는 진행되고 있는 시민 교육의 아래와 같이 나눠보고, 이 중 사례로 써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하여 조사 및 인터뷰를 한다. 이런건데 제가 유형을 어떻게 나눴냐면, 하나는 가치관과 태도 형성과 관련된 것. 이것은 당장에 실천과는 상관이 없어요. 시민성의 가치관의 저변을 넓힌다는 이런 차원에서의 교육인데, 이 중에서도 갈등론 원탁토론에서 이렇게 했던 것은 아래에서 아래 유형 조사에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아래 유형 조사는 비교적 독자적인 교육분야고 일정한 단계로 이미 성숙돼 가고 있는 분야로 이미 뽑은 거고, 이거 하고 안 겹치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시도가 되고 있는 이런 걸로 뽑아 봤구요. 그 다음에 공통의 과제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보다 활동과 밀접한 연계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실천을 염두해둔 교육들이 있어요. 성미산, 작은 산 지키기 운동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을 한다 할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단체가 하는 워크샵도 꼭 교육이라는 꼭 붙이지는 않았지만 어떤 공통의 과제를 염두해두고 자기네들 끼리 뭐가를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런 어떤 포과? 를 해보자는, 예를 들면 생태보전시민회 모임에서 작은 산 살리기 캠페인을 해요. 여기서 그러면은 작은 산 중에서 여기서 비단산 살리기라는 하는 캠페인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작은 산 살리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의 교육 노하우를 전

수시키는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요. 하고(그리고)또 하나는 대상 별로도 구별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작위 대상 말고 회원교육, 리더쉽교육, 교육자 양성 교육. 이런거 그래서 일반 단체 쪽에서 회원교육 쪽에서 이런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또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 단체에서 교육하는 담당자가 모든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단계로 교육자, 교육할 교육자를 양성할 교육이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거든요. 미디어 교육 같은 경우도 교육자를 양성해서 그 분들이 학교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거든요 이런 유형들을,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리더쉽 교육 이걸 뭐 제가 지도자 양성교육이라고 해야 될지 좀 감은 안 잡히는데, 어쨌든 그런류의 조직이 어쨌든 리더가 될 사람들이 이런 류의 글들을 받고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어떤지 이런거구요. 저희 예로'다음 지키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교사 양성 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재희교수님이 표방하시는 것 중에 지식 전달 모형, 지식 상담 모형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뭐 지식 전달 모형은 많으니까 그 중에서 지식 생산 모형이 될 만한 사례들이 있는지 이걸 어떤 뭐 특별한 교수-학습 관계가 있는게 아니라 우리 학자간에 자기들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교육의 모형이 있는지도 보고 싶고, 이거 하고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다른 말일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습공동-학습조직이라고 하는 성격을 띄는 조직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시민교육이 이제 단계별로 되어있지는 않은거 같아요. 대부분 일회성 교육인데 이걸 어쨌든 단계로 구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단계가 앞으로 어떻게 차별을 받을지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다음에 방법론과 관련된, 순전하게 방법론-skill과 관련된 것들을 푸는 것. 이런 식으로 유형을 한번 나눠보고 이거와 관련된 각각의 단체들을 찾아보고 이 유형에 맞는지, 이거 외에 더 필요한 게 있는지, 이런 것 해봤음 좋겠고 또, 한 차원에서는 분야별 유형조사인데, 지금 적어도 지금의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봤을 때 독자적인 교육분야로 인정받고 있는 것,그래서 나름대로의 일정한 성숙단계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인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라봤더니 '미디어 여성 통합권 일도환경 지방자치' 이거는 비교적 교육이라고 하는 자기 독자영역을 갖고 나름대로 이제 단체를 밟아가고 있는 성숙단계에 있는 분야라고 나름대로 생각이 들었고, 이거 가운데서 또 이렇게 해보는 이유는 지난번에 작년 저희가 포럼에서 작업을 했던게 각각의 분야에서 자기 단체만을 본 거잖아요. 그거를 또 레벨업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교육이라고 하는 미디어교육의 유형과 단체를 보자는 거죠. 미디어교육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서로가 판단을 하는지.

김: 지난번 책 나온거는..

그니까 그거는 자기 단체 얘기만 했다가니까요. 근데 이거는 밑에 조사방법에 나와있지만 먼저 분야별 참여 연구자가 먼저 모이는 거예요. 미디어교육에 김래연, 여성교육이면 선생님이 될지 누가될지, 뭐 인권교육이면 누구 환경교육이면 주선희,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 사람들이 먼저 모이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서 각 분야별 교육담당자 워크샵을 하는거야. 환경교육이면 주선희가 주관을 해서 환경교육을 다양한 차원에서 하고 있는 단체들의 교육담당자들을 모아서 워크샵을 하면서, 지금 자기네들의 환경교육의 상태와 공감대를 한번 뽐아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섹터별로 자기네들의 문제의식을 인지를 하는, 이런걸로 이제 크게 두 방향에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구요 그러면 위하고 아래도 겹치지는 않을 것 같고, 하면은 일정을 보면은 이제 유형별 조사인터뷰라고 하는 게 위에 것이거든요. 이거를 1차, 2차를, 기간이 많기 때문에 일단 1차를 10월 16까지 하면서 인체 인터뷰내용이나 질문이나 이런 걸 정돈을 해서, 다른 대상한테 10월 말까지 2차로 해보는 거구요. 그다음에 분야별 유형조사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 참여 연구자 전체 회의를 10월 18일까지 한 차례 하구요. 거기서 분야별 워크샵을 어떻게 조직할건지, 그 분야별 책임자를 누구로 할건지, 이 전체 취합을 어떻게 할건지 이런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로해서 분야별 교육 담당자와 워크숍을 갖는거죠. 환경이면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 사람들의 교육담당자 워크숍을 1차,2차를 갖은 대상으로 심화해서 해보자는 거죠. 하나는 10월 말까지 해보고 이걸 심화해서 11월 19일까지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 회의는 저희 회의예요. 이렇게 회의 하는 것 지난번에 한번 했다치고, 아니 이번이 처음하는거라 치고 저희는 10월30일에 한 번 더 보고, 10월 30일 까지는 어쨌든 분야별 교육담당자 워크숍 끝나는 일정까지 맞춰서 한 번 더 보고요. 그다음에 분야별 교육 담당자 워크숍 심화를 11월 19일까지 하고요 그러면 일단 대강의 조사가 마무리 되면 정리를 12월초까지 하자

한: 라이트하게 짜셨네요. 아니 내 얘기는 체계적으로 1차 끝나고, 2차 끝나고 이런 식으로 그게 관리가 잘 되면 굉장히 파악이 빠른거고...

제가 보기엔 예산이 있는 거라서, 돈을 다 쓸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그건 지금 요구가 있어요. 환경교육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그러면 인제 서로간에 환경교육을 할때 느끼는 문제의식들을 공유하거나, 서로 비교해 보거나 자기네들 문제를 한, 두번 얘기 하자고 그러면 한,두번 정도 할 필요는 느끼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 지원까지 된다. 참여경비나 이런 걸 한다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김: 근데 이게 몇 개로 나뉘진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분야별 유형조사에서는 1,2,3,4,5,여섯분야를 하는데 미디어.....

정선: 대선때메 바쁘세요?

김: 그게 염려는 있어 왜냐하면, 모든 사업을 10월말까지에서, 지방자치나 이렇게

영향이 있지않나

정선: 선생님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거예요. 이게 11월, 지금 10월 초잖아요, 11월 중순까지 예를 들어서 여성쪽이다. 그럼 선생님네가 되든 아님 여성쪽으로 누가하는 게 좋지 지금 일단

김: 우리는 지금 민주시민교육에서 여성 교육 프로그래밍하는거 또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델 제발하는 거니까 거기는 공동연구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성노동쪽으로 그다음에 빈민여성쪽 이렇게 해서 열세 명 나왔거든 증산참여성을 하나할까...

정선: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제가 보기에요 여성교육의 유형을 선생님이 먼저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고 그 관련자들이 다섯명이든 열명이든 모여서 두차례정도를 11월 중순까지,

김: 선생님 이거 12월까지 해야 되요?

한: 12월 10일까지 일단 파지라도 묶어서 줘야합니다.

정선: 처음에 저희 문제의식도 참여자 중심으로 가겠다고 한거고 하면서 네트워크를 하겠다고 문제의식에.... 제가 보면 미디어 교육하는 사람들도 교육담당자들 끼리 그냥 모이라면 안모이겠지만 이렇게 회의비도 주고 두 번 모이라면 모일꺼 같애. 미디어....

김: 아니 이게 너무 많아서 그러지... 그거를 11월 중순까지 다 돌릴려면 선희씨는

다 들어가야 할 것 같애

정선: 제가 뭐 다 들어가요. 환경-주선회가 다 알아서 하는거지 대신 연구비를 더 주는 거지

한: 저쪽에서는 일단 이게 정부 돈이니까 12월말까지는 가야 되고 12월 말까지 계약을 하자니 불안한거예요. 그래 갖구 10일까지 한건데 뭐 한 보름 정도는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 가면서 계속 써 나가야 되요. 그래서 10월 달에 앞 부분은 다 쓸꺼구요. 정리되는 대로 바로바로 넘겨주시면 그 쪽에서 쓰고 이쪽에서도.

이: 선생님 그러면 분야별로는 워크샵하는 거예요.

정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게 좋나부터 얘기를 하시고,, 크게 유형별 ,분야별 편의상 개념을 그렇게 나눈거예요 선생님

김: 그럼 이게 분야별 유형별로 하시면 결국은 또 겹치지 않아요. 사람이 모이면 갈등,하면은 평화쪽은 모일거고

정선: 그니까 안겹치게 하자고 안 겹치게 조작을 해서 단체를 뽑아보고 안겹치게 하지

김: 예를 들면, 결국엔 '성'하면, '성'하고 '여성'을 나눌려면 주제로 나뉜다고 왜냐면 '여성'이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평화통일도 마찬가지로야 평화통일이 상위개념이고 갈등문제는.....이게 결국은 겹치게되서 그런건 그런데, 환경

기업도 마찬가지로 '비단산 살리기' 뭐 이런거 그런 것도 하게되고, 실질적으로 리더쉽교육을 하게 되면 결국하게 되면 리더쉽대상을 나눌거거든 이제 말하자면 '여성 리더쉽'인가 그 다음에 또 리더쉽 교육을 하는데 가 또 어디가 있지 NGO단체들,차세대...이런것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많이 접칠 것 같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남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영역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거지 이렇게 영역을 나누면 너무 많잖아.,

정선: 이거는 아랫거가 어떤 점이 더 중점이나면요. 하나하나 사례를 본다고 보다는 미디어교육의 현단계를 보는거예요. 미디어 교육의 유형을 한번 크게 크게 나눠 보고 일단 여기는 프로그램을 하나하나를 보는 의미라기 보다는 유형을 나누고 단계를 파악하고 현안과 수준에 대한 이런거 정도를 하는거고 위에꺼는 하나하나 사례를 보는거죠

김: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가 차별화가 될지는 난 잘 감이 안잡히는데 일단 이것부터 해보지 뭐, 아랫것부터해서 이게 주제가 연계되서 나오면 그걸루 뽑구 이거를 하는데고 만나오는게 있으면 그거를 또 따로 특화해서 하든지. 근데 결국은 그 얘기하면, 문제점 얘기를 하면 위에것도 다 나올것같애

이: 근데 모든거를 다 집합적으로 얘기를 할려면 버거울꺼구요. 이렇게 참여자 중심으로 워크샵을 하더라도 그 중에서 특히 첫 번째하고 관련된 사람들. 예도 몇 개 나오는데 회원교육, 리더쉽교육 교육자 육성이면은 각각에 대해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을거면 그것들을 짚어서 개별 ..

정선: 그러니까 선생님 이건 개별로 하는 거예요. 위에꺼는 그냥 개별로 가는 거예요.연구원들이 그런거고 이거는 집단적이 워크샵을 하는거고

김: 내가 집단적인 워크샾을 해서 개별자를 뽑아내게 되면 뽑아내잖아

정선: 이거는 수평적이고 이거는 수직적이고

김: 아예 대상이되는 단체를 다 한번 꺼내놓고 여기서 기본적인 분류를 한 번 해 보고 그래서 이 네트워킹에 더 필요한 이쪽을 한번 묶어보고 아예, 이럴수도 있기는 한 것 같기도해요. 예를 들면 미디어 교육에서 이게 들어갈수도 있거든요.

미디어교육을 이런 유형으로 한번 나뉘서 모여서 보는거야. 자기단체 프로그램 중심으로 보는게 아니고 미디어교육이 모여서 이렇게 풀어놓고 한번 보는거지

김: 그러니까 들쭉 요 작업부터 먼저하고 그다음에 더 개별화해서 다뤄야되는 게 있으면

(잠시끊김)

김: 과정인데 지금 미디어교육을 그냥 단체별로 프로그램소개를 하는 걸로 회의 를 하면 재미가 없고 늘상 하는거잖아. 그거를 유형별로 자기네들 프로그램을 여기 저기 섞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기네들 프로그램 중에서 리더쉽 교육에 관한거 다 그러면 그것끼리 모여서 한번보고, 예를 들면 가치나 태도 형성에 관한 거다 그러면 또 다 프로그램이 다 다를 거아나 같은 미디어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가치태도 형성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한: 저기 이분들이 모이시기 전에 첫 번째게 예컨대 이게 사고의 틀이라고 그럴 수 있거든요. 이 틀을 모종의 질문지처럼해서 좀 (적어)오시라고 ... 섹션 별로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나가면

정선: 그니까 미리 정리를 해오게 해야죠 우리가 어느정도 영역을 나눠주면서 사전에 자기 단체에서 정리를 해오게 하고

김: 정리를 해오게 하지말고 가장 현실적으로는....해야지 그냥 그래서 거기서 작업하게 해야지 실무자들 가서 뭐 읽어보고 오라면 안와

이: 오기전에 최소한 항목에 대한 정의는하고 ,자기가 했던 프로그램 준비는 해올수 있잖아요

워크샷준비니까 뭐

정선: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죠. 먼저 일단 분야가 이 정도가 맞나 좀 봐 줘요. 예를들면 제가 웹기관교육 이런걸 넣으려고 하다가 그건 아직 굉장히 실험적인 단계에 있어서 뭔가를..

김: 저건 어떻게 저기 백화점식으로 하는거, 참여연대나 이런...

정선: 그건 제가 이거엔 원래 개별 인터뷰로 묶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뺐거든요 그리고 그거 자체로 분석할, 그거 자체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 교육에 있어서 획을 그을 수 있는, 콘텐츠 중심으로 모아둔 것 있잖아요. 근데 예컨대 그게 목적이나 혹은 조직과의 관련성 무슨 교육 방법이라든지 등등 다룰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컨택들은 첫 번째 (것에서) 다뤄질수가 있나요.

정선: 그니까 그럴려구해요 예를들어 청소년들 염두에 딱 뒀어요 청소년아카데미에서 가치관과 태도형성에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 그게 사례로 일단은 한번 된적이 있잖아요 작년 작업한 가운데 그걸 또 볼 필요는 없다니까 더 나올 것도 없고 담당자가 스톱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그 중에서 인제 다른 단체들이 여러를 종합적으로 하는 거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가치관이나 태도 형성에 관련된 교육이야 당장에 어떤 실천력적 관계가 없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

한: final product 자체는 이게 미래 교육, 지방 자치교육 이런 식의 챗터링은 아닐꺼다. 그죠?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재미를 못봤잖아요

정선: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재미를 못 본건 카테고리 분류가 의미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제가 보기에 하나는 그거를 전체. 하나를 중심으로 봤기때때 그렇고 일단은 제가 여전히 욕심이 남고 과정이 생각되는 것은 그 기안을 유형화 해 보지 못했다는 미련이 남아서 앞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그 분야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한: 만약 그렇다면은 소위 그 역사성 미디어교육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방향성이 어디고, 어디로 갈꺼고 하는 것들이 한 개별 단체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전체의 흐름으로 정의가 나왔으면?

정선: 그런걸 하자는 거예요 이번 단계에서는. 그리고 뿌라스 그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미디어 교육의 이런 유형이 같이 들어가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차원으로 씨실과 날실로 엮여지면 만나기도하고

한: 지금 생각하시는게 각 부분에 있어 코디네이터가 되고 얼마나 소통이 될지. 얼마나 수용해서 끌어갈지

김: 그러니까 이게 선희씨가 어디든지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만큼을 해야돼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전달 받으면

정선: 어쨌든 저로서는 참여 연구자, 책임자하고는 충분히 소통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일이 , 준비하는 과정에 좀 그럴 생각은 있는데 그걸하는 장에까지 쫓아 다닐 수는 .. 저희가 장에까지 안 쫓아 다닐려면은 이 교육팀들을 뽑아서 팀장을 만들어서 팀장회의를 해야돼

정선: - 저는 시간이 나면 갈수는 있어요 - 야간이든 뭐든 의사 소통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드릴께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윤곽이 더 잡히고 ,,,

김: 아니면 아예 하루 다 모아 그냥 아예 그냥 여러 방에 쳐박아 미디어에서 이 쪽 저쪽 그래서 자기가 순실을 하는거야 그것도 방법이야

정민:아니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김: 아니 분임토론 방을 하나씩 주면 돼.

정민:그거는 뚜렷하게 틀이 딱 나오고 짝 한번에 해서 모으는 건 좋은데, 지금은보면 하나하고 좀더 생각해서 보완해서 그 다음 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옛날 것 가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정선: 분야별로 하는데 의미가 있다이거죠. 근데 분야가 이정도가 맞냐 이거죠. 근데 제 머리 속에서 교육분야하면 떠오르는게 이정도니까. 맞을 거야 아마

...

정선: 더 다른 교육분야가 있어요?

김: 이건 일정한 분야로 성숙된거야? 독자적인 자기 교육의 영역을 확보한거야? 이거는.

김: 그니까 말하자면우리시민들할 때 과제영역으로 나온것들이야. 6가지인데.... 역사, 법, 기구익히기 이런거 다. 근데 우리에서. 근데 우리가 지역 여성 조직이나 지역 조직이랑 역사기행을 많이 해

정선: 역사기행?

김: 역사 기행식으로 해서 하루 어디 가서 하는 거 있잖아

정선: 근대 그거는 지금 시민교육차원으로 가기 어려워 그냥 패널 프로그램으로 하나로

김: 패널 프로그램인데 그게되게 중요하다 여성교육에는, 그 역사 기행이..

정선: 어디 다니는데

김: 하루 그냥 패를 잡아서 놀러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환경교육 같은 것들이 ..법도 이제 여성 교육에 들어가겠지

정선: 법이 상위의 개념이야

김: 문화교육은 어때?

정선: 그러니까 문화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시민 교육 차원에서 문화교육이라고 할만한게 없다. 지금은 그정도 수준이 아니예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하는거지 이게 시민교육으로써의 자리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럼 선생님 일단 떠오르는 분야가 이렇게 하고 브라스 알파는 나중에 추가를 하고 일정상 분야별 워크샵을 1회정도 할게요. 2회는 도저히

한: 1회하시고 또 나오는 질문들이 있으면 그건 개별적으로 가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죠

정선: 예, 보완하는 형식으로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이 분야에...

한: 만약에 안가시면 나중에 책임자한테 나중에 틀어서 알아들을 정도로만 레이프만 해달라고 하면 사실 그안에 감동이 담기거든요. 거기서 뭘 분석해낼 필요가 없으니까

정선: 아니 뭐 사실 녹음은 가서하시는 거.....

.....

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누가 한 사람이 전체 흐름을 잡아야 할 것 아냐

정민: 근데 하나 질문이 여기 현장 스케치는 안하나요

정선: 현장 스케치? 어떤 걸 말씀 하시는 거죠?

정민: 지금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면 미디어 교육에 대한 교육자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실지로... 미디어 교육이 되는 현장에 가는 것

미디어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틀이 비슷해야 할거 아니에요?

정민: 우리는 현장에 대한 분석을 일차로 하고, 그거에 대한교육자에 대한 2차로 들어가는.

이거를 그렇게 들어가는 하는 걸로 생각을 했죠. 1차를 현장에 직접가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한다면.

(?); 저는 이제 1차를 현장에 가서 직접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프로그램을 기획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려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리면 그거는 (다 들어가기는 어렵겠어) 예 조금

현장교육이라는게 일상화되어 있는게 아닌가요?

정선: 족히는 일단 그 사람들이 일단 입주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본적인 범주화를 한 다음에 범주가 대상이 되는 점에서 현장에 가서

현장을 갈 때와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정리를 할 때를 구분을 해서

한: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지금 얘기 하신대로 교육자들이 한분씩 모여서 해결이 안된 문제들까지 분석이 덜 된 부분을 얘기를 해서 추가 맞춰서 집어 넣어 진행이 되면 좀더 아구가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정선: 그리고 그러면 제가 유형을 해놓은 것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가를, 위의 유형을 나누어본게 어쨌든 밑으로 묶어서 볼수 있기도 하고 따로 볼수 있기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선 두 번째분 부분 '미디어 여성, 등등의 집단이 1회에 한해서 1번에있는 카테고리들을 가지고 하나씩 쪽 얘기를 하고 그거를 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2차 모임을 갖는 다고 생각하는게 (좋아요)

김: 그럼 뭘 갖고 먼저 시작하나가 중요하겠네요

정선: 환경으로해요

환경이 어쨌든 사례도 많은 편이고 또 그러니까 환경으로 먼저 카테고리를 갖고 해보고 그러면서 현장 스케치가 필요한 부분을 따로 골라내서 그건 개별 인터뷰를 하는 거고 먼저 그러면

김: 이거를 저기 교육을, 자기가 어느 어느 단체를 염두해 두고 있는지 그거를 들어서 두면

정선: 그래서 그 얘기도 해야 해요. 지방자치는 책임자만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방자치는 이영희 선생님 그니까 Y가 중심이 되는 거구요 환경은 주선회가 중심이

되는 거구요, 인원은 지금 빵꾸를 냈기 때문에 제가 인권실천연대를 찾아가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해요 사랑방 인권운동 사람들은 정부 돈 주는 건 못하겠다 하고, 근데 빠질 수는 없는 영역이어서 제가 대타를 찾아봐야되는거구요 평화통일교육은 지난번에 평화교육,평화로 가는 여성회에

김: 아니 요새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쪽에 여성분과 우리 모임있거든. 거기 평화통일교육하는 단체가 거기가 여성단체들이야. 이번에 우리 모임할 때 만약에...거기는 여성분과에 모인 단체들이 얘기하는 거고

한: 여성이 들어가면 통일교육이 달라져요? 어때요?

김: 뭐 일단 여성의 삶이라든가

정선: 뭐 보통 여성자가 안 들어간 평화통일교육 왜냐하면 그건 여성 교육으로 지금 선생님이 말한거는 .

김: 그건 경실련쪽으로 하는 거지 통일 아카데미

정선: 그건 담당자가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여성회에

한: 없으면요... 전체를 다 카바할 필요는 없으니까

김: 아니 그러면 통일교육협의회 쪽에서 해봐 통일교육을 전부다 망라한 단체들이 모여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세 개에 걸쳐서 통일교육을 10월달에 세 개분이거든 그러니까

정선: 통일교육협의회로 할게요. 그게 좋네

거기에 선생님, 얘기 할만한 사람 있나요? 협의회 사람중에?

김: 협의회는 온갖 사람들이 이영동을 보고 하라는거지. 사무총장 이영동

정선: 나이 있는 실무자급에서는 없어요?

김: 이영동보고 추천을 해달라고 하든지. 근데 우리들은 통일교육협회전산조직이니
까같은단체들이 하는거를.... 남북어린이어깨동무 같은 것들

정선: 그건 어린이잖아요

사무국있지않아요? 있죠?

김: 사무국있지 사무총장이 이영동이니까

정선: 사무국 멤버들이 있지않아요? 있죠? 그럼 요거는 선생님이 이영동씨 아시면
한 번 얘기를 해 봐 주실래요?

김: 지금 해야 되는거가 사람을 모아서 (워크샷을 하게 해서) 자기네 단체나 어떤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자면은 토론하게하고 분함정리해서 문제점들을 얘기하게
하고

정선: 그니까 여성교육이다 그러면 여성교육을 크게 한번 카테고리화 해보는 거예

요. 여성평화교육이나 이런류의 여성통일교육의 이런류의 교육이 한차원이 있을거고, 뭐 또 어떻게 있을까요 뭐 상담원 교육도 주로 한다

김: 여성노동은 빼고?

정선: 아니 여성노동도 한 유형이죠 여성교육의 한 유형이죠 여성노동교육도

이렇게 여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들고 있는 모든 거를 한번 유형화를 해보고 이 거에 따라서도 한번보고 이러는 거지 그래서 지금의 단계나 이런 걸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지

김: 근데 이거봐봐 이게 다른 거는 분야도 미디어 통합형 이게 주제라고, 여성은 대상이야 그니까 여성은 굉장히 포괄적이야

정선: 그니까 그 자체로 보여주면 되요 그거는

김: 이렇게 다 겹치고 다 겹치고

정선: 겹쳐도 그걸 보여주면, 여성의 정체성이 들어가면, 평화교육이 어떻게 달라지는 가가 거기에서

김: 그럼 미디어에 다 넣어야 될거 아냐.

정선: 그렇죠 다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거기에 여성이 녹아들면 다른 평화교육하고, 다른 미디어교육하고, 어떻게 달라지나가 보이는

거거든

김: 저기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되? - 그렇게 하는거지 여성은 사람이고 이거는 주제고

-항상 그런 문제 있잖아 분야 나눌때 - 여성을 대상을 잡고 주제를 접목시키면

한: 이게 지금 우리가 전체 모습을 완전히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김: 그게 낫겠어요 양성평등교육으로 그냥 그게 낫겠어요

김: 지금 해보니까 너무 주제가 방대해지고 여성이 안하는거 없잖아 '여성의 지방 자치' '여성의 화?' '여성의 뭐' 다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버리면

정선: 근데 하여튼 저는 그것도 의미 있는거 같아서

김: 근데 양성평등교육으로 해버리면 너무 딱 양성평등교육이래가지고 성 인지교육이 너무 줄어들어버려 여하튼간에 이거를 생각을 해볼텐데 언제까지 해봐야돼

정선: 제가 보기에 한차례를 한다면 10월말까지는 한번씩은 돌려보고 한차례를 하는 한차례가 결과물을 내는 한차례가 아니니까 ...

한차례를 하고 나서 보안될게 많으니까 10월 ..

빨리 시작하는데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거나 그 다음주부터 시작하더라도 데드라인은, 모든 걸 10월말에 하는게 아니라 먼저 끝난데는 먼저 분석을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다음주부터 시작하는데도 있을거고 예예 어차피 순차적으로 할려고 했으니까 모든게 끝나는데 일단 10월말순서는 이제 제가 이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디가

먼저 할지는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환경을 이런 카테고리로서 해서 한번 진행을 시켜보고요. 그 다음을 여성을 하든 지방자치를 하든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한 것 부터하고, 이제 통일이나 이런 쪽은 마지막에 (그렇죠), 제가 환경을 먼저 할 수 있나 주선회랑 얘기를 해 볼 테니까 이영이 선생님은 지방자치를 두 번째쯤 해 주세요.

....

김: 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기여한 측면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 정치 이런 게 쪽 나열된 복합상황 속에서 예컨대 민주시민교육기술이 독일식의 정치교육과 동치된다는 식의 데피니션은 수정이 되어야 할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저는 빈민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하고 빈민이 지금 조금 교육이 소강된 거지 그전에 노동자층하고 교육을 하는 게 많았었죠 그렇지 않나 니 기억에. 주민조직 얘기하니까 생각이 난 거야 그리고 그걸 주도한 층이 있었고 크리스천 아카데미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계급상 약화되면서 오히려 전체 교육을 배척(대척)으로 나누는 거라구 그래서 그 쪽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어

정선: 왜 민주 시민 교육에 들어와야 돼요?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고

김: 아니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 우리 민주 시민 교육이 중산층 중심이 되는 거 아닌가

정선: 제 생각에는 민주시민교육이라 하는 것을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노동자, (노동자, 농민 다 들어가니까) 상위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조금 다른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왜 넣다가 뺐냐면요. 87년 이전의 모습은 시민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시민교육이나 그런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민주화 과정에서 역사성을 잡기 위해서 일단 집어 넣은 거죠 이부에는 일단 노동부분이 들어가지만 노동운동 전체가 들어가

지는 않고 여전히 개념의 문제는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많이 여쭙볼게 있긴 한데

제 생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빈민 교육이나 노동 교육에 지향은 뭐냐면요 빈민이나 농민의 자기권리의식 갖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의 존재나 이해를 궁극적으로 잘 대변할 수 있게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교육인데, 그거하고 저는 시민성교육은 다른 차원이라고 봐요.

김: 포괄되는 거지 여성교육도 마찬가지로야 그러면. 여성교육의 일차적인 목표가 여성의 권리 쟁취라고

정선: 근데 여성교육은, 근데 그것은 계급적인 성격이나 계층에서 계층으로 나뉘져 여성은 계층 개념이지만 노동자, 농민, 빈민 이거는 계급의 개념이잖아요

김: 아니 나는 주민조직 얘길 하니까, 누구나 음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것도 굉장한 그룹인데 그것도 넣어야 되지않을까(해서)

정선: 그건 주민자치 영역 말고도.....

김: 주민자치로 안되어 있어요. 지방 자치로 되어 있지않니?

그쪽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면은 말하자면 조금 우리 말하는 여염쪽은 반드시 아닌데, 기어민이나 이런데서 사는 빈민여성들을 대상으로,,,지역운동

정선: 그때는 주로 지역운동 차원이예요 지역운동이면 여기 들어오는데 그게 빈민 운동이면 아닌데 지역운동차원에서 빈민운동을 하는 거면 다르잖아요 선생님. 빈민운동과 지역운동으로서의

김: 빈민 운동은 지역운동이지

정선: 빈민운동은 시민운동이죠

저희는 시민운동이라고 안 배웠는데, 노동운동은 시민운동이라고 안 배웠는데

김: 왜 시민 운동이라고 안배워. 빈민들의 자기관리. 주거권, 사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복잡하다 요즘은 장애우들도 되게 열심히 하니까. 장애우들의 이동권 그것도 시민의 굉장한 자리잖아 하니까. 여장연이나 여성하면 여장연 넣을거거든 장애인 연합이나 요새 그렇게 하는거.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받침되게 장애인쪽도 같이 해야 되지않을까

정민:전체하고는 좀 다르기는 한데, 실제로 민주시민 교육 요 얘기를 통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시민과 민중에 대한 개념이 좀 있었잖아요. 시민이냐고 할 때 시민운동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예를 들면 노동 운동아니고, 농민운동아니고, 빈민운동아니고, 시민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규정을 해 왔던거 같거든요 실제로 지금 앞으로 민주 시민운동을 해나가면서 더 교육운동 차원에서 보자면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노동자층도 근로기준법같은거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지만 이게 시민운동에 있어서 사실은 살아가는 생활인의 필수교양, 시민 영역이 되어야 되고 시민적인 영역이 아이들의 아버지로서의 노동자 라는 개념이 노동교육쪽으로 스며들어야 노동운동이 어떤 회질적인 순환을 이거를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않나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소통하는 영역들은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대표적인 사례를 노동으로 찾아보겠다 해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떻게 좀 생각을 했다면 민주 시민교육 그때 쪽 토론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크게는 주민 조직이나 조직을 갖고 있는 집단과 그냥 일반적인 대중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

는 집단. 이런 유형으로 크게는 대두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 조직의 영역에 주민운동이나 지방자치운동이나 이런 영역들이 실지로 들어오고 이게 무슨 실천 시민연대 이런 것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는 역량이 있고 대중조직의 차원에서는 방법론 차원에서 독일의 그것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대중 시민교육의 패러다임들이 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 두가지만 제대로 배워줘도

김: 불특정다수를 위한게 아니예요. 지역에서 이미 조직되어있어요. 그것도 조직인, 불특정 다수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잘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그니까 이미 말하자면은 회원으로 하기위해서 지역조직에서 여성들도 제일 잘 되어있는 거는 지역에서 조직되는 여성들을 교육하는 거

정선: 지금의 대표적인 시민교육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는요 교육담당자 아닌분들, 그냥 시민교육이다 얘기할 때 뭘 생각하나면,, 경실련에서 '한국 시민 사회에 대한 이해' 이런 강의들 왜 신문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걸 쉽게 쉽게 떠올리거든요 그리고 그런게 어떤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한편으로는 배울만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도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선전과 교육 이런 부분을 다뤄야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중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을 교육, 저는 활동영역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영역에서의 새로운 영역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시간에 기존의 노동교육이 육성하는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시사점들이 될 수 있으면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재개념화도 되고 각각의 영역에서 실제로 노동교육 쪽에서 이런 걸 보면 시민교육의 방법론 이렇게 수용해야겠다라던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노조자체만의 발전이라기보다 약간 좀더 스케일이 넓어야겠다 이런식의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더라는 식의 생각은 했었어요

김: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시민의 방법론 - 물론 아데나우체다에서 굉장히 많이 침체화 되기는했지만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는 열린 학습 방법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노동쪽에서 제일 많이 한게 70년대, 사실은 민주시민의 방법들을 제일 많이 쓴거가 노동교육이야. 그 때 70대때 노동자들 의식화시킬때 주입식 강의로는 안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하고 그러면은 노동자들하고 하면은 노동 지도부나 간부들하고 하면은 '아! 우리 70년대에 했던거~'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때는 우리는 오히려 더 그런 의식교육하는데 하고 그쪽으로 해서 그러는데, 지금 노동교육하고 노동자들 이렇게 해서 빈민이나 농민이나 시민하고 어떻게 규정하느냐. 나는 그거를 시민이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안보는거지

정선: 저는 어떤거냐면 선생님 저는 노동자, 농민, 빈민은 이익 집단이고 이익 조직으로 보는거예요. 기본적으로 시민단체, 저희는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야 안그랬지 그게 뭐 기본 뭐구 그랬지만. 시민단체가 있고 이익단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집단이고 자기네 조직이 이해관계를 높이는 게 최선이라고 보는거야. 그 조직의 사명은 일단. 근데 시민교육으로 들어올려면 이게 어때야 되냐면, 시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자기의 권리와 의무 혹은 자기 희생 이런걸 동반하잖아요. 노동자 조직이 지금 시민으로서의 노동자 교육하면 자기의 권리나 이해를 포기하고 이게 전체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거고 그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아직은 그런 모습을 많이 좀 안..

김: 그게 능률 여성 조직하고 딱 걸리는거야. 여성도 보면은 말하자면은 남성들이 그거를 자기 아주 포괄적으로 미화해서 정치의 이익을 위해서 일 한다고 하면서 남성적인 말하자면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걸로 보거든 그런데

정선: 선생님 그건 좀 다른 얘기 같아요

김: 아니, 똑같애 그래서 우리도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는 거는 노동자가 노동자의 제급성을 가지고 하는거나 마찬가지로야 우리도 내 말은 그 말이야

정선: 그런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동자는 집단 응집성 이런걸 극대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노동 교육이죠 그런데 플러스 지금 활동가가 계속 고발 되거든요 실제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오히려 제급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보고 약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한편으로는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김: 어떤 선에서, 이게 중요하다 노동자,농민,빈민으로 하면 얘기가 갑갑해져요 오히려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그게 들어오면 시민교육이라는 차원이 얘기하기가 조금은 더 ..

정민:: 수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시민의 변형은, 그런 어떤 계급적인 이해를 뛰어 넘은 보다 상위적인 개념을 이야기 하는데 사실 지금 김희은 원장님 얘기 하신 걸로는 실제로 여성이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전제로 저는 들려요. 그걸 뛰어 넘어서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고, 그 노동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민적인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 아예 이걸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정선: 인정 할 수 없는게 아니라 시민하고 노동자하고, 여성하고 이런거를 분리시키는 개념으로 보는게 아니거죠 나는

김: 그런데 자기는 그런 걸 분리 시키는 개념으로 보는거잖아

정선: 그러니까 저는 포괄적이고 다 있는건데 각 분야에서 각 대상이 다르게 말하자면 시민성도 사실 주장될 수 있는건데 바라기는 합치되기를 바라는 거죠

김: 언젠가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하나가 되는 사회로 향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 그게 지금 여성이나 노동자나, 여성도 정치세력화, 주류화 이걸 하면 여성들도 선상에 앉아서 맨날 여성 단체 너희들 너무 이기적이다 욕하잖아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기적인게 아니거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정선: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니까 저는 이렇다고해서 노동자, 빈민 뭐가 다 빠지는게 아니라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각자가 어떤 주부로서도, 노동자로서, 빈민으로서, 여성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나 하는게 이제,, 지방 자치로

김: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노동이 특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도 그게 의아스러웠는데

한: 아니 지금 선생님의 문제의식이 이런 거를 통해서 앞으로 발전될 수 있고 이런거를 지금 당장 포괄을 해서 빈민과 그런 계층을 다 포괄하기 보다는 일단을 그러면 노동이, 그렇게 별도로 한번 해 보면서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빈민이나 이런게 이런 영역로 딱 이렇게 더 분리 되서 명부할 과제, 독자적인 명목으로 생기는 건지 하는 거를 이번 작업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생

각합니다.

김: 근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교육을 더 발전된 형태로 할려고 하면 결국은 연령별, 계층별, 또는 계급별, 학력별, 성별 이렇게 다양하게 분화되서 하게 될거 아니야 지금 수준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생각하기에 조사 연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암시점과 이런걸 던져줄수 있어야지 과거에 이러했다 하는거는 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분화되서 하면 할수록 조사는 ...실질적으로 빈민여성들 교육을 해야하는데 중산층 여성들하고 하는 민주시민운동 방법이 안통해 빈민여성들은. 그니까 그야 말로 빈민여성들이 자기네들이 민주적인 의식을 가지고, 가족관계라든가 빈민여성들 폭력적이잖니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악 쓰고 소리 지르고, 빈민층여성들은 생활이 악에서 오니까, 악의 정도도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부모한테 욕하는거 이것두 뭐 굉장히 많이 일상화되고. 중산층 애들도 욕한다고 하자나 근데 뒤돌아서 하지 '이년 내가 언제 손봐준다' 중산층 애들은 엄마에 대한 증오가 대단하데,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다양하게 어차피 이제는 메 머드 교육도 아니고 그렇게 소규모 단위로 정말 그 집단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해서 그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교육모델들 교육 프로그램들이 나오면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손 놓고 있는 집단도 많고 지금 현재적으로 도시 중심적인 계층도 중산층 중심적인 그렇지

정선: 그래 지금 말씀은 일반적인, 일반화된 방법론리가 없다. 동일하게 미디어 교육을 얘기해도 노동, 환경, 농민문제 방법론이 다름뿐더러 인식의 방법이 다르니까 다르겠죠

김: 시간이 좀 있으면 실제로 노동자처럼 사실은 나 노동, 시민 이렇게 나누면은 어떻게 보면 무리가 있다는 거야 그렇기도하도 노동처럼 이제 여성, 빈민, 중산층 구

분을 해봐서 이제 그안에서 교육년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

정선: 그러니까 선생님 다시 여기에 위상을 정해줘 예를 들면 여태까지 위상이 지금 얘기한 것하고 달랐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한편에서는 이렇게 계층을 망라한 그냥 영역, 콘텐츠 별로의 분류가 한편으로 쪽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계층별 분류가 원래는 있어야 하나, 지금의 우리의 연구의 입장과 조건과 사정상, 일단은 노동자부터 계층별로 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위상을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차이는 없죠.

한: 별 차이는 없죠

정선: 우리의 일정에는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 그게 위치 설정이 있겠네요, 그럼 여성도 마찬가지로요

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민주화운동 중앙 사업회'의 프로젝트잖아. 근데 사실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을 하는 마당에 내는 프로젝트면 나는 이게 민주화운동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집단들이, 사실은 70년대부터 생각하면 농민, 빈민층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

정선: 근데 노동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측도 반대를 하는 거야 우쭐다

선생님 지금으로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하나만 들어왔다 보면,

김: 아니 내 말은 전연농있잖아, 전농 이제 들어가도 노동보다 덜 복잡해 그런데 농민교육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그거가 시민사회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농민들을

위한 교육 모델 - 그환경적 조건이나,물리적 조건에 걸맞는 이렇게 하나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정선: 그게 어떤 점이냐면 노동은 그래도 아직은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교육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고 얘기할 파트너가 있는데, 농민은..

김: 농민도 조직은 대단해 그런데 농민이 노동보다 네 말대로 하면은 훨씬 덜 시민적이야 농민운동은 굉장히 강경하다구.

정선: 아직까지는 맞춰서 얘기를 할만한..

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덜 시민적이라는 건 뭐죠?

김: 시민운동이 활성이 좀 더 많다 이거죠

한: 하여튼 잘 될 것 같네요 지금보니까 잘될것같아요

정선: 선생님 제가 이거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입장이나 스케줄상 그냥 따로 개별 인터뷰를 해야 될게 있겠다 생각을 하면 그건 그거대로 같이 진행을 할게요

김희은선생님은 방법론하고 이영역은 자기가 하는 게 어때 ?

방법론 너무 심각하게 안해도 될 것같은데

아니 그니까 전국적으로 방법론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그것만 따로해서 되나요?

6. 녹취 자료 5 - 주민자치분과 1차 회의

일 시 : 2002년 10월 29일 14:00-16:00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회의실
참 석 자 : 이영이(이: 광명 YMCA),
은영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기현(김: YMCA전국연맹),
변희중(변: 광명 YMCA)
현금희(현: 성남 YMCA)
정외영(정: 녹색여성모임)
진광현(진: 진해종합사회복지관),
기 록: 허준(서울대학교), 강현주(서울대학교)

이 : 원래 여기가 YMCA가 모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어색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주민자치 박람회 있어요. 민주사회시민연합이 주민운동 거기 오실 분은 백만사회운동의 진광협선생님, 경주에서 그래서 그냥 제가 원래, 오늘, 지난번 워크숍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한승희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기로 하셨는데 안오셔서 제가 되는 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일은 민주화사업기념회에서 이뤄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여러 가지 형태별로 각 단체마다 자기 영역, 주제가 다 다르기는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해왔던 교육활동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 진행하시면서 한계나 이런 것들에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을텐데. 그런 것들을 한 단계 정리해서, 이제까지 해 온 활동들

을 정리해보고 현 단계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고, 향후의 비전이 뭔지 민주 시민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것들을 동시에 짚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모임을 가진 것이거든요. 이 일을 12월까지 해서 마무리하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사람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정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저도 그냥 얼떨결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얘기는요 어떤 형식을 갖춘 것은 아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해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담백하게 얘기를 풀어 놓으시면은, 그것들을 연구자들이 잘 해석을 해줄 것이라는, 저희는 그냥 대충만해도 다 그럴 듯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기대하면서

은 : 저희가 연구원들에게 맡기는 것은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요.

이 : 취지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뛰는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에서 중증하신 것 있으면....지난번 9월 중순에 1박 2일 워크숍을 가지면서, 거기서 여러 단체에서 교육담당 실무자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오늘은 실제로 지방자치, 주민자치영역을 따로 한번 묶어 볼려고, 이 자리에서 각자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일단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무엇이 떠오르는가 부터 시작해가고,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또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은 뭐냐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봤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현장에서, 특히 지역에서 주부조직들을 어떤 식으로 무엇으로 매개로 해서 해왔었는지. 교육과 조직이라는 그런 것들이 같이 통합된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걸 여기 제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눠봤어요. 비 전형적 민주시민교육하고 전형적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봤는데 ... 어떤 특별한 뜻의 프로그램, 강좌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활동 속에는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교육이라는 요소가 다 들어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내용에 따라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이 과정에서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다는 말씀을 나눠주셔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정형적 민주시민교육과정'은 일정한 틀,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뤄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봤는데, 지난번에 저희 워크숍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정형적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은 저는 오히려 비정형적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파트에서 이 정형적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역은 비정형적 교육과정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는데, 말씀하실 때는 구분 없이 말씀하셔도, 나중에 정리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겁니다.

김: 제가 중간에 핸드폰 때문에 왔다갔다한 걸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완전히 초단위로 살다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사실 이것 처음 기획과정에는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왜 했냐면 제가 민주시민교육 채널을 하고 있었어요. 같이 네트워크를 하고 있었는데, 민주시민토론에서 작년, 올해 초에 여러 가지 영역별로 아주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잘 조합이 안됐었어요. 그 다음에도 고민이 제가 지금 이런 저런 자료를 보면은 광명 YMCA도 그랬고, 63여성회도 그렇고 이런 저런 사례들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런 사례들은 보다 우리가 지적으로 바라보고, 아니면 지금 시민교육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걸려있는 뭔가는 있을 것 같아요. 사정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내놓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새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좀 있겠는가. 그냥 단지 프로그램 나열이 아니라, 이제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작년에 참여연대에 가서 좀 했었는데...아,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단지 이렇게 나열적으로 사례, 사례 해가지고 지금 여기 사례가 많이 언급이 되는거죠. 경남정부연구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실제

운동 진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참여자들의 실제 고민이라든지, 걸려있는 것들을 공동으로 대안, 모색 가능한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 놓고 얘기를 하고,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고 거기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강했었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여기에, 기계적으로 전부 다 뻘히 아는 사이인데, 자기 단체의 목적이 뭐고 프로그램이 뭐고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선수들이니까 다 있잖아요. 자료들. 자료만 나중에 수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낭비를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얘기, 목적을 어디다 두고 하는데 뭐가 걸린다. 이 목적에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이러한 고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단체의 아주 구체적인 것에 해결안, 이런 것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여기서 정리가 되어서 오면은, 정리되서 온 것 가지고 저희가 한차례 뜯 것, 정리된 것을 체계화해서 한 번 더 보고...

이 : (성남)사무장님이 교육과 아마 조금 떨어져서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았나. 우리는 어저께부터 정리해갔고 온 사람도 있고,

현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4년 남짓 워크숍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 있으면은 조직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이걸 어떻게 엮어볼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면서, 했던 욕심들이 참 많았었는데, 많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그래도 이만큼 한 것을, 그 안에서 한 것을 비교를 해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안 된 부분들은 진짜 왜 안 됐는지, 지도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짧은 시간이나마 고민해 봤는데 어떤 저희 지역, 지역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조금 증강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사실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인데, 주부들을 대상으로 만들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느 정

도 공동도 재밌고, 친목도 재밌고, 진정으로 내가 이웃사람을 만든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내 스스로 어떤 내가 이걸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봐서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바꿀까했는데 의외로 물어보니까 또 틀리는, 그런데서 힘을 많이 얻고, 우리 나름대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그런 기간이 1년 정도 가잖아요. 1년 정도 가다가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서로 친목도 돈독해지는데, 그 다음 과정을 깨어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과정에 그것을 헤쳐 모여 해갔고 다시 한다고는 하지만...그 다음 단계로 고민을 하는데 단체로써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Y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여태까지 100년의 역사를 밟으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을 Y를 통해 배출해낸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Y가 그런 기초 교육을 많이 해 왔죠. 씨앗을 뿌리는 과정들을 많이 해 왔고, 예를 들면 우리 Y같은 경우 그 단계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사람들을 키웠는데 사람들이 빠져나간다. 우리 조직에서 사람을 키웠으니까 우리 조직에서 머물게 하고 써먹어야지. 이래서 사람을 좀 도태시키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들 기초 교육을 시키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빠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어떻게 보면 단체에서 보면 투자효과가 미미한 것이지만은 실무자도 특여하고, 시간이랑 프로그램도 특여했는데 그 조직에서는 나오는 것은 없고, 빨리 빨리 뭔가 성과를 보고 싶은데, 그 건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급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큰 관점에서 봐서, 우리 한국사회 내에서 그런 역할들을, 이 사람이 빠져나가고 그래도 한국 사회 내에서 있는거니까.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교육이면 교육, 환경이면 환경관련분야, 미디어면 미디어. 우리 Y에서 전문분야, 그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크게, 정말 이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Y는 일반 대중들이 항상 가까이 하는 기초교육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어느 정도 단계별 전략과 지역 단체들 간에 네트워킹을 하고, 부

분에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 : 기초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보시는지 ?

현: 지금 생각해 보면 1차,2차 단계별 목표가 있다고 하거든요. 1차는 저희는 전형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일반 주부들을 모아, 1차는 그것만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해서 그 시간에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갖고,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교육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2차는 그 사람들 중에서 남게 하는 것이거든요. 2차에 남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인 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스스로 하는 교육. 그때부터. 교육정책을 나누고, 공부하는 모임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좀 더 자기를 변화시키고, 좀 더 사회로 볼 줄 아는 눈을 키우는, 이제 그러면서 일단 자기를 확립할 수 있는. 주부들은 자기라는 것을 확립하는데, 단지 여성 문제에서 자기가 아니라 자기발전이 아니라, 사회현상들을 보는 눈들을 좀 더 자기가 볼 수 있는 그런 것,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볼 수 있는 것. 일단 그런 눈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2차적인 조직에서는...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 가사노동이 정말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는 필요성들을, 요새는 명품논란이 있거든요. 주부들이 유행에 휩쓸려 가지고, 가만히 두면 정말 그런 것에 휩쓸리고, 요새 보니까, 요즘에 주말에듀션 같은 걸 보면은 우리 주변의 0.01%가 관심을 가질만한 이상한 꺼리들을 갖고, 무분별한, 무차별하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명품에 대한, 어떤 명품 좋다라든가 아니면은 어쨌든 캐드려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는, 적어도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고, 굉장히 건강한 기초 시민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단계에는 그 정도하고, 그리고 나서 3단계는 그런 사람들에서 좀 더 관심영역별로, 나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거나, 이쪽으로 활동을 좀 더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임들을 갖고, 대안학교를 만드는 활동을 한다든가 일종의 한 조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도 어떻

게 보면 조직이라고 얘기 할 수는 없고, 조직이라면 굉장히 느슨한 조직이고, 지역 사회의 인재스쿨로 보고 있다면, 그 단계를 거친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운동을 하고 형식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편입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기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세 번째의 견고한 조직에 대해서만 눈을 갖고, 단체에서 그렇게 안 되면 뭔가가 성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단계에서는 기초교육을 쌓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 지금 방금 한 이야기들을 같이 일단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정 : 저희는 두가지가 수시로 작용을 했는데, 처음에 사회강좌들은 힘들었어요. 특히 환경운동.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무 것도 없는 거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천자들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실천을 하면서 실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이라든지, 필요한 경험, 방향성 이것들을 기르는 과정이었거든요. 한 5년여를 그렇게 조직을 보냈는데, 실천자들 발굴하는 과정이 어땠냐면은 완전히 우리 동일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까요, 그 토론회자리, 토론이라고 하면 수다의 자리죠. 수다의 자리. 그러니까 그 일거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관심이나 욕구가 반영된 것들도 있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게 관심이나 욕구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바로 들어보면 '저것도 내 관심이 있었었다.' 는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의 일을 찾아서 한다라는. 지역문제라는 것, 생활 속에서의 지역문제, 이렇게 접근을 할까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나온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 갈 것인데, 그럴 때 같이 학습 프로그램으로 결합이 되고, 상당히, 제가 있으면서 많이 어려웠던 점은, 초창기에는, 기본적으로 사회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소외된 층이 여성들이 그쪽 지역

이 그렇게 때문에 교육에 대한 굉장한 거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자기 일에 관련되어서는 거부, 굉장한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욕구, 지적인 관심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조금 분위기가, 같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 이전 경험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지역에서 마지막에는 환경교육 마지막차 해 놓으면은 다섯명을 끌어다 앉히고는, 너무 힘들어서 전화도 하고, 전화통을 붙들고 밤새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다른 지역에 다르게 접근을 해서 느낀 것은 이분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될 해야하는 데 내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못하잖아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당신도 충분히 관심이 있고, 우리 다 같이 관심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 할 수 있겠다. 우리 애들 키워봤잖아요. 집에서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자식교육을 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내 관심이거든요. 들어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거부감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필요에 의해서 학습이 결합되는 경험이 이전의 경험하고 굉장히 비교가 됐었어요. ‘아, 이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좌를, 거의 매번 프로그램에 실천사업을 만들어 놓고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나와라. 그러면 이미 회원 중에 일부는 그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러니까 최소한의 60명정도...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 봤는데, 그렇게 해서 교육 끝에 남아서, 실천자들이 결합이 되니까 사람도 남고, 그 다음에 본인 몇 년 지나고 나서는, 그 사업에 있어서, 그 활동에 있어서 본인이 할 얘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걸 나누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다음에도 신입들, 자원봉사자들 와야 되는데 이 때 그 사람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욕구를 더 느끼는 가하면, ‘어 내가 이제는 단지 내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별 것인 것처럼 얘기를 나눠야 된다’고 하니까. 준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경험이 그 개인한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할 때하고 누군가와 나누기 위해서 할 때, 처음에는 부담감이 너무 커서 못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이 사업하지 말까' 이러면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 자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데 그냥 하게 될 때하고는 다르게 되는 거죠. 뭘 좀 더 봐야 되나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하고 결합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개개인 별로 굉장히 다른 과정을 밟아요. 실천활동의 정도나, 욕구의 정도나 지적인, 이전의 훈련의 정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과정이 나타나더라고요. 특히 지역에서 주부들을 훈련할 때, 눈 높이의 문제인데 ... 다같이 모여서 때려내면 나오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는 각각의 주부라는 보통의 비슷할꺼야. 아니라는 거죠. 그 개인한테는 누구와도 합쳐질 수는 독자적인 고유한 경험들이 있는 거죠. 이 경험들의 방식을 봐도 이 경험을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걸 도와줘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 프로그램에서 결합되서 이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났는데도 . 개별적으로 느끼는 것이 다 다르듯이. 그러면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의 경험과 삶의 어떤 과정과 보다 밀착되게 결합되어 지점이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동기가 강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학습모임에 있어서도 이런 방법들,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을 하는 가능하면 개별화가 되는, 집단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심화과정에서 개별화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것은 활동가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인데 사실은. 일대일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뺄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집단적인 자극이 있고, 동시에 굉장히 개별화된 자극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체 관리과정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 그런게 있었는데, 사실 변화라는 것이, 초창기에는 변화가 굉장히 빨리 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오, 말하고 행동이 다르네. 맞아. 저도 똑같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책 한번 읽을 때는 '어머' 이런 생각들 못하잖아요. 인식과 인식의 실천의 과정이 훈련의 경험을 생각해보고 사실 어마어마한 시간을 요구했던 것인데, 나 자신을 두고 요구했던 것인데, 더구나 우리야 철들기 전에 훈련을 통해서 생각을 한다지만, 일반

주부들같은 경우에는 어떨시나면, 이미 세상을 한참 살고 있는데 30대중반, 40대에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거죠. 생각이야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까지는 훨씬 더 많은 결단의 과정과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그 때가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매우 더딘 것 같지만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과정에서 빚진 것이 있는데, 굉장히 빚진 것이 뭐냐면, 이 과정이 더디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더더서 아무 것도 못해, 그거는 아니고, 더디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면 또 그분은 자기변화의, 성실하게 자기의 변화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미 우리의 여성의 일반의 욕구, 자기 정체 의 욕구도 높아지고 특히 경제적 활동과 관련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높아지는데 여기서 조금 학습경험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녹색어머니들 공부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씩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이전에는 공부라는 것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나는 이런 쪽하고는 아니야 이랬던 분들이 새삼스럽게 자기 내부의 전혀 새로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한참 든 후에 보니까 두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이때까지도 없이 살았는데 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두 번째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언제라도 좀, 남 앞에서 '나 이거 할꺼야'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숨겨 놓고 있는 그분들도, 그러니까 요 두 과정이 나뉘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녁 때 라도 대학원갈거야 내지는 방통대갈거야. 그래서 지금 방통대간 사람들 무척 많아요. 몇 년 사이에 지금 방통대에 지나면 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빠 가지고 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희 주력회원이 있는데 자꾸자꾸 처음에는 관심이 요만했었는데 지금 5년째 됐는데 관심이 이~만큼 되가지고 너무 바빠 가지고 '언제 오실 수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는 그런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면 현실적인 관심에 머무르지 않게 더 튀어나가잖아요. 더 어떻게 연결을 해 줘야 되든요. 그런데 뭐 없어요.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지만 가여 가서 이런 것도 잡고 저런 것도 잡어요. 상관없어요. 오십

이 넓은 나이에 새로운 발견을 해가지고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전문 활동가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경험도 저희가 해 보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전력자체가 찌그러진 다라는 말도 하시거든요. 우리 이제 어떻게, 이런 때도 있죠. 문제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생기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아, 우리의 운동의 목표가 뭐였더라'로 다시 돌아와보는 거죠. 다시 돌아와보면 지역에서 지역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민 한사람이, 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내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지역공동체에 동참하는 이걸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봤을 때, 이분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 나머지 그 이웃과 우리들에게, 그런 역할들도 하시고 이런 역할들도 하시고 이러면서 그 분이 변화, 발전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함께 자증심도 느끼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아 역시 우리가 대단히 기뻐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가져가는데 여전히 현실이 힘드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5년이 지나면서, 저희가 지금 8년째거든요. 이제 2,3년 전부터 이런 개별적인 과정에서 한 사람을 키웠어요. 그 이전에는 실천이 있고 그 실천에 필요한 부분과 결합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면 소그룹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 소그룹에 다섯명 안에서 리더라는 게,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너 총무해라 서기해라 그러다 보면은 리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력 자리의 어려움도 느껴봐야하니까. 지도자 교육이라는 것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계속했거든요. 1박2일하든지 사실은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1박2일을 쉽게 받아아들여요, 쉽지는 않지만 가야 되니까 부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 지도자 교육이라는 것들을 꾸준히 해 오면서 나름대로 여성의 지도자교실이 조금 켜켜워지만 이제 지도자 교육도 가야 되겠다. 이제 자기가 지도자라는 걸 인정하는 과정까지가 아주 어떻게 보면 내적인 지원, 격려 이런 것도 있고 결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같이 결합되는 지점이 지도력 교육의 핵심인데, 1박2일이 들어가면은 이부분에서 핵심적으로 여성이 지역 사회에서 그룹 활동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제일 취약한 부분이 뭔

가 하는 것을 공감하는 거죠. 경험들을 들어보면 그대로 얘기가 나오는데 여성들이 자기 삶에서 사실 일반적인 주부라든지 그런 여성들의 학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천차 만별이에요. 초등학교 졸업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지역이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가, 거기 지도자가 그렇게 거부감이 있을까. 발휘할 기회도 별로 없고 지도자 그러면 뭔가가 짓누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도자지라고 생각을 하다보면 이 논리가 참 재밌었어요. 한 분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원활동하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몇이나 돼' 이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별로 없거든요. 막 가자가 자 그래도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마치 자기 능력부족인 것처럼 '나는 안 돼, 자자해도 잘 안와.' 그런 얘기를 하면 부끄러워하고 자기 무능력함을 한탄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뒤집어보면 뭐가 되나하면, '거봐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쉬워? 그러니까 당신들이 온 거야.' 하면 이제 서로 이제 '맞어' 이렇게 공감하는 수밖에 없지,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아, 그렇구나.'하는 숫자가 많지 않아요. 더구나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딴지 이러면은 진짜 그런 거거든요. 현실이죠, 그러면서 과연 '그렇구나'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대화로 부는 방법, 구체적으로 집단에 갈등이 생겨도 갈등을 어떻게 하는지, 난 사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에서 애들 하고 막 묶고 그러다가 나와서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묶지만은 여기서는 괜히 남한테 나쁜 소리해서, 품위있게 살 수도 있는데, 남한테 나쁜 소리 해가면서 굳이 그런 리더쉽을 발휘해되나. 이런거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은 저희가 개인의 경험들을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집에서의 그런 경험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똑같은 문젠데 사실은, 인간관계의 존중에 우리가 일차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아이들, 남편들, 친지, 가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들을 살렸어요. 그게 뭐냐 그분의 경험 속에서 이 문제를 같이 봐낼 수 있는 게 뭔가를 꾸준히 찾아내는 거예요. 생활 그 자체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리더쉽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조직반 활동을 하기에 필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 과정을 거치면 그대로 다시 가족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검증이 되면서 ‘아 이견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줘야 할 것. 이런 계기가 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1박2일을 갖게 되면은, 처음에 저희들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활용을 했어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초창기에 필요 하더라고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나 하면은 갔다오더니 욕구가 말라졌어요. 듣는게 재미가 없는 거죠. 거의 그 소리가 그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 만큼씩 쌓이는 거예요.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못하지는 안겠다. 할려면 할 수는 있겠다. 이런 것 바로 그 지점에서 자기들이 ‘그래,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남한테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참 많이 변화하는 되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결합시키면서 제가 2년전에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학습동아리, 기본적인 형태의 학습동아리. 그게 어떤 거냐면 아까 말한 그분이 개별적으로 대화과정에서 주로 경험이 굉장히 지적인 호기심도 많으신 분이셨어요. 본인은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리가 보기에 는 그랬었거든요. 개인적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 경험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꺼낼 때마다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강화되어지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지역에서는 못 살지는 않으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시는데 그 분이 교육이나 자녀들 교육에서 갖는 위기감, 조급함 이런 것들이 이러면서 갖고 있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 이런 개별 프로그램. 그건 프로그램이 아니죠. 일상적 대화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죠. 그 결과 이 분이 어떤 것들을 하셨다면, 어떻게 보면은 관심있는 상황 ... 시간을 의미있게 활용을 할려는 이런 관심도 추가를 하는 거예요. 하다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뭔가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책임있게 할려면은 애들에 대한 실천 활동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

실천 활동도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하고 싶다 이런 것을 나라밖과 동시에 공부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동아리 모임. 그 동아리도 일반적인 사람이 바로 들어 올 수는 없었어요. 이미 발휘한 사람 자체가 그런 욕구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 적어도 이런 시민 단체 활동이라든지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해야겠다는 인식이 있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 되면서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랜 것은 어떤 거냐면,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끈기 있게. 대단하잖아요. 활동가들도, 사람이 조금 많이 나오면 신이 나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좌절감을 생기고 이걸 계속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분도 실망도 하고 하지만 그걸 끝까지 계속 2년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역량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이 학습동아리가 생긴 이후에 그 이전에도 저희가 소그룹으로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학습동아리를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생겨나면서 뭔가 학습동아리를 따로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된 거예요. 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동아리가 몇 개 형식화됐어요. 그래서 동아리가 한 다섯 개, 여섯 개 생겨났어요. 6개월 지나면서 각 동아리마다 실천활동이 중심이었던 게 학습활동이 중심되는 2년전부터 되고 있는데, 교육이나 이런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보면서 아주 강점인 것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그야 말로 소그룹 5~7명의 소그룹이, 매우 자발적이며 민주적으로 토론하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생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라도 다시 자기 삶과 직결되게, 당장 자기가 하고 있는 활동이, 실천이 직결이 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 3,4,50의 중.장년 여성들이 토론하는 ... 이제 그런 것들이 강점이라면 강점이죠. 근데 이제 단점은 어떤 게 있냐면 단점은 어려운 점인데, 보통 이게 아까처럼 학습을 하는 것이 훈련이 돼서있는 집단도 아니고, 젊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깐. 우선 개념자체들이 생경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대한 부담들이 많이 있어서,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려니까 부담이 되는 그니까 부담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심화있는 이런 것이라기 보다는 생활의 경험이 앞지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 얘기야.’ 이런 경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뒤이어서 개별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만 개별작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한된 사건 말고, 개별적인 접근이라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고 과제로 남아있고 이러니까 점점 어렵고 가고 있는 중인데 ... 또 하나는 아까처럼 이렇게 하다보니까 욕구가 자꾸 생기니까 활동의 범위가 자꾸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저기 다 넓어지니까 결정적으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들. 시간이 없어서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덜 바빴으면 좋겠다. 아쉬운 점도 있고, 위로해가면서 지내고 있는데, 학습동아리 내지는 이런 의식들이 점점 형태를 갖추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분들이 실천에 관심을 갖고 학습이 결합되고 하다보니까 다시 이게 실천으로 돌아오는 점이 참 많아요. 자기들이 각자 맡은 역할에서 이제 비전을 갖고 리더로 설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많아져요. 예를 든다면, 이제 사람이 크니까... 이제 저희가 대구에서 어렵지만 역할 분담을 해보려고, 역할을 지역에 따라... 그 분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갔는데 한 1년 겪으면서 자신감이 생겼나하면 왜 자신감이 생겼나하면 그니까 회의하는 게 안 돼있다는 거예요. 형식화는 되어 있는데 왜 안건이라는 것이 어떻게 올라가고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라는 것이 욕구 속에서 올라와서 가는 훈련이 되어 있다가 뜬금없이 던져진 안건을 갔다가 다 - (1)면 끝 -

하러니까 하는 거지, 하고 갔다가 실제로 본인의 그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거기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꾸로 조직에 다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방학 때 뭐 해야 되는데 활동비 좀 내놔봐.’ 그래서 이번에 성과가 나타났어요.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저희가 주민 자치센터가 새로 하나가 지어졌어요. 옛날에는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새로 위치를 변경해서 지어졌는데, 거기에 방과후교실을 집어넣어요. 방과후 교실을 집어넣으

면서 위탁하는 걸로 하자. 물론 누가 위탁하느냐, 시민단체에 공모를 해라. 일단 방과후교실이 들어가게 됐고. 녹색가게가, 주체사상이 밀어 붙여 가지고, 녹색가게가 그 안으로 진입을 하는데 90%정도 지금 마직막 결정만 남았는데, 이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들어가서 결국은 가져왔잖아요. 이 결과물에 대해서 주변의 회원들이나 이웃들에, 본인이 자기 실천의 결과물을 가시적으로 이웃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가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실은요 그렇게 조금씩 현장을 밟아오는 과정에 결과물이 나타나니까 ‘아, 우리가 어렵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NGO, 초창기, 1학기때 이 교재를 가지고 했었던데요. 방법도 저희가 종류가 많았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자신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지도자가 누가 와서...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 그동안 많이 해 봤잖아. 그러면서 좀 해보자 이러면서...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어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진짜 해내는 거예요. 각자 발전하는 형식도, 개인차가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았지만 어쨌든 진행을 했어요. 책을 딱 떼고, 두 번째 책을 선택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이게 연관이 있는 것이 었어요. 이게 NGO파트며 영역을 보더니... 두번째 이 교재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대학교재인데 이 책이 너무 두꺼워요. 이걸 두 권을 떼고 나니까. 1년 동안 이 두권을 뺐었던데요. 작년엔. 올해는 뭘 할까 하니까 책을 선택하게 하는데 우리가 각자가 인터넷이든 뭐든 검색을 해서 시민 단체로 돌아와서 자기가 필요한 원하는 걸 말하자. 마침 시민의 신문하고 성공회대 NGO 그쪽하고가 결합해서 만든, 강좌의 내용들이 저희한테 도움이 됐었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의 주식거래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쪽들이 내용을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참여하고, 자료를 받아오고 하면서 계속 진행을 시켰어요. 올 마지막 소그룹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이제 2년 한 결과물을, 참여한,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결과를 모아서 내부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단체... 이런 강좌의 과정 자체를 하나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 팀의 목적이고 아마 거칠겠지만 나올 것 같아요. 이 분들이 결의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과정들이, 할 때는

뭘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걸 다 하면서 굉장히 도움됐
 다는 것. 자기가 뭘 일을 해야 된다. 혹은 어떤 일을 한다라는 이런 설득력을 발휘하
 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밝기 힘든 그러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의미화하고 가치화하
 고 도움이 됐다. ... 내년엔 그 과정을 만들어내고 내부에서 돌릴 때, 각 자가 중심적
 으로 가져야 할 부분에 지금 이제 시간을 맡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누는 ...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제는 교육자체가 교육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따로, 그
 지식을 받는 사람 따로 가 아니라, 특히 대중들에게 있어서, 이 경계가 무너져야 된
 다는 거죠 ... 실제 현장에서 가장 힘을 발휘했던 교육은 스스로가 공급자이면서, 스
 스스로가 수요자가 되는 교육 그게 굉장히 잘 됐고, 또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 팀에서
 누군가가 공급자가 되면, 우리는 수요자가 되고, 동시에 토론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앞선 경험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특별한 발견함에 대한 수요자다. 이런 경험에 있어
 서 그 분들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그건 뭐냐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의 참여자
 가 자기주도성을 획득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제 어떤 요구할 것이 있
 다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필요한 정보, 기술 등 많
 은 새로운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것을,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활동들이 과연 지역에서 대중 속에
 서 지도자는 위치변화와, 자기 변화를 하고 있는 그 분들이, 장기적으로 자기 비전
 을 가지고 더 힘있게 이런 활동이라도 가지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지금의 교육보다
 는 또 다른 뭔가 새로운 교육가가 교육의 정도를 높여가고 이런 어떤 중간 지도자
 ... 우리 단체들이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각 다른 단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지
 역조직 속에 이 진영에 와서 내부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 의식
 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집단을 위한, 좀 체계적인 지도력이 갖게
 되면 어떤 과정에서 이런 욕구들이 점점 더 올라가서, 나중에 이렇게 전 시민을 대
 상으로 하는 교육,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이제는 여전히 있어야 돼겠지만,
 또 하나 ... 각 집단의 특성을 갖고, 지역여성이면 지역여성 지도자가 혹은 주민지도

자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되고 준비하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

이 : 저희가 실무자의 입장을 보면, 실무자의 입장이 아니고, 회원,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지금 교육기획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도 신입활동교육을 회원들 중에서 다 했어요. 저희 실무자가 온전히 빠지고, 제가 나중에 우연찮게 돼갔구, 일부를 가게 돼 갔구, 어거지로다가 다들 하시게 됐는데, 가장 느낌이 좋았고 ... 너무 너무 좋았다고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일련의 경험들을 담아주시면 ...

광명Y : 저희도 그렇게 비슷하게 분배를 통해서, 실천운동을 하면서 거의 회원들을 ... 일주일에 한번씩 모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 중에는 각자의 자기역할이 다 있어요. 다섯명에서 일곱명 한 등대가 정해져 있는데요. 등대지기 모임을 하면서 저희가 단순히 모여서 흔히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 한달에 한번씩 한조는 자기 자신의 교육과 아이들의 교육, 인간관계 측면이나 ... 그 다음에 제가 태교를 하다가보니까 생활 ... 유전자조작 이런 것을, 그런 교육이 있는 한 달에 4주정도 갖고 ... 그 역할을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등대를 총괄하는 사람이 등대지기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씩 맡아가지고, 교육지기, 생활적지기 각자 역할을 맡고 있어요. 간단하게 1부 활동을 하고 나서는 2부 활동으로 그것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주도하는 사람이 그게 지기라는 사람, 그것을 맡은 지기, 항상 그 시간에서는, 그 시간만큼은 일년 동안에 최소한 10번에서 12번이 자기가 리더로써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도력의 성장이고,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에 의해서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하면서 그 모임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교육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면은 헤쳐 모여를 하셨잖아요. 헤쳐모여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너무 친해지다 보면은 사람들이 격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사람

이 이상하면 ... 이런 것을 보완하는 것이 저는 헤쳐모여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등대가 저 한사람만 남고 다 이사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 혼자서 2~3개월을 계속 등대를 하다가 그 다음에 개편작업이 있어서 다시 다른 등대로 속하게 되고, 그런데. 그 작업이 없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도태가 되어지는 결과밖에 없거든요. 다행이 그런 것이 없었는데, 헤쳐모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도 계속 지금까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각자 역할을 맡아서 한 단계 더 성장을 하게 되면은, 등대지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년정도 하게 되면은 회원들을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일반회원들만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일반회원과 그니까 기존의 회원이죠. 기존회원과 신입회원들을 적당히 섞어서 등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해마다 등대지기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지도력이 자기가 일부지기 역할만 했던 것에서 등대지기라는 한 단계 더 높은 지도력이 생길 기회가 됐어요. 나름대로 이 번에는 내가 하게 될꺼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등대지기가 매년 바뀌면, 일년 동안 등대지기를 하면서 '저 사람은 우리의 등대지기 감이다'라고 미리 보여지는 거예요. 그만큼 등대지기 역할을 하면서 시야가 확대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그 사람을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다음에 등대지기가 되었을 때는 정말 그 사람이 등대지기 역할을 이렇다하게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 거기에서 내가 등대지기를 맡았을 때보다는 그 등대지기를 도와줄 때 더욱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요. 그 누군가를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마을 단위로 마을지기 ... 몇 사람의 등대지기 아닌 자기의 마을의 지기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중금해 하셨었잖아요. 헤쳐모여하는데 지도력의 성장에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지도력이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되고, 마을 지기 역시 다음 마을지기를 물색을 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렇게 해서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력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후에 진짜 고민이 되는 게, 제가 올해 9년째죠. 9년째 되니까 한 8년, 7년, 8년, 9년 되신 분들은 진짜 고참 지

도력으로 성장되어있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욕구는 굉장히 있어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되는데' 더 뭔가 해야 하는 욕구는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찾고 있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갈등을 하는 모습들을 회원을 보면서 느끼거든요. 저도 물론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지시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 나는 공동체에서 무엇을 해서 공동체의 밑거름이 되어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저는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더 그걸 느낄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거기서, 고참 지도력들이 그 욕구를 뛰어 넘지 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제가 보기에는. 같이 함께 공부합시다 처음에 했다가도.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바빠지잖아요. 자기 활동영역이 많아지면서 바빠지니까. 나 일을 너무 만들었어. 일을 너무 많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했던 것들이 ...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바빠지다보니까, 지금은 잠깐 주춤하고 뒤로 물러서서 봐야 할 단계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다른 걸 정리하고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해도 안되더라구요.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마음을 잡게 할 것인가. 사실이게 실무자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저도 올 봄부터 하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저희는 등대지기를 돌아가면서 하듯이, 생협의 이사장도 돌아가면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들어 가지고, 제가 올 봄에 임기를 2년 마치고 다른 분이 선출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의 역할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민하던 것이 저 사람도 2년 후에 생협 이사장을 그만 두고 나면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2년 동안 해야 할 일이 저런 사람이 나와서 정말 기쁨을 가지고 교육이라는 것이, 자기가 만족을 해야만 어떤 이유로든 만족을 해야만 되는 것인데,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떠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떠나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여기에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종신 지도력으로 할려면 그거를 만들어 ...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 저 나름대로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뚜렷하게 잡지는 못했어요. 다방

면으로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공상이 현실로 이뤄지지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공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현실로 이뤄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협같은데도 활성화되어있고 저희 회원들을 보면은 그 욕구가요. 자기 만족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적인 수단으로까지 연결이 되기를 원하는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도력이 성장을 했는데 떠나는 이유가, 경제적으로는 그게 보완이 되지 않잖아요. 그것이 ...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생협을 오래하면은 나에게 그런 비전이 있다라고 느끼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우리의 생협은, 소규모의 생협이니까, 우리 소규모의 생협에서, 그런 저 사람들의 욕구까지, 크게 전문가가 되지는 않더라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일 해서 경제적으로 그게 양이 많아서가 아니거든요. 그게 적은 양이라도 만족을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이 되나보니까 ... 공동육아에 대한 욕구 ... 저는 그런 생각을 막 해봐요. 근데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렵지만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작게 본부모임을 시작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전에도 저희 교육 얘기를 한 번 했었지만 세트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왜 사람을 써서 ... 막 이런 생각들이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저는 자꾸 해봐요, 그런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정신적으로도 만족하고 소규모의 성과도 이뤄 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자꾸 만들어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되지 않을까, 회원들 ...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실무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리더라기보다는 대표라기보다는 참모 쪽의 사고가 더 발달이 되어있는. 제가 리더가 되기보다는 리더를 도우는 참모라는 게 저는 참 즐겁고 좋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정 : 여성들이 자기실현의 욕구가, 여성들의 지금 사회적인 위치라는 것보다는 아주 경제적인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저희가 지금 회원들의 지속적인 욕구가 압박처럼 느끼고 있는 게, 동아리가 생기면서 좋은 책 읽는 모임이 있잖아요 이분들 5년이 됐

거든요, 여기서 직결이 되요. 아이들 독서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모임이 잘 된다고 하니까 와서 이 노하우를 배워가는 경우도 있고 배우면서 자기 이익이 되니까 계속 오는 사람도 있고 원래 우리 원멤버들은 처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책읽는 모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왔다가 그 분들이 우리 한 3,4년 성장을 해갔고 ... 연결을 해갔고 주선을 했거든요. 어쨌든 같은 것이고 하니까는 이 분들이 어중간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녹색회원이면서 동시에 그쪽 회원인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가면 갈수록 소득을 만드는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한 때는 충격을 받아 가지고요.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했는데 제가 많이 깨졌어요. '아, 이게 뭐야' 다시 들여다보니까, 누구한테나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 회원들한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동화'에 3년 동안 다니신던 분을 저희쪽에 실무자로, 주실무자로 했어요. 작년 9월달 정도부터는 인턴처럼 녹색가게의 제한적인 일을 맡겨봤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 우리가 일이 자꾸, 조그만 동아리에서 일을 만들어 나가니까. 어린이 전문 도서관이 생기게 됐단 말입니다. 이번에 오픈을 하는데 어린이도서관의 반장이 있는데 실무자가 있어야 된다. 그 역할들의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일자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부분들은 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을 당연히 실무자를 뒤편에 두어야 된다고 이러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 이거는 조직력도 갖춰야 되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 이제 저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과제가 떨어진 건데. 내부에서 충격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럼 또 교육을 하자.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우리 회원들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여성들이 경제적 소비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올라와 있는가를 볼 수 있었어요. 그 고민은 내부적 문제로 해결을 하는데 집중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 : 돈문제 때문에 생기는 갈등은 없습니까?

정 : 당연히 우려 될 수도 있는 지점인데, 현재로써는 그런 욕구로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이런 역할을, 공채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경험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자기소개서를 받고 하자는 거예요.

김 :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 2 단계가 생활공동체의 시민단체, 3단계를 영역별로 전문화된 단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참 문제다 그리고 이 3단계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엮어져 나갈지, 저는 그 부분에서 다른 고민이 있어요. 사실 말씀하신 ... 저도 사실은 93년부터 YMCA에서 일하면서 생활운동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고, YMCA에서 일하면서 상당히 이상적인 문화가, 주부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한 분은 자기가 YMCA에 와서 또 다른 자기를 찾았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 분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문구가 저한테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주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활동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우리가 여기서 환경운동, 미디어, 주민자치, 주민자치의 생활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쪽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가 있을 것 같구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 사실은 굉장히 총체적으로 한번에 어우러져서 일어나잖아요. 어우러져서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시민교육이랑 시민학교랑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때로는 이게 교육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같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본질적으로 막히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나 생활공동체라는 걸 쓴다고 하는데 일단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인체 틀에 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발전하면서 뭔가 성장의 매개를 찾고 이제 이러한 과정에 거치잖아요....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아까 말씀하실 때는 3단계로 이루어진 전문화된 영역을 얘기 했는데 이렇게 바라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고민이. 이제 과거에는 사실 저희가 그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자

기가 있고 가족이 있고 사회가 있는 데, 이 3가지가 일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3가지를 사실은 의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커요. 저희 같은 경우엔 사회성이나 있지 뭐 다른 것은 전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생활부분 쪽이나 기분 같은 것들이 사람들 속에서 이 3가지 요소가 아까 정현선생님이 적절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 속에서 사회성의 욕구나, 사실은 가족문제도 굉장히 많이 해결되게 하고 또 자기 성찰의 과정, 자기 신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이 3가지가 하나의 매개를 들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형성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욕구가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긍정적인 욕구는 굉장히 저는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고 여러 가지가 나타나겠지만 또 원칙이란 게 과거에 저도 조직을 위해서 조직이 먼저지 이랬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것을 큰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 진짜로 이 교육이라는 게 아니면 어떤, 인간 개인들을 선도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뭔가의 역할을 하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요 사람들의 긍정적인 어떤 그런 지향이라든지 근본적인 목표 같은 거는 사실 조직이든 개인이든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그거를 뭔가 서포팅 해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2단계, 3단계, 저는 그런 얘기 처음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미디어에 관심 있는 사람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사실 지역 사회라는 거를 놓고 볼 때 지역사회 안에는 생활을 놓고 볼 때 이게 굉장히 총력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사람들 한 명의 내면 속에 전체적인 것에 욕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시화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렇다면 주민자치나 생활공동체를 얘기할 때, 굉장히 큰 틀을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주민자치운동을 할 때, 몇 가지 상대를 가릴 수가 있잖아요. 몬드라곤이라는 상황도 바로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철저한 경제 공동체가 사람들이 하는 선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생활 공동협동운동을 하는 그런 선도 들어오고, 그리고 일본같은 워크웰러티브를 얘기하셨는데, 다양

한 실험을 하는 창도 들어오고, 저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들어오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들어오는데 맞는데 3단계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떠한 목표 지향을 가져갈 것인지는 좀 더 저희들이 구체적인 생각을 해 봐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런 문제도 사실은 여기서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를 보고 생활 운동을 하고자 할 때 키워드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의 자치와 자립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생태문제가 있거든요. 단순성이라든지 생태 친화성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 사회에 들어오고 개인의 삶의 내면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경제문제, 정치문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시일 내에 해결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자치공간이 작다고 하더라도, 여기 들어와 있는 교육이라든지, 시민교육 ... 사실 이런 고리들을 가지고 찾아서 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속에서 저희들이 작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자립, 경제적인 자치, 또 우리 내부에 그런 것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매개들을 만들고 발전시켜나가야 되지, 물론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에 따르면 안 되겠죠. 그런 생활공동체라는 걸 바라보고 경제공동체, 정치 공동체 아니면 어떤 삶의 방향을 바라보는 공동체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요소들을 만들고, 적절하게 그런 요소들은 공적인 요소로 변화시켜나가는 거죠. 서로 간에 나누고, 자립해 나가면서, 서로 간에 관계를 맺어나가고 그런 관계가 깊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이것들을 강화시켜나가는 지향이 저 이 안에서 ... 근데 그거는 운동적으로 그렇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데, 제가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외숙모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외숙모가 교회를 다니시고 식구들이 다 교회를 안 다녔어요. 외숙모가 돌아가셔서 제가 3일 동안 거기 가서 있었는데, 완전히 교인들이 모든 서비스를 다 하잖아요. 저는 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생활 공동체라는 생각을 그 전에는 잘 못했어요. 제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 것이 아니고, 일요일만 다니는 교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 굉장히 강력한 생활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 저는 지금 하는 주민자치운동 이런 것도 그런 다양한 공동력을 개발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활공동체를 사람들과 삶 속에서 짜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실은 저는 여기서 한 발 떨어져 있잖아요.

?: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방향으로 지도력 훈련을 한다해도, 기존의 강사를 모셔다가 한다 지금의 이런 형태는 의미가 없고, 다양한 시민교육의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사람들은 드러내게 만들고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고 공통의 관심사의 문제를 해결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기본 방향에 대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전의 보편은 큰 흐름을 놓고 볼 때, 예전에 있던 농민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운동이 굉장히 확산돼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로역할을 했던 것이지만, 그 운동이 확산되고 5년쯤 뒤에, 제가 지금 주민자치 이런 운동들을 볼 때, 이런 활동가들이 아니라 주민활동 속에서, 시민 활동 속에서 성장되어있는 그런 지도력들이, 저는 사실은 시민운동과 시민교육 이런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이분들의 뭔가 모임을 짜가지고 보다 주체화시켜나가고, 비전 자체를 넓게 바라보는 이런 거를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럼 주체 단계를 어떻게 짤 것이냐. 주민자치운동이 영역이나 아니면 나눠져 있는 영역이나 상당히 있지만 ...

은 : 아까 단편적인 것이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회원관리...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중요한 문제냐면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의식 관계. 굉장히 비관적인, 부정적인 의식이 컸었던 같아요. 어떤 경우냐면, 지역으로 가서 벽처럼 다가온 게, 무슨 일이든 '잘 될꺼야'라는 생각보다는 기존의 경험들 속

에서 '잘 안될꺼야'라는 생각을 하는 훨씬 많이 하는 주민들, 제가 비슷한 경우들을, 잘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잘 안 될 거야로 들어가 보면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크고 사회의 경험까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크고, 피해의식도 크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잘 될 거야'라고 바뀌어 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걸 하는 것이 결국은 주민자치를 따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해 그래' '될까' 여기까지 나가는데 극복했어야 될게 뭐냐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외되어 있는 집단들이 ... 피해의식도 많고, 자신감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이걸 극복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혼자서는 죽을 때까지 못하죠. 어떻게 하느냐 혼자 해서 안 되면, 연대해서 하는 거예요. 연대라는 것이 핵심적이 거예요.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앞에다 붙여놓거든요. '나무성장 연대' 계속 연대라는 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지는 몰라도 이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 어떤 기회가 올 때, 우리는 누구도 우리 자신에게 기회를 만들어줬으니까 당신 여기 와서 하라든지, 당신 여기에서 기회를 줄게 라고 딱 주듯이 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기회조차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그럼 우리한테는 기회가 주어질 경우도, 여성들한테 더 하다는 거예요. 지역이라는 것이 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하느냐 우리가 모여서 기회를 만들어서, 때로는 이 사람한테 이 기회가 필요하다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분을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이 기회를 만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만들고, 누구나 필요에 의해서는 자기 기회가 된다. 라는 것까지가 이것이 우리가 지역에서 만나는 기회라는 거예요.

아까 전문성이라고 하는. 그러나 전문성으로 가기 전까지의 과정은 얼마나 중요한가, 전문성이 진짜 전문성이기 위해서는 과정이 없이는 안 된다. 그 과정이 1년이면은 어렵다. 개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태도에 이르고, 습관에 이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3,40, 50대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검증과정이 더디거나 그래도 같이 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지. 왜 어떤 다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검증 과정이 무시되거나 이것이 덜 중요하게 지나가서는, 이게 없어서는 안

된다. 전문화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욕구를 지탱하고 그 욕구를 함께 발전시켜나갈 수 있어야죠 그 단계를 기초단계라고 표현하셨는데 기초단계를 평균1년이라고 보셨거든요. 전 아마 그게 1년이 아닐 것이라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너무나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교육프로그램이 더 세분화되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를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는지 미심적은 개념들을 보면은. 우선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의 구체적인 삶에 관심을 갖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공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져 나갈 것인지 참여가 뭔가, 참여가 일어나고 그 참여 속에서 뭐가 진행되며, 아까처럼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예요. 그런 기회들을 엮어서 집단의 문제들로 이어지는 것이고 혹은 지역사회의 문제로도 연결되고 소급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예요.

그랬을 때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적인 지도 자체는 이 큰 흐름에서 필요에 따라서 완성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3단계에 대한 이유는 그런 각가지 단체에서 다 할 필요는 없고 1단계, 2단계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2단계에서 그것을 씨뿌리는 작업과 그것을 씨앗을 틔우는 과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겁게 봐주고 정말 그것을 음미하면서 그 단체에서 해 줄 수 그런 시간적인 그런 사실 8년,9년,10년 전공하기에는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 그 정도 됐는데, 뭔가 조직에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들, 선부르게, 감을 다 익지도 않았는데 익어라 익어라 만져가지고 뚫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뻔뻔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런 과정들을 단체에서, 물론 단체마다 여건이 다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으로도 1단계, 2단계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쪽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은 자기발전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나가고 있기도 한 사람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기관이 그쪽으로 보내주고 그 일이 어떤 충분히 지역사회라든가

이 : 중간에 오셨으니까 인사를 하겠습니다.

진 : 창원에서 왔습니다. 저는 그 전에서는 ... 경남 전도사 연구소라고 마을 복지관에서 지역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

저희 이제 그동안에 활동하시면서 교육이라든지

회원으로서의 고민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조직적인 차원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면 그것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표현을 먼저 해준다면 제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들을, 직접적으로 해 본적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알아들으신 것 같고, 여러 면으로 저를 도와주시려는 모습들을 봤고 그전까지는 이것 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못해요' 그랬는데 못해요 하지 말자 저렇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 힘들어도 '예' 하고 하자. 그렇게 계속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려는 욕구를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다면 기꺼이 도와줄 것이거든요.

회원로서는 유일하게 평가를 하셨네요. 집안에서는...

변 : 저희 집안에서는요 묵시적인 도움이죠. 도와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것으로 저를 도와준다고...

이 : 저희도 회원이 한 명도 없을 때, 아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 강릉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강좌를 여는 것이었어요. 사실 1명 왔거든요. 한 명 와 가지고 거기서 기획를 살려 가지고, 6명인가 14명인가 모여서 첫 모임을 가졌는데 그게 저희 모든 모임의 소재라는 것은 학습이라는 ...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 개인적인 학습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미리 발제를 맡으셨으면 발제까지 제가 다 검토를 해보고 전혀 나는 머리가 굳어 가지고 봐도 안 된다는 걸, 말로 설명까지 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학습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이후의 다른 활동, 더 지도력을 요하는 활동을 했을 때,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친목 중심으로 너무 똘똘 뭉쳐 가지고 정말 모임의 한계라는 게 정말 뚜렷하 다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 한 인간이 변하게 되는지, 한 인간이 자기 삶을 총체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 조직과 교육이라는 매개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그 뒤에 생협 활동을 통해서 짚어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자기 주도 원이라는 것. 그 때 당시의 그 모임의 주도성은 온전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저의 비전과 저의 사명감이 넘쳐 가지고, 계속, 그냥, 주는 교육이었지 그 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교육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단지 여기 오면 사람들이 좋으니까 여기 오는 것이 즐겁고 기쁘니까, 하기 싫은 공부지만, 그것은 억지로 한 거예요. 그 당시 1년 동안 저 나름대로는 사업 계획을 거창하게 써 가지고 총체적으로 어서 모이세, 교육, 정치, 경제, 저 나름대로는 철저한 계획, 의도를 가지고 한 거죠. 그 때 저는 이분들을 이렇게 교육시켜 가지고 시정 지킴이 활동을, 저희는 시정지기단이라고 하는데, 이 모임을 시정지기단으로 끌고 가려는 욕심을 안에 품고, 근데 빨리 접게 됐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을쯤 돼가지고, 우리 모임이 뭔가 실천적인 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봐라, 일본의 지방자치 사례 비교를 보여줬어요. 지역에서 주부들이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활동을 해야 되니까. 내일부터 의회로 가자, 그랬는데, 교사가 가자고 하니까 안 될 것이 없잖아요. 그 동안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그러니까 울며 저자

먹기로 의회에 가기는 갔어요. 두 번쯤 갔는데 그 다음에는 안 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의회 가서 혼자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왜 그랬냐면 일단 의회에 자기가 가면, 기가죽고,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열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럼 가지 말고 공부를 더 해야겠다.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생협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동안에는 열심히 교육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외부에서 강사도 불러다가 몇 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투자를 많이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생협에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처음에 이거는 다 강제로 편입을 시켜 버렸으니까 YMCA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억지로 다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한 달 못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튕져서 나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해서 회의를 했는데, 생협의 최민혁씨 얘기가,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주도성이라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거기 붙어있지. 그게 없으면 절대로 붙어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1/4은 자기가 교육진행자가 돼야 돼요. 3/4은 자기가 교육수혜자가 되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주부들의 특성이라는 게, 다른 일반 교육하고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모임이나 남편들 조직에도 가 보지만, 이 분들을 조직으로 교육을 하면은 상호작용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부들의 모임에서는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빨리, 친화력을 급속도로 빨리 갖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체와 객체의 이 공간이 별로 없어진다는 거죠. 바로 처음에 누가 진행자로 그 역할만 해도 그 다음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생협이라는 구조가, 생활의 변화가 그런 식으로 가는데, 저는 그 지점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었나면, 총체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삶에 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고참들은 그런 모습에서 아, 저 사람을 저 참이구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직도 그 사람이 여전히 삼푸를 쓰고 이러면, 그 사람 스스로도 사람들을 초대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방문하면 화장실을 가 볼 건데, 그러면 화장실에 버젓이 삼푸가 여전히 놓여 있다보면 스스로

자기가 회원으로서 이상이 있는데 실체가 회원들에게 반영이 안된다는 경우가, 어떤 부분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나면, 정치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멀다. 다른 세계관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나름대로 지역 일에 관해서는 자치라는, 이 회원의 자기 주도성, 자기가족, 지역 사회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를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 봐야 하는데, 이 분들이 토론을 해보면 여전히 가족적이고, 가장 최근에 시민단체의 실무자들 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단체에서 여성 단체에 자기 회원들이 정몽준이가 잘 생겼다고 자기는 이번 선거 때 정몽준을 찍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들 쇼크를 먹었는데, 그뿐이 아니고 또, 자기 회원들 중에는 그 후보자들이 우리한테 자상하게 준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그 후보자들 중에 누가 자기 분야한테 자상하게 하느냐는 봐서 그 후보를 찍겠다는 회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체 활동을 오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정치적인 판단이 그렇게 나타나는지 그랬더니 그분이 YMCA에서 강사모임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나, 자기네 회원이 그런 기준으로 후보를 찍겠다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이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이 총체적으로 바뀐다는 것이 아닌데, 여전히 총체적인 지점에서는 다가가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죠. 드러났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그러는데.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엔 지역에 처음 들어갔을 때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저도 주부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잊고는 교육에서도 그런 것들을 전혀 집어넣지 않고 가능하면 이 분들의 욕구를 리더하면서 그렇게 하다보면 또 이로운 점이 있어요.

? : 그때 교육철학을 풀어나가면서 이런 교육의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때 제가 그쪽에 얘기를 한 것이, 가장 교육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근대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대 내에서 누구에 의해서 교육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비평들을 형성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변화되는 거다. 그래서 진짜 좋은 교육은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 외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군대로 저희를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저희가 먼저 갖었던 경험들을 얘기를 해 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생활 속에서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이지. 강의 몇 번 듣는다고 해서 교육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 : 제가 있는 지역에서 각자가 너무나 다른 경험과 다른 지적 경험과 ... 즉 사랑을 가지고 다 보면서 ... '가'라고 '가'라는 사람으로 만나는 거지 ... '에이'라는 사람을 갔다가 '가'라고 만들려고 했어요 ... 올해부터 목표를 수정을 했어요. 'A'라는 사람을 '가'라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에요 ... '에이'라는 사람을 '에이 다시'로, '비'라는 사람을 '비 다시'로 ... 이 주제 하나 갖고도 모든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모두를 이렇게 바꿔갈려면 ... 과연 쟁취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기회를 만들고, 함께 경험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어떤 생각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해결할 점은 온전한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 경험하기가 너무 어렵다. 저도 조급증, 숨이 가빠서 못 살거든요. 숨 좀 쉬면서, 제가 변화하지 안 되겠다 하고 보니까. 변해야 될 구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제가 일을 하는 이유는 남의 변화가 아니라, 이 일이 저를 참 많이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이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늘 만나면서 늘 새로운 것을 들었고, 나이가 들면 신나면 신나 하는 방법들이 어렵잖아요. 저는 이제 신나는 걸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아 진짜 어딘가 모르게 사람이 되어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내가 만나는 여성분들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변화하면서 그 분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교육의 목표가 있죠. 그 과정에서 목표는 종극적인 목표,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내 관계, 자기 정도, 주민들의 전체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어떤 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는 교육목표 아래서 다양성을 존중하자. 시민교육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그것이 의식화 될 수 있는, 하는 증명을 깨야 된다. 특히 지역운동에서 그것을 해야한다 생각을 합니다.

? : 우리가 지금까지 상처를 많이 받고 사람이 됐죠.

진 : 저는 연구소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주민들을 그냥 왔다가 그냥 가게 해서는 안된다. 오는 한 명이라도 같이 도서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남겨야 된다. 그래서 교육하고, 주로 주부들이니까 적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실무자들도, 친화력이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을 모시는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교육을 한다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직적으로 목표도 주고 자료도 주고 세 가지 분야로 나눠 가지고, 집단적으로 조직적 견해를 쥐 가지고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게 했어요. 평가를 하니깐 각자가 자기 성과를 한 사람씩 만들어 냈는데, 도서관이 참여공간이고, 전반적인 마을 도서관이 그렇다. 그 속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만들어지고 있는 주로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이나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집단, 예를 들면 YMCA가 앞서가는 배워야 될 그런 쪽에서 있다는 것을 많이 봤는데, 저희들은 YMCA에서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떤 목표에서 들어갈까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YMCA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서, 아파트 주민들 교육을 위한 시민 강좌를 만드는 우리는 그런 참여자의 교육과 자신의 생각, 또 책 읽는 엄마가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교육을 다른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성과가 없었습니다. 모이고 참여하고는 했었는데 그 후속과정들은, 아까 여성의 모임의 부작용이 있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많이 따지는 데, 오히려 여성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사교적이랄까요 모이고 화합하는 분위기가 되

고, 물론 그게 지나치면 파괴되어지지만은,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오히려 문화적인 관계들이 그것이 모여져 나가는 데 저희들이 긴장이 많이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나가려고 하기 보다는 관심도가 없으면 안된다.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 도서관이라는 게 편하게 올 수 있는 것이 부족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설정할 것이냐. 당신들 노력으로 마을 도서관을 만들어 봐라 제정 지원은 없었지만은 아파트 단지에 저희 도서 문화대학이라는 건물이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가는 것에는 지금 아파트 들어가는데 마을 도서관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때를 써 가지고 시에서 받아낸 것이지만은, 시에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 수 있는, 저희가 틀리게 접근한 것은 아파트 단지에 계신 분들이 한달에 천원씩 내가지고 마을 도서관을 만들자. 관리비나 이런데 천원을 더 붙여 가지고 마을 도서관을 만들자. 그게 저희 나름대로는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상당히 참 해보면서 더욱더 많이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게 제가 남자라 그런지 참 쉽지가 않구나 한편으로 쉽게 왔다가 나가고 저희 마을 도서관 안에서는 그 사람, 아파트 단지 내에 마을 도서관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은 저희들이 시켜 가지고 했지만은, 그 분들이 하도록 돌려드리고 저희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마을 도서관에서 하고 그리고 주부들이 '동화 읽는 모임' 자녀들의 교육 통해서 모이고, 동화 읽는 이런 모임이 마을 도서관에 두개나 세개가가 만들어져 있어요. 독서회가 두 군데 정도 모여서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온 아줌마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독서회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4개월인가 정도하니까 딱딱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충돌이 많더라구요. 저희가 또 세세하게 준비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일정한 정도가 되면 그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목록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는 목록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는데, 그게 뭔가 잘 못 된 것이 아닌가하는 것을 지나고 나서야 하게 됐는데 ... 저희들 부자 동네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사는데 아파트 단지하고 행정지역에 있는 변호사들이 많고 교수들이 많이 있는 곳에 독서회가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딱딱한 분들이 많

더러구요. 문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시고 지적수준이 높으시고, 비슷하면 차라리
 같이 하면 되는데, 상대적인 격차가 나 있으니까 서로가 용납이 안되더라고요. 주민
 들도 싫은 그런 것도 나타나더라고요, 이거는 상류사람들의 특성이기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모델을 제 아내의 얘기를 했나하면 저희들 말고도
 수도 없이 모임이 만들어졌다가 수도 없이 깨지고, 그것이 또 아이들이 크면서 다
 른 영역으로 전환을 하지 못하고, 다른 분야로 관심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도태가 됩니다. 저희는 본능적으로 생활 환경쪽으로 왔는데, 제 아내는 한살림협
 동조합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여자 8명이 공동으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Y에서 오
 시는 분도 있고, 여성분들이 개성이 강하고, 딱딱한 분들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불안하더라고요. 이름을 지어 본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재미있는 이름 한 번 지어
 줄까. 우리가 ... 어떨까 맑고 이런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화합하고 이러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일정한 절제 속
 에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정한 학습. 이것이 배움 자체보다는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 모임 사람들이 외부에 나와 가지
 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확
 인 할 수 있는 제기가 주어지면 좋겠다. ... 저희 마을 도서관도 그렇고, 여기 분들도
 제가 만난지 얼마 안 됐는데, 저한테 '오빠'라고 하고 노래방 한 번 가자 그래서 서
 로 맞장구 치고, 그때부터는 전에 생소하던 사람들인데 언니, 동생하면서 그때부터는
 상당히 친밀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그만큼 깨어지는 속도도 그 만큼 빨
 리 올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관계의 친밀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학습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저희 모임이 깨졌어요. ... Y에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보니까.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연구소에서 저랑 일을
 하다가 집사람을 통해서 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 자
 기도 학습 받지 않아도,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형태라 하더라도 ... 작은 것이
 아름답다하고 녹색 평론하고, 녹색평론 아줌마들은 전체를 내드립니다. 책만 보고,

그림도 하나 없겠죠. 활자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사를 해가지고 한쪽한쪽 나눠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이야기를 진행시키는데 지금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기자기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게 책 일꾼 조합이라는 자기 생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천활동을 하고, 그것이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외부로 나가서 형식적인 강좌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참여를 하고, 제가 여기서 민주시민교육, 여성교육을 한 것 같은데 ... 상당히 친화적인, 친숙자만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학습이라든가 ... 제가 일본에 갔다 온 얘기를 하면서 아내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임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가, 이사하는 경우 외에는 깨지는 경우가 없다. 이사를 우리보다는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은 굉장히 예의가 발라요. 일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쉽게 속단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예의바르고, 신중하게 사람들과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지하게 굉장히 소중한 것을 대하듯 하는데, 한 번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면 남편도 가족도 이차적으로 접근하고, 그 이야기를 회장이나 주역들하고 주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임이 깨진 경우가 생겼다. 특별히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보내거나 그런 경우는 있는데 자발적으로 깨지는 경우는 없다. 상당히 오히려 우리가 한국인의 기질 때문에 서로가 친해지는 것은 좋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서로가 존중 속에서 이뤄지는 것은 중요하고 그것을 조절할 사람들이 내부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또 안 되면 학습을 한다 하더라도 '안하자'는 분위기가 더 크니까 '안하자' 분위기가 더 쉽고 그러니까. 안되더라고요. 이 '동화 읽는 모임' 같은 경우에도 '안하자' 분위기가 나오면 전체를 가동시키게 되는, 전체 모인 연합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의사 결정을 해가지고 돌아오시면, ... 공동으로 뭘 한다고 하면 선의의 경쟁의식도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힘이 모아지는 건가 ...

? : 강좌는 깨지는 경우가 없는데, 소모임, 학습모임은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진 : 그거는 6개월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저희 창원 지역만 하더라도 의외로, 이주라는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창원 안에서 창원으로 이동을 하는 ... 아파트 단지하고, 저희들 처음에 99년도에 8개 마을 도서관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28개, 이게 확산 속도가 자연스러운 분위기도 있는데, 지역 안에서 이주를 하니까 특자를 하게 되고 ...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분들이 일부러 시내까지 나와가지고 마을 도서관 찾고 ... 앞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는 연구소 안에서는 모임이 영화만 들기 라고 해가지고 ... 우리는 자체 내에 ... 개인 회원들이 있는데 ...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으는데 초점을 맞추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마을도서관 ... 거기에서 자신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작가와 만나다든지 그런 것들 그분들이 하고 ... 주부님들하고 우리 회원들 하고 ... 다른 지역의 주민들하고 우리 같은 중간 중개자들은 빠지고 자신들끼리 만나고, 저희들은 우연히 가게 됐는데 이분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죠. 당신들끼리 ... 스스로 자신들이 조그맣게 시작했던 이 일이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 모임을 유지하려고하는 보고 있고, 저희들이 등대모임 같은 것을 모방을 해가지고 시도를 해보려는 데 오히려 그것은 안 됐어요. 그것은 좀 어렵더라구요. 저희들 그래서 고차원을 해보려고, 저희들 처음에 지루했던 역사, 지역사, 가야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됐습니다. 강좌하고 답사하고 연결이 계속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계속 만들어갈려고 했는데 경제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걸 다 넘어가고 만주로 갔는데 만주는 잘 안되더라구요. 갑자기 가야에서 만주로 가려니까. 그런 식의 역사 교육이라는 것을 보면 ... 세계관이나 그런 것은 지역 쪽의 인사들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이었어요. 지역의 유도회의 ...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 그러면서 살짝 세계관에 대한 것도 보고 그런 시도들을 해봤고, 연속성이나 지속성 ... 등대모임 모방 한 것은 주부들도 ... 그것보다는 우리는 어차피 ... 남자는 인간 취급 안하고 어차피 남자들이 오면 일 도와주는 사람, 무거운 것 드는 사람, 이런 정도하고 있고 주부들, 자연스럽게 주부님들로 형성하게 되면 30대 40대들로 구성이 되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 엇그제는 그 모임들이 ... 집

결을 했어요. 지난주 토요일날 거리시위를 해보자 해가지고 책으로 ... 창원시를 만
들자, 창원시청 앞에서 아이들 손잡고 ... 마을 도서관에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 그
게 상당히 해결을 만드는 데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거리를 확보하고 모든 걱정
사라지고 삼시간에 만들어 보니까 ... 저희는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접근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측면에 ...

? : 제가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하나 하겠는데요. ... 동아리의 제정적인 지원의
문제가 필요한가 ... 저희 1/3정도는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진 : 뭐라고 얘기하나면 너무 쉽게 시민들이 접근을 한데요. 창원지역 보다는 서울
이 조금 넓으니까 ...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 저희는 모임이 깨져본적이 없거든
요.

? : 인간 발달의 관계가 되려면, 자기가 거기에 돈도 쏟아내고 시간도 쏟아넣
고 애착을 보여준다면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해보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민주시
민교육의 핵심은 뭐냐, 즉 시민의 지속성인데, 일을 할 때도 자기의 시간, 자기의
노력을 얼마만큼 써 가면서 일을 했는가 결국은 그 사람이 얼마나 주인인가 이죠,
이게 저희 같은 경우,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간과의 문제, 저희 내용의 특성이 굉장
히 고민하는, 이게 과연 지원을 받아서 해결할 문제 문제인가 그게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 때마다 회의를 해야 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결과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 아직 우리 시민사회가 비교적 성숙되
지 못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역에서 민심을 사기 위해서 교육시켜
주지, 어디 버스 태워서 다 보여주지 ... 저희가 여기에 남아있지만 뭘 해야 남아있
지. 상대적으로 여기를 쉽게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어렵게 하면서 왜 머물러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그 과정이 자기의 것으로

이런 성취가 자기의 것으로 경험화된다는 것이 변화를 가져오는데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 너무나 교육비에서 많았어요. 정말 무차별적으로 ... 강좌, 차고 넘치는 것이 강좌예요. 그럼 우리까지 ... 민주시민이라고 할 때, 민주시민의 정체성속에 무엇을 가져 올까 ... 의무, 책임이라는 이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다뤄보지 못 한거예요. 지금까지 뭘 얘기를 했다면 권리의 문제를 굉장히, 필요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시기, 중요한 핵심들을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곧 변화를 가져온다. 아까 확인 됐잖아요. 아는 것 자체가 변화를 담보하지는 않아요. 아는 것이 아주 필요한 조건이기는 하죠. 그럼 아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중간리더십들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참여를 그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역할이, 역할을 주지 않고. 역할을 만들어 내죠 ... 그렇다면 시민교육 어떤 사람이 실무자가 될 것이냐. 그 당시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실무자가 되는 거죠. 그 이상 어떻게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 그래서 함께 변화해가는 거죠. 제가 변화를 할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증인데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얘기를 할 때, 과연 어떠한 주체들로,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역할로 만날 것인가는 굉장히 다양한 교육에 입력되는 주체나 대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진다. 그것은 강의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번에 저희가 2002 갔다와서 변화들을 보니까 2002가니까 최근의 경영적인 기법이나 이런 것이 막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교육도 자기가 하라고 그러면 못하죠 그래서 와가지고는, 그렇다면 도구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적인은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돈 낼 때가 되면은 딱데 노래방 가서 돈내지 말고 돈 내야죠,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돈을 내야 주인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부담이 되더라구요. 근데 이게 지금은 어떠냐면은 자기가 점심까지 내는 분까지 그리고 강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소모임 리더 교육을 해서 각 소모임에 배치해서 유지합니다.

리더가 없이는 소모임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지도력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 왜 그러냐 똑똑이들이 많이 있는데 왜 모임이 너무 딱딱해서 문제가 안 되냐, ... 그분들은 지식은 전수받고, 교육 기회가 충분했거든요. 그 정도 레벨에서 산다면은 적어도 대학교육의 지적인 수혜를 본 층이거든요. 근데 왜 안되냐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 교과과정에서 배워주지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서로의 다양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고 과정이 다르거나 못 견뎌하는 거예요. 왜 저러고 살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 빠져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안 온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저희가 무엇으로 ... 하느냐 보통 보면 실무자내지는 활동가, 중간리더들, 어떻게, 지식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돕는 것은 훈련단계라는 거죠. 어쨌서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표현을 가지고 있을까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 얘기는 뭐든 다 수용돼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자는 거죠. 저는 그게 중간리더가 힘든 역할이죠. 그것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 : 상당히 공감할 하는 부분인데 ... 저희 소모임에 오는 교육프로그램을 통째로 지고 그것을 해 봤는데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자원봉사자 모임 ... 예를 들면 서양화그리기라는 해마다 저희들이 상당한 부담을 주면서 고향만들기 서양화전시회를 옛날에 계속했는데 이주하는 사람들이 80%가 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고향을 만들어 나가는 가하는 주제인데 ...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제정 지원을 특별한 행사 외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스스로. 그랬는데 저희가 서양화전시회 이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동의를 하겠다. 하면 기꺼이 동의를 하도록 하고 ... 저희 민들레 모임 학교 같은 경우에는 ... 몇 개 마을에서 ... 그들이 워낙 적극적이어 가지고 저희가 강당도 마련해 드리고 모의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그런 경우 외에는 ... 200만원 정도를 마련을 해서 그 분들에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자 이런 것이 없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하자 ... 그 분들이 스스로 회비를 내서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는 ... 우리가 스폰서를 잡아서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 ... 서로 이야기 해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 되어서 ... 저희들도 이제 연구소 자체가 사업자는 시에 있는데 시에서 ... 저희들도 겪어보니까 스스로, 거기에 자본을 받아가지고 써버리고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거기에 의존해서도 안 된다는 ... 동아리 만드는 것도 철저하게 자유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니면 하다가 힘들면 우리가 도와주는 필요한 것으로.

변 : 그때는 회원들이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을 당연시했어요. 세월이 가면서 젊은 층이 들어오면서 이미 사고가 바뀐거예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때는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즐겁게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받는 상황 이거를 당연히 받아 들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을 해도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경제적인 관념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젊은 층에서, 실제로 저희 품물패가 생겼는데 처음에 품물패 선생님이 자원봉사를 해 주셨어요. 품물패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는데 회원들이 미안한거예요. 물론 자발적으로 매달 만원씩 내서 같이 경비로 사용을 했지만 품물패선생님이 바쁜 사람이 언제까지 자원봉사로 와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냐는 문제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Y에서 품물패선생님에 대한 예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제가, 중간 회원과 사무국과의 교량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있어서, 그런데 얘기를 하죠. 이쪽에 가서 전달을 하죠. 입장이 당연히 있죠. 어떤 소모임이 있을 때 회원들이 요구가 있어서 강사의 강사료를 사무국에서 다 내 줘야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거든요. 회원들이 필요해서 했으면 회원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따돌림을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사고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때하고, 신세대하고는 생각이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우리가 회비를 조금 더 내서 선생님에 대한 예우를 해 드리자 이렇게까지 협의가 됐는데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분도 Y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일년에 한 두번 명절 때라도, 저희가 항상 저희가 회비를 냈을 때 명절 때 선물을 해드렸어요. 생신 때 선물을 하다가 작년부터는 2만원으로 회비를 올려가지고 ... 근데 그 문제가 나온 게 그 분이 민우회 품물패 회원이신 분이예요. 그런데 똑같은 회원 중의 한 분은 올림픽아파트부녀회 회원들을 가르치시고 거기서 매달 15만원씩 받는 돈을 자기팀에 회비로 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똑같이 가르치는데 아무것도 들어오는데 없잖아요. 수입원이 없잖아요. 그 때 연말에 회의 때 우리 회원들이, 어떻게 이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이 봤을 때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죠. 그래가지고 안돼겠다. 나는 우리 선생님께 성의를 표시한 것에 반기를 들어야 하는가 라는 그것에 반대다 반대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선생님께 조금이라도 감사의 표시를 하자 그래서 회비를 2만원으로 올려 받아서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날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명절날 선생님께 선물을 해 드렸었는데 Y에서 해드렸는지 아셨나봐요. 근데 그게 아니었느냐. 굉장히 실망하시는.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 생협 품물패 했을 때는 가능했는데. YMCA 품물패로 바꿨잖아요. 회원의 규칙을, 그러면서 작년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 : 저희 지역에서 본다면, 새마을이 ... 새마을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강좌들이 있잖아요. 지방자치의 그런 강좌들을 우리가 하는 식으로 거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불러갔었어요. 환경운동을 교육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새마을 아줌마들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고 그래서 가서 교육을 했는데, 일단 연령대가 저희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기본이 50대로 40대가 굉장히 젊은층이고 그

런데 실지로 그분들이 지역사회를 관할하는 아마 병아리 간호사 같아요. ... 그런데 그분들은 교육을 해서 그분들의 가치관이 달라지냐면 하나도 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자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도대체 그것을 왜 했느냐 그분이 새마을이 전국에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지금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했더니 일단은 자기들을 위해서 강좌를 해도 기념품이 있어야, 모처럼 예산에 기념품이 있어야, 오지 강좌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의 프로젝트에는 반드시 기념품이 200만원이 들어가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해야지 행사가 된다고 자기도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모이는 구성원 같은 자체가 틀린 것 아닌가. 50대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40대 중반이 최고 고참들이거든요. 워낙 단체 역사가 짧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근데 50대 아줌마가 오면 일단 저희가 긴장이 돼요. 이분을 저희가 어디에다가 배치해야 될지, 어디가면 항상 왕 언니가 돼야 하는데, 왕 언니로서의 역량을 갖추려면 ...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 요즘에 회원협동조합에 가보면 할머니들 기웃기웃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저 할머니가 들어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워낙 저희 연령대가 30대 40대가 되다가 보니까 그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저희 단체에서는 마을 도서관을 운영을 하는데, 마을 도서관도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이는 게 아니구요. 단지에 살기 때문에 자기애가 그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니까, 책을 많이 빌리러 오다보니까 얘기를 듣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자원봉사자를 하게 되는데, 오로지 자원봉사로만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자원봉사자를 해 보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더러 한 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하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은 저희 도서관이 토요일은 개관을 안 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이용을 못하는거예요. 맞벌이 부부들이 우리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토요일도 운영을 해보자. 근데 사실

토요일은 주부들이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은 괜찮다 싶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운동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끌어들이면 그 다음에는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 오겠지 그렇게 전략을 짜가지고 그거를 어머니가 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로 리더기를 읽어가지고, 아무리 작은 도서관이라도 시스템은 다 갖춰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갔다 오시더니 못하겠다고 그러세요. 왜요? 일단 자판을 못 읽으시고 이걸 두드릴 수가 없고 기계로 하는 것에 너무 낯설은 거예요. 조작은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강해 가지고 일단 못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수작업으로 하면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계로 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한 번 도전을 해 보라. 도서관 운영 안하는 날을 잡아가지고 그 날 가서 맹연습을 해가지고 제가 마을에서 마을 자치 운영회를 활동을 하는 중요한 목표가요. 어떻게 노인을 이 동에 끌어들이느냐. 사실 노인들이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정에서 화투를 하거나 할머니들은 뭐해먹는 것,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노인들한테는 저희가 컴퓨터가 다섯 대가 지원이 돼 있거든요. 컴퓨터를 지원을 해가지고 주로 주부들 강좌를 했는데 노인들 강좌는 노인들이 만원을 내게 해갔고 하면요 나중에 다 이 과정을 끝내면 플러스 만원을 더 주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노인들이 컴퓨터를 배우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도서관의 자원봉사를 해서 노인으로서 이 사회에 모범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해보게 하자 이게 목푼데, 그거를 하기는 어렵다

? : 제가 그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이라는 게 거의 지금 남자분들을 보고 확신을 했거든요. 전회원이 다 주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다 주부들이 주 대상인데 실제로 이 영역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 : 저는 청소년, 청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 이 시민사회영역을 확장시키는데 있어서 ... 청소년들이 시간이 흐르면 청년집단이 되잖아요. 저희가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 이전의 것이 어떠한 개인차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들이 이런 시민단체나 이런 것들을 결합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이걸 다시 출발을 해보면 이런 문제 속에서 아이들,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이 시민사회의 결합이 너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들과 활동한 것이 6년째 되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청년이 되는 것이 6년째 이렇게 되니까 ... 이 친구들은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일년에 몇 개씩 하는데 ... 아줌마에 대한 느낌도 달라요. 다 엄마 같은 아줌마인데 ...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일찍 일을 통해서 결합을 해서 결국은 교육을 받게 됐잖아요. 아직까지 교육의 내용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할 때, 이 다음에 자기도 식구하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 아동집단에 대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아이들이 취미가 다양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까지 다양한 구성원이예요. 이 친구들도 동생들한테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충격적인 경험으로 제 개인한테 왔던 것이 뭐냐하면,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청년그룹이 되가지고 지도교사가 되고 보조교사가 되서 돌아가는데. 너무 놀랐어요. 중,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의 경험이 아이들한테 알게 모르게 리더십을 강화한 거예요. 지난 여름에 캠프 때는,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리가 봤거든요. 아이들이 매일 밤 평가를 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평가를 하나면, 아이들 하나하나 개별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환경캠프, 유기농캠프였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아이들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결과물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보고서를 써서 이렇게 나왔는데, 청년이 대학교 1,2학년 혹은 대학에 안 가신 분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보고서 이런 결과물을 보니까 도대체 이 아이들이 인간

의 관계를 생각할까 역으로 생각해보니까 중, 고등학교 때 나이 어릴 때 했던 경험이 굉장한 것이구나. 중, 고등학교 아이들과의 다양한 형태의 경험 그 경험들을 계속 아이들이 반드시 어렵지만, 원칙적인 것이 일은 스스로 계획한다. 진행하고 평가하게 한다. 질기게 했는데 그게 습관이 이제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 경험이 온전하게 리더십으로 나타나는 거죠. 참 좋은 기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 시민교육 ... 중, 고등학교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수혈을 많이 받는다. ... 청년들, 다른 데 가서 몇 천원씩 뭐 딱딱 사면서든 회비 내는 것은 습관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저 쓰는 주간, 이러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도움을 준다는 거죠. ... 일반적으로 시민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청소년,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수입이 없으니까 무조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부를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청소년들한테는. 이 양반들이 청년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 청년 집단이 되면은 욕심이 생겼을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 : 실무자들, 실제로 중간리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실무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놓치고 가지 않느냐. ... 저희도 어렸을 때 활동을 돌아보면요. 회원들의 수준이 한참 없어요. 실무자들에 대해서 그 때서야 부랴부랴 챙기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고민에 있는지.

이 : 그 얘기 전에 ... 주부들을 교육할 때의 문제인데 주로 사람들하고의 적음 문제나 생각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저는 최근에 젊은 남편들을 보면 우리가 아버지 되는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그런 욕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 되는 훈련을 받아 본 적이 없고, 아버지 역할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공적부분의 자리에 있는데, 공적 관계에 대해서는 훈련도 잘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사무적인 것이 되어 있는 것이지. 공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 사람들의 적극적인 구인의 강압에 의해서 나왔든 어쨌든 간에 그런 욕구는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다. 아버지로서든지, 부부 속에서의 관계, 아니면 사회 속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욕구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아버지 모임이라는 형태의 모임이 상당히 발전을 했어요. 아까 여성 모임은 너무 친분 관계로 되서 깨진다고 했는데 이 모임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이 부천 Y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좋은 아버지 모임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안양 YMCA에 있을 때 안양아버지 모임이 생기고 광명도 아버지모임이 생겼는데 지금 보면은 제대로 운영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주부모임이 친교관계로 깨지듯이, 여기는 위계질서와 술의 매개로 해가지고 모이고 관계가 철통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공적인 수단으로써의 관계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만 보면은 그런 욕구는 형성이 돼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시민 교육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의 조직으로도 그렇고 이런 생활조직을 형성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만들어진 아버지 모임도 원래 목적에 비해서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분석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 1기 아버지 모임이 지금은 4기까지 됐어요. 접시학교 아버지 모임이 따로 있고, 접시학교 아버지 모임은 일진회 비슷한 그런 느낌을 준다. 이름부터 바뀌어야지 그 조직은 불길하다. 이름을 좋게 지으면 '매달 16일에 만나는 조직' 첫회의 모임은 거의 제가 주도해서 끌고 갔으니깐요. 철저히 관계 지향적인 모임으로 가더라도. 처음에는. 사실 아버지의 모임이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들도 처음에는 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싶은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꼬박꼬박 해나갔는데, 다음 해의 2기부터는 다른 실무자는 마음이 약하니까 못 모인다고 해서 2주에 한 번 모인다고 하고, 그 다음에 3기는 한 달에 한번으로 이런 식으로 팀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모이는데 모여서 이 아버지들이 실무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이벤트를 어떻게 만들까 논

의가 항상 그것이에요. 가족들에게 내가 좋은 아버지의 모임의 구성원으로서 뭔가
 뼈까번쩍한 것을 보여주는, 자기가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증거를 보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맨 날 이벤트 행사를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모임이 세 번 이상해야 되요. 기획하고
 준비하고 뭐, 뭐하고, 심지어는 6개월 동안 한 번의 이벤트를 준비하는, 그래가지고
 1년동안 2번의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접시 학교 아버지
 모임은 어떻게 하나면 이 아빠들이 이벤트 할 일은 전혀 없거든요. 이 아빠들이 접
 시학교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접시에 보냈던 것은 학교에서 위험이 뭔지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하는 지에 대해서 알고 자기들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실천
 할것인가를 생각하는 모임이어야 된다. 처음에 위상자체를 그렇게 놓고 갔는데, 모여
 놓으니까. 회의를 하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할 줄 아는 것은 회의, 거의 4월 달에 이
 뒤편는데 8월까지 계속 회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회의이고 하니까. 처음에는 회장을
 누가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 모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회의하고 세 번째는
 그 회의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회의하고 그래갖고 계속 회의를 하는 거예요. 못 참
 아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실무자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 모임에 .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여기에 실무자들이 왜 들어오느냐. 아빠들이 막 반발하더라구요. 9월달에 저를
 초빙강사로 부른 거예요. 제가 이제 가가지고 제발 회의를 하지 말고 이제부터 회의
 라는 것을 없애라 그리고 이 모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는가만 생각을 해 보는 모임을 하자해서 모임이름을 대화 모임으로 바꿔보자 ...
 회의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자, 너무 회의만 해 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다. 우리들의 성장을 가지고 모임을 갖자 약속을 하고 그 다음 모임을 잡았거든요.
 그 다음 모임에서 샘플을 한 번 보여 달라고 해서 갔더니 하기 전에 캠프를 가야 되
 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회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가지
 고 사람들의 눈치를 봤는데, 아주 낮설어해요. 일단 자기 성장이라는 단어도 낮설고,
 자기를 췌다라는 것도 낮설고 하여간에 이런 것들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루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제가 하는 모임중에 유일하게 회장이 있는 거예요. 위계를 나타내는 그런 말을 안 쓰고 다 지기라고 하거든요. 전에 하던 아버지 모임에서는 총무를 보는 사람은 회계지기, 기록지기 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데 이 모임에서 유일하게 회장이 있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성인 남성들의 민주시민교육이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틀을 깨야 되는데

? : 회의를 하고 그러는 것 보니까 괜찮은데 그런 것은 체질적으로 환경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이 : 아니 근데 아버지 모임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 모임에서 하면서 감동을 많이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모임에 오는 사람들은 일단은 자녀라는 게 배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라는 중심성을 봤을 때 누구도 떳떳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죄의식 같은 게 있더라구요. 뭐 이렇게 빠질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누구도 학교를 물어보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묻지 않는 것을 암묵적인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관계 같은 것을 안 따지고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이 모임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데, 지역사회라는 것, 퇴근을 해가지고 와서 쉼터로 동네치킨 집에 가서 맥주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냥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교육이 필요하면 강사 불러다가 교육받고 이렇게 강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관계 중심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대화법, 부부간의 관계법 이런 것이니까 다 심리학과 출신의, 상담 쪽의 사람들을 불러 다 강사를 하게 b 되니까 이 사람들이 기존의 강좌를 안 들었지만 이것은 전혀 용어예요, 너무 다른 체험이고 자기들은 이

게 너무 좋다. 자기들을 깨는 것은 너무 어렵지만은 어쨌거나 굉장히 신선하다. 다르다. 이런 느낌들을 갖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이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해서 경험을 갖은 사람들이 결국은 조금씩 해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여성지도력들이 해 온 것만큼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 저는 친화력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하려면 자기를 보여주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에서 굉장히 낯설어 해요. 머릿속은 되는데 몸이 안 따라 주는 거예요.

? : 가족관계나 부부 이런 것 말고는 혹시 뭐 다른 성장이랄까

? : 저희는 지역협회 센터를 하면서 ... 주말에 어른들, 그래서 실무자들이 주말에 못 쉬게 되는

? : 가족단위로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남자들은 물건 나르고 음료수 나르고,

? : 근데 그것은 가족봉사고 이것은 가족봉사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 그 지역의 생태를 조사하는 것이죠. 교육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는 가족이 짝 수가 없어요. 데리고 오고 싶으면 그 모임에서 생태기행을 할 때 그 가족들을 참여시키는 거죠. 자기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쪽은 아이들이 재미없어 해요.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도 들어가야하고, 그 모임에서 해서 전문가가 되신 분이 한 분 계시구요. ... 한 분은 직장에 다니면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 분도 그쪽의 비전을 많이 생각을 해 보셨어요. 이왕이면 시민운동 쪽으로 해 가시고 아예 직업을 바꿔볼까.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재미가 없고 보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 분야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일감을 찾아드릴까 생각도 했는데,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실지. 이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다들 자기 세계관이 바뀌는 것 같아요. 생태라는 소재를 가지고. 그런데 그게 지역이라는 매개를 두고 저희는 발 같은 걸 나가서 조사하는데 장난이 아니거든요. ... 저희가 작년에 반딧불을 찾아내고 떠오는 게 1차였

거든요. 성인 남성들은 더 끌어 모으는 사례였어요. ... 이게 이제 회원들을 모아야 되는데 안 모아지는 거야 재수강이 안 되는 거지

현 : 우리가 아까 못했던 얘기가 관계부분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보충되어야 되고, 지금 ... 과제 중심의 연대 조직들이 아니고 지역의 풀뿌리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과제 중심으로 갈 수 있는 ... 기본적으로 1차교육 무차별적인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진 : 회원조직이 3만명 정도 되는 데, 도서관 회원이 그렇고 ... 그래서 저희들의 단체 회원으로는 마을 도서관의 주역들이 있으니까 주역들을 중심으로 98년도에 10명, 99년도에 20명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했는데 실패했어요. 그게 실무자들도 실패를 예상하고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회원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수용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고 저희들은 회원조직으로는 실패한 상태고, 현재로는 상태가 한 6년 정도, 그 이상 걸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회원들이라기보다는 주민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일차적으로 저희들은 주민들의 욕구나 흥미를 중심으로 저희가 욕구조사를 준비 중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겠죠. 그것 때문에 미움도 많이 받았는데 ... 저희는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안되어져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달 수익성을 체크하는데 ...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뛰어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부터 비교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개선되면서 ... 업무일지도 서버 안에 저장되어있죠 A, B, C, D 자기가 관계없는 사람들도 다 보게 됩니다 업무일지를. A결제를 B가 할 수도 있고요 업무일지 결제를. 그 동네 주민들을 기본 타겟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욕구조사를 하는 게 여러 각도로,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 아니면 책들 설문지를 돌려 가지고 실수를 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서관에 오시면 어떤 책을 원하십니까? 1. 2. 전문서적 3.
... 전문서적에 가까운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책이 들어오면 책서점
회를 합니다. 안 본 책을 구입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읽
을 수 있는 책 ... 우리가 권장해야 될 책, 안내해 줘야 될 책을 ... 주민들이 주민
스스로 정하게 되는, 주로 아이들 책이죠

7. 녹취 자료 6 - 환경분과 회의

일 시 : 2002. 11. 5. 14:00-

장 소 : 환경운동연합

참 석 자 : 불교환경교육원(불교)

도림천살리기건강한주민모임(도림천)

환경운동연합(환경운, 환경연)

맹산반디불자연학교(맹산)

YMCA연맹(Y)

다지사(다지사)

에너지대안센터(에너지)

시흥환경운동연합(시흥)

생명의 숲(숲)

강동환경운동연합(강동) 등

불교 : 지금은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초기에는 생태학교 졸업생들의 모임으로 구성된 초록바람이 구성이 돼서 생태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다 초록바람 회원이 돼서 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은 교육원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능하게 되고 다른 공동체 운동을 하게 되고 활동 영역들을 뻗어나가고 지금은 강원도 춘천 쪽에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먹거리 운동을 하고 있고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운동 아카데미는 환경운동의 이념생산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해 봤었는데요. 예를 들어 주체별로 여기도 적혀 있지만 에

페미니즘에 대한 것이라든지 에코아나키즘이라든지 생태 공동체 운동이라든지 특
 정 주제별로 이슈를 잡아서 강좌를 진행을 해 왔었고, 강좌가 진행된 뒤에는 심포지
 엄으로 전체 강좌를 정리하는 형태로 생명운동 아카데미가 진행돼 왔었습니다. 실제
 로 저희들 내부에서 평가를 해보면 생명운동 아카데미의 주제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
 게 주목받지 못하는 주제들이 시간 2~3년경과 되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주제들
 로 부상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큰 성과들이 있지 않았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생명운동 작은 대학은 저희들이 지금 녹색대학이라고 대안 대학을 만들고 있습니
 다만 그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에서 향후 환경대학 형태의 모양들을 준비해야 되
 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생명운동 작은 대학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으로 이론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실제 우리들의 삶이, 인간의 모습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획을 했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한해 진행을
 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프로그램인데 '뒷골목 선지식을 찾아서' 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환경문제를
 단순히 자연 환경의 복원이나 치유의 문제, 그런 관점에서의 해결보다는 현대 문명
 에서의 다방면적인,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해보자 해서 구체적인 이 세상에 대
 해서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해서 뚜렷한 철학이 있는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자기만의 메시지가 분명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뒷골목 선지식이라
 이름을 붙여서 뒷골목 선지식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매월 1회 진행되고 있고요. 이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초점해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
 고 그 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들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들로 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진행됐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내 안의 권력의식' '내 안의 파시즘' 이
 런 주제라든지 '우아족의 집단 자살을 막을 수가 있는가' '자연의 소리와 생태적 감
 수성을 위한 음악' '참 사랑의 에콜로지' 최근에는 야생조의 편지 책이 나오면서 생
 태공동체 연구 모임과 함께 야생조 편지와의 만남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뒷
 장으로 넘어가면요. '생태 선제 기행'도 같은 시기에 시작이 됐었는데요. 지금 환경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체험환경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 속에서 여기서 생태기행 프로그램을 잡았었습니다. 생태기행프로그램, 일반 생태기행 프로그램들이 자연생태 관찰이나 체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과 달리 생태선제기행은 그렇게 생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가는 기행으로 테마별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제별로 '뒷간기행'이라든지 '흙집기행' 또는 '공동체기행' 이런 이름을 달고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교육프로그램은 지역별로 '주부생태학교' 라든지 '뒷골목 선지식을 찾아서' '생태선제기행'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전에는 서울에서 저희 사무국을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이 기획이 되고 진행이 됐다면 지금은 저희들 각 지역 조직들을 이용해서 지역에서 스스로 실천하고 활동을 하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위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같이, 함께 기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6개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것들이 진행자 단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참여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중심으로 기획력을 높여가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환경교육원이 올해부터 활동방향들을 단순히 강좌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운 : 그러면 지역기반의 환경교육 센터라고 되어있는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이 있는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 모임은 도림천을 근거지로 지역에 기반 해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고 하천의 숲과 하천을 주제로 삼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림천 주민 모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역 기반 한 단체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림천 : 건강한 주민 모임의 000입니다. 간단히 저희 모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 저희 모임은 96년도에 도림천 복개 반대운동을 시작해서요. 그 당시에 도림천 복개 반대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운동 평가를 하면서 지역 주민과 밀착한 그런 조직이 있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99년도부터 도림천을 매개로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영역은 크게 4가지인데요. 환경 교육을 하는 파트- 초등학생들이나 지역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운동을 하는 파트가 있고, 도림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파트, 그리고 직접 도림천의 다양한 생태 공간들,.. 그런 활동들을 원활하게 하는 다양한 연계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좀 장황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앞부분의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환경 구성의 내용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관악구 환경 교육 센터라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저희 모임이랑, 서울대 환경교육협동과정에서 같이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 서울대 환경교육협동과정에서 지역기반 환경교육에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 글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적인 부분은 지역 내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 공급, 성장 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 부분. 지역 내에서 충족될 수 있는 교육이어야 된다는 부분이 핵심적인 목표구요. 그게 결국에는 지역공동체 형성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사례부터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환경 교육 센터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임에서 여태까지 했던 환경 교육들은 사실 환경 교육의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환경교육의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활동을 보시면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아교육으로 물 절약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내에서 14개 어린이 집, 녹색위에서 그 사업을 같이 하는 건데 관악구 내의 14개 어린이 집을 정해서 어린이집에 맞는 6~7세용 교재를 전달을 했습니다. 상반기동안 전달을 했고 (교재를 꺼내면서) 많이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교사용 교재랑 아동용 교재를 만들어서 우선 그 14개 어린이집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 교사들이

하반기에 계속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물 절약에 관련한 교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성과에 대해서 다음 주중으로 모니터링이 시작될 예정이구요. 그 결과가 연말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생태탐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생태탐사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역의 기반으로 하는 작은 단체들이 처음 생기고 나서 이렇게 흔히 쉽게 택하는 회원들을 모으기 위한 전략책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대부분이 많은 걸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문제의 식으로 시작을 했고, 생태탐사단에 대해서 지금은 환경교육운동을 해야겠다는 것으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생태탐사단은 지역의 초등학생 40명을 3,4월 정도에 모집을 해서 대략 일년에 6번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관악산과 도림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갯벌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서울 지역의 다른 복원된 하천들과 도림천을 직접 비교해보는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기적인 생태체험프로그램으로 겨울 철새기행과 여름 갯벌기행을 매년 생태탐사단 아이들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까지 모집을 해서 매년 여름과 겨울에 3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 환경 교육 센터,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시민 환경 교육 센터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환경순회교실, 순회교실은 99년도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번 하고 아직 2회는 하지 못했는데요. 각 학교마다 환경관련 수업을 하도록 시간이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수업을 저희 모임에서 진행을 했던 내용이고요. 환경 즐짓기 같은 경우에는 99년에 한번, 작년에 한번 진행을, 도림천에 관한 내용을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는 프로그램 진행을 했습니다. 중학생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환경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친환경적사업을 많이 하면서 많은 대상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도림천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체험을 하면서 도림천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림천 연강제라는 것은 4회째 개최되고 있는데 중학교 친구들이 연강제 부대행사를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서울중학교 학생들이 매직풍선만들기, 환경친화적인 불꽃놀이 만들기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장승만들기, 전래놀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로 4회째로 도림천 벽화그리기를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연강 채림 여자중학교와 미성중학교 학생들이 도림천 청소활동을 했습니다.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를 하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 예를 들면 자연활동 평가랄지 아니면 간단한 수질조사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환경지도자 교육이라고 해서 관악산, 도림천 생태모임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머니들 40분정도 모집을 해서 관악산과 도림천 묶어서 2주에 한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초기에는 외부의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배우고 하반기에는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관악산과 도림천을 묶는 생태기행 코스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활동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모니터링이 대략 끝이 났고요. 12월부터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15분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환경지도자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분들과 같이 관악산과 도림천을 묶는 생태기행 코스를 개발을 해서 내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하반기가 될 것 같은데 하반기 부터는 그쪽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생태기행 지도자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인교육이라는 게 초기에는 조직화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내에서 환경교육을 실제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센터라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고 서울대 환경교육협동과 같이 관악구 환경교육센터를 현재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관악구 환경교육센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목적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악구 환경교육센터는 크게 네 가지 역할을 합니다. 관악구 환경 정보센터, 관악구 환경난 정보를 센터에 오면 직접 확인 할 수 있고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관악구의 자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환경교육에 대한 책자나 자료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정보센터의 기능을 하고요 환경기능연구소의 기능을 합니다. 환경기능연구소의 기능은 환경교육협동과정에서 많이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 환경에 맞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교재를 개발을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들을 환경기능 연구소에서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접 또 그 자리에 왔을 때 환경전시관이 있어서 그 전시관을 토대로 해서 실내학습을 가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환경교육센터를 바탕으로 지역 환경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관악구 환경 센터 사무국과 환경교육연구소가 따로 존재를 하면서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보센터운영, 환경교육운영 팀으로 나누고 실제적인 실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환경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환경 교육에 대한 자료들, 관악구에 대한 자료들, 성인교육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학생들이나 직접 환경 교육을 하는 일선의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고 아니면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이고요. 환경교육 운영팀은 직접적으로 관악구 내에서 실내교육이 있을 수 있고 실외 교육이 있을 수 있고 환경교육 운영을 하는 역할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연구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과 평가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뒷 페이지도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기획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안입니다. 확정 안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다는 식의 운영기획안 이구요. 계속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과 주부 지도자교실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계속 지역에서 환경교육 지도자를 성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 내는 활동들, 지역 환경에 맞는 교육 자료를 만들어 내는 활동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언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집, 환경도서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만한 그런 것들, 그리고 웹상에서 자유롭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축을 하고 여기서 자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활동들, 직접적인 교

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교육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환경교실이러든지 나중에 환경지도자가 많이 만들어 졌을 때도 학교 내에서 환경수업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많이 주목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학생들이 밖으로 나오거나 우리가 학교로 들어가든 그런 공간들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순회환경교실이러든지 자연학교들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정기 생태투어라든가 생태박물관 교육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운 : 고생하셨어요. 지금 저기 모임이 만들어진 경과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쪽 해서 도림천 주민 모임에 대해서 모르시던 분들도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나중에 중간 중간 하다가 나중에 궁금한 것 물어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가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 자료에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은 궁금하시면 그때, 그때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프로그램 중심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체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사실은 보다보니까 저도 중앙중심적인 사고와 그렇게 중앙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역에 기반한 지역에 굉장히 충실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참 모른다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이번에 저희 워크숍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몇 군데 알게 된 곳 중에서 상황이 안돼서 못 오시는 단체들도 있고요. 늦게 연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당에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 정도군 선생님께서 기꺼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참가를 해 주셨거든요.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 도림천 주민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 있으세요? 그러면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준비해 오시지 않고 자리가 좁다는 이유로 빨리 자리를 뜨고자하는 Y연맹의 선생님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선생님 먼저 얘기하.. 시간 상관

없어요. 그냥하세요.

맹산 : 짧게 하겠습니다. 맹산 반딧불 자연학교는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시민의 모임은 분당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창립은 94년도 부터 했는데 하천의 오물수거를 중심으로 단체모임이 결성됐고 그래서 그 고민 속에서 나왔던 게 어린이 교육을 하는 것이 지속적일 것 같고 당연히 환경교육운동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94년부터 어린이 환경학교라는 것을 하천 중심, 산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그때는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1회성 행사 위주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죠. 그러다가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의 녹지훼손을 방지하지 않는한 하천을 유지하기 힘들겠다. 그랬는데 마침 저희 지역의 맹산이라는 지역에 녹지훼손 반대 운동이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녹지훼손 반대 운동을 시작하는데 그 녹지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대한 고민 속에서 어쨌든 장소를 많이 보여 줄 수 있는 장소를 가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서 맹산 자연학교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출범을 해서 결국은 그 지역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교육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명분 속에서 어쨌든 그 지역 속에서 반딧불이가 산다는 그 이유가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그 시민들이 맞다 이것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반딧불이 자연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 위한 일을 하는데 학습장소를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장소를 어린이 자연 학습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그 장소에서 학교를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한 4년째 조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조성을 해 나갈 예정이구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프로그램, 장소 중심으로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해서 8주 단위의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 프로그램을 가족단위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1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거기 원칙은 20가족의 회원으로 무료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 사계절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사계절 동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저희가 반딧불이 자연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진을 붙였고요. 21기 모집활동종료 지금 21기를 종해 놓은 사례로 집어 넣었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논을 조성을 해놓은 이유가 반딧불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옛날 계단식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봄에서 겨울까지 해서 봄에 모내기를 시작으로 , 피사기, 수확, 그리고 나서 떡 해먹고, 겨울에는 논에서 썰매를 타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요즘은 수확 단계이고 다음주,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떡을 해먹는 시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겨울 철새들이 저희 지역에 한 차례 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외부에 나가는 프로그램이 8주 중에서 한번 정도는 우리 지역 내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자연학교21기 참가자 평가라고 해서 가족대상 20가족 중에 17가족이 참여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해 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을 1년 동안 몇 번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렸던 부분들은 대부분이 가족학교 뿐만이 아니라 이 장소에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학교 단위의 단체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장소에서 1년에 300회 이상의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원칙은 50명이 넘지 않는 정원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사전 예약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명이 넘는 활동이 시민참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년에 3번 정도 주관을 하는데 첫 번째는 4월 5일에 봄이 시작되면서 나무심기 자기가족나무심기 프로그램을 이 장소에서 6년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날에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 자연 한 마당'이라고 해서 이날은 저희가 한 200명 정도 소집을 합니다. 나무 심기도 마찬가지로요. 그 다음에 '반딧불이 체험교실'이라고 해서 반딧불이 측제 기간에 보통 저희가 8월말에서 9월초 사이에 한 열흘간 체험 교실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도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는데 1일 60명은 선착순 접수로 돼있고 그렇지만 현장에는

보통 100명이상의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때 열흘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산에 미안해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번 정도의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의 프로그램이 일반 시민 참여 활동 프로그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은, 언제나 등산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일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고, 프로그램 안내는 저희가 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저희 분당에 있는 중앙공원이나 울동공원이 라는 장소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공원 돌아보기' 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4시, 4시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행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태 안내자 교육을 4~5년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양성된 지도자 분들이 중앙공원 팀, 울동공원 팀으로 분리가 되고 맹산 자연 학교의 운영자로 현재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지역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청소년단이라고 해서 초, 중, 고 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이유가 지역에 대학이 있지만 그 대학생들은 대부분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 중, 고 학생은 거의 지역을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일요일을 생각해서 학교단위의 CA반이라든가 동아리 모임들을 교사와 함께 팀을 이뤄서 4년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체는 성남시 초, 중, 고등학교의 교사들이 환경교육교사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모임도 교사교육을 통해서 양성된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스무 분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실내 청소년단들이 올해는 저희가 10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인원을 400명씩 진행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해서 정예화 하는 것이 필요 하겠다 해서 100명을 저희가 한 학교에서 10명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수를 받아서 올해도 이 친구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프로그램을 탄천이라든가 자연학교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체험환경 안내자 양성 교육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성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4년째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 이유로,

지역에서 지역체험 안내자를 양성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번 회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원칙을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는 저희 들끼리는 각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의 다짐이라는 증서를 일단 교육 처음하기 전에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교육을 40강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테마 별로 나뉘어서 심화 교육 과정을 강화를 시키고 그 심화교육 과정에 올해 팀이 15분 정도 남아계신데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에게 올해까지는 교육이 저번 주로 끝났고 이번 주부터 실내, 사무실에 모여서 실내에서 저을 내 프로그램 할 예정이고 이분들이 가이드북이라든가 한 꼭지씩 맡아서 이렇게 서서히 해 나가는 걸로 보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분들이 보조강사로 1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강사를 따라다니면서 1년 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해에 그 때부터 강사로 만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의지가 없는 분들은 관둘 수 있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원이 많다고 해서 지역 안내자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알기 때문에 정예화해서 어쨌든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분들이 양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까 얘기 했던 섹터 중심별로 중앙공원, 울동공원, 그리고 자연학교라는 세 주체 현제는 저희가 3가지 것만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1년, 2년, 5년씩 하다보면 그 분들이 그 장소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메니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현재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다들 모이신다고 해서 제가 빨리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단어에 대한 정리들이 돼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교육인지, 생태교육인지, 체험운동 교육인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체험안내자, 지도자, 그리고 해설가 굉장히 여러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게 좀 민간차원의 목소리들을, 같이 조율을 해서 어떤 단어의 정리라는 것이 지금쯤은 돼야 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드리자면 이러한 교육들에 대한 단체 중심으로 저희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가 어떤 행정을 지원하면서, 장소 중심적인 안내자들이, 그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바

람직하지 않겠으나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그렇지만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역 활동의 안내자들 양성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가서 느끼고 그리고 나서 변화되는 그리고 잘 못가는 길이 보이는 모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지금은 주 5일 근무제를 이후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생태에코투어리즘이니, 생태박람회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데 이게 상업화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업화 되어 가는 부류를 질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업성을 가지고 있는 부류와 저희와 같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정리, 그렇지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상업화하면서 공공적인척하는 부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체의 대책이 수립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저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

도림천 : 질문... 그 체험 교육 안내자 교육을 4년째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는 올해 처음 1년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로 이분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시고 모집되는 분들을 어떤 층인지 궁금하거든요.

맹산 : 저희 지역 특성이 주부들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곳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모집을 공고를 해서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았는데 올해는 처음 준비를 했습니다. 뭘 했냐면 반딧불이 자연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그 엄마들 중에서 권고를 많이 했죠. 작년부터 1년 동안 권고를 받은 분들 위주로 받았습시다. 그러다 보니까 이부분이 성공을 하지 않았나 싶고 아직 성공했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중요인식을 가지고 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남을 확률이 높다. 가족단위로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참여과정 속에서 그분들에게 중간에 지도자 교육을 내년부터 할 것이다라고 계속 공지를 하고 그 속에서 나는 해보아야지 라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40명이 출발을 했

는데 그중에서 20분은 작년에 저희 프로그램에 10번 이상 참여를 하신 분들이죠. 그
 래서 남은 분들이 90%가 그 분들이예요. 일반적으로 나 시간 나니까 재밌겠다는 예
 를 들어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첫 번째 부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즐기기 선생님이라든가 과학, 미술, 이런 선생님들이 오전에는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때는 수업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교육을 받고 끝나고 나서 나중
 에 교육을 받은 이후에 자기 직업과 연관을 시키고 싶은 층이 있고요. 그 다음 층
 은 등산을 다녀왔는데 산에 가니까 이게 다 들꽃이고 야생화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뭔가 재밌겠다. 뭔가 나물도 뜯고 싶고 이런 분들이 오는 부류가 있고, 저희는 이런
 분들을 원하지는 않죠. 저희는 이것을 열심히 배운 이후에 배운 것을 남을 주려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의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
 요하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시는 분들을 그 과정 속에서 바꿔 나가려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시간이 없다. 그것은 굉장히 낭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욕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배출된 분이 4~500명 될 건데 우리
 지역에, 그 분들이 미안해하는 부류와 굉장히 안 좋은 곳이다라는 얘기하는 부류
 가 굉장히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저기는 굉장히 이상한 곳이다라는 부류
 가 있어요. 어떤 분들을 우리가 나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근데 이런 분들을 우리에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도자 양성이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에 대
 한 인식을 높였다 이런 얘기도 필요 없지만, 그거는 일반 교육과정에서 보는 거지,
 지도자 양성이라는 것은 정열과 시간과 돈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을 아무
 나 데리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드라

Y : 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순수하게 자원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맹산 : 그것을 사실은 계속 강요를 합니다. 그 순수성을 강요를 하고, 문제는 이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40만원 정도의 강의료를 지불을 하고 그것도 줄여서 내

가 40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해서, 교육을 받은 이후에 자격증을 부여를 하고 이
 렇게 가다 보면 어떤 위험이 들어가냐면 레크레이션 강사랑 비슷해집니다. Y에서 레
 크레이션 팀들이 협회가 창립되고 협회에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이런 제도권에서
 떨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월수입이 얼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얼마 정
 도 뛰면 한달에 부수입으로써 재밌는 것 하면서, 선생님 소리 들어가며 돈 버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다음 분들을 관리해 나가려고 하면은 그 만
 큼 퀄리티를 따져 그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있거든
 요. 그러다 보면 끝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양성은 계속되고 40만원씩 받아가지고
 프로젝트 플러스 40만원까지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금상첨화예요. 프로젝트는 프
 로젝트대로 받고 개인당 3~40만원씩 받아서 고급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사실 우
 리가 생태교육을 하는 지도자 과정에 강사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50명 안에
 서 여기 아니면 저기에 전국에 똑같이 교육을 하잖아요. 아무나 지도교육의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사는 똑같습니다. 대부분 거의 비슷한데, 어
 디는 고급 과정이고 어디는 저급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면 돈을 매개로 하려
 면 끝이 없더라. 그것은 돈이 돈을 또 낳아야 하기 때문에 자원 활동을 요구를 하면
 일단 인원이 줍니다. 참여하는 의지가 별로 없죠.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 참여가 불
 가능해져 버려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때 자원 활동이라
 는 개념이 도입되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2
 년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고 처음부터 몇 달하면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부 때 자기가 이런 분야를 전공을 했다든가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
 다든가 이렇게 해서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유형이냐면 쉽게 말해
 서 건방져져 버립니다. 문제는. 강의하는데 저 뒤에서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여기 올 필요가 없는 분들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강사가 지도자 양성하는
 분들이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

하지만 꽃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가 과정 속에서 배우고 이러는 것이지 저희가 이분들한테 식물학자를 만들려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생각해서 그 대신 하려고 하는 노력, 성의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이.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성의를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려는 열정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나는 백가지를 못 외웠기 때문에 강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 전혀 그렇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는 애들을 그냥 풀어 놓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도자로서 소양을 안 갖춘 분들이 애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그렇지만 목적은 애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애들이 커서 지도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애들이 컸을 때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받은 하고 받은 애가 있을 건데, 받은 애가 더 많아졌을 때 받은 애가 나중에 되어서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생환도 안 받겠죠. 이런 쪽으로 강요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목적의식을 갖고 저희가 환경교육운동단체이지 저희가 환경교육시민양성단체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설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그렇지 않고서는 자원 활동가를 모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진짱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주부들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우리 애들한테 많이 가르쳐야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학원에 가서 애들한테 얘기 해줘야지. 미술 선생님들이 많이 왔는데 이분들을 데리고 양성하는 야외스케치를 갔는데 ‘저 꽃이 뭐예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 들꽃이야’ ‘이 꽃은 뭐예요.’ ‘야생화지’ ‘이 꽃은요?’ ‘그것도 모르니?’ 그냥 그거야. 이러니까 그냥 자기만족으로 배워서 애들한테 뭔가 ‘선생님은 어떻게 다 알아요?’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여러분들을 위한 강좌를 아직까지 준비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한 강좌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때는 참가비용이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겠죠. 왜? 배워서 공짜로 우리는 남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배워서 이 사람들은 벌이 수단으로 갈 때는 돈

내고 배워서 벌이 수단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런 단체가 생길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십시오.' 라고 해요 왜? 그분들이 와서 분위기를 흘트어 버리거든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이 순수 속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이 꼭 일어나거든요. 그런 교육이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전념할 수 있는 분들을 지도자로 양성을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지사: 아까 안내자 2년 후에 자원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기본이, 2년 후에는 주 강사로 하면 자원인가요?

맹산: 예, 자원이에요.

다지사: 주장사들 중에 외부에 강사를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게 되잖아요.

맹산: 그거는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깨지거든요. 다른데서 깨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강사제의를 제가 받았습시다. 제가 강사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다녀오시라고 두 분을 여의도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갔다 왔는데 두 사람이 갔는데 5만원씩 10만원을 준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분들한테 명함을 주고 왔어요.

다지사: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죠.

맹산: 예,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연락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직접 받은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혼자 가면 10만원 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10만원을 받아왔는데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소문이 딱 나게 돼있어요. 누가 어디에서 교육을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어요. 왜 혼자 갔냐고, 뭐 연락이 안 되고 뭐 이려고 나서.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했

는데? 여자분들, 제가 여자분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운다.

다지사 : 저희 다지사 같은 경우에도 주부들을 대상으로 관리자 양성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문제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없잖아요. 많은 주부들이 직업을 갖는 것을 원한다고요. 이게 그 분들의 개인적인 욕구거든요. 활동비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 본인이나오면 기사 활동 했던 것을 다른 분한테 하게 하거나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활동비를 전혀 못 받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불만은 없으세요?

맹산 :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나면 3년차가 되면 3년이 넘으면 그것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예요. 만 3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주위의 사람이 강사가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몇 달이 지나고 강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럼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그럼 3년을 해야 된다.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원 활동이 아니라 상근으로 전환이 됩니다. 거의 이분들은. 그렇게 되면 외부강사를 가면은 무조건 통장 관리를 사무실이 해요. 제 통장도 사무실이 하고 그 분들 다 개인 통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강사료를 다 붙여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돈은 다 모아놔요. 특별관리로. 그 돈을 어떻게 쓰냐하면 저희가 두 번 시행을 했는데 주부생태지도자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집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합니다. 예를 들어 썸지돈을 만들어 놔습니다. 거기다가 50%는 어쨌든 단체가 해결을 해줘요. 그 다음에 50%는 자부담이에요. 일본이 보통 4박5일 싸게 하면 100만원 정도. 저희가 항공을 이용해서 하는데 50만원은 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요. 그 돈에서 그 특별관리 했던 돈 있죠. 그 돈에서 내 놓고, 생태지도자분들한테 '여기서 2명 내지 3명을 뽑아라.' 그러면 단체가 50만원을 지원할 것이고 거기의 프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가겠다는 분들이 그 안에서 합의를
 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일본을 한 번 갔다 오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집에서 일로
 받아들이는 케이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우리 마누라가 일본에 뽐혀서 갔다
 왔어 이번에 환경교육 한다고 왔다 갔다하더니 이번에 무슨 일본의 국제 환경봉사
 에 갔다 왔다고 뺨을 치고 다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일을 하는 것으로 집안에
 서 공식적 인정을 하는 계기가 되고, 본인도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내 돈 내고 갔다 왔으니까 또 돈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렇지만 싸게 가는 거 아녜
 요. 거기다가 일본 사람들도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모자 쓰고, 모니터하고 가서 일
 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온 거예요. 그 분들이 와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인센
 티브를 주는데 공식적화해서 주고 그 분들에게 교감이라든가 장비들을 주는데 우리
 안내자 팀의 공동지 상황을 해요. 개인은 못 가져갑니다. 개인은 가져가봐야 남는 게
 없잖아요. 다 해체되면 그거라도 남아야 되니까 우리가. 계속 공동의 재산이다 이래
 서 저희가 지불하는 것은 일단 조끼, 이름표, 그리고 강사 사진 들어가는 것, 모자,
 가방. 세트화 된 가방 10세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해서 그 가방을 들면 교육
 을 할 수 있는 거죠. 옷하고 모자랑 가방을 벗어놓고 가야죠. 그리고 어디 갈 때는
 찾아들고 가죠. 그게 뭐냐면 모이는 거예요 자꾸, 그게 뭐냐면 모이는 계기가 되죠.
 가방이랑 나눠주고 전화해서 두 분은 무슨 초등학교 가시고 내일은 어디가고 이러면
 각자 따로따로 노니까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옷 가기러 와야죠, 책 빌리러 와
 야죠, 장비 빌리러 와야죠, 그러면서 회의 있죠, 자꾸 왔다갔다 하다보면 자기가 딱
 일을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또 바쁜 사람들이 다 이걸 해요. 대부분. 자기
 가 주타겟을 어디가 두느냐가 생태안내자로 가도록 저희는 계속 인도하고 있는 것이
 고. 그 분이 하는 다른 일을 정리해 내는 것이 저희의 의무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들
 하나가 정리를 합니다. 하다가. 왜냐하면 재미가 있거든요. 의미교육을 받기 때문에
 내 돈 내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밥은 같이 모였을 때는 제공을 합니다. 그 돈
 에서.

B : 교통비도 지금은 안하시나요?

맹산 : 예 교통비 지금은 못하죠. 왜냐하면 교통비의 기준을 하루에 환경연000원 줄 수도 없고, 2000원 줄 수도 없고, 5000원 주기도 그러니까 아예 내고 다니십시오. 그렇지만 재밌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져 들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내부에서도 기본적인 교통비는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판에서 같이 앉아서 얘기를 꺼낼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얼마를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5000원, 만원, 2만원, 3만원. 저희가 옛날에 3만원씩 지불할 적이 있었어요. 한 번 참가를 하면은 그것도 프로젝트 받아가지고 10만원정도에 할 수 있으니까 3명이 참석 하십시오. 그러면은 3만원씩 9만원이잖아요. 지금도 프로젝트를 받으면 3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까 얘기 했지만 개인 통장이 다 필요하다고, 총무가 받고, 돈 들어오는 대로 무통장 입금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공금관리를 해 내고 그 돈에서 해외 연수를 간다든가 하면 우리가 50%를 지원을 하지만 모자르면 그 돈을 쓰기도 하고 어쩌면 공동관리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왜 돈 떼 먹냐?' 예를 들면 그런 말도 있겠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떼어 먹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기가 운영을 하겠다. 이 프로젝트는 돈 주면을 자기가 다 운영을 할 테니까. 알았다고 돈을 다 쥐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져 왔어요. 못하겠다고 근데 그런 것이 뭐냐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투명성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한 돈 문제는 철저한 투명성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쓰이느냐. 그렇지만 이제 제가 무조건 안 준다는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의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강의를 갔다 오게 되면 그 비용은 사무실로 입금을 해야 됩니다. 하고나서 사무실로 들어 온 다음에 예약접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일어나요. 개인이 연락을 왔다하면 무조건 사무실로 통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도 살고 우리고 삽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가고 오고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돈을 어떻게 쓸까를 같이 합의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윤 : 안내자 교육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이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생태교육을 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원칙적인 것이 돼야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Y연맹의

Y : 고맙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서서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자료를 준비 못 해 왔구요. 거기에는 여차 저차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메일도 늦게 왔고 갑자기 연락도 받고 그래서. 오늘 모임에서도 조금 있다가 앞서 가야 될 것 같아서 준비 안 된 제가 빨리 말씀드리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 분위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YMCA연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교육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YMCA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환경교육에 양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YMCA가 하고 있는 환경교육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 속에서도 얘기가 된 것입니다만 그동안 몇 차례 몇 년간 최근에 환경 교육과 관련해서 환경교육의 개념정리와 관련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 Y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체험 형태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환경교육의 정규 커리큘럼 형태로 저희 교과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형태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YMCA에서 환경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것은 리후회담 이후에 저희가 실천 과제를 가지고 모색하면서 실천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2월 리후회담 이후에 저희가 환경교육지

도자 양성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 YMCA가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영역 속에서 환경교육들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92년도부터 시작된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개념부터 잡아보자면 환경 생태 교육적인 측면들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생태를 어떻게 체험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규 다양한 사회교육과정에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지 또는 회원들의 일상 활동을 통해서 실천 과제로 어떻게 도입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하게 되면서 환경 생태 교육들이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과정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YMCA의 활동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교육이라는 것들은 환경교육과 환경 실천이라는 것은 같이 병행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환경교육이라는 것을 7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규 저희 YMCA에서 커리큘럼으로 들어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기 스포츠단이든가 어린이 사회교육과정이라든가 그쪽 부모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과정 속에서 저희가 환경적 가치를 전달해 나가는 교육 커리큘럼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태체험도 포함 되겠고요. 폐품활용이라든가 각종 테마 학습이라든가 프로젝트 수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실현되는 형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통한 실현하는 환경교육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기 학습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YMCA에서 하고 있는 학습공동체 운동이 있습니다. 학습동아리입니다. 일상적으로 서로 학습하고 학습시켜나가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학습을 주고받는 것들을 저희가 동아리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학습공동체 모임들이 있고요. 이 모임과 병행되어지는 모임이 좋은 아버지 모임이라든가 성인 클럽들, 일부에서는 지역 환경생태에 대한 체험프로그램들이 같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환경동아리라든가 대학 YMCA등에서도 동아리 활동차원에서 환경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형태로써는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하천 환경교육 모델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5~6년간 진행을 해온 프로그램인데요. 주로

불안정조사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주로 그 당시에 불안정 조사 활동을 했던 것들을
 지금 하시는 프로그램들하고도 비슷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화
 학적 조사와 함께 동식물생태조사 이런 것들을 같이 조사를 해나가면서 지역 하천
 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을 높여나가고 문제를 인식해 나가는 과정들이고요. 여기서
 조금 발전된 모임으로써는 저희가 지금 '색깔 생명지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도 하천교육차원에서 시도 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데요. 지역 불안
 정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체들의 서식지 조건을 개선을 하거나 보전을 하는 운동으로
 그동안 조사 활동중심 워터워치활동에서 보호 및 실천 활동으로 전환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운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델들으로써는요. 생태교육
 장 설치운동이 몇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안의 광덕산이라는가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갯벌 캠프라는 것- 군산, 서산 등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생태 교
 육장처럼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환경체험 프로그램들이 있
 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형태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생태 캠프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생태기행프로그램이자 동시
 에 어떤 장소에서 숙박을 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부
 산의 YMCA가 하는 생명학교라든가 각 YMCA의 월례기행 또 청소년 생태캠프 이런
 것들이 캠프형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델로 지금 갖고 있
 는 것은 생협교육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환경교육으로만 국한 되지는 않을 것 같습
 니다. 유기 농산물 먹기와 함께 먹거리 교육 그 다음에 농촌 생태에 대한 체험 교
 육, 농어촌 봉사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동호간의 관계의 재인식, 이런
 것들이 생협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을 만들기 형태로 만들어지는 지역 환경교육도 하나의 모델로 생각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인가요. 광명 YMCA같은 아파트에서의 나무학교 같은
 이런 형태들이 지역 내에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지역운동과 함께 결합해서 환경교육
 의 다양한 형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현재 실무자의 고민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저희들이 몇 가지 부분 중의 하나는 생태체험학습과 함께 가치관과 패러다임 교육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상당히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다른 여타의 운동들과 환경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생태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내용적 일관성을 가질까에 대한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환경교육이 반복되어지면서 이것들이 다른 형태의 다른 가치관, 지역적 가치관이라든가, 공동체적 가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자아실현의 과제들과 함께 결합 또는 발전되고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모해 나갈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태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감수성의 형태이기는 한데 이게 어떤 이념적인 형태나 우리의 어떤 사명적, 운동적 과정과 어떻게 결합되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저희들이 풀어내야 할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환경의 영역과 다른 여타의 영역이 어떻게 크로스키 할 수 있는가가 고민이 되어집니다. 한 지역적 가치관 속에서 환경적 가치가 실현 된다고 하는 것들은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잡아왔던 환경의 범주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야 그것이 해결 될 수 있거니와 그 가치들도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소년과 환경과 유아와 이런 등등의 것들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또는 자전거 타기 운동과 에너지 보존 운동과 대기 보호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을 텐데, 이런 각각의 분리된 영역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운동적과제로 끌러 낼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각각의 영역에서 시도 되어지는 환경교육의 성과라고 하는 것들이 활용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환경지도자교육이라는 이 문제를 환경교육지도자라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환경지도자라고 하는 것들을 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청소년 담당 간사라든지 각종 다른 프로그램 담당 간사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환경적 가치로써 환경운동이 별도의 영역이 아니라 지향점으로써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각각의 주체의 영역이라든가 활동의 영역에서 이 환경적 가치가 어떻게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환경지도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별개의 영역으로 취급되어지는 운동의 과제들을 환경이라고 하는 매개로 어떻게 크로스컨 시켜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지침들을..

C :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을까 (특 버튼 걸웃님을 가리키며) 여기에다가 도 같은 질문예요. 이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에 생태교육, 체험교육으로 갯벌 가는 것 누구나 다 가는 건데 그게 운동하는 단체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 프로그램 차체만으로는 저로서는 변별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뭐가 달라야 그들하고 우리가 다른 건가를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를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D : 달라야 되는 것을 찾는 것은 이것, 저것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환경교육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실현되어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되어지고 있는 것은 모든 사물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특히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울타리를 넘나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과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환경교육의 가치가 실현 돼야 될 텐데 그 실현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생태적인 체험의 영역에 국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현이 돼야 된다면 지역적 삶으로 실현되어 지거나 이것이 어떤 다른 여타의 모임과 만남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실현의 관계를 만들어야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으로 이게 지역차원에서 운동적 계기로 전환이 되어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이 돼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생태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영역이죠. 그렇게 볼 수 있죠 .

환경운 : 저는 그거와 조금 다른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 Y같은 경우에는 개

별적인 프로그램들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연맹에서 각 지역의 Y의 프로그램들이나 환경교육프로그램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되나요?

C : 사실 파악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합니다. 대표적이 사례들이 수집이 되 어지는데 아까 말씀 드렸던 정규 커리큘럼 속에 실현 되어지는 것들은 사실 어디 까지를 환경교육이라고 봐야 할지 하는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정형적인 형태로 분류하는 것은 분류해도 빠죽, 빠죽 튀어나와요.

맹산 : 예를 들어 환경단체가 하는 교육과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 하는 교육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왜 생태지도자가 필요했다는 것은 환경 교육이라는 것이 문화적 이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이 없이 하는 교육은 참여교육이 아니다. 그게 충족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거점화하고 있는 그 지역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교육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 생태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랬던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원칙 이 이런 거예요.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교육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갈 교육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갯벌탐사라든가 생태 교육 이런 걸 할 때는 원칙을 놓고도 꼭 그래요. 가서 지역의 의뢰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 연계를 하겠다. 우리가 할 수 있죠.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안 한다. 가는 차라든가 오는 차, 현장에서 확인을 하지만 어쨌든 지역의 생태지도자가 된 분들이 와서 지역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 준다든가 감사비를 꼭 주고 오고, 두 번째 그 장소 의 식당에서 꼭 밥을 먹을 수 있다. 도시락 절대로 싸 오면 안돼요. 그래도 어쨌든 돌아가면서 팔아주자 왜? 그래야 갯벌탐사 온 사람들이 돈 쓰고 가더라는 소문나게 그게 갯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다 그거 는. 그렇게 되면 철원도 마찬가지예요. 철원을 가면 단체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왔나하는 화두를 주잖아요. 그걸 얘기를 잘 해요. 거기 가서도 식당, 똑같아요. 거기기도 취료 보호소가 있잖아요. 거기를 제일 마지가 코스로 가면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낸 회비 중에 얼마정도의 돈을 이 모금 운동에 내 놓겠습니다. 그런데 모자를 한 바퀴 돌리죠. 100원도 좋고 이런 동참하는 운동을 해서 한 번 빙 돌아오면 한 5만원이 거쳐요. 어떤 분은 만원도 내고 천원도 내고 백원도 내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얼마가 우리가 걸렸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퀴즈를 맞추는 애가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러면 개가 내려서 다른 애들이 다 쳐다보는 데에서 그분에게 잘 지켜주십시오 하고 전달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생애체험을 경제적으로 의미로 하는 단체와의 차이이다.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지역에 뭘 할 것이냐 마무리를 해주고 굉장히 전달하려고 하는 성의가 있는 것하고 립싱크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하고 보는 거죠.

환경윤 : 사실 이런 부분이 꼭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철학적인 교육이라는 방법론적인 것 말고 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그런 것 말고 항상 그런 얘기 매 기수마다 프로그램마다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효욱 선생님 얘기하신 김에 광명Y의 프로그램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하고 잠깐 쉬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오셔서 소개가 안 됐는데

Y : 광명 Y의 이영이구요. 저희 교육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은 저희가 환경이라는 단어는 별로 안 쓰고요. 방금 발제를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것을 실현해야 될 가치 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적인 접근을 저희가 안하고 있어서 그것을 저희 교육 과정 속에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의 전 과정을 생명, 생애라는 가치를 중심적인 것으로 두고 저희가 공동체와 생명 그리고 통일 평화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실제로 모든 교육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 주제를 감안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 동안에 진행해 온 것들은 개비라고 지구를 위한 행동 계획 인가, 리후회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역대 단체가 실험적으로 생활 속에서의 환경 실천이라는 것들을 주간단위로 체크를 해 내고 그래서 월간으로 평가해내고 일년 단위로 그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 보는 것을 몇 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조직 활동 속에서 그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사실 굉장히, 큰 좋은 사람들이 교육방향이 가장 확실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그것은 단순히 교육을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자기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점검해내고 하면서 이 과정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 방식이 바뀌는 것까지 거기까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그것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팀을 짜서 서로 점검해주고 실천과정들을 체크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확실한 방식이다. 라는 그때 우리들이 그 생각을 했었고요. 최근에 저희도 맹산처럼 반딧불이 서식처를 지역 생태학습장으로 만들고 알토리는 습지를 생태보호장으로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결합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역의 생태를 지키고 끊임없이 이것들을 확산시키는 노력하는 사람들로 그 활동을 해나가는 것 같구요. 저희는 생태 팀으로 산, 남자로 구성된 팀이 하나 있고 주부들로 구성된 팀도 하나있고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틀려서 성인 남자들을 주고 주말시간을 쓰고, 주부들은 주중에 모집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지역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집중해서 하기도 하지만은 일상적으로 자기 과제를 지역의 생태환경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안에 있는 생태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활동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 : 전체적으로 다들 사실 그렇겠지만, 생활과 행동이 변화로까지 변화시키는 게 보통 그렇게 까지 안 되고 단순히 지식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런 사례들과 관련돼서 아이디어나 그런 것까지 있는 경우

는 그런 것까지 실제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같이 또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교육이 됐는데 그 교육이 방향이 어떻게 되더라 그걸 알지 못할까 교육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같이 얘기를 나눠 보기로 하고 한 15분 정도 쉬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담당자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했어요. 본부수행에서 그 프로그램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을 참가했으면 좋겠고, 지역에서 이미 관련돼서 있는 분들도 교육을 같이 하시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만들어야 되나 그런 얘기들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시흥환경운동연합하시고,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보니까 자신의 자료를 준비한 것이 부족하다고 느꼈던지 너무나 급히 가서 자료를 갖고 오는 에너지 대안 센터에서, 이게 어려운 모임이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분위기 있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정말 넓은 자리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올해의 내용만으로 각각 경향을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다른 자료도 가지고 오고 그러셨는데 에너지 교육도 환경교육에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대부분 자연 체험 운동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에너지 교육 문제를 못 풀어내고 있는데 연이어서 다루고, 시흥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흥 : 일단 시흥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는데요. 금천구 시흥이 아니라 경기도 시흥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곳은 시화호 있는 바로 옆에 정왕동이라는 곳에 저희 사무실이 있고요. 그쪽 지역적 위치를 판단을 한다고 하면 일단 시화공단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오이도라고 하는데 육지화 된 오이도 앞에 갯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화호가 있고 이쪽으로 가 보면 포동 폐형적 지대라고 해 갖고 용생습지관리원이 있습니다. 상부측에 가면 다양한 저수지, 다양한 습지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크게 몇 가지를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 일단 처음에 에코가이드라고

했어요. 자연해설가 안내자 모임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 한 번 해 봤습니다. 그 동안 갯벌 강사라든지, 갯벌 안내자라든지 조류 안내 지도자 교육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 시도를 한 번 해보자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에 중요한 사업 중에 소래산이라는 곳에 자연 학습장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 숲 체험 지도자 교육이 들어가 있고요. 크게 보면 사업의 일정을 보면 숲 체험 안내자 모임을 하고 그 수료자 중심으로 꾸려진 모임을 중심으로 시민들은 모임을 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이 도감도 만들고, 내년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후원과 소래산만의 사이버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8월 14일부터 수요일부터 해서 6강 정도를 매주 1회 정도를 진행을 하겠다는 처음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일단 모집자가 20명 정도가 모였죠. 시흥이라는 곳이 특성상 어떤 분당이나 이런 곳처럼 일산처럼 밀집되어있는 곳이 아니고 공업도시다보니까 참여하는 분이 일단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결과론을 보면 34페이지에 정리를 좀 해 놨는데 특히 사항에서 저희가 다른 생태 안내자 모임을 하다보면 다 일회성 행사로 다들 갑니다. 이번에는 숲 체험 이번에는 갯벌가고 이번에는 염전가고 이런 백화점식의 교육과정을 대부분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숲 한 가지만 해서 한 번 해볼 때까지 한 가지만 해보자 이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6강 정도만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계속 늘어나서 내년 3월달 까지 계속 주 1회 모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봤습니다. 숲에 대한 생태적 가치, 철학적 접근, 환경교육에 대한 철학적 가치에 대한 접근 그런 것에서부터 한 달 정도 1, 2, 3, 4 계속적으로 그것 하나만 가지고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식인데 저희가 8회 정도 끝났을 경우에 1차 수료 기초과정 수료를 했어요. 했을 당시 20명이 다 했는데 그 때 당시로써는 저희들이 무료로 수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급 과정에 들어가서는 1회당 만원씩 받아보자 왜냐하면 저희가 준비한 돈도 다 떨어지고 강사비도 없고 그래가지고 한 번 받아보자 그래갖고 한 번 받았습시다. 한 번

받으니까 그 다음 주에는 20명에서 10명으로 떨어져서 돈의 위력이 상당히 강하다
 이것이 참여할 때는 의욕적으로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원의 수강료를 받으니까
 10명의 수강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현재는 7명 정도가 계속적으로 8월부터 월 1
 회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적으로 단체의 욕심에서 모집하는 것에서
 각 동에 5명씩 뒤편 조직적 색깔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국내 야산 살리기
 운동에 대한 접근을 해보자는 것이 중요단체의 사업기조였습니다. 올해 하는 것
 을 보면 저희들이 또 하나 옥부도하는 야산 살리기를 현재 공원으로 해 갖고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양쪽에 한 번
 소래산 중심으로 숲 안내자 모임교육을 했고요. 옥부도를 중심으로 숲 안내자 교육,
 물론 대상은 틀립니다. 교육하는 대상들은 틀린데, 저희들이 비교를 딱 해 보니까 그
 냥 나타나더라고요. 아까 분당에서도 말씀 하시다시피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왔다가
 진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갈등을 하기 시작하고, 참여자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환경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를 지금 참여자들이 12회
 정도 진행을 하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류탐사가이드교육은 저희들
 앞의 시화호라는 곳이 있고, 갯벌이라는 곳이 있어서 철새들이 상당히 옵니다. 저희
 들이 맨 처음에 고민을 했던 것이 뭐냐면 갯벌과 조류 가이드들은 오이도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한 번 꾸며보자 왜냐하면 생각하는 돈 얘기도 조금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약간 틀립니다. 현재 오이도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생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아요. 남편들은, 남자들은 도박을 주로 하고요. 주부들은 안에서 조
 개를 좀 따고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갯벌보존운동을 고
 민을 하던 차에 오이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과 결합을 해서 그분들도 환경운동, 갯벌
 보존운동을 펼치면서 작은 돈이라도 집안에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하는 고민 속에
 서 참여자들을 모을 때 아예 오이도에 사시는 분들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희가 2회 정도 올해하고 작년정도 했는데요. 일단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이런 분들
 이라 저희보다 잘 알죠, 생물들 이런 것을 잘 알고 저희 옆에 해양 연구원이 있어서

지도를 많이 받는데 그 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물때도 더 잘 알고, 그러면 가르칠게 뭐가 있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박사님들하고 몇, 몇 분들하고 고민을 하던 차에 어떻게 결론이 났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지루한 교육이 아니라 단순히 교육으로 해서 끝나고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갯벌 보존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강하게 지켜가 보자해서 그 분들은 시화호가 막히면서 원래 삶의 터전을 잃었고 이런 것들을 장황하게 알고 있지만 왜 그것이 세부적으로 지역사회의 파괴인가 하는 것을 아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갯벌에 대한 것이 이분들은 그 동안은 먹고 사는 수단에 불과 한데 그것이 아니라 갯벌은 지구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다라는 이런 쪽의 교육을 상당히 많이 했고 시청각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는 그러한 것에 동참을 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인식하에 지금 현재는 일곱 분 정도가 갯벌과 조류 정도에 가이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푸른메달활동 환경교육입니다. 다른 단체들은 아이들 모여서 생태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모니터링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속 3년차 하고 있는 것이 오이도 갯벌 일대의 해변쓰레기 모니터링입니다. 아이들 중심으로 청소년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요. 학교 CA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계된 동아리 팀들이 있는데요. 그냥 나가서 단순히 해변쓰레기를 수거를 해갖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만들고 흥미 있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 걸 사진을 찍어서 자료지도를 만들고 또한 크게 확대를 해서 학교 전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했더니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시키니까 억지로 왔다가 자기네들의 사진과 자기네들이 모니터링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결과물로 도출이 돼서 상당히 아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로 소래중학교가 1회차 정도에 학생 20명 정도로 환경동아리가 구성이 됐었는데 그렇게 한 번 해 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동아리 모집한다. 그러면 미어터지죠. 선착순 우선 집합.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가고 있고요. 우리 푸른메달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공단 내에 있는 가로수 실태 조

사를 저희들도 같이 해서 지도 만들고 발표회도 자체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청소년 환경교육을 지도를 하고요. 대기관련해서 신구 정왕동, 맨날 언론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기 환경 교육 같은 경우는 공단 내에 폐기물 업체가 상당히 많고요. 소각장도 그 조그만 곳에 일곱 군데가 있고 바로 옆에 하수 종말 처리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아이들과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을 한다고 하면 공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시설 교육만, 시설 답사만 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일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주도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청소,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쓰레기를 수거하게끔 하고요. 거기서 같이 재활용을 분리하고 재활용은 재활용 보내는 것까지 활동을 하게끔 하고, 모집 된 것을 그 바로 옆에 있는 재활용 공장에 가서 어떻게 그것을 제품을 만드는 건가 그런 것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도와주면서 일을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기가 상당히 심각해서 현재 에너지 쪽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쪽 하면서 고민이 됐던 것이 뭐냐면 다른 단체들은 1회성으로 끝나는데 어떻게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현안들도 많은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 가이드 양성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여기 대부분의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프로젝트 예산으로 받지만 자체 수강비를 약간씩 받아요. 그래서 강사비도 마련을 하고 대부분이 저희들이 자체강사를 하고요. 이 정도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윤 : 질문사항 있으세요? 심화 교육이 현재 일곱명이 한다고 했잖아요. 심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제한이 있는지

시흥 : 무제한입니다.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환경운 : 커리큘럼이 짜져 있는 것은 아녜요?

시흥 : 예. 왜냐면 기초 과정 같은 경우에는 현장 중심으로 했는데 현장에서 숲을 보고, 숲을 이해하고 이런 개념 적인 것만 계속 했어요. 지금 이제 심화과정에는 숲의 물, 그레갓고 한강이랑 상수도 해서 가기 때문에

환경운 : 그럼 이분들의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시흥 : 주부님들이예요. 저희들이 8강정도로 시작을 해서 중급과정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세부적으로 곤충 나가고 이렇게 나가야죠. 곤충, 식물, 조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 : 사실은 이게 시흥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지역중심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지역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고 그 이후에 반응들이 지역의 다른 단체나 이런 반응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에서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시흥 : 성과는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소년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차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단적인 예를 든다면 지금 3,4년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이었던 애들은 대학생이 되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되려 지역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환경 인식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오이도 갯벌 같은 경우에는 오신 분들이 계신지는 몰라도 연휴, 주말이면 엄청 와요. 계속 보존운동을 하면서 갯벌보존이라는 그 인식들이 자꾸, 자꾸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파되는 예전보다는 덜 가서 조개를 캐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고...

환경운 : 기수별 모임이나 그런 것들도 있나요?

시흥 : 기수별 모임이요. 저희는 기수별 모임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왜냐면 20명이 시작을 했더라도 결국은 한, 두 명이 남거든요. 기수별을 저희가 강제하지는 않아요. 맨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다가 항상 중간 정도 오면 고민을 많이 해요.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환경운동가가 되어야 되는 건지 단순히 교육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만히 나뉘어도, 가만히 지켜보면 거기서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남고 저희가 추구하는 생태적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뭐 가만히 나뉘어도 ...

정:사고 교육, 갯벌이든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시흥 환경운동연합에서 하는 직접적인 운동 프로그램들어요. 캠페인이나 이런 것에 결합하는 정도나 사례나 그런 게 있으면 어느 정도지

시흥 : 저희들 만약에 일곱 분이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캠페인이 있다고 하면 그 일곱 분이 다 나오죠. 아직까지는 그래요. (옆의 사람을 가리키면서) 같이 오셨는데요. 저희 정식 감사님이시거든요. 수료자 분이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고요. 아까 저희들 다른 단체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근자가 몇 명 없잖아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환경운 :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에너지 대안 센터의 영광희 원장님께서

에너지 : 에너지 대안 센터에 영광희라고 하고요. 교육현황을 정리하라고 해서 한 페이지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 아까 교재를 보니까 잘 만든 게 있어가지고 정

신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그래서 몰래 나가서 들고 왔는데 걸러가지고 일단 저희 에너지 대안 센터를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0년 10월 5일에 참여 총회를 열었고요. 정부나 이런 관의운동을 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너희들의 대안이 무엇이나, 에너지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고민을 해가지고 이것을 시민운동에서 풀자 해서 2000년 10월 5일에 만들어졌고요. 만 2년이 조금 지난 걸음마 수준의 단체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에너지 시민연대라고 있는데 이쪽이랑은 약간 운동방향이 틀려요. 에너지시민연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봐서는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저희는 에너지 절약을 뛰어넘어서 원자력이나 화석연료 중심의 이런 중앙 집중된 에너지 시스템에서 탈피해서 소위 말하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활동가가 3명이 있는데요. 저희들 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일하는 간사가 한 명이 있고 제가 재생가능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풍력이나 태양열을 지원하는 사업 쪽을 맡고 있고요. 상호입장이 있고 한데. 에너지라는 문제를 상당히 풀기가 어려워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타겟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으면서도 우리나라에 전 화사업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 벽을 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생들한테 강의를 나가서 에너지 절약하자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맨날 TV에서 나오는 얘기고,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고 재미없는데 이거를 풍력 발전기를 설치를 하고 태양광을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를 자급자족해야 된다. 이러면 그거 얼마예요. 좀 비싸 이러면 얘기가 굉장히 난해하게 흘러가거든요. 이게 올해부터 중학교의 교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건전지라고 해서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발주를 한 것을 저희가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30개 학교로 가 있고요. 교재는 재량수업교재라고 해가지고 한 권 가지고 3년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3년

을 배우는데 집필진들이 꽤 쉽게 썼다하는데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평가가 많고요. 전담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량수업 특성상 수업이 비시는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들어가신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교사용 지도안을 보시면서 애를 가지고 설명하셔야 되니까 난해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하고 내년 동안 30여개의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내년 저울썰에 수정, 보안 작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의 초점은 에너지, 에너지 위기, 그 다음에 재생가능에너지 이 부분을 파고드는 것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쉽게 다갈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은 1년에 한번씩 에너지 대안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회원이 2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이 회원들, 활동가들 그리고 일반 시민이나, 대학생들을 해서 교육 공고를 한 달간 홍보를 했었는데 올해도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도 신청하신 분들이 20명 정도 되세요. 그리고 총 17일 강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접근하는 게 다른 환경문제랑은 다르게 과학 기술 쪽이 중심이 되어서 모집을 하게 되니까 도중에 하다가 포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끝날 때 열 분 정도의 인원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위기를 부각을 시키면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조금씩만 맛보는 그런 내용이 주였다면, 올해는 약간 심화돼가지고 17일강 속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하나씩을 심도 있게 다루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기술 연구소의 박사님들, 또는 지금 재생관련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도 해보고 사용인으로 가서 직접 평가도 내려보고 그렇게 나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무실 오시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차 앞이 들리 그림이 그려있는 차가 서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하고 비용을 내어가지고 제작을 한 차인데요. 사실은 어른들한테 이 에너지 얘기를 하면 어른들은 더 재미없어 해요. 왜냐하면 바고 경제성이라는

부분을 따지시는데 저희는 경제성으로도 훨씬 우월하다고 하지만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차량은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 어떠한 에너지원이 있는지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햇볕만 가지고 바람만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5월에 만들어서 지금 제가 뽑아보니까 20개가 안 되게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에너지를 바라보는 게 쉽게 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을 기반한 교육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강화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많고 한데 환경문제도 그렇고 에너지 문제가 약간은 화두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가가지고 저희들이 농가를 중심으로 바이오가스라고 하는 00를 이용해서 연료화하고 에너지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교육해 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풀기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2년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내공을 많이 못 쌓았고,

환경운 : 질문 있으시면, 그렇게 내공을 못 쌓았기 때문에 방법적인 측면을 다양화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 17일간의 교육, 누가 이 17일간의 교육을 얼마나 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에너지 대안 학교가 작년하고 올해에 있었잖아요. 교육 내용이 조금 나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커리큘럼이 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은 에너지 교육이 구체적인 방향이나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는 감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민간주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요즘에 그 사람들 방법적인 측면들을 다양화해서 몇 가지 5강, 6강씩 여러 개를 해 놓고 하는 생각은 안 했는지 다른 얘기 같은데 그런 방법을 취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에너지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좀 쉽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 그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살아있는 가치와 관련돼서 어떻게

밖으로 내보여지느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이런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차로 가서 교육하는 것 말고 과정에서 어렵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변화해 나갈 것이니까. 내가 질문을 하고 내가 대답하고 있어.

환경연 : 실제로 에너지 대안 센터하고 저희 교육센터하고 저희가 부탁을 해서 부분적으로 같이 하는데요. 그게 유용하게 여기에는 센터에서 기획 했던 것을 실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전문 강좌가 있다고 얘기가 나올 것이지만 에너지 교육이 호응이 되게 좋았고요. 차로 가서 하는 시간의 교육 말고도 현장에 원자력이나 핵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에너지 교육에 접근해 가고, 그것을 재생하는 에너지까지 연결시켜 주는 그런 교육들이 유용했었던거거든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흥 : 다른 얘긴데요. 저희가 태양열 조리기를 몰래 빼가지고 만들어 봤거든요. 청소년들하고 만들어 봤는데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해도 빨리 오고요. 컵라면 까지 끓여 먹었으니까

환경연 : 사실은 그런 교구들 있잖아요. 사실 일반 활동과 관련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그 차에 있는 레고 장난감들이 돌아가는 것, 태양광으로 돌아가는 것 이런 것이라든지 교구들이 사실은 대안 에너지와 관련된 교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효과를 내는 데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지를

에너지 : 흥미를 일으키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고의 전환까지 이어지기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

고 판단을 하는 거죠.

환경운 : 그 한계가 어떤 측면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뭘 못해서가 아니고, 사실 제도적인 한계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게

에너지 : 저희 이상 중의 한 분이 그런 표현을 한 번 하셨었는데, 한전파업 했을 때 전기가 조금만 한 시간만이라도 나갔으면 재생가능 에너지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을 텐데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사회 시스템 자체가 에너지를 너무나도 손쉽게 값싸게 취할 수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그러면 좋아하고 그래요.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어차피 사회시스템 변화하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야 될 텐데 거기까지 나가는데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 : 사실은 제일 일찍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차례를 기다리는 분이신데요. 숲 교육과 관련돼서, 숲 교육과 가족 교육과 관련돼서 주제와 대상에 관련돼서 부탁을 드렸는데요. 생명의 숲 연대 얘기하시고 얘기를 해 주시고 다진사 얘기하시고

숲 : 저는 생명의 숲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원들을 대상으로 숲에 대한 교육이나 생명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프로그램 명으로 해서 그런 저희 활동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알시겠고요. 저희는 숲과 관련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숲과 관련된 교육을 크게 보면 숲을 가꾸는 활동하고 생태를 극복하는 활동으로 해서 여기보시면 1일 현장체험 숲을 가꿔주는 체험을 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각 대상별로 숲에 가서 숲의 중요성이라든지, 숲의 기능이라든지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저희는 다른 분들하고 지역적인 분야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보다는, 저희 회원구

성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서울, 경기 지역만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 회원을 대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 속에서 통해서 회원들의 입으로, 입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8~90%는 회원들의 참여로, 1~20%는 회원들의 소개로 온 비회원분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나눠드신 자료는 저희 올해 했던 사업이고요. 내년에도 같이 할 사업이고요. 저희가 98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회원들의 효과라든가 데이터는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숲하고 관련된 내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걸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환경운 : 그 교육은 연속해서 진행을 할지도 한데 대부분 보면 프로그램 마다 그 때, 그 때 현장구성을 하고

숲 : 그것은 현장 참여는 저희가 98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그 때, 그 때 단체 중심으로 학교나 중, 고등학교나 단체 중심으로 같이 산에 가서 자원봉사기능이랑 같이 하고요. 그 사람들이 하루 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가는 프로그램이고요. 나머지는 뒤에 있는 대학생 봉사활동이나 나머지는 저희 회원들을 통해서 꾸준히 모집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환경운 : 그럼 한 번의 행사라는 그런 것과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과 차이가 어 났을까요?

숲 : 저희가 '생명시안' 같은 경우에는 이 분들이 한 번 왔다가 다시 오시기는 힘들거든요.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숲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숲을 가꿀 수 있는 활동을 만나절하고 보내거든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숲을 있는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초

등학생을 대상을 중심으로 계속 숲에 가서 활동을 풀어야 되고 아니면 또 오고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오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세부적으로 활동을 조금, 조금씩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그 회원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운 : 그렇게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참가 비율을 몇 퍼센트 정도

숲 : 그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 해서, 이것은 일년 내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숲에 대한 교육은 5번 했는데 5번 다 오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가 회원들한테 참가를 받을 때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선착순에 늦으면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 50%이상은 되죠.

환경운 :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요. 5번 온 사람과 처음 온 사람의 차이는 없나요? 진행하는 데의 어려움이나

숲 : 저희 진행하는 데의 어려움이 숲에 나가니까 내용을 계속 바꿔주죠. 조금씩 그러면서 모르면 또 얘기 해주고 약간 반복과 새로운 것을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전에 했던 장소를 여러 번 바꾸기도 하거든요. 한 곳에서 계속 하는 것도 있지만 장소를 바꿔서 다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아까도 얘기 했던 숲이라는 관점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내가 얘기 한 것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바꾸면 다시 얘기를 해 줄 수도 있죠.

환경운 : 이론적인 부분에서 그렇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현장에 가서만

숲 :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직접 가서 느끼는 부분, 거기에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때로는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죠.

환경연 : 교육 대상이요. 초등학생부터 일반 성인까지 되는 거죠. 혹시 요즘 유치원 같은 게서 단체라든지 그런 의뢰가 많이 안 들어오나요?

숲 : 유치원 저희가 안 하구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개네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유치원을 해 본적이 없거든요. 저희 단체에서

환경연 : 사실은 저는 바램으로 얘기를 해본 것이거든요. 글썄 너무 어려워서

숲 : 유치원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같이 놀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쉬운 것이고,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말없이 같이 놀아주면, 숲 안에서 놀아주면 그것이 하나의 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나뭇잎 주워서 하는 것도 교육의 하나로 볼 수 있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필요 없고요. 초등학생은 게임형식이나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을 같이 해나가는, 마찬가지로 중, 고등학생들

환경연 : 여기 보면 자연 학습이나 놀이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학습을 하고 어떤 놀이를 하는지

숲 : 그거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들어도, 우리나라의 다른 단체들도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성은 없고요. 사실은 저희는 숲을 가꿔주는 체험하는 것을 약간의 특성을 시키고 있는데, 이 책은 다 보셨죠. '자연체험운동'

저희도 이걸 토대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책에도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협상과제들이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분들이 기초적인 참고서로 갖고 있다가 하나씩 다 해보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원아이들을 실험대상으로 한 번씩은 해 봅니다. 회원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대부분의 책 쓰신 분들은 이 책이 가장 원래고 나머지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책들은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도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숲이나 생태계 쪽이나 그런 활동, 게임들이 거의 이 책에서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하고 있는, 내용은 똑같은데 방식이나 표현력이나 저도 여기서 도용을 한다기보다 하다보면, 똑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조금씩 변형을 시키거나 우리 아이들한테 맞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애벌레에 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애들만 시키느냐, 선생님하고 같이 하느냐 아이들하고 할 때는 선생님하고 같이하는 형태로 하는 아이들만 시키는 것 보다는 게임을 하고 같은 것을 찾는 것, 같은 걸 찾는 경우에는 보자기에 놓고 찾을 수도 있고, 똑같은 걸 갖다놓고 뒤져보고 찾아볼 수 있는 다 같은 내용인데 형식만 달리해서, 보물찾기도 리스트 적어서 같고 오십시오. 라고 할 수 있지만 선물을 주거나 봉투를 주거나 아니면 보물이 어디 있다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숲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직장인 자연 놀이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만들어 지는 것도 없고,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육 체계가 잡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책을 통해서 해 봄으로써 체계를 잡아가는 만들어 가고, 비슷, 비슷한 교육들이니까요. 전문적으로 이렇게만 하는 데는, 저희들도 이런 교재나 이런 것을 새로운 것을 변형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 : 혹시 교육 중에 놀이나 프로그램이나 그런 교육들이나 숲에서의, 아니면 지도자들 교육이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숲 : 지도자보다는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전문가를 계획을 올해 해서 내년쯤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관련되신 분들이 어느 단체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강사를 확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참고적으로 작년까지는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 저희 사무실 강사들이 하나씩 맡아서 했었거든요. 올해 들어서는 제가 이쪽 파트를 맡아서 다 하고 있는데 사람을 찾다보면, 같이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쉽게 키워내기는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쪽에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광범위하게 어느 산이나 숲에 갖다놔도 교육할 수 있는 분들은 어렵거든요. 대부분 저희들은 전문 강사를 쓰고 그 분들이 숲에 대해서 아주 맛깔스럽게 얘기를 해 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애들하고 놀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인 전문성보다는 가족의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원봉사로 저희와 같이 해왔던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교육을.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요.

환경운 : 질문할 것 있으세요? 그러면

강동 : 저희 환경운동연합회에서 서울에 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강동, 송파지역과 강서, 양천지역이 있는데 서울 전체가 아니고 두 개구 정도씩 묶어서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현재는 수업을 아직 하지는 못하고 이 지역에 처음 생긴 것이 98년도이기 때문에 교육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준비해 오신 분들에 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애들 장난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두 지역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하지만, 지역을 벗어나는 서울 인근 하남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지역을 많이 가고 있거든요.

강동: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개별 모집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주로 저희 교육은 크게 보면 교육의뢰에 의한 교육하는 것 또는 어떤 특정한 음식물이면 음식물 또는 하천이면 하천 이런 특정한 대상을 넓게 잡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모임을 가지 있는 교육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때, 그때 모집하는 교육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 강동, 송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원 봉사 센터와 연결을 해가지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프로그램을 6강이면 6강, 10강이면 10강 그런 식으로 짜가지고 그 사람들 교육을 하고 교육이 끝나면 그 분들이 지역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하천 살리기 주부 모임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서의 정화 활동뿐만 아니라 오염원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문제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민원 역할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 동아리들이 있거든요. 자원봉사 동아리라든지 환경운동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등산을 중심으로 하는 등산문화가 있는데 보통 이런 단체들에서 그냥 등산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고 많이 오고 싶어 해서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99년 2000년을 같이 남한산성이 있는 남한산 중심의 생태 조사를 그 단체, 삼성SBS 동아리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러면서 삼성 측에서 사원들 교육까지도 병행해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 했었고요. 요즘 초등학교들이 그런 야외 활동이라든지 현장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중요시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단체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저희들이 많이는 못하지만 보통 초등학교를 1년에 4개 학교정도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선정을 해서 그런 학교는 하천탐사나 하천 주제를 정해서 그 학교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은, 서울시 안에 생태보존지역이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 밤섬을 제외한 3군데가 다 저희 강동, 송파에 있어요. 그래서 하천과 습지와 관련된 생태 보존 지역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길동에 생태 공원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 강동, 송파 지역에는 역사와 문화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남한산성 같은 경우

에는 장주군에 들어가는 하지만 저희 송파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남한산성이나 몽천토성, 흑락토성, 암사천사유적지 이런 것들이 역사 유적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역사, 문화 그 속에서 환경문제들을 같이 풀어내고자 하는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서울의 잠실 상수원이 있기 때문에 상수원과 관련돼서 취수장이나 정수장, 하수처리장이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 교육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또는 주부들 같은 경우에도 현장견학도 겸해서 차안에서는 일반적인 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다면 현장에서는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버려지면서 정화되는 교육들을 하고 돌아오면서 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지를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준비를 못해서요. 이 정도로 하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H : 강동, 송파지역을 회원들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강동: 저희 교육의 대상은 회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태기행이라든지 어린이 캠프, 이런 것은 회원들이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홍보도 회원들이 하기가 쉽고 모집도 쉽기 때문에 주로 어린이 캠프라든지 생태기행이라는 것은 또 가족단위로 생태기행을 갖기 때문에 회원 중심으로 하지만 기타 교육은 회원 중심이 아니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회원과는 상관없는 거죠.

정 : 그런 다음 회원으로 만드나요?

강동: 회원이 되기도 하지만 그걸 강제화 시킬 수는 없죠.

환경운 : 강제는 아니지만 충분히

강동: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학교에 가거나 다른 단체에 가서 의뢰를 받은 교육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하천 살리기 주부 모임, 생태보존 주부모임 그리고 청소년 환경 지킴이, 녹색 자전거 모임 이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모임들이 아녜요. 물론 저희가 만든 모임이기는 하지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민들로서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이나 또는 자전거 모임 같은 경우에 자전거 무료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모임에 단체 회원으로 가입되어있고. 하천 살리기 모임 같은 경우에는 개별 가입되어 있고 그래서 회원을 가입하는 특성도 다르고 사실은 다 다르죠.

환경운: 그러면 의뢰교육하고 사실은 교육과정 준비하는 교육하고는 굉장히 많이 틀리잖아요. 교육의 성과도 틀리고

강동: 사실은 의뢰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역에 더 많아요. 저희가 기획을 하는 경우에는 사람을 모집해야 된다는 부담이 굉장히 큰데 이 두개 구 안에서 사람을 모집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것이 서울 전체로 모집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서울에 3개 단체 밖에 없다보니까 특히 교육이 강남 아니면 저희한테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강서구가. 그러다보니까 서울에 있는 교육들이 집중이 돼요. 그런 게 있어서

환경운 : 인원에 대한 대상이나 한정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특성화 해 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양지천에서의 환경교육은 다 강동구가 가장 잘 한다든지, 아니면 쪽의 몇 곳의 습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숲 교육이라든지 어디에서 의뢰한다든가 부탁하면 잘 한다든지, 내지는 강동, 송파에서 지역민들 플러스 서울의 다른 지역의 그 옆에 사람들도 그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런 지도는 생각하지 않나

요?

강동: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게 양지천을 이제 강남 쪽으로 넘겨주고 있는데 양지천이 강남구역이니까 되도록이면 넘어 오는 것을 많이 넘겨주다가 보니까 부화가 많이 이뤄지니까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게 지역 활동가들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지역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운동가로서의 그것으로 들어오신 분들이고 보통 저희 지역 조직은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근데 보통 한명은 1년에서 2년 주기로 바뀌어요.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2명에서 지역의 일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과부화가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 버티지를 못하고, 예전부터 반드시 그런 분들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학교 때부터 운동해 온 사람하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하는 사람하고 대부분 저희가 운동하는 사람으로 모집을 해서 뽑으면 대부분 운동 경험도 없고 그냥 막연히 환경이 좋아서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견뎌내기에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장기적으로 나가는 모임, 저희 하천 살리기 모임에 가서 같이 공부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데 이런 의뢰되는 교육은 나가서 할 수가 없어요.

환경운 : 지역적인 상황을 잘 모르고 질문을 했습니다. 더 질문 있으세요? 계속 진행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같이 얘기를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으시면서 모든 분들이 같이 한 가지씩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물론 다 얘기 해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다른 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조금 달라지기는 한데 현장 체험의 대부분의 교육들이 현장 체험의 교육으로 전체적인 방향이 그런데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이 다인가? 이런 질문이 우습기는 하지만 현장체험중심의 교육 외에 어떤 다른 교육, 전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

으로서 잘 안 되거든요. 다른 방향의 교육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단체들이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는 한데,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이 전체적으로 철학적인 내용이나 이론적인 부분까지 어느 정도는 내 주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자 이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말씀 드렸고요, 환경교육운동으로 마지막으로 다지사만 하면 다 된 거죠.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지사 : 환경교육연대의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김소연인데요.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해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은 와서 그냥 듣는 거라고 그래서 잠깐 내방을 했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니 단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보면 생태 기행이라든가 자연체험 위주로 교육이 이뤄지고 것 같고 저희가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에서는 주부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주부들이 주축이 돼서 먹거리하고요. 생활 속에 있는 유해한 물질하고, 반생태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활동하는 곳이고요. 우리가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의 목적, 아무래도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의 목적이 되는 것이 지식전달인 것 같아요. 특히 주부들이 활동에 참여하시다 보면요. 특히 전업주부들은 지적호기심이 되게 강해요. 그런 지적 호기심은 내면적으로 나오는 것 보다는 사회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어요. 사회에 나오면서 내가 열등하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활동을 하기 전에는 뭔가를 배우고자 해요. 교육에서 완벽하게 갖추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식전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게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생활이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하자. 그래서 주제가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 먹거리라든

가 생활 속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간식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라든가 그런 주제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문제가 활동은 리더십이 없다 특히 회원들이 중심이 돼
 서 하는 활동들에 회원리더십이 없으면 회원모임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
 육을 하는 주목적의 하나는 회원모임에서 끌고 갈 리더십을 발굴하는 것을 아주 중
 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더, 더욱이 다
 지사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싶어 하는 주제가 교육 프로그램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
 요. 네 번째는 수강생이 곧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수강생을 강사로 라는 프로
 그램을 진행을 하고, 네 가지가 중요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교육은 특화해서 정형화 된 교육이 별로 없어요. 사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프로그램이 다 교육인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교육인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가 교육인지 뭐가 사업인지가 잘 분
 간이 안 되는 형태의 교육 진행이 되고 있는, 교육의 일상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특징은 아까 일상화된다는 것하고도 연관이 되
 어지는데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없는 게 회원들의 요구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참 많
 거거든요. 저희 사무국에서 아니면 사무처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올해. 그런 것보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회원들이 스스로 이런 것을 공부
 해 보고 싶다는 요구가 참 많아요. 그런 것을 약간만 맞춰서 프로그램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규모라든가 시기라든가 딱 정해진 것이 없어요. 많이 바뀌고 교육프로그램이
 라든가 주제를 회원들이 직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주제
 를 정하시거든요. 교육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소그룹을
 만들어서 먼저 시작을 하세요. 자기네들이 비용을 다 내고 수강료를 다 내고 사무국
 에서는, 단체에서는 장소 제공하는 것하고 저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조건 주부들
 이 참석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아이를 한명을 데리고 오더라도 놀이방을 갖춰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놀이방 비용은 저희가 대고 있어요. 놀이방하고 장소 제공 비용

을 내고요. 그 외에 강사비용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들이, 왜냐하면 수강생들의 요구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강의료를 100% 지불을 하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마련을 해 드려야겠다고 조직적으로 판단이 드는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다지사가 생긴지 얼마 안됐거든요. 1999년도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12월에 첫 공부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엄마들이 한 10~20분 모여서 콩 먹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모유파동이 났을 때는 모유에서 다이옥신이 나왔으니까 환경호르몬이 뭔지 그런 주제로 아이들 간식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아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특화형태로 많이 했어요. 5회 6회를 지내다가 다지사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런 모임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화형태의 작은 규모의 교육이 많았고요. 저희들이 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까 하는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모든 모임들이 다 공부하는 모임들로 시작을 했거든요. 공부하는 모임이 아닌 경우가 없었고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다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들이 다 공부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두 편의 책도 냈었고. '사랑의 아이들' '아토피를 잡아라.' 이런 공부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했고요. 저희 교육프로그램에 모든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책으로 나오든 지침서로 나오든 조그만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미를 붙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하는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재작년, 작년 특화형태 하고 스터디 형태로 나타났던 프로그램들이 작년부터 정형화되기 시작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다음지킴 환경학교가 상반기에 있고요. 가을에 다음지킴이 환경학교의 수강생들과 기존의 저희 다음의 활동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선발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요. 선발을 할 정도로 수강생들이 많이 몰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을에 환경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타단체에 추천을 받은 분들을 해서 다음 지킴이 환경학교강사 프로그램이 가을에 있고요. 이게 정형화 된 프로그램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마들의,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울

해 주부 유아 생태 프로그램 하나가 있고요. 양성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요. 광고
 모니터링단 교육은 사업과 결합돼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올 6개월 동안
 에 광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교육이 있는 건 특화사업으로 지속 프로
 그램은 아니고요. 올해 요구가 있었고, 사업적 요구가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으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후속프로그램을 잘하자.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강생을 강사로 하는 규
 칩을 들었기 때문에 후속 프로그램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
 해 말씀드렸던 환경학교강사 양성프로그램이 2기 째예요 작년에 1기를 배출을 했는
 데 1기를 관리하고 양성하는 게 주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1기를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한 분들이 열아홉 분이고요. 열아홉 분이 후속프로그램으로 초
 록놀이라는 모임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환경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졸업한 수
 료한 분들이 참가 자격이 있는 게 초록놀이라는 모임인데 그 분들은 자체 규칙이
 있어요. 워크숍을 몇 번 참석해야 되고 일년에 몇 권은 독서를 해야 되는 그런 규
 칩이 있거든요. 그것이 주 1회이 있고 워크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
 린 것은 작년도 후속프로그램이겠죠. 그리고 일상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 회원
 을 교육하는 것이 1강에서 3강까지가 있고요. 한 사람이여도 하고 세 사람이여도
 하고 들어오는 데로 활동을 하겠다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월례 강좌가
 주 1회 다지사에 지정 후원하는 분들을 해서 월례 강좌가 주 1회 있고요. 월례 강좌
 라든지 이런 교육은 못을 박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정기적으로 1회든지
 2회든지 매주 첫 주 무슨 요일이라든가 이런 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태기행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
 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강생이 강사로 라는 거에 저희가 목숨을 걸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작년에 강사양성 프로그램에서 1기가 배출이 되고 2기가 배출
 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성과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 프
 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나중 물 학교'라는 모임을 해요 나중 물이라는 저희도

들은 건데 펌프질 할 때의 첫 바가지 물인데, 그런 뜻으로 수강생이 강사로 라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펌프질 할 때 첫 물을 넣을 때 그 물이 펌프 밑에 있는 물들을 땅저 온데요. 한 사람의 강사가 많은 사람들은 운동에 동참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나중 물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올해 대상으로는 학교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무료 강의를 나가요. 1기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참 잡음이 많아요. 1기 수강생들은 배출을 19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 중에는 직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지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좋은 뜻을 갖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단체이름으로 강사를 내보내기는 부족한 분들도 계시구요. 저희가 일년 동안 훈련을 거쳤었거든요. 일년 동안 참 충실히 따랐는데도 자질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작년에 수료하신 분들이 올해 10월부터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먹거리 강의를 아이들 인스턴트 식품하고 환경과 먹거리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교재를 여태까지 일년 동안 준비를 하셨고 강의를 나가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교육 분과라고 해 갖고 아까 생태교육 프로그램과 중심이 돼서 하시는 게 시루떡 학교라고 올 여름에 처음으로 개최를 해 봤어요. 아이들 먹거리 캠프데, 4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 단체 내에서 교육받은 생태 육아나 아이들 교육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자원하셔서 그 분들만 강사로 구성하시고요. 사무국은 가서 실무, 딱가리 하는 역할만 하고 담당 교사를 두 분이서 했는데 성과가 아주 좋았고요. 그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힘을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시루떡 학교를 치루면서. 그게 올 겨울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외부 단체의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 모임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강사 양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활동하셨던 분들을 재교육해서 내보내는 게 있어요. 놀이 강사로 내보내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까지 잡음이 참 많이 있어요. 잡음도 많고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직업을 갖

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됐을 경우에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것을 적절하게 해소시키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간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환경윤: 다지사는 책을 통해서나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는 알았지만 이 자리에 일을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듣기는 대부분이 다 처음인 것 같아요.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사실은 내용들에 대해서 후속프로그램이든지 연계되는 프로그램까지 쪽 얘기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환경교육센터에서 프로그램 기획이라든가 대상에 있어서도 집어져서 있는 교육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교육만 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에 의한 성과라든지 후속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저희한테는 과제예요. 이게 저희 교육센터 내에 해답이 있는지 아니면 꼭 그래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환경운동연합이나 저희한테서 다른 프로그램을 받고 나서 에너지 대안 센터에 가서 회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다지사에 가서도 활동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성과라든지 성과 모임이 남든, 사람이 남든 계속적으로 연계되는 한 번의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저희한테도 과제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해보고 있고 그리고 유아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부모라든지 교사라든지 기관에 대한 교육 그거는 유아 대상이 교육이면 주제별로 했을 때 갯별 교육만도 아니고 숲만도 아니고, 에너지만도 아닌 이런 교육들, 전문가와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일반교육은 예전에 환경보존센터가 되기 전에는 많은 모습이 변했고 다른 교육들에 비하면 퍼센트가 작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랬으니까 짧게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제가 프로그램 기획하고 개발을 다른 분들도 다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기획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기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서 다르다 생각을 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유아 환경교육에 관해서는 대상자들이 유아인 교육도 있고 성인인 교육도 있고 기관인 교육도 있고 교사인 교육도 있곤 하지만 유아 환경 교육에 대해서 담당간사 중에 장대간사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장대 간사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어린이 쪽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이민혁 간사님이 얘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제가 아주 짤막, 짤막하게만 썼거든요. 프로그램의 필요성, 누가 필요로 하든지 간에 이런 프로그램 해보면 어떨까 재밌겠다. 내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런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 수강생들의 모임이 원하든지 간에 어쨌든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면 그 다음에는 그 기존에 비슷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들이 사실 고민에 있고요. 사실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이 없이는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절차를 간단히 밟아 보는 거구요. 비용을 줄이면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전체적으로 교육비가 한정 없이 높아질 수는 없으니까 그런 비용들을 줄이면서 교육의 효과를 높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같은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학습자들, 교육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높이는 교육 방법은 뭐가 있을까 단순히 강사가 다다다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로 하여금 뭘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성을 고려한 부분으로는 중앙동에서의 교육은 조금 덜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교육이 지역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고민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나 장소를 선정하거나 답사를 하고 그리고 강사나 프로그램을 구성할 임자를 섭외 하고 간단하게라도 기획안을 만들고 수정을 한 다음에 홍보를 거친 다음에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진행과 평가를 하고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과 기획의 준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원을 그리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순환하는 과

정이라고 보여지면서 제일 또 앞의 부분의 고민과 함께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하면 보고라든지 결과물이라든지 평가를 거치는데 그 시행착오들을 거친 결과를 그 다음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사실은 교육을 계속한다고 하면 한 번 하고 마는 프로그램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고민되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부분은 어떤 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내용을,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작년, 단적인 예로 들면 한달에 한 번씩 새로운 현장에 가는 가족 대상의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했었던 말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껴서 그러면 이론과 현장을 보완하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 해서 만들고,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쪽 적어 본 것예요.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아 환경교육 정희연 교수님이 얘기 해주세요.

환경연 : 유아 환경 교육이라는 뜬금없는 주제가 나와서 그랬을 텐데, 어쨌든 지금까지 환경교육이 많은 단체에서 열심히 진행이 돼서 어린이, 주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과정 간은 것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면서도 느끼지만 유아교육과정은 제가 여쭙봤었는데 하다보면 환경교육의 범주를 벗어나서 유아교육의 특성화 되어야 하고 굉장히 친절해야 하고 프로그램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 같아요. 그것을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 저희 같이 환경교육만 증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단체들은 비정기적으로 어떻게 조금 체계화내고 연계할 수 있는 고리들을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유아들한테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절감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것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게 현장 체험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보자는 시도로 시작을 해서 일단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그것을 원내

서 활용하고 또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가진 교사들이 아이들을 교육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가정과 원에서 연계해서 그 내용들을 가져 갈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범운영원이라고 해서 회원이 되는 유아 교육 기관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 원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또 그 원에 있는 원장이나 교사들한테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을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지금은 올해 시작해서 20개의 원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 적으로 전문가들이 환경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초반에 토론회를 통해서 각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많이 들었고 지금까지 그런 곳에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림천 주 부모임에서 만든 유아교재가 나왔을 때 되게 반가웠어요. 정말 없어요. 유아 환경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교재가 너무나 없고 쓰레기를 분리를 잘 합시다. 전기를 줄입니다. 이런 것 이외에는 정말 없거든요. 다지사에서 먹거리 연구를 하시면서 유아 교육에 대한 교육을 하시고 조금씩 늘어가는 것이 반가운 것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토론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거가 유아 교사 워크샵입니다. 유아교사교육인데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교사들의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워크샵을 3번을 했거든요. 3번을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원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된다는 생각이 처음에는 컸어요. 그런 내용들을 막 강의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원장 선생님이 마인드가 있어서 신청을 했지만 교사들은 내가 왜 환경교육을 해야 하는데 환경교육 다른 프로그램에도 그 정도 수준은 어려운데 이런 문제의식들도 있고 그래서 3기 교육 때에는 교사들이 내가 환경교육을 해야지 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생태적 감수성 훈련시키는 교육도, 이런 교육을 짜 봤는데 그런 교육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교사들이 가지고 가면 원에 가서 그 프로그램들을 하고 전화해서 프로그램 언제 나와요 하는 형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사들에게 성과는 그런 부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교사들이

후속프로그램으로 생각지기라는 연구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연구 모임이라면 좀 어려
 운데, 생각지기라는 유아교사들이 하는 모임을 만들었고 처음에는 학부모, 교사, 활
 동가들이 같이 하는 조금 더 좋은 모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사실
 은 학부모하고 교사하고 시간 맞추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를 했어요. 나중에,
 교사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한 달에 두 번씩 정기 모임을 갖고 있고요. 그래
 서 저희가 1년 12달 환경분야의 주제들을 세분화해서 물, 공기, 식물, 먹거리, 건강
 많잖아요. 그런 주제들은 한달에 4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원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원에서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우선 서울 중심의 교육을 했기
 때문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섞어서 하고 있기는 한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를 지역에서 특화할 수 있도록 지역과 연계에서 하도록 지역 환경연합에서
 같이 해 보겠다 이런 단체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유아 교
 육 프로그램을 보충에 가는 작업들이 내년까지 될 거고 내년에는 교재가 나올 겁니
 다. 부족하지만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많이 보급하고 유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고 초등학교, 중학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학부모를 위한 정보지 제공인데 이것은 다지사에서도 하고 있는 운
 동과도 관련이 있는데 어린이와 건강한 삶이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했고 이 시범운영원에서는 이 학부모
 정보지를 활용을 합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주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을 카피만 하면
 내보낼 수 있게 만들어서 원에 발송을 하거든요. 그럼 원에서 학부모들한테 정보지
 로 활용을 하고 있는, 환경사안들이나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아이
 들이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들 실천하는 것이 엄마들 데려다가 여러분 아
 찌쓰세요. 이렇게 교육하는 것 보다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두장
 을 넘기시면 환경 전문 강사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며칠 전에 11월 1일에 끝났거
 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동안에 아까 준비 환경교육에서의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단체들이 많지 않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옛날이라고 하면 2, 3년 전만 해도 열심히 했었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수요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런 강좌 열어놓으면 신청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안 센터도 굉장히 힘들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나 운동적으로 접근해서 가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올해 부활을 시켰는데요. 예전에는 환경과 경제, 환경과 정치 이런 거대 단위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운동단체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시민들이 알까 그런 고민에서 출발을 했고 또 환경운동이라는 도구 자체가 현장 속으로 같이 끌어들여보자 그리고 전문가가 와가지고 강의 하는 것 말고 활동가하고 얘기 해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고 되게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N환경연30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내용을 만들어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되게 주제가 집약적예요. 10강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줄여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들 가지고 환경운동 현장 속으로 가보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가들이 대부분이 강사가 돼 있었고요. 한 번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명산 백지화 운동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교육 방식은 토론 위주의 프로그램이었고, 토론을 하고 그 주 토요일에는 현장을 갑니다. 직접 현장 답사하고 지역주민 만나고 이것을 평가를 해보니까 아까 선지식인을 찾아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인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의 현장의 분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좋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그냥 현장, 새만금에 가서 갯벌교육 하는 것 말고 거기 지역 분들을 만나고 하는 프로그램이 평가가 좋았거든요. 많이 지역에서 운동하시는 것에 교육 운동에 일환으로써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I : 저기 어린이, 청소년 교육이라고 나오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까. 처

음에 두 번째, 4-2를 보면 이게 사실 환경유지보다 보통 도심 속 생태교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환경운동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취지에 의해서 건물이 리모델링되면서 헐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의 장소로서의 효과를 염두 해 둔 것을 설계가 된 것을 착안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프로그램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가족이라든지, 도시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영역과 현장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떠날 수 있는, 보통 적으로 보면 다 외부로 나간다면지 아니면 실내 교육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착안해서 처음에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환경운동단체를 알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환경운동연합의 교육을 갖고 안으로 들어와서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자세히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참여수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족들 교육을 하다보면 부모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어렵지 않은 교육을 접목을 시켰고요. 세 번째는 실내와 야외의 병행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보통 학교에서는 이론 교육이라고 하면, 실내교육 아니면, 실험교육 그 외에 실외 교육이라고 하면 현장 교육 형태로 돼 있는데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공간에서는 실내교육으로 이론 교육을 하면서 그 대신 실외에서는 분류학 적으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요소들을 가미하면서 만들기, 아이들이 직접 집으로 가져감으로써 나중까지 자기가 만들었던 기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접목을 시켰고요. 체험 교육으로는 야생화체험부터 시작을 해서 차량 염색까지 다양하게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맞춰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족 위주의 교육들이나 모아가지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소규모 교육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 외에 학교 CA교육이나 단체 교육을 원하는 데에서 학교장들과 마찰이 많이 있잖아요. 외부 나가기 위한 차를 타고 가면 위험하고, 그렇다고 긴 시간동안 학교에서 학교수업을 빼서 할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의외로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두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것들

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 저희들에게 많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똑같은 교육을 계속 반복하다보면 사실 지금 구조는 많이 그럴 수 밖에 없거든요. 장소가 똑같기 때문에 이 장소를 뜬어 고치지 않는 한 교육의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들이나 만들기 이런 것들을 변동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고민이 저희 스스로도 반복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하면서 일회성이면서 일회성이 아닌 교육들을 많이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작년 9월부터 올해까지,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한달에 많을 때는 700명 가까이 교육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구요. 적게는 2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가는데 기본적으로 한 번 왔던 학교들이 다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의 이유도 있겠지만 아까 처음에도 얘기 드렸던 대로 서울 도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한 정 되어 있다 두 시간 동안 교육을 하고 나면 자기 집이나 학교로 돌아가는 것도 용이하다는 것이 있고요. 봄,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학교중심으로 학생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고 겨울에는 가족교육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흥 : 수강인원은 제한은 없나요?

I : 최소 40명 50명까지는 받고 있고요. 그 대신 강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실내 교육과 실외 교육을 구별해서 실외교육을 받고 있을 때는 다른 한 팀은 실내 교육을 받고 있다가 시간을 교차해서 진행을 하죠.

시흥 : 주중에도 받나요?

I : 주중에도 받습니다. 단체교육으로

시흥 : 왜냐하면 교육기관에서 차로 여덟 차로 오면 제발 그런 것은 안 되겠다. 하는데도. 저희는 한 40명 정도를 원하는데 40명 온다고 약속을 해놓고 오면 80명.

I : 갯벌 같은 경우에는 갖다가 내려놓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온 사람 다시 가라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임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학교가 두 차가 왔는데, 저희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한 차를 이 인근에 공원 같은 데가 많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교육. 사실은 두 시간 동안 강사가 계속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한 가지만 설명하고, 밑에는 박물관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볼 수 있고 만져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교육보다는 아이들한테 어떤 건지 재미 설명을 곁들여서 하다 보면서 계속 강의를 주도 하고 있죠. 보통 50분이 아이들이 한계라고 하는데 요소, 요소에 재미있는 것들을 접목시키면 그것들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아이들 성향에 맞춰서 미디어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워 포인트라든지 비디오파라든지 슬라이드라든지, 만들기도 굉장히 차별성 있게 나이 많은 친구부터 적은 친구, 지금은 고등학생부터 초등학생, 유치원까지. 오면 강사가 수위를 맞춰줘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했던 일회성 교육이 생태 교육관 안에서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왔던 게 환경교실 프로그램인데요. 첫 번째는 일회성 교육, 두 시간 교육에서 조금 더 길게 아이들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관찰하자 두 번째 목표는 환경운동연합이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영역들을 아이들 중심으로 맞춰보자. 물론, 회비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 수준에서 어렵겠지만 숲이라든지 야생동물, 하천 탐사라든지 생태계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접목 시킬 수 있는 꺼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세 번째는 그 대신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오게 하려면, 똑같은 주제가 2, 3회 장기화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구요. 지금 보면 14회 교육이 있었는데 13회가 다

다른 교육이었어요. 1회부터 13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도입하면서 활동가들이 교육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만들기라든지 현장체험을 병행하는 그래서 4번 정도는 이런 교육을 하면서 수업에 맞는 만들기를 하고 한번 정도는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장소에서 현장체험을 하는 형태로 꾸며 봤고요. 사실은 13기까지 진행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린아이들이에요. 보통 대상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거든요.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그냥 올 수 있는데 사실은 어린친구들이 오면 부모님들이 와서 기다리세요. 두 시간을 하면, 부모님들이 계속 앞에 앉으셔가지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도 좋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면 왠지 뭔가 하나 해 드려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14회 환경교실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에는 취지가 있어요. 가족들이 움직이는데 누구의 대상을 잡을 것이 아니라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자고 했었는데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린 평가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오기는 하지만 부모들도 교육을 받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 교육과 아이들 교육은 차별성을 두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화두였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별을 했어요. 근데 또 여기서 갈라놓고 나니까 문제점이 뭐 나면 함께하고 싶어서 왔는데 따로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건 따로 받는 교육과 별로 차이가 없겠다고 해서 저희는 지금 이번 주가 마지막 강의인데, 한 3주차부터는 가족프로그램준비하고 또 별개로 나뉘어서 부모님들은 공부하는 프로그램, 아이들은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족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하는 그래서 처음과 끝을 가족프로그램으로 하되 부모님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조건들도 만족시키는 교육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생태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명 정도가 왔다 갔고요. 환경교실 같은 경우에는 15기까지 평균 25명 사실은 한 교육에 15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교육에 무리수잖아요. 운영비가 안 떨어질 수 있는 구존데 그런 것들보다는 아이들의 변화하는 과정들이나 저희는 다른 교육을 접목시키기 위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효과

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황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환경운 : 지금까지 얘기 들으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걸 보면서 개별적으로 개별 단체나 아니면 개별 활동가가 자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사실은 하나, 하나에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교육하고 고민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여지가 별로 없는 데, 이 기회에 주변을 돌아 봤다 생각하시고, 그 프로그램을 하고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그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의 평가라기보다는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만족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가 다시 어떤 프로그램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5시 반이 돼 가는데 원래 예상시간은 4시간으로 6시에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얘기가 길어지면 더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할 얘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끝날 수도 있는 거지만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환경교육이나 아까 다지사처럼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교육프로그램이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혼자서는 안 된다 같이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와서 얘기를 들으면서 생명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인자리에서 같이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들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권장섭경장 목소리님 : 제가 맨 처음 시작하면서 짧게 했으니까 말문을 트는 입장으로, 보통은 우리가 환경교육을 준비하면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와는 틀리게 다지사에서는 수요자의 요구에 의한 프로그램을 함께 기

확해 나가는 것은 오히려 의미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요즘 드는 생각들이 대개는 환경교육이 그나마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외에 일반 다수, 환경에 관심 갖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환경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 환경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다수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 환경문제를 가지고 접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교육적 측면에서, 그런 문제 더불어서 그들을 바꿔내는 생활 세계를 바꿔내는 영역에 있어서 결국 개인의 실천이 함께 가져야 되는데 어찌보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예요. 지금 대부분의 우리 환경문제들이 나온 것들도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에 기반에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써의 교육이나 또는 그들은 변화시켜내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어떤 게 먼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나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함께 나눠 보고 싶습니다.

정 : 저는 함께하는 시민운동에서 인터넷 시민학교를 하고 있는 정이라고 하는데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듣고 싶어서 왔는데,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쪽 펼쳐놓고 보니까 교육이 한 쪽으로 쏠려있다는 느낌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요. 저는 환경문제가 비교적 다른 교육보다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는 편인데 그게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 그게 참 편안하고 좋기 때문에 내가 그런 숲에서 지내보고 내 집 사는 주변이 산이 있으면 좋겠고 이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동경 또는 추구 이런 요구들 때문에 어쨌든 비교적 다른 분야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러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한 발이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거냐고 하면

여기 전문 강좌 하면서 실제로 뭔가 환경문제로 갈등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부딪치거나 혹은 내가 불편을 감수해야 되거나 내가 정말 내 삶의 뭐와 바뀌서 어떤 가치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사실은 이런 부분으로까지 올라서거나 혹은 우리 삶의 요소에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런 걸로 못나가 고 있는 이유랄지 혹은 그럴 필요 자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더 듣고 싶어요.

환경윤 :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체험교실이 대부분이 머물러 있고 철학에 대한 교육이나 가치에 대한 교육은 아주 적게 이뤄지고 있고 그나마 사람이 없어서 근근이 맥을 이어가고 있거나 외부에 지원을 받지 않으면 어렵거나 그러면서도 놓치면 안 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정선생님이 문체 제기한 초점을 정리를 하면서 그 가치적인 문체점들을 고민을 해보는, 오늘 이 자리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 현장 체험 교육에서 숲에서 예를 들면 나무가 많은데 재밌는 놀이를 한단말예요. 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된다면, 갯벌에 가서 갯벌에 있는 생물들에 대해서 교육을 조금하고 어, 갯벌 되게 재밌더라 하는 것 하고 왜 갯벌에 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들이, 그런 현장 체험 교육들이 잘 되면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많은데 그것 말고 뭔가를 해야 될 것인지 그렇다면 거기에서 철학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노력,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Y : 각기 자기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고민들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를 털어놔야지 아마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도림천: 저희 도림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환경교육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지역의 도림천을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천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피복이 다 돼 있고 물은 거의 안 흐르고 비 올 때 빼놓고는, 누구나 개천이라고 하긴 하는데 누구나 쓸데없는 공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환경운동을 하면서도 생태적인 목적을 두는 것은 이 아이들이 도림천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뀐 생각의 핵심을 여기도 나의 삶의 공간이구나라는 거가 핵심적인 부분일 것이라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까운 산에 가더라도 그 산이라는 공간은 내가 살아가는 공간과는 다른 어떤 이질적인 공간으로 느껴지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 경험들이 이질적인 체험으로만 남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이거나 문화적인 맥락에서 그게 삶으로 체험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인데 그게 방법 자체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저희도 작년에 그런 시도를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여섯 번의 교육 중에 한번을 실외 교육으로 잡고 그때 무슨 강의를 했었냐하면, 인문교육이라고 했었는데 도림천, 관악구에 대해서, 역사들에 대해서 예전의 삶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들, 그리고 현재의 관악구의 모습들을 짚 놓고 외국인 친구들이 왔을 때 이곳을 가보면 좋겠다. 이 곳에 가보지 않으면 좋겠다는 식의, 그런 이유들이 왜 그런 것이고, 어떤 장소들은 어떻게 조금만 노력을 하면 변화를 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사실 초등학생들이랑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한테 너무 힘든 작업들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은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숲 : 어른들 기준의 사고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교실 하면서 몇 번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었어요.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암만 얘기해도 몰라요. 이거 먹으면 안돼, 저거 먹으면 안돼, 이게 어디에 안 좋아 했는데 마지막 강의에서 그게 많이 깨졌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강의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들보다, 어른들이 오면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다 하고 가잖아요. 보통 교육 방법을 할 때 아이들은 보고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한 번 해 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패스트푸드나 일회용 용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고 간단하게 아는데 어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른들한테 배워오는 것들이고 처음 아이가 한 마디 던졌을 때 어른들이 거의 못 고쳐지는 것들을 통해서 얻어오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방법을 얘기 했을 때 저는 굳이 어른과 아이에 대해서 차별성을 두지 말고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의 주제하고 내용이 연관되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환경연 : 아까 얘기 하셨던 것 중에, 제가 평소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에서 그러셨잖아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환경교육을 접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제 현장 체험 교육이 활성화되고 그런 교육을 선호하는 이유가 불특정 다수도 선택할 수 있는 호감을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현장 체험 교육들이 활성화되고 그 사람들이 한 번 환경이라는 얘기를 듣고, 환경이라는 공간에서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그 다음의 교육들도 만들어 내는 과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가 유아 교육 프로그램도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중학교 교육도, 청소년 교육도, 재량활동 시간에 환경 CA반을 운영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많이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찾아낸다면 아

니면 공무원들 아니면 군인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내용에 포함 시킨다면 대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환경학과나 환경교양강좌의 커리큘럼들을 바꿔주는 것들 그런 제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숲 :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주로 숲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데를 많이 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하고 가족단위로 교육을 하고 큰 교육도 아니고 저희는 강좌 같은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숲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도 답답한 건 뭐냐면 몰라요. 저번에 왔던 것 또 가르쳐줘도 몰라요. 모르니까 이 사람이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자기, 유아들한테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 부모님이 돼야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 먼저 환경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면 아무리 이런 단체에 애들을 보내 봤자 집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저희도 이제 중, 고등학생 자원봉사도 받고 회원들이 같이 있으면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해도 꼭 쓰레기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원봉사하려고 숲에 왔다가도 그런 것 보면 제가 뭐하는 짓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고, 기껏 설명해 놨더니 쓰레기 버리고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은 어쩔수없이 숲에 관한 환경 참여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몰라요. 숲에 대해서 애국가에 나오는 소나무도 구분 못하니까 그런 사람을 데리고 무슨 환경교육을 시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들한테는 부모님이 중요한 게 바로 가정에서부터 환경이라는 부분이 생활 속에서 물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우리 회원들을 데리고 가면은 맨날 같은 얘기를 또 하죠. 모른다고 하니까 큰 테두리의 철학적인 것 보다 우선 철학적인 얘기들이 안고 있어요. 저희 회원들한테는. 40명 중에 1명 빼놓고 나머지는 철학적인 얘기가 안 되는데 이유가 너무 많은 시간을 철학적인 얘기로 잡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숲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그냥 숲이 있으면 자라니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나무가 산

소를 안 내뿜으면 숨을 못 쉬는데 그런 나무가 중요한 것을 알거든요. 그것도 아
 니고, 나뭇잎 잘 자라고 채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니까 어떤 지금까지 해 오면서 환경이나 숲이 왜 중요한지 알리려
 고 하는데, 와서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숲이 좋아서 오는
 건지 아니며 숲을 진짜로 우리가 가꾸고 보살펴야 되는 대상으로 봐야 되는지, 같이
 가는 대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휴식 대상으로, 저희가 아직 그런 부
 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다음에 환경 교육이라고 해서 한번은 유치원 선생님들
 만은 모셔서 교육하는 것을 보면 초등학교 수준이나 유치원교사 수준이나 똑같거든
 요. 초등학생들한테 했던 것을 선생님한테 하면 똑같이, 더 재밌어 하더라구요. 선생
 님이 그리고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모셔서 한 적이 있는데 그 분들은 숲에 가면
 분류학적으로 치우쳐요. 전체적인 테두리를 못 보시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저도 숲에
 가서 숲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생활과 관련이 있었던 건데 어느
 순간 단절이 됐다는 얘기를 해 드리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머
 니 때는 우리 주변에 늘 있었던 것인데 그게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단절되어 버린
 것인데, 환경운동이다 환경교육이다 그래도 유치원 선생님들이 환경을 해 봤어야 시
 키는데 나도 모르는데 무슨 환경교육을 시킵니까. 환경 교육을 얘기 하다보면 다들
 숲을 얘기를 하고 갯벌을 얘기하고 에너지를 얘기하고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 것
 을 봤을 때는 그걸 다 까서 이렇게, 이렇게 보여 놓으면 자기 생활이 중심 안에 있
 는데 왜 그렇게 굳이 고생하는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저도 고민이
 되는 거죠. 다 들춰보면 지구 땅덩어리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왜 단절, 차단할까
 라는 그러한 부분이 고민이 되는 거죠. 철학적인 얘기를 그 안에서 어떻게 풀까

환경운 : 저도 계속 그런 부분의 고민인데 사실은 같은 환경 교육의 내용 중에 하
 나인데 에너지 대안 교육에서 사람을 모집하면 사람들이 안 간다는 말예요. 근데 숲
 체험 교육이다 갯벌 체험 교육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거는 정말

사람들이, 미안해요, 재미라는 것하고 필요성하고 어떻게 접목을, (에너지 대안 센터를 가리키면서) 좀 더 재미있는 요소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선생님 얘기를 모르고 물론 오늘 쓰레기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경교육의 하나로 숲 체험 교육을 하고 나서 얘기하지 않아도 안 버리고가야 하는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버리고 가려고 한단 말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쓰레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육 중에 하나데, 쓰레기 교육은, 우리가 다시 사용하고 쓰레기는 어떻게 하는 교육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안 해도 지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생명의 숲에서 재미라는 현장교육이 행사처럼 하는 체험 교육하고요. 그게 떠나기 전에 잠깐일 수도 있고 아니면 2, 3회 교육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 철학적인 교육이나 이론적인 교육하고 그런 현장 체험 위주의 교육하고 병행해 보면 어떨까요.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Y : 그게요. 단지 현장체험이라고 철학이 안 들어가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서산 Y에서 하는 갯벌 캠프를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담당간사가 왜 갯벌에 대해서 배우러 왔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요.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이 여기에 와서 행동하는 지침을 총체적으로 해 주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단순히 이걸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그 지침 하나, 하나에 대해서 그 철학적인 배경들을 다 설명을 하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그 캠프에서 절대로 갯벌에 있는 생물 하나를 정말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그것 자체를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전체 이 기획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일관되게 그런 철학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도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에는 남는 것은 오로지 하나예요. 뭘 배웠다고 아니고, 정말 갯벌이 소중하구나. 이것을 남겨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숲이라서 안 되고, 어디라서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나 저는 이 참여자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물을 게 아니고 환경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들 스스로한테 자문해보고 우리가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것을 일관된 삶의 형태로 가져갈 때 그것이 전염돼서 오는 사람들이 감동받고 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 베어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받아가는 것이지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서 될 문제다

다지사 :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까 철학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철학적인 부분들은 얘기들을 강의를 통해서 한다고 전혀 더 빨리 까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숲에 한 번 가서 숲이 좋다는 것을 느끼고요. 거기서 체험을 하고 하는 자체가 그것 자체가 훌륭한 교육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때는 숲이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숲에 가서 거기서 자기가 편한 마음이 되고 휴식을 취하고 했던 마음이 나중에 어찌면 그게 운동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 외국에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요. 아주 어린 나이에 자연체험들을 많이 한 아이들이 나중에 지구환경운동에 후원을 한다거나 참여를 하는 게 높다는 것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너무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교육을 하는 목적은 그 사람이 실생활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생태체험이나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비중이 조절이 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너무 치우쳐 있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데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얼마큼 환경 파괴를 하는 것인지, 내가 소비하는 것이 얼마큼의 환경파괴를 하는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어있는 이유가 저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의 환경 단체들이 그런 곳에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었어요. 전체 정책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강사, 환경운동가들이 스스로 생활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평범한 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모르니까 단체에서 주장하고 이슈화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프로그램으로 갖다가 넣으니까 실생활과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환경단체에서 있는 강사는 교수들 아니면 생태현장체험에 있는 사람예요. 두 분류로 나뉘는데 이분들이 생활에 대해서 모르니까 강의를 맡기면 똑같은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맡기면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연구는 이렇게 되고 있고 조류에서는 어떤 경향이고, 어류에서는 어떤 경향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생활에서 써 먹을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주부한테 강의를 맡기면 아니면 생활을 아는 분들한테 맡기면 생활 속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이 뭐, 뭐가 있는데 그게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태아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네가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큰 위험성을 띄고 이게 큰일 나는 짓이다라고, 하면 바로 생활이 바뀌거든요. 환경단체가 여태까지 주제로 삼고 있었던 주제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운동가들이, 우리 너무 모르는 것, 섭외하는 강사들이 같은 주제라도 너무 생활과 떨어지는 강의를 하는 것 등등이 강의 내용이 실생활과 접목되지 못하는 이유들의 몇 가지인 것 같아요.

I :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 숲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갯벌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하나의 환경운동연합에 간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생태기행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저는 숲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처럼 이 나무는 뭐고, 이 나무는 뭐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최소한 생활적인 부분에서 함께 하는 교육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른 워크샵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꽃을 꺾지 마라.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애들이 잠깐 들었다가 잊어버리잖아요.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꽃은 뭐에 비교를 할 수 있을까. 꽃 같은 경우는 생식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꽃잎 같은 경우는 생체에 비유 할 수 있지 않을까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한 번은 제가 잘 못

전달을 했는지 그 친구가 잘 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를 함부로 쓰지를 마라 얘기를 했어요. 1년 동안 하루에 두 장씩 휴지를 쓰면, 15년 뒤면 나무 1 그루가 없어진다. 그랬더니 애가 유치원 8살인데 집에 가서 화장실에 있는 휴지를 다 두 칸씩 잘라 놔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굉장히 오래 간다는 얘기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철학이라는 것들이 거창한 얘기, 식물에 대해서 이 나무는 산소를 얼마를 주고, 한 나무에서 한 시간 동안 생명이 숨쉴 수 있는 공기를 주는 것 보다는 생활에 밀접한 것들에 철학을 담아준다면 생활적인 철학을 담아주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

환경연 : 강사들이 다 바뀌어야 되요. 강사들이 바뀌어야

환경연 :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지도자 교육 문제가 나와요. 제목은 똑같거든요. 000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프로그램이 똑같은데, 강사의 질은 상당히 틀리거든요. 문제소리 엄마들이 체험 교육단이라든지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우리아이 체험 교육을 보냈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고 그러다 보면 애들도 많이 가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연연에 하고 이러면 솔직히 저희도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인력들도 굉장히 부족하고 정말 내년부터는 지도자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이런 부분도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교육하고 계신 분들이 현재 교육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대접도 많이 못 받으시고, 실제로 새로 교육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데 들이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10센치의 모범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런 식의 교육 꺼리들 밖에 없고 주변에서 그런 부분들을 작게라도, 아까 생태 안내자 교육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지도자 교육들을 차근차근 시작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그러다보면 사람 문제가 진짜 중요하다. 활동가들을 보면 제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도림천 : 저희가 이번에 환경교육센터를 안내를 하잖아요. 서울대 환경 협동 과정에 있는 석,박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서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연구하시는 분들이 생긴지 얼마 안 됐어요. 4년. 환경 운동 내에서 환경 교육이 특화되어 나온지 그 정도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분들이 4년이 됐으니까 학문적으로 그분들 스스로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자료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보다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실제로도 현장에서의 교육은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환경교육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의 원칙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공부하고 세미나 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반감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사례 같은 것은 센터에 들어가도 많이 알 수 있어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부분들 고민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지도자 과정 같은 것이 있다면 환경 교육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쥐 가지고 얘기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교육이라는 것은 환경운동하고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도 같고, 한, 두 번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이 와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게 돼요.

정 : 교육하고 운동이 다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 교육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다르다고 보세요?

도림천2 : 제가 생각한 것인데 환경운동이 시작이 됐어도 이슈적인 부분이 많이 시작이 됐었잖아요. 환경운동단체가 있는 가치라든지, 가치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져 왔거든요. 그 중에서 환경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운동 내에서 활동들이 흐름을 만든다고요. 흐름을 만들고 또 환경

운동이 운동이 운동과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처럼 이런 환경교육도 하나의 다시 하나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교육과 만났을 때에 이기 때문에 그냥 교육학자들 말하는 것과 활동가들이 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너무 추상적인 여하튼 이런 모임들을 자주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전국 환경 활동가 워크샵에 이런 환경 교육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토론티방을 하나 달라해서

환경운 : 토론티방을 하나 주겠다고 해서 우리더러 준비를 해서 기획을 해서 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전에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 숙박을 1박 2일로 잡은 것하고 날이 겹친 거예요. 무리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무리해서 두개를 하느니 하나라도 잘 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물론 지도자 교육을 시작해서 저희 교육센터의 내용들이며, 이게 바로 네트워크의 시작이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용을 계속 넣어드리고 여러 분들도 서로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에 보면 일부러 연락처를 메모를 했어요. 서로 아쉬울 때 도움 요청하고 또 필요할 때 손 흔들어 주고 다시 손 흔들어서 답해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락처 남겼고요. 연락을 서로 해서 가지고 그리고 오늘 원하시면 전체적인, 저희는 여러분들이 하는 단체들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정하셔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가하실 분도 계시고 한데 그것들을 저희는 다 취합을 했잖아요.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되고 사실은 이게 다 환경교육을 잘 하자는 모임이 아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저희 워크샵 내용을 넣어 드릴게요. 000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고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서로 단체나 프로그램에 다시 익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모두 오랜 시간 앉아서 서로 얘기 듣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8. 녹취 자료 7 - 미디어 분과 회의

일 시: 2002년, 11월 7일 금요일, 늦은 3시
장 소: 명동 MIZY센터 큰모임터
참 석 자: 강에스더(강: 매비우스 교육부장)
 조희원(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정보문화센터 교육문화팀)
 김병록(김병: 미디어 교육센터 소장)
 김병(김태: 서울청소년 교류센터 '미지')
 문미원(문: 미디어 교육 연구소 소장)
 홍규원(홍: 매비우스)
 정선애(정)
기 록: 강현주, 이지연

강: 확보가 되고 있나요. 좀 알아봐야 되겠죠. 신청을 하게 되면 단체 쪽에서 하게 될 것이고요. 간략하게 여태까지 상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있다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선생님이 얘기를 해 주셔서 흐름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언론 재단과 관련해서 꺼리들이 많지 않을까 해서 그 쪽에서 25억을 어떻게 썼는지 그것은 얘기가 많을 것 같고, 내년에 거기의 내용이 학교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언론 미디어 교육 쪽이 대중화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가

지고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뽑아 놓은 거니
가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 대
상이 얼마큼 차별화 되서 교육이 되도록 있는가. 그래서 어떤 대상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커리큘럼. 교재나 교구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작교육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 다섯 번째 이것은 커리큘럼하고 같이 얘기를
하죠. 제작을 뺀 읽기교육, literacy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
분들을 제가 다섯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 봤거든요. 여기서 빠지는 얘기가 있으면
큰 굵지로 넣야 될 것이 있다면 넣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흐름대로 얘
기를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어떠세요? 뭐 빠진 것 있나요?

: 목적이나 이념 같은 것은 ?

아이, 철학은 어려워서, 3시간 가지고 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까요. 이것만 가지고
도

김병 :몇 주 전에 호주를 갔다 왔는데요. 그 쪽에서 교수들이 왜 미디어 교육을 하
나고 물어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주는 다민족사회래요. 이민을 다 받아
들이고 나서 다민족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런
목적이 있었구나. 우리는 과연 뭔가 그래서 그 때 같이 갔던 선생님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도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소위 홍익인간이라도 있어야 되
지 않을까. 지금 민주시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나
아니면 단순히 미디어를 잘 보는 건강한,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아이의 가치관을 인간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인가 하는 목적이, 오늘 간단히 얘기를

못하시면 그냥 넘어가고요. 그런 것 정도는 앞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 : self expression을 위한 교육 같은데요. 민주시민도 다 좋은데 자기표현이라는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김병 : 거기 호주도 그렇더라고요. 통합하는 수단 중의 하나가 자기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잘하고 표현을 잘하고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말 잘한데요. 이런데 나와도 다 말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런 것도 그렇게, 이렇게 녹아 들어가더라고요. 더 상위개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체 속에서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죠. 여러분 단체가 하는 일은 좋은 미디어 교육을 위한 미디어 교육이 아닌가. 학교 쪽에서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김태 :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송환경, 건강한 미디어 환경 만들기가 하나 있고 운동차원에서의.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자기표현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두 가지들을 저희 단체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각각의 개별적인 것 같아요. 한국의 미디어 교육은 무엇을 지향한다.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은 없지 않나

김병 : 실지 단체마다 표를 정해야 되겠지만 청소년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때 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단체들 나름대로의 목적에 맞게 미디어 교육을 접할 수 있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멀리로 가는 것이 어떨까

김태 : 지금 얘기하신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적은 분명하게 각 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은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 재단 얘기는 여기서 해야 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교육을 하는데 미디어교육을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하느냐가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미디어 교육을 나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죠. 교사한테 주는 라이선스가 분명히 있거든요. 학교에 교사가 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가서 복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단순 생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채워져야 되는 교사를 위한 교육커리큘럼들이나 교사를 어떻게 해서 인증해 낼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낫 것 같죠. 목적하는 부분은 self-expression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두 가지 정도의 교육인 것 같은데 하나는 시청각 교육이나 미디어 literacy라는 한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community function인 것 같아요. 미디어가 현실이 아니고 재현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지금 미디어 교육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강조되어 있는 바는 literacy라고 하는 읽기와 쓰기의 개념인데, 지금 현재는 읽기에 취중 되어 있는 거죠. 쓰기의 개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를 중심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시청각운동이라든가 사회운동과 많은 결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측면으로 다가가면 민주시민교육 양성 이런 것으로 가는 경향성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만큼의 미디어 교육의 한 영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분적인 곳만 볼 수 있는 한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쓰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고른 분배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한 측면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deliver dream이예요. 아이들이 충분히 상상력이 있어서 미디어에 담기는 것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나의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

램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 가를 미디어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교육과정 안에 담겨 가려면 미디어 교육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보면 통합적 문화 교육으로써 미디어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주변에서 나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청소년, 아동과 청소년 다 마찬가지겠지만, 흔히들 얘기하는 삼, 사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내가 생의 주기를 통해서 이뤄가려는 목적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중에서 나는 사회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혹은 내 자신과 어떻게 삼감 관계의 소통을 잘 이루고 있느냐가 미디어 교육에 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과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향 했었던 바는 community function에 너무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하고 교육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혹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을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보호주의적 관점이죠. 너희가 이런 것들을 골라내줘야 하는 것들 그런 보호주의적 관점에 들어가게 되면 무언가를 교사가 가르쳐주는 방식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됐을 경우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와 다채널, 혹은 아주 멀티플한 expression을하고 있는 청소년이 지금 뭔가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이들의 자율까 지금 현재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교실 안에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만나는 아이들의 색깔에서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렇게 된다면 교사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미디어 교육은 어떤 철학을 가져야 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꿈을 실어주고 자기표현을 하는 수단과 방법을 제안해 주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조 : 지금은 말씀하신 것 중에 미디어가 아니고 교육이라고 붙이면 그 교육에 대상에 대한 것이 분명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교육을 받는 그 대상에 대한 지금까지 충분히 미디어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하면서 얼마만큼 고민을 했었고 학습자의 능력이나, 이제서 자기표현능력이 화두가 되고 있

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미디어의 타겟이 되기도 하겠죠. 미디어의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그 아이들이 타겟이 되죠

문 : 학교에 당장 미디어 교육이 된다면 윤리교육이나 도덕 교육으로 갈 것이다. 자기표현의 신장으로 가지를 앎고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윤리 교육 이런 식으로 에티켓지킴이 사이버상에서. 그런 기본적인 교육적으로 가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게 전체의 큰 흐름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전체가 아닌데, 아마도 교과서를 만들면 그게 전체가 될 거예요. 일반적이 부분적인 부분이, 그래서 그게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 : 보통 얘기를 할 때 그런 미디어 교육의 교재가 (쫓어짐)

문 : 저희 언론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하는데 언론 단체에 연결된 사람들은 다 모였더라고요. 선생님 한 분은 하고 나뉘어서 갔어요. 결론이 뭐냐 하면은 언론 학회에서 미디어 교육을 접수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하는 단체들이 했던 것을 알지만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될 때가 왔다. 많이 우리가 화두로,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이 화두로 대두가 되니까 우리가 접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여태까지의 교재를 다 모아서 그게 결론 이었고 에프터에 간 자리도 그게 결론이 나왔잖아요. 바꿀 사람처럼 될 것 같더라고요. 교재 개발을 해서 학교로 들어간다든지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홍: 교사가 중요한 이유가 교사가 학생들은 만나잖아요. 교육 참여자를 만나는데, 교사가 교육 참여자를 만났을 때 정해진 틀로 가겠지만 대상을 만났을 때 방향을 전환하고 수정해 가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느꼈던 것은 신호 중학교의 사

레에서 학생이 느꼈던 것인데요. 15명의 아이였지만 각각의 아이들이 다 달라요. 그 아이들을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 신호 중학교 교육은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제작 교육이어서, 제작 교육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15명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교사의 성향에 맞는 교육대상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시간에 카메라 교육이 있었는데 카메라를 가지고 영상시를 만드는 교육을 했었어요. 아이들이 보는 중학생들이 어떤 시를 배우고 있는지를 사이트 조사를 해 봤더니 다양한 시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김지하의 시를 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 친구가 있는 모듬한테 그 시를 줬어요. 제 성향이 그 친구와 맞았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줬더니 반응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미디어 교육은 여러 미디어 교육이 있을 것 같아요. 사회교육 차원에서의 미디어 교육이나 자기표현을 위한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것도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미디어 교육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각각 생활환경이나 삶의 환경이 다른데 그 환경들이 주는 그 친구들의 청소년이라는 선택되지 않은 조건들의 한계를 확장시킬 수 있고 교사가 할 수 있다면 어떤가 하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김지하의 시를 줬을 때 그 친구는 김지하의 시를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literacy를 한다는 거죠. 문자와영상이라는 것이 글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인데 그런데 그 시를 읽기를 하지만 영상으로 제대로 표현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이미 지 작업하고 영상을 담아오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지만 읽기 하는 부분에서는 그 친구들의 생각을 끄집어냈고,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어떻게 보면 교사도 학생들하고 일방적인 게 아니다 보면 학생들이 나한테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학생들을 원하는 것이 있으면 커뮤니케이션 하는 단계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점이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사와 대상이 중요하면서도 교사가 학생들을 파악을 했을 때 과연 명확하게 가야할 부분도 있지 않은가 너무 교육이 자유롭게 가야할 경우에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 : 제가 미디어 교육을 받으면서는 너무 목적 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디어 교육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분 성격상. 학생들이 나중에는 왜 매번 결과가 있어야 하는가하는 불만이 터져 나왔죠. 선생님 빼고 하자고, 대학원생들이 실습하는 시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꼭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평가라고 하잖아요. 미디어 교육 평가라고 하잖아요. 평가가 참 애매한데 참여도가 누가 얼마큼 열심히 했느냐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는. 그게 과연 수치화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점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제작한 것을 조별로 발표를 하잖아요. 자기 조를 포함해서 혹은 빼고 점수를 내더라고요. 아주 세밀하게 기술은 어땠는지 음향은 어땠는지, 소리는 어땠는지, 샷은 어땠는지 흔들림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하더라고요. 물론 자기네 것을 많이 높이려고 하지만 아이들이니까

김병 : 다시 나와서 제 얘기로 돌아가면, 김래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어교육 쪽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쪽 선생님들하고 활발히 잡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literacy가 읽고 쓰기라고 기본적인 표현하는 것을 다 포함하니까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괴로운 것들이 그쪽 선생님들이 상업성하고 결부가 돼가지고 제가 원고를 썼는데 저작권 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될 내용이고요. 자기표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결합하고 기본적인 미디어 읽기는 미디어 과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따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판단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우리 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는 미디어의 기본적인 읽기 선생님들이 여태까지 해 왔던 시정각은 한 과목을 넣고 표현부분에서는 국어 쪽에서 수용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어 선생님들이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분들도 계속 카메라를 들고 찍고 표현하고 하시니까 저는 그런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강 : 사실 이 자리에 국어 선생님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싶었는데 모시지 못한 한계점이 있는데 국어 교사모임에서의 미디어 교육이 어떤 것인지는 좀 더 얘기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까딱 잘 못하면 미디어를 활용하는 쪽으로의 교육하고 미디어 자체에 대한 교육하고 헛갈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병 : 지금 헛갈리고 계세요.

강 :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교육이 미디어 교육이다라고 볼 수 없다는

김병 : 당연하죠, 여태까지 안 해봤던 부분이니까. 이 분들도 수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그거랑 결합을 시키려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은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행복한 동화를 갖고 교재를 만들었는데 KBS미디어와 같이 해 가지고 돈 십 몇 만원씩 해 가지고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행복한 동화가 좋은 것이라고 무료로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즐거운 학교에서도 교재를 만들어서 무상으로 배포해야지 이렇게 팔아서 그건 앞으로 모든 미디어 교육하는 영상물은 그렇게 다 돈을 내야 되는 우리는 굉장히 앞으로 저작권이 핵심인데

김태 : 저희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학교의 교과과정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제가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인데 국어교사하고 미술 교사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과 과정하

고 가장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미디어 교육이 진행되는 것으로 혹은 정형화된다는 것은 그 안에 복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정형화되고 나름대로 체계를 갖는다는 게 과연 미디어 교육에서 지향해야 하는 바 것인지는 저는 거기에는 케이스천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진행돼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사회교육으로써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가시고 제신 도서관세트를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 학교에서 하는 것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한계가 있거든요. 국어 선생님이 아무리 거기서 열심히 한다고해도 절대 거기서 나오는 것은 미디어 교육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과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의 측면을 선생님은 가장 많이 욕심을 내는 거죠. 제가 꼬박 이틀 동안 강의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마지막으로 이런 마인드를 심어가지고 가져가는 것처럼 그러지만 그 영상물 하나만 복사해 주십시오 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잘 본 다음에 내가 잘 이해한 영상물을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눌 것을 searching 하시기를 제가 이틀 동안 강의를 했는데 끝난 다음에 어제 쓰신 그 영상물을 복사해 주세요가 첫 번째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틀은 우리가 깨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보다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사회 교육 안에서 도대체 미디어 교육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방향은 무엇인가를 볼 때 저는 균형적인 발전을 가지고 미디어 literacy라고 이야기 하는 혹은 시청자 교육이라든가 미디어 교육이라든가 모니터 교육은 한축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것이 쓰러지면 그것을 요구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제작 교육이라든가 아주 실질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의 도구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내가 만든 미디어를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냐면 상업미디어의 속성을 아이들이 읽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오버랩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교육에서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향성이 학교교육과는 전혀

다른 도달점들을 가질 것인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 : 저는 자연스럽게 얘기가 대상의 차별화나 이런 것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어선생님의 모임에 가면 비슷한 얘기죠. 그거 그대로 줄 수 없나 하는 아주 갑갑하면서 그런 게 있는데 일단 대상 층이, 지금의 우리가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제는 여기서 하는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에서의 대상층도 얼마만큼 퍼져나가고 있는가. 아까 얘기로 보면 사실 지도자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육이 돼야지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것도 하나의 대상층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학부모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면 지금 각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청소년 쪽에서의 얘기도 있을 것 같고 선생님은 또

문 : 초등학생이 되는 영상 미디어 센터를 다녀오신 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현재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얼마나 되는지 있었는데 그것 좀, (작은 소동)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정규 교육과정으로 들어가는 데가 영국 밖에 없잖아요. (예) 호주 같은 경우에도 독립 국가기 때문에

김태 : 매스 미디어 교육예요.

김병 : 매스 미디어 교육이 아니고요. 통합 교육이더라고요. 문화 미술 통합 교육예요. 음악 선생님 미디어 교육도 하고 미술 선생님 미디어 교육도 하고 고등학교 되니까 그때 가서 독립이 돼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는 전부 다 통합 교과로 가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각 학교마다 자율적예요. 교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선생이 하고 싶으면 하고 교사에 대한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줬더라고요.

김태 : 어차피 교수 설계의 주체는 물론 대상자로부터 나오는 욕구에 대한 수용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게 설계 안에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수 설계를 할 때 교사가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는 국정교과서 뭐, 뭐, 뭐 선택할 수 있는 것 뭐, 뭐, 뭐 그 이외의 것을 이야기하면 마치 교사의 자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고

조 : 틀안의 것 그대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밥숟가락으로 떠서 넣어주기를 바라는 측면 그게 학년이 어릴수록 더 그렇고 저는 교재를 만들면서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게 이제 이해가 가요 어떤 면에서는, 학교 조직과 학교 조직에서 교사의 역할과 그 교사가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가르친다는 것 이외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이 미디어를 교사가 원하는, 교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법이나 교육의 형태로 모형을 만들어서 갖다대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과 교사 자체의 마인드가 열려있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재를 개발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냐, 어떤 틀 안에 넣는, 교재라고 하면 그 교재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얼마만큼 학교라는 조직이 수용해 가능하게끔 만들어 가느냐.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재가 나오든 간에 항상 단서를 달잖아요. 저희도 그렇고 선생님도 어디서 강의를 하시던 저희도 하는 데 '이거 그대로 갖다가 쓰지 마라' '가져다가 써도 안 된다.' 이것은 자기 언어로, 자기화 시켜서, 자기가 만나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안 되잖아

요. 그거를 하기 보다는 '저는 안 되는데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여기는 뭐가 세팅이 안 돼서 이런 식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는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 내지는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얘기가 다시 돌아가는데, 교육의 대상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에 대한 홍선생님이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저는 지금 문득 든 생각이 청소년이나 학부모 누구나가 될 수 있지만, 재교육이나 교사 나가야 될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별로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문: 교사 자체의 마인드가 인생 자체의 중심 마인드와 얼마나 접목이 되어 있는가가 영상으로 바꾼다는 틀을 깨야 되요.

강: 아니 저는요. 영상으로 바뀌야 한다는 꼭 틀을 깨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만큼

문: 공존하죠. 근데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지. 물론 공존할 수 있죠.

강: 인정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잠깐만요 선생님 얘기 들어보고, 프리즘에서 작업을 하고 사전 토론회를 다녀왔고 그 이후에 본 토론회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 그것 얘기를 하면서 유형별로 나뉘더니 어떻게 하더라는 얘기를 좀 그 300페이지짜리를 만드느라고 고생을 한 것 같은데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홍: 그 때는 의외로 미디어 교육의 의미를 둔 것의 단위가 폭 넓게 잡았어요. 특히하게 잡았던 것은 독립영화, 이 전의 언론 단체에서도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이고 프로그램을 인정을 했었고 새롭게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움직임들이 독립영화 제

작하고 노동단체, 노조에서 영상 교육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지방에서는 그 노조에서 교육을 받던 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쳐요. 워낙 지방일 경우에는 그런 교사들, 그런 환경들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노조에, 돈을 가지고 있는 노조와 기자재를 가지고 있는 노조에서, 들은 애긴데 서울 예전 학교를 간다고 해서 그 학생들 입시 포트폴리오 까지 만들어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진학을 시켰다고 하면서 그런 문체점들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또 들어갔던 부분은 청소년 문화단체에서도 90년대 이후에 2000년도에 많이 들어 왔던 부분들이거든요. 청소년 문화단체에서 했던 것들 다들, 주체를 나눴더니 12개의 주체로 나뉘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분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징은 그거였거든요. 앞에서 얘기 했던 것과 합해서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다 합하면 백 몇 개의 주체들이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미디어 교육이라고 하는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생각나는 것은 시설학원까지 했거든요. 왜 시설학원에 왜 의미를 뒀냐면 VJ 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학생들을 길러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업료이나 내용을 보면 이건 분명히 미디어 교육이었거든요. 강사가 들어가서 어떤 강의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표방하고 있는 것은 미디어 교육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입시도 있었고 입시가 아니 다른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로 미디어교육에 접근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폭 넓게 보면, 느슨하게 미디어교육을 보면 거기까지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는데

김병 : 신문 방송학과 같은 것은

홍 : 정규 제도권 속에서의 교육은 넣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조사 방법들이 웹사이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었거든요.

김병 : 미디어 교육학과가 설정된 학교가 있잖아요.

문 : 학교마다 미디어 교육을 하는 것이 있어요.

강 :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올 초에 김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교육 중에 미디어의 어떤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그래서 또,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정리될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백여 가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미디어 교육의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개념들이 각자에 맞게 해석을 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 얘기하고 (김태황) 선생님이 청소년 쪽이나 대안 교육 쪽이나 그런 얘기들을 같이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대안 교육 센터에 있는 분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리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선생님이 대신해서 수업하고 계시니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태 : 선생님 다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쪽에 하나는 청소년 단체 쪽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미디어 교육 쪽에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사회복지관과 청소년 회관과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자그맣게 가지고 있는 청소년 단체들에서 미디어 교육이라는 쪽지를 가지지 않은 곳은 내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병 : 임의 단체가 몇 개나 돼요?

김태 : 임의 단체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죠.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은 17개의 청소년 단체는 있고요. 조립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치면 훨씬 더 많고 문화의 집은 훨씬 더 많이 있죠. 한 30여개가 넘는 문화의 집들이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여

기 센터문을 다 열게 돼 있고 월요일에 휴관을 하는 날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세팅자들의 시간적 배려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고. 청소년 단체나 사회 복지 단체에서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강한 approach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 청소년을 만날 때 문자적 소통으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과 아동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합의를 더 찾은 것이 미디어 교육, 혹은 영상 교육일 수도 있어요. 영상 교육을 포함한 대부분이 많은 영상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한 미디어 교육을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에서도 참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감은 많이 잡고 있지 못한 형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안 교육을 하고 있는 대안 학교에서도 각종 미디어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쪽은 두 군데의 대안교육을 맡고 있는데 한군데는 어떻게 하다가 못하게 됐고, 한 쪽은 다른 한 쪽은 맡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공교육시스템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결정적 배경이 됐던 것이 문자 literacy의 개념이 모든 아이들의 소통을 좌우한다. 근데 학교를 한 걸음만 벗어나왔을 때 아이들이 적응하는 정보는 절대 문자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교육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두 가지 측면이 같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는 비평 능력예요. 이것은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미디어를 어떻게 내 언어로 자기 언어로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두 가지 문제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쪽에서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사회복지 쪽에서는 이 미디어에는 관심도 없었던 분야였었는데 갑자기 붐이 확 일어났어요. 촉발이 됐던 몇 가지 계기들이 있었는데 각종 사회 복지사들이 모이는 대회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모이는 강좌나 이런 곳에 미디어를 하는 사람들이 가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촉발이 되기

시작했고 복지관과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단체에서 미디어를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현재는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도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틀은 아니고 현재 대상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무엇인가에서 출발한 것이 미디어 교육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현재 얼마나 중요한 function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당성은 충분히 있고 우리가 이런 논의를 통해서 미디어 교육의 합의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필요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체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언론운동단체 쪽에서도 같이 세미나도 열고 하니까

그러한 움직임들이 기계를 전반적인 방향들이 사회단체 쪽에서 지향하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개 신문방송학적으로만 접근할 데만 있을 때는 굉장히 갑갑했거든요.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데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기회가. 그냥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 쪽이라든지, 언론 쪽이라든지 방송, 영상, 국어교육 이런 청소년 심리, 교육학 이런 쪽도 만나가지고 한꺼번에 이뤄낼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장이 바로 청소년 단체 쪽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 : 대상 층을 보면 청소년층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인도 어떻게 보면 돼요. 평생교육이니 카메라를 든 노동자 해가지고 어른이 됐던 뭐 됐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 쪽이나 유아 쪽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런 쪽 부분에 대한 교육이 사실은 별로 없다는 뉘비우스, 이번에 하고 있는데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인데 그런 쪽 부분에 대한 미디어 교육이 학교를 미취학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교육 중에 하나가 유치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겠다. 근데 이게 문제는 유치원 쪽에서는 돈이 되지 않은 교육은 안 한다. (하기는 해요) 일단 미디어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비디오를

틀어놓는 것이 많거나 아니면 저도 개인적으로 유치원에 가서 교육을 하기는 하거든요. 지금. 그런 쪽은 아직 불모지가 아닌가 생각이라는 거죠. 유치원 선생님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선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비디오클립을 많이 보여 주거든요. 교육적 차원이 아니라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해설적 차원도 없고 어떤 유형의 것을 보여 줄 것이라는 고민도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있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하고 또 하나가 요즘 엄마들이 공동 육아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도 지금 무료교육을 해가지고 공동육아를 하는 쪽으로 퇴비에서 강의를 앞으로 나갈 예정인데 그런 쪽에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나 아니면 방법이나 루트들을 조금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이 청소년이나 학교교육 아니면 탈학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청소년 대상층이 아니라 좀 더 폭이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대상 층에 대한 폭이 아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고 직업, 직종별로도 이제는 미디어 교육을 빼놓고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미디어 교육을 안 하고 다른 교육을 하다가 도태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안 따라 주는 거예요. 훈련이 없거나 아니면 감각이 없거나. 그런데 이제 도태되고 싶지는 않고 아이들은 만나야 되고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직종별로 아니면 연령별로 이런 모임들에서 할 수 있는 넓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청소년들이 관심이 있다고 해서 이것만 갖고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대상층에 대한 얘기는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조 :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한 시기, 어느 한 토막만 해놓고 앞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시기만으로 만든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교육과정 하나의 학문으로써 대학에서 가르치는 이런 나라에 정책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전대상층을 고려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생각을 해요. 도대체 지금까지 이러,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서 어떤 대상으로 해서 그 대상에 맞는 특성의 미디어 교육이 뭔가를 정립을 해야지 그게 하나의 일률적이고 연속적인 커리큘럼으로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이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이 커리큘럼을 어느 한 대상을 놓고 만든다면 그 차후에 교육을 받고 난 이후의 평가와 그 교육 받은 대상들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를 한다면 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교육을 받은 전시기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나의 과정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청소년들이 많은 부분들, 개네들이 청소년 시기가 오기 그 이전에 어떤 환경에서 있었냐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죠.

김태 :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청소년이고, 제가 자주 만나는 것도 청소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유아와 유아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한 function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의 숲 도서관 같은 데가 정말 기능을 잘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어디선가 무언가 펀드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데가 있다면 지역사회에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 유아와 어린이를 포함한 영아는 아니고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프로그램에 많은 지원들을 지역사회 안에 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대 사회 미디어가 분명히 사람들은 한 군데로 몰아놓는 기능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매스 미디어가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는 폐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는 같은 사람과 여러 명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근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얼굴과 똑같은 색깔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일종의 폐해라고 본다면 지역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 그 사람들 자기만의 독특한 미디어를 표현하고 만나는 방식을 가질 수 있다고

김병 : 작년에 교육교사회라고 거기하고 같이 해 가지고 20여 군대를 나갔었거든요. 학부모교육을 서울시에 짝 했었고 지금도 학부모교육은 꾸준히 요청이 들어와요. 일산의 한 도서관 작품을 출품을 했는데 민오련에서 했던 연간 페스티벌에 나온 상을 받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청소년 단체보다는 못 미치는데 많이 안타깝죠. 그런 데를 지원하는 데는 아무도 없고 내년에 도서관 지원이 지자체에서 다 잘렸어요. 일산에 10개의 도서관이 있거든요. 천만원씩 올려서 지자체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미디어 교육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전반적인 것도 다 하는 거죠. 스타트라든가. 거기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같이 시의원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분이 안 돼서 내년에도 어렵게 꾸려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식이죠. 언론 재단 쪽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게 얘기를 해 봤는데 그것도 내년이 가 봐야 되고. 그런 쪽은 대부분 학교 쪽으로 많이 나가니까 청소년단체나 이런 쪽은 선택이 없으니까 그러 얘기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린이나 유아 쪽은 몇 번 나가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얘기도 그래서 커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꾸준히 만든 게 이번에 결과가 나왔고 그걸 갖고 내년에 일산 쪽을 하려고 해요. 다는 못하지만 10도서관을 돌아가면서 하고 각 도서관마다 미디어교육을 하긴 해요. 영화보기, 신문 만들기 이런 건 다하는데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여럿이 함께도 있고요. 신문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 기자단도 아이들 많이 있고 우리 쪽도 제가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영화보기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산은 굉장히 활발하게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역시 돈이겠죠.

강 : 그럼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고 10분만 쉬도록 하죠.

아까 선생님 말씀 하셨지만 우리가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가 되게 버벅거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이제 단계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바램은 돈 많은 데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그 대상층이라고 하면 그런 게 좀더 깊이 있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욕심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을 충족할 만한 것도 없고 항상 초급 같으니까 했던 사람들은 다 들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대상도 좋지만 나가고자하는 사람들, 하고자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른 주제를 제가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약간 뛰는 것 같기도 한데 제작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들 제작을 안 하고는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제작교육은 다 한 번씩은 해보시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시고 여러 가지 형태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여러 현장에 나가시고 계시는 홍 선생님이시거든요. 그와 덧붙여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기자채사용, 기자채사용이 관건 중에 하나예요. 기자채가 누구나 다 풍요롭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자채 사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고 하면서의 어려운 점, 그리고 기자채들은 어떤 식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지 그런 쪽의 얘기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 : 최근에 제작교육을 했었던 것은 4가지 사례거든요. 첫 번째는 신원중학교를 대상으로 제작교육을 했었고. 하고 있고 11월말에 한 번 남아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신원중학교는 교육이 끝나고요. 하나는 부천 실업고등학교라고 그 친구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청소년 노동자예요. 그 친구들 케이스는 학생들은 사회의 소외계층이면서 미디어는 더더욱 소외계층예요. 그 친구들하고 제작교육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성공회학교 조교로 일하면서 그 조교 자리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기자채

를 쓸 수 있게 그 친구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강사 수준의 교육이 아니라 기자재를 기초적으로 쓸 수 있는 교육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특화 대학생들 데이터 촬영 워크샵이라고 해서 대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하나는 에스더 선생님의 소개로 신화문화센터라고 생긴 데가 첫 사업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영상 편지를 쓰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영상편지, 장기 입원환자를 위한 영상 편지 이런 제작 활동 프로그램에서 기초촬영을 하는 것을 가르쳤었거든요. 4가지 사례에서 가장 큰 문제점 기자재가 가장 컸었는데, 거기서 공통으로 중요하게 된 게 근처에 이런 청소년 문화 센터들도 많고 기자재들도 널려있어요. 센터도 센터의 입장이 있는데 그런 기자재들이 오픈이 안 돼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집이나 문화의 집의 운영의 문제를 잡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하고 연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기자재를 가지고 거의 구걸하다시피 다녀야 되는 아니면 인맥, 조금 이렇게 근데 이것도 나중에는 서로가 좋은 결과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자재를 쓰는 데 그런 것은 분명히 센터나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과 복잡하게 연관을 맺어야 된다. 영상 제작교육을 할 때에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건 특히 학교 교육일 때는 더 그래요. 학교 교육일 때는 더 받아드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해결할 부분이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런 매개할 수 있는 매개체만 있으면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작교육, literacy교육을 하면서 이전에 기술에 치우치는 교육을 할 경우에는 폐해는 엄청난 것이고 그 교육을 참여자들에게 교육과정을 통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진로가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은 평가 되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분명히 지적되고 있거든요. 제작교육에서 가진, 미디어 교육에서 최종의 단계이고 발전된 단계이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다 통합으로 읽거나 쓰기 같은 교육은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 커리들이 대부분 독립 영화 제작했던 사람이나 영화제작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왜냐하면 제작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없기 때문에 기술들이 전문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제작교육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제작도 문제이지만 그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커리 자체도 문제인 거예요. 그런 접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실제 저도 하고 있지만 제가 하고 있지 않은 것도 다시 점검하는 것도 문젠데 제가 하고 있는 개인적인 사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가지 기자재, 기자재 문제이면서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교사를 가르치는 강사의 문제도 그 부분의 커리나 그 부분도 이전에 영화를 전문으로 제작했던 교사나 강사의 커리에서 만들어지는 더 이상 교육에서 실시가 되면 안 된다는 것 2가지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강 :저는 기자재 문제만은 쉽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에서 단체 개별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후원을 받거나 이것도 있지만 그것 하나만 갖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타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기자재를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 미디어를 그렇게 해 보고 싶었지만 개인적으로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홍선생님이 말씀하신 신원중학교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나가는 사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단 센터 것이라고 하면 애들 손에 가면 고장 날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안 빌려주는 것도 있고 사실 기계는 고장나라고 있고 애들을 자꾸 만져봐야지 자기 손에 익혀지는 건데 그게 안 되고 그렇다고 미디어센터 가서 빌리자니 너무나 엄청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한계점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쉽게 기자재를 빌려주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스스로 넷이나 미디어센터도 있지만, 미디어에서 자유롭게 기계가 나가나요? 안 그렇죠. 스스로 넷은 어떤 것 같아요?

조 : 저희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자유롭게 대여가 된다는 개념은 거기에서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카메라를 자유롭게 쓰더라고요. 아카데미에서 무슨 과정을 하나 이수하고 동아리 활동형식으로 내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편집실 같은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일반 성인은 시간당 1만 5천원이고, 학생은 그 절반 7천 5백원으로 해서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조금 더 서비스차원에서 오픈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게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외부에서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들, 그 파트는 제 파트는 아닌데 그런 논의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어요. 편집실 사용 같은 것은 밖의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런 것 같고요.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기자재를 왔다 갔다 사용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소모품으로 있으니까 작게는 선 하나 크게는 도난의 문제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난 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담당을 하고 있는 교사가 책임을 진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아니면 실제로 직원의 책임으로 봐서 퇴직할 때 퇴직금에서 깎다거나 그러니 만약에 몇 억씩 하는 ENG카메라나 그런 경우에는 참 힘들잖아요. 교사들이 따라 가거나 늘 교사가 증노동을 하다시피 아이들 촬영현장에는 다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 스트레스더라고요.

문 : 대학원에서 실습하는 애들도 갖고 나갔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러 갔는데 60만원인가를 제가 냈어요.

강 :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6미리 카메라 말고라도 일반카메라. 사진기라고 해도 사실은 그걸 구할 때가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정선생님이랑 잠깐 만났는데 그 분 같은 경우도 다른데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사진기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없어서 아이들 교육

을 안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카메라를 다 자기 돈으로 사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하면, 그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아주 빈곤한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매체경험이나 매체교육을 김선생님의 글을 보면 건강한 매체의 경험이 건강한 아이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비슷하네요) 일단 제 글이 아니라, 건강한 매체를 경험을 하거나 매체를 가지고 놀아야지 시스템에서 더 알고 싶어서 앞부분으로 넘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literacy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된다.

조 : 저희 센터에서는 이번에 디지털사진이라는 과목을 열었는데 전화가 온데요. 디지털 카메라가 없는 데 수강이 가능하나 그런 문의들이 와 가지고 내년에는 그 카메라가 없어도 일정 부분 구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가려고 외부에서도 들어와서 해 볼 수 있게 이게 어느 정도 센터의 기준과 방향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이면서도 누군가는 중심이 돼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 : 근데 제가 미디 센터의 장비교육을 해요. 장비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자의 에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내부의 협력 동아리이거나 외부의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분들은 빌려줘요. 이것은 오프더레코드로 했으면 좋겠는데 몰래 몰래 빼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저는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빼줄 수는 없어요. 작년에 협력 동아리 중의 한 아이가 카메라를 가지고 나갔다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그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느냐. 분명히 우리는 카메라를 빌려줄 때 대여와 관련된 것들을 쓰거든요. 써 가지고 나가요. 근데 파손 및 분실, 보관 이럴 때는 원래 나갔던 상태로 가지고 와라 이런 건데 애들이 나가서 잃어버리고 한 게 아니라 도둑맞은 거예요. 그 걸 물어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카메라를 우리가 사용하는 게 그때 pd100하고

trg900을 쓰는데 250~300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걸 물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메워 넣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건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애들이 물어낼 수 있는 힘은 전혀 없고 그런다고 해서 장비를 빌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협력동아리 아이들한테 카메라를 계속 대여 해주거든요. 매일 불안하죠. 저는 24시간이 불안해요.

조 : 저도 무슨 방송 제작 수업이 있다고 하면, 제가 교육담당인데 저도 너무 불안해요 카메라가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봐 가지도 못하고 이게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미디어 교육에서 제작이 필요하다라고 막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하나, 하나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책임의 문제, 절차의 문제 교육 기자재의 문제, 사용 매너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문제이지만 이런 게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지까지 기자재가 없다는 기자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얘기만 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김태 : 그리고 장비 사용에 관해 얘기를 더 드리면 미디 센터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청소년은 편집실 이용이 한 시간에 천원예요. 굉장히 싼 거예요. 10시간을 해도 만원내고 가는 거예요. 저희가 편집실은 한 시간에 천원이고, 성인은 5천원예요. 한 시간에, 5배죠. 근데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용을 하시냐면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아이들이 편집을 하는 걸 뒤에 가서 봐 주면 그거는 1천원을 받는 거예요. 어른이 어른 작업을 하러 오는 것이면 5천원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회원일 경우에는 우리 내부단체인 사람들, 협력동아리 6개하고 컨소시엄 3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 센터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거의 무료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쓰실 때는 5천원도 부담이 되실 때가 있어요. 편집을 이틀 삼일 넘어가다 보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예

그걸 조정해서, 청소년들이 1천원은 너무 싸다는 생각을 애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2천원으로 내년부터 조정을 해요. 보통은 몇 만원씩 하죠. 미디 센터는 많이 싼 거예요. 그래서 이용률이 좀 더 높은 편이죠. 근데 장비를 여러 사람들이 마구 다루다 보니까 자꾸 고장이 나서

조 : 고장이 많이 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편집실 같은 경우는

김태 : 근게 그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맨날 앉아가지고 애들한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카메라는 컴퓨터가 켜다가 들어와야 연동이 들어오는 건데 너네 이거 몰랐구나 그걸 해주는 게 너무 힘들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월급 받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액터에 있는 사람이 그것 해 주려고 월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하잖아요.)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센터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서 돈 받고 일하는 건데 그런 걸 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마치 내가 시설관리를 하러 온 사람 같고 막 대하고 이런 것은 있어요. 상처받고 이런데 내가 미디어 교육간지 뭐하는 사람인 하기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일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거든요.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촉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병 : 방송국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목동인가 상암동인가에 방송미디어 교육센터를 만들거든요. 거기에 있는 주제 하난가 방송장비대여인데 조금 두고 보세요. 어떻게 그게 이뤄질지는 저도 아직 모르는데 예산이 있거든요. 지역은 지역 사무소에서 한다고 알고 있고요. 개인은 방송위원회에서 상암동에

강 :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미디어 교육이 나가는 속도하고 미디어가 발전하는 속도하고 우리 한국인들의 삶의 지각은 굉장히 속도차이가 많이 나는데 매

체가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은 그것을 쫓아가지 못한
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작교육을 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할 것 같고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것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카메라도. 그런데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김태 :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매체가 없으면 매체교육을 할
수 없을 것인가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사진교육을 하면 일회용 카메라를 가지고도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안적
매체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없으면 거울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원하신다면 8미리 카메라 같은 것은 사실, 대한민국에 장롱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거
든요. 장롱 속에 있는 것만 가져와도 굉장히 재미있는 매체교육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미니 DVD 6미리 카메라를 사용 하면 깔끔한 영상을 얻을
수 있지만 교육 안에 담기는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사회의 풍토가 테스크 중심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프로세서를
정확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교육방법론을 가지고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사용되는 매체는 올드 미디어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똑같은 바이브레이션을 한다라는
거죠.

조 : 지금까지 제가 제작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성향을 보면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교사의 성향들이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
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강 : 얘기가 자연스럽게 교육 내용이나 방법으로 흐른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도 천호동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아이들이 카메라에 대

한 호기심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사진이 없으면 카메라가 없으면 우리는 사진반 교육을 기존에 나와 있던 어떤 그림이나 자기가 가져온 사진이나 포스터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재밌거든요. 또 아이들에게 접목시켰을 때 아이들이 우리처럼 이해를 하느냐 라는 문제가 또 있다는 거죠. 물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울이나 이거는 아직 사용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아이들이 자기들이 만족하는 매체가 분명히 있는 거죠. 방송을 볼 때 광고를 굉장히 많이 봤고 한 번쯤 만져보고 싶고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이런 욕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하고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켜볼 것이냐. 이런 것이 현장 교사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제작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 : 아이들이 일단은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매체에 대한 호기심 부분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기다려야 되는 그 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매체의 언어를 이해를 해야 되지.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나 차원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의 특성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들고 찍어보자는 그것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걸 통해서 무엇을 나타낼 것이라는 메시지 부분에서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문 : 나도 뭐가 옳은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카메라를 쥐어줘서 하자고 OO선생님이 그 분은 거기에는 ENG카메라도 있고 스튜디오도 있고 편집기도 있고 다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다 아시거든요. 사진도 하고 영화도 하고 대단하게 하시던데 그 분들은 그래요. 그냥 쥐어 주면 어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의 얘기가 아니고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 : 그러니까 시작을, 접근을 아이들이 찍어서 다룰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절차를 가르쳐주고 나서 이것은 이렇게 다뤄야 된다고 해서 끝을 맺을 것이냐에 따라

서, 저는 그런 결과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 보고 싶어요. 만약에 교육 목표가 동일하다고 하면은 접근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물들이 나왔냐.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이나 히스토리나 그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한 번 다뤄보면 하나의 미디어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

김태 : 저희가 제작 교육을 할 때 커리큘럼을 만들잖아요. 지금 아이들에 대한, 대상에 대한 assessment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기본성향은 어떤가, 글쓰기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글쓰기가 안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기획안부터 만들라고 하면 기획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글쓰기가 잘 되는 아이들한테 기획안을 안 만들고 하라고 그러면 뭔가 빠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assessment가 정확히 들어 있어야 하고 너무 매체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먼저 짚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찍어봤더니 나는 멀미나 이래서 나는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하는 방식인데 내가 사정되어진 또 하나의 부류의 아이들을 보면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먼저 들고 찍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내가 무엇을 찍을지에 대한 정확하게 가져야만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집단의 특수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 집단 활동을 정확하게 감지해 내고 그룹 심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 : 제가 부장님께 4가지고 보내드린 것이 제 생각을 보냈는데 도대체 아이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 교육을 받고난 이후에, 아니면 한 찬 지난 후에 어떤 생각들이 아이들한테 남아있을까 우리가 영화를 보고나면 그 영상이 우리들의 감정 속에 두고, 두고 남아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인생기간에서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받았든 아니면 노는 것처럼 그것을 받

있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어떤 생각들이 아이들한테 남아있고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천호동 아이들을 방부장님과 같이 수업을 해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평가도 해 봐야 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나씩 해보면서 미디어 교육에 대한 평가 도구가 생길 것 같고 어떤 기준점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강 : 어떻게 보면 김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어떤 아이들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순서로 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좋고 선생님이 얘기 해 주신 부분도 좋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은 지금까지 되비에서 했던 방법은 저거였어요. 카메라를 나중에 쥐어 주는 방법이었어요. 아이들이 앞부분을 몸부림을 치면서 싫어하더라고요. 그것을 어떠한 연구 결과라고 하기 보다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교육내용에 대한 공유가 돼야 되지 않는가, 많은 사례들이 있을 때 그와 비슷한 나의 사례일 때, 그거와 비슷한 어떤 사례들은 내가 봤고, 내가 어떠한 교육 현장에 들어갔을 때, 손쉽게 방향전환을 할 수 있게 교육 안들이 더 많이 오픈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 네트워크, 우리가 앞으로 나갈 네트워크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가, 굉장히 교육은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오픈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새로운 나 혼자만의 경험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늘 나 혼자만의 경험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벌써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고 나 같은 고민을 했었을 텐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고 내 옆에 있더라도 혹시 입을 안 열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문 : 00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거기는 literacy쪽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애들이 너무 재미 없어하고, 너무 안 따라와서 미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나 학교로 들어갈 경우에 지금 이것을 보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하는 미디어 교육방법론을 가지고 가서는 아이들은 절대 따라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약사빠르고 세상 물정을 다 알고 선생님이 말하는 도덕적 경향성이 무엇인지 아는 아이들은 비평을 하더라도 그 만큼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원한다면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맞고 틀렸다고 말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러 내가 선생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꺼낼 수는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관점 있네.' 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먹혀들어 가는 거예요. 그걸 특히나 학교 교육 안에서 물론 초등학교는 다른 범위에 들어가겠지만 중, 고등학교에 들어갈 경우는 중,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거든' 이렇게 해서 읽기 위주의 토론식 수업을 하고 영화를 보고 비평문을 쓰고 하는 것은 교육 방법에서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 이야기가 선생님이 유하게 표현하셔서 그렇지 제가 강하게 표현한 것이고, 그 아이들은 그 선생은 힘들어하죠. 내가 해야 될 얘기는 이거지 이만큼하면 선생님은 감동받겠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 : 단체별로 들어가서 하는 내용들이 달라요?

강 : 단체별로 다 다르죠 아니죠. 개인 성향이라고 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단체 성향도 있지만 강의하는 사람의 성향 가는 사람의 성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단체의 성향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죠.

조 : 이제 나올 수 있는 미디어 교육들이 대략적인 굵직굵직한 유형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상의 것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최상의 방법을 찾은 그 것을 모델링을 해 보는 방법, 그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공유를 하는 공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아무도 그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하면서 속으로 끄끄 앓고

강 : 그거는 단체가 어느 수준이 단체 일 수 있을 것 같아요. a 이제 굉장히 그 다음이 전문화된 세분화 단체, 인적물적 자원 같은 것들이 구축을 하고 연대를 하며 체계적인 짜임새를 갖춰가는 단체. 그 다음이 전문적인 세분화 단체. 기구별 단체별로 완전히 세분화가 이루어져서 각각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 활동도 다르고 프로그램도 다르고, 세분화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이구.. 그러니까 학교 시민단체 대학 기구별 세분화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동일한 기구 내에서도 독자적으로.. 저번에 어떤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1단계에서 우리 이제 2단계로 넘어간다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청소년 단체에서 하는 거 보고 아 이걸 또 다르구나 대상도 다르고 확산되는 정도도 다르고... 우리는 3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단지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거지. 이미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김태: 근데 제가 잠깐 사례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헤모에서 어떤 여학교 하나를 1년동안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맡았어요. 여기 오신 분들 그 사례를 많이 보셨을 거 같은데.. 그게 제가 담당했었던 강의에서의 사례일 뿐이지.. 헤모가 들어갔던 건 뭐가 들어간거냐면 하나가 제가 맡았던 미디어반 이었구, 그게 처음에는 미디어 전반에 대한 각종 매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걸 열번을 했죠. 또 한 번 열번은 미디어와 여성에 관해.. 여학교니까. 여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사진강좌였고. 세 번째는 사진가지고 자기 표현하는 사진 뜨개질이라는 강좌가 있었어요. 네 번째가 동영상 강좌까지 진행된 미디어 강좌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거만 미디어반으로 봤는데, 우리가 헤모의 작업으로 같이 들어갔던 건 하나는 영화반이었고 영화포럼. 하나는 방송비평쪽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헤모 트레이너 중에 하나가 방송작가가 있거든요. 작가 선생님이 같이 들어갔고. 하나는 제가 운

영했었던 미디어반이구 하난 집단상담반이었어요.

네 개가 진행이 되니까 애들은 서로왔다 갔다 하면서 들을 수 있게 해줬거든요. 선택강좌인거죠. 모두가 다 미디어교육이라고 생각을 했던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섹터에서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육 커리큘럼을 짜서 학교에 1년 동안 교육을 맡았던거죠.

우리는 그 후에 3년 동안 그 학교에 나갔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어떤 곳에서도 미디어교육을 진행하는 쪽에서도 이런 식의 접근들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구요 아주 좋은 사례였다.

조: 저는 제작부분에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가 흘러 왔잖아요. 제작이라는 게 쓰기의 전부가 어떤 제작일까 하는 의문도 좀 들고,, 지금의 추세, 아이들의 소통의 추세를 맞추려면 제작이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 자체가 될 수가 있는 거 같은데.. 쓰기의 전부냐, 그러면 읽기의 부분과 쓰기의 부분은 과연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한 고민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제가 스스로 넷이라는 곳에서 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제가 만든 교육 모델이 센터가 지향하는 교육모델에 대한 고민이기도 한데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제작이라는 걸 들어갔을 때 아이들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너희들 뭐할라고 배우냐 하는 단순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몇 가지 초이스를 줬었어요 대표적인거는 직업을 선택하는거냐, 단지 미디어에 정말로 관심이 있어서냐, 의외로 그 대답이 반반이라는거예요. 미디어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자기 직업을 결정하기 위한 거.

그렇다면은 미디어 자체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커리큘럼과 자기 진로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온 아이들을 위한 커리큘럼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거죠. 특히 제작이 더 그렇고.. 읽기란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교육의 형태로 제시를 한다면은 어떻게 제시를 해야하나 그런 고민들이

되더라고요.

김태: 저는 거기는 해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디어교육은 청소년에 국한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건지 모르겠는데요. 청소년일 경우에 진로에 관점을 두고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것 때문에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아이들은 초급인 상태인 거예요. 미디어를 제작경험이나 읽는 경험들이 없는 아이들을 우리가 주로 만나게 되죠

그것과 관련해서 그 안에서 미디어교육을 통해 동기부여가 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자기 진로를 이거로 선택을 하게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슬라이드 사진을 가지고 강좌를 1년 정도 진행을 하다보면 거기 있는 아이가 자기 고민이 그게 아닌데 선생님 제가 사진학자에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엄마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갔어요. 그런 아이들이 생겨요.

제가 지금 만나는 아이들 중에는 중요한건 미교에서는 무엇을 할거냐하면 어떻게 애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심어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미디어 교육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해답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진로선택을 하면 이제 할 것은 프로페셔널을 지향해야 한다면 그러면 어디를 가야되냐. 돈내고 배워야 되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는 곳으로 돈내고 배워야 되요. 그건 미디어교육 섹터가 아니라는거죠.

문희: 직업교육이죠.

김태: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나면 그것마저도 미디어 교육에서 담아야한다라는 부담감을 갖져요. 제가 할 수는 있어요. 내가 만나는 주대상은, 타겟이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미지센터도 스스로넷도 그렇고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자기를 찾아내고 표현할 것인가 하는거에 관점을 맞춰져

있는것같거든요.

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학부모 교육과 연계되는 건데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모교육이 왜 필요하나면은 부모들을 위해서 시켜야 한다는거죠. 부모들이 아이들이 중학교까지는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 아이의 진로결정에 꼭 필요한 과정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제가 학부모 전화를 받아보고, 여기를 왔다갔다 하는 학부모들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남득이 될만한 센터의 입장이 있어야 되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보면 아이들은 자기 주변에 친구들 와서 활동는 거 보고 작품제나 그런데서 상받는거 보고.. 그러게 또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소한 거 같지만 연결연결되서 또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구요. 정말로 누군가는 부모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거구나 왜냐면 부모가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부모가 미디어교육.. 그래야지 아이들이 진로가 꼭 그쪽으로 대학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유롭게 가능성을 찾아보면서 진로를 찾아갈 수 있을텐데 우리나라 부모의 성향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딱 단적인 예가 고등학교 2학년 애가 친구 따라서 오겠다는거예요. 이 부모가 전화도 하고 직접 센터도 오고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대학을 갈 수 있느냐고 물더라구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들은 생각이 확산이 되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런 판단을 했는데

강: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게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태황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교사들이 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큼 폭을 넓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가 보통 쓴다라고 하면 카메라 들기 이걸 보통 생각하는데, 몸으로 표현 할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안 들 수도 있어요. 몸으로도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영화만 잘 볼

수 있고 전화만 잘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사들이 이후 작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말로 수용하는거하구 현실로 와 닿았을 때.. 내가 가르쳤던 애가.. 결과물 얘기도 초반에 나왔던거 같은데, 어떤 식의 결과물, 글로 쓰는 결과물이나 영상물의 결과물이나 사진찍은 결과물이나 무대위에 올라가서 표현한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한다는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끊임없이 다양성, 애네들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미디어교육이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을 심어주는 거라고 했는데 말로 하는거하고, 현장에 나가는 우리나 앞으로 같이 할사람들이 그런 부분까지를 용인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있냐. 지금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면 대부분은 결과물이라느거죠 카메라..

김태:대학민국의 미디어교육을 망치고 있는건 각종 영상제예요.

강: 그래서 아까 그 홍경호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춘천 Y에서 지난번 우리 워크샵때 춘천 Y에서 오셨잖아요. 그분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영상제를 한다는거예요. 심사위원단을 꾸렸는데 영화쪽 일하는분 방송쪽 일하는분 그러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오셨다는거예요. 그분들이 오더니 '영화적인 평가를 해보면 방송적인 평가를 해보면 안된다.' 아이들이 만들어 놓으면 그게 얼마나 카메라가 흔들리겠어요. 그건 전문가가 아닌이상.. 애들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준다는거예요. 교육내용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이 평가하는 거냐에 따라서 잘된 영상제일 수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너무 힘든 평가가 나왔다고. 춘천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 부를 수도 없고.. 과연 누구를 불러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태: 제가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데 제가 어디에 가보면 청소년 영상제 심사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사전 심사를 해가지고 올려야 되잖아요.

청소년 영상 재미없거든요, 정말 지루해요 그걸 몇 시간을 보면 지루해서 돌아가시겠어요. 그런데 한참보면 아이들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나와요. 과정이 그렇게 나오는 것과 그것이 매끈하게 잘빠진 것은 다르거든요. 잘 빠진 게 본선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역설을해도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먹히지 않아요. 대부분의 분위기가 그런데다가.. 과정이 빠졌어요. 이 영화를 만들기까지 애들은 무슨 생각을 했으며 애들이 왜 이 표현을 했는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영상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냐 하나면 세련된거 잘 빠진거 이런 거를 자꾸 만드는거예요. 그러니까 구현해내는 방식에 점점더 힘을 쓰기 시작해요. 상업미디어를 마구마구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서래지류의 화두를 걸고 넘어지면 애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하고 상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영화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국제 영화제 한심스러운 행사지요. 그런 것들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요.

두 번째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애들이 이것을 대학가는 도구로 사용한다는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뭐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스텝들이 자기들이 미디어 교육가라고 너무도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감히 어디에서 미디어교육가라고 하는가.

조: 그래서 우리 센터도 영상제가 있는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녹여낼건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물론 그랬지만은.

영상제를 한다면은 정말 애들 잔치가 되어야되는데, 이것은 심사위원들 전부다 그냥 무슨 스텝이나 그래서 애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너네들이

직접 만든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거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화두로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영상제가 너무 상업적으로 항간에는 대기업에서도 하나의 자기네 사업으로 할려는 조짐이 있다고..대기업들이 청소년 타겟으로 해서..

김태: 지금은 영상동아리 몇 개 있거든요. 그 애들도 마찬가지로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니 대학갈 수 있는데 그거 하나만 당선되면 땡잡은건데..

문: 다 되는거예요?

김태: 거기에 참여한 애들 다 되는거예요. 그게 증명을 떼서 학교로 가져다 내면은.. 그러니까 콩쿨대회, 지금 청소년 영상제는 콩쿨대회예요.

조: 청소년의 다양한 특기나 활동경력을 가지고 대학갈 때 인정해주겠다는 그게 이런 패해가 나타나는거죠.

강: 고거와 맞물려가지고 수업을 할 때 보면 영상기자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행복한 티비인가 그런 부분도..

김병: 그건 저작권이야.

강: 저작권도 저작권이죠. 또 한가지는 영상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할 때 제가 항상 방송사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면 그런 거 제발 무료로 해라, 교육으로 쓸 때는 이거 돈 받고 팔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들은 영상물들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고 할 때는 어디서 구하고 영화는 비디오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텔레비전에 나왔던 내용들 이런거는 어떤 식으로 하나 그런 얘기들을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문: 광고를 편집해서 같은 시간대인데 하나는 토론프로그램 하나는 오락프로그램 사이의 광고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자 보고 와서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보다 저는 거의 영상물을 애니메이션 같은거를 저작권 때문에 돈주고 다 샀어요. 사줘야 할 것 같아서. 복사할 수도 있는 조건이죠. 물론.. 복사를 했더라고 원본을 꼭 샀어요.

김병: 저는 백방으로 돌아다녀서.. 굉장히 힘들어요. 스카이라이프를 16.000원짜 리를 해서. 재방송이 되거든요 그거를 녹화했더니 상태가 안 좋아서 굉장히 고생이예요

아이들이 잘 보는 거를 계속 리더를 세우고 듣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거 잘 보는거 광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자료를 계속 모으고..

아까 제작하고 연관되서는 저는 제작교육은 별로 안해요. 근데 그 리더러시 교육을 제작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막판에 글을 쓴다거나 그린다거나 그런 거를 꼭 한가지는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도 흥미는 계속 유지가 되고, 남는 것도 있고. 이런 일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판단도 느껴지네요. 중고등학생한테 그림 그리라고 하면 얘기가 안될 거 같고.. 그런 식으로하는데

영상물은 절대, 특히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거는 무조건 무료로 해야되고 영화 쪽도 가능하다면은 무료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해야 겠죠.

홍: 힘을 모을 수 있는 아카데미처럼.. 사실 그런 영상자료 가지고 짜집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편집기자재들이 간단하게 있어도 컷편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기자재나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 공간들로 출발을 해서 교사들이 모이면 네트워크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왜냐하면 개인이 가서 하는거는 힘들고, 시간낭비라 생각을 하거든요

방송위원회에서는 한달 이내에는 레이프를 가져가면 복사를 해준대요.

문: 그런데서 하는거는 화질이 상상을 초월해요

홍: 그런 것들이 통로가 있다는거죠. 한달 내용은 자신들이 해줬다고 하는건 그런 자료실을 갖추고 있다는거구.. 광고활동은 코바코나 그런 공기관이 있는건데.. 공기관이 하는역할들은 공익적인 역할들을 맡아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코바코나 언론재단이나 방송에 영상사업하는 제작단도 있으니 제작단한테 요구를 하고 아카에보라는 공간을 마련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것같은데..

김병: 많은 돈이 들어요.

조: 관리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장난이 아니죠.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저작권 문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더 복잡하니까 그래서 쉽게 건드릴 수가 없어서 쉬쉬 쉬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강: 아이들하고 교육을 할 때 영상물을 통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교육시간은 한정있는데 120분짜리를 다 볼 수는 없는거구, 편집을 할라고 치면 요즘 애들이 눈이 얼마나 고급이에요. 거친 편집을 보면 뜨악해 하는...그런 답답함. 힘든 거 같아요.

조: 보여준다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읽기전 쓰기전 기본이라

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을 형성하기 때문에.. 미디어교육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해요.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영상물들을 의도적으로 접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데 저작권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안되니까 그런 제한점이 있는거 같구..

그게 중요한 이유가 의외로 우리가 접하는 아이들이 지역차이도 있을 거예요. 지역차이도 있구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영상을 기회가 없다는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티비를 볼 기회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환경상 티비를 볼 수 있는게 제한되어 있고 티비 이외의 영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구요. 교육의 일환으로서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측면에서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다양한 영상을 보여주는게 분명히 필요하고 가장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 미디어 교육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영상물들은 딱딱딱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모든 자료를 쓰고 나면 일부러 버려요. 제가 그걸 갖고 있으면 안일해 질 수 있으니까.

조: 그리고 딱 보면 때깔이 참 이상한게..

김병: 디지털로 사면은 많이 그 부분은 많이 해결되요. 몇번 봤던거도 아주 깨끗하게 나오고..

저는 옛날 거 다 보관해둬요. 아이들한테 흐름같은 거 보여줄때는 그런 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춰놓고 들어가고 편집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안하지

좀 sbs 평가원하면서 그런건 좀 도움이 됐어요. 뚫어져라 하고 보니까 텔레비전을.. 아무리 소소한 것도 안 놓치고 다 보거든요. 이건 자료구나, 얘기가 되는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 교사의 자료 활용 능력에 따라서도 질이 달라지고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미디어 교사의 자세 중에 하나가 중요한거가 선생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미디어 여러 가지 사물들을 어떤 관점으로 볼거나 하는 주의 깊게 볼 줄 아는 통찰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병: 개그 콘서트에 노래 나오는거 있죠. 그게 굉장히 좋은 자료거든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줘요. 처음에는 진짜를 들려줘요. 그게 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말화 되잖아요. 기존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가 중요하다 그걸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면은 그런 자료도 이들에게 피부에 와닿고 혹하는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어주면은.. 그런 거를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조: 얼마전에 그 코너가 없어졌어. 개그 콘서트는 있는데.. 한계가 왔나봐

강: 근데 하여튼 김태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선생님의 늘 따끈한거라는 미디어 교육 선생님이라면 몇 년전걸 가지고 그대로 쓰시는 거는 시대의 흐름이나 코드를 읽어내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건데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영상물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곳, 편하게 쓸 수 있는곳 이런 곳들이 좀 있다고 하면 저작권 그런 것도 좀 해결을 해주고 그게 없으니까 어려운 점중에 하나예요. 영상없이 영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게 말이 안되는 사고방식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몇 가지 더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봤으며 하는 생각도 들구요. 한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같거든요

정: 제가 여기에 대해 문외한 이구 여기에 단순 무식하게 세가지 정도를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청소년이 미디어로 오는건 알겠는데 미디어가 청소년한테 가는거 있잖아요. 이걸 좀

미디어가 청소년으로 가는거 있잖아요. 이걸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예를 들면 지향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 자기를 표현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저희 세대가 자기 표현을 더 많이 못하고 그런 욕구를 더 많이 느낄 수도 있는데 왜 미디어 교육이 지금 애기들은 것만으로는 청소년으로 많이 가 있을까 단순하게 들구요.

두 번째 는 처음에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를 표현하는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환경워크샵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환경 단체에서 하는 환경 교육하고요, 상업화된 환경교육이 있잖아요. 프로그램만으로는 솔직히 구별이 안된다고 했어요. 사실 프로그램 소비자로서 보편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운동을 하는 프로그램과 우리는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다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언론재단에서 특히 미디어교육에 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저희 같은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봤을 때 프로그램 자체로는 변별력이 생기는 뭔가 그런 지점이 뭘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 쪽에서는 관계성, 지역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 그안에 녹아 있다고 그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춤으로 표현하든 뭐로 표현을 하든 사회적 욕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기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과 어떻게 다른거지 그런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이걸 제가 상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김태환 선생님께서 사회교육으로서 미디어교육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이랄까 염두해 두고 계신게 있으면 ?

강: 세 가지 얘기는 우리 모두가 같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 하신 것이 왜 청소년들에 중심이 가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제시는 분들 대부분이 청소년을 만나시는 분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구요. 다른 분들이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문: 그 부분은 예를 들어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과과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이 없어요.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게 없는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시작했어요. 그게 청소년층으로 확산이 됐다고 보면 될거예요.

정: 그런데 요즘 보면 어른을 위한 미디어교육이라고 하는게..

문: 예를 들면 민연련의 미디어교육이라든지.

정: 비중이 비슷해요?

문: 실은 어른을 위해서는 제작쪽보다는 매체 비평쪽이나 읽기 쪽이 훨씬 더 강하죠. 분야가 좀 달라서 그런건가.

김태: 그리고 어른들은 주 교육대상이 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청소년은 일단 교육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구요. 그리고 더군다나 미디어 교육으로 접근되어질때 매체가 청소년들에게 미디어가 온다 그러는 얘기를 하시는게 뭐냐면 새로운 매체가 뉴미디어가 생산되면 생산될수록 그것을 가장 쉽고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사용하는 세대가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무 쉽고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측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교육으로 카바가 되어야 하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조: 그게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구조하고도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지금의 어떤 미디어에 관련된 생산자 주체, 생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주 타겟은 청소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요. 광고만 봐도 마찬가지구요. 광고나 그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주 타겟의 부분들이 청소년들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고, 문화자체가 그렇다는거죠. 10대를 지향하는 그런 문화가...

김태: 인터넷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의 아이들이 쉽게 사용하는 미디어 중에 하나가 모바일 미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아니에요. 청소년은 그것을 너무 아주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미디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고 그것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해본 적이 없고 그게 나의 확장이어서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의미의 메시지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거죠. 그걸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교육이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는거죠.

강: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센터가 됐던 학교가 됐던 자기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CA시간이 됐던 받을 기회가 많은데, 성인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직 우리 나라가 미디어를 교양과목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자기 돈을 내고 배울 만큼 여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매비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 문화센터에 몇 년에 걸쳐서 교육을 기획을 해가지고 갔거든요. 결국에는 폐강이 되가지고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안쓴다는거예요. 그것보다는 일단 꽃꽂이나 종이접기나 일단 이런데 관심을 갖고 자기 정신이나 자기 삶을 지배하는 미디어 교육은 누구나 다 안다라고 손쉽게 생각을 하는거죠.

대중강좌가 굉장히 힘들다라는거 같구요.

그런데 제가 가는 곳은 성인대상 교육에 많이 가요. 그걸 어떤 데를 가느냐하면 각 단체나 이런데서 부모교실은 연다거나, 학부모 수업을 연다거나 단체 활동가거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거나 저한테 의뢰가 오면 저는 가죠. 그런 식으로 성인들이 아직도 안되고 있고. 아버지 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성들이 부모교실도 있고. 아버지 수업도 있고, 봐요. 거긴 매체교육은 없어요.

문: 회사로 나가야 하다고 하더라.

강: 그렇게 어떤데서 조직화되서 사람을 모아 놓고 부르는 거는 가질 수 있어요. 학생들은 조직화가 되어 있잖아요. 학교라는 공간이 성인들은 조직화가 되어 있는게 없다는 거죠. 아주개별화 되어있고 어디선가 조직화를 시켜줘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같은 경우 몇 년 하다가 마지막에 실기가 안된 이유가 사람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메비우스가 안모여요 폐강됐어요.

현대 문화센터에서 성인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한계나 이렇게 고스란히 미디어 교육도 똑같아요. 굉장히 힘들구나 그 대신에 메비우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출장강의 가든요. 제가 열심히 출장을 가는거. 여기 중에 많이 다니는 이유 그래서 더 안다는 성인들이 많은거죠 아니면 학부모 교육 같은데서 유치원이나 이런데서 엄마들 부모 대상 교육이 있으면 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되는건 아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도 있다는 거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에 대해서 더 없으세요.

김병: 나가 보면은 다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들은, 그 아이러니가 뭔지

모르겠어. 돈인지 뭔지..

강: 주변에서 제 친구들도 자기 돈 내고 가서 듣기에는 왠지 다 아는거 같은거야. 매체는 늘 우리 옆에 있는거니까.

정: 저도 학교를 하니깐 인터넷으로도 시민학교를 하니깐 대체적으로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 성인교육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웃음)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런데서 계속 그런 논리야 똑같은 논리로 성인교육에 공백은 어디서 어떻게 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거예요. 평생교육하시면서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미디어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

문: 부모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그걸 받으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래요

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게 표현방법, 어떻게 다른 것인가 기존에 다른 데서 하는데서 색깔이 어떻게 다른가. 환경교육을 예로 드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표현은 어떤 식으로든 할 수는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미디어 교육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생각에 대한 것들을 가장 큰 질문의 화두로 늘 던져 준다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 기존의 것들은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어떤 것인가

그 속에서의 나는 어떤가 늘 생각하게 하고 그렇다면 나는 소통의 방법으로서의 나를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이런 식의 내용들이 늘 녹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의 일반적인 편집강좌나 텔레비전에 대한 강좌와 다른 게 아닌가 전 굉장히 거칠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분들이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시죠.

김병: 저는 미디어교육을 표현도 있지만은 리터러시 쪽으로 많이 해요. 기본적인 미디어 교육은 알아야될건 알아야된다. 그런 주의거든요. 신문이 뭐고 이런걸 알아야지 그런 쪽은 방향이 조금 틀리죠. 또 다른 분도 제세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세고. 그거는 다양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거예요.

홍: 제 생각은 에스더 선생님과 좀 비슷하면서.. 저는 이런 미디어교육이 시작했던 점은 보호주의관점에서 시작을 한거잖아요. 문제가 있다. 미디어 시대에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런 출발점은 있는데 그 출발점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악순환이 고리로 고리로 해서 오는데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역할을 미디어 교육이 할 수 있다고생각하거든요. 미디어 교육을 제작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런 읽기 제작 교육을 하는 이유는 청소년 때 그런 구조를 끊을 수 있는 고리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 텍스트나 매체가 담고 있는 문제 언어의 문제 일 수가 있고, 내용의 문제일수도 있고, 관점의 문제일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안적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배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부분이지만 당연히 미디어교육이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김태황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직업으로 갈 경우에는 다른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아 한다. 그 서비스 기관이 혹시 기존에 있었던 상업주의나 기존체제의 기득권층의 이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내용적인 교육을 한다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미디어 교육의 교사가 좀더 전문화가 되고 아니면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차체가 미디어 교육을 생각해낼 수 있고... 그런 교육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생산해낸다면, 그 친구들이 양질의 서비스센터에 가는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게 미디어 교육이 구체적이고 그렇게되면 평가할 수도 있고, 자기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미디어 내용을 다시 생산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환경을 또 만드는거죠.

김래: 미디어 교육이 자체가 그 커뮤니케이션 관계에서 가운데 있는 게 미디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미디어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이 사람들은 연결이 안되는거예요. 그러면 미디어로 나갈때는 어떤 방법이나 단 한가지의 방법 그렇게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없으면 더군다나 의사소통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 행동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미디어 교육에서 잘 못 사용하면 히틀러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지요. 잘못 사용하면 전 세계를 전쟁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거예요.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이나 하는 그래서 철학이 그 배경에 들어 있는거구요.

저는 환경교육하고 미디어 교육하고 굉장히 중요한 코드 닮아있다고 보거든요. 아주 비슷해요. 교육커리큘럼을 쪽보면 너무 나도 흡사해요. 하나는 뉴 미디어를 가지고 다루는 도구가 있는거고, 다른 하나는 환경을 가지고 다루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많이 접근하고 있는.. 마치 이것은 미디어 교육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교육연구 프로그램 중요한 미디어 교육중에 하나예요. 이런건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운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언버벌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인가? 이것은 미디어 교육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거죠.

조: 미디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위험은 강박관념은 눈에 보이는

미디어자체만 그것만 미디어라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미디어라는 것은 우리 손 자체가 손짓하나 하는거 이런거 자체가 미디어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내용에서 조금씩 그런 시도가 있는거구요 나 자신이 사람 자체가 미디어인데..

김병: 아니지 그러면 방금 광범위해서 못해요. 미디어 교육 못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버린거예요. 텔레비전이면 텔레비전..

조: 물론 어떤 형태로 보이든 교육의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그 거를 둘러싸고 있는 밑바닥에는 미디어라는 그 근본적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김병: 일정한 기간에 아이들한테 다 못해줘요.

조: 물론 그렇죠.

김병: 호주 갔다오니까 그쪽도 그런 과정을 겪었대요. 그래서 한계 기초적인 교육을 하자고 그러더라고 사진을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구요. 디지털 흑백.. 흑백에서부터 디지털까지 그 과정이 거의 한학기 정도가 되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거는 많이 못하고 조금씩 들어가요 그림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하면은 거기는 사진을 중심으로 한 다른 것을 부가적으로 잠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거 많이 느꼈어요.

김태: 교사가 나는 너무 모니터를 관심이 있고 아이들한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교육은 잘 진행하면요, 사진부터 영상까지 다 들어가요. 저는 제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모니터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거죠.

자기 미디어가 제일 잘 하는 것으로부터 선택되어지는 것이 교사의 첫 번째 시도예요.

강: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사회교육으로서의 미디어 교육은 저희가 얘기하는거보다 김태황선생님의 얘기가 확장이 될거 같은데

김태: 이거는요, 어떤 화두로 쓴거냐면 지난번에 우리 네트워크모임에서 나왔던 거를 정리를 해서 억지주장1, 2로 올려놨던 글이 있어요. 그게 지금 웹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쓰는 칼럼에..해놨거든요. 원문을 나중에 보시고요.

일단 학교 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을 정식교과로 다루는 것은 분명히 이론적 과정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분명히 교과과정을 다루는 교사와 카운슬러라고 하죠 상담교사가 존재하고 있구요 클럽액티비티즈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CA담당교사가 있는거예요. 특수하게 자기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어서 교육과정이 진행되는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나라의 교과과정 교사가 상담교사를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무언가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동일한 사람인 경우에 마음을 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의 문화와 자기들의 문화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무도 학교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거구요 이것 역시 우리나라의 교육 체도를 볼 때, 학교 안에서 교육을 진행하면 당연히 또 한번 교과목을 다루는 교사가 그것을 담당할 수 없게 되어있다. 구조가..

현재 학교 시스템에서 각종 행정처리와 아이들의 성적과 그 다음에 카운슬러도 해야되고 뭐도 해도되고 뭐도 해야되고. 역할을 맡고 있는 교사가 노동자로서 노동력의 한계는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학교 시스템은 자체를 변형시킨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학교 교육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은 어쩔 수 없이 이론적 과정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체험활동을 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죠. 지역사회 안에서의 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 방법으로 가는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한 가지 기능인데 지금은 아성을 쌓아가고 있잖아요. 한국사회에 50여년이 넘는 동안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아성을 쌓아왔거든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학교를 어떻게 벽을 허물 것인가 전략적 선택을 해서 교육부에서 내년에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 중에 하나예요. 몇 군데 티켓을 정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단체들과 학교와 청소년기관을 어떻게 네트워킹시킬 것인가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약간은 의문이 들구요.

그렇게 된다면 체험중심의 교육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학교 교육으로 담아낼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이 담아낼 수 있는 것은 학교교육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지역사회에서 맡아 줄 수 있는 사회교육이며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청소년단체들이나 시민교육단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결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사회에 가장 적합한 미디어교육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는거죠.

조: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교사와 사회교육센터나 단체에서 있는 미디어교사와의 관계성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커뮤니케이션이 결국 중요하다는거죠.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어느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 서로 간에 교육의 효과를 가지고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와요. 일선 지역에 있는 주변학교에서 예약을 하고 와서 학교 선생님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과 시간과 인력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학교하교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미디어 교육을 실제 사회교육차원에서 연계 작업을 부분들이... 왜 학교에다가도 좋고, 왜냐면 기자재 문제나 미디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 자료 측면이나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아웃소싱을 해야 된다는거죠.

김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한계는 뭐냐면 학교는 집단사이즈가 너무 크다는거죠.

최소한 30명 이상이거든요. 교사가 담당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미디어적이지 않죠. 1: 30으로 대화를 하라고 하면..

조: 30명을 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고민이 감당이 안되요.

강: 그 속에서 또 다르게 소외되는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매체교육에 와서도.. 확 왔다 가는 아이들이..

김태: 그래서 사회교육에서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진짜 미디어 교육들이 마구 많이 생기는 것이 참 좋은 거다..

강: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여러 얘기들이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이제 정리를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한거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가 민주시민교육 기초조사 사업 팀에서 나오셔서

이것저것 많이 궁금해하셔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자리를 갖자가는 그런거였는데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한마디씩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꼭 좀 한마디를 해야겠다. 이 팀에서 어떤 자료를 만들거나 이런 문구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없습니다로 전반적인 개인의 생각도 좋고 정리하셔서 한마디씩 하시면 아주 정확히 6시에 끝날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홍유원 선생님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얘기를 하시죠. 절 쳐다보시지 마시구요.

홍: 아니 오늘 얘기된게 아주 처음부터 끝가지 이전에 얘기됐던 거하고 불거져 나오는 문제까지 얘기가 되어서 그걸 다 담으실 것 같은데 ... 아까 두 번째 질문에서 핵심을 얘기하신거 같아요. 자기 표현의 문제가 도대체 뭔지 그 구체성이 뭐냐 하는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좀 활성화 논의가 필요성은 일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거든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나 기회같은 것들이 좀 연구면 연구자, 현장가면 현장가 정책가면 정책가들이 이렇게 삼자가 만나서 이야길 할 수 있는 보고서가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김병: 없어.

강: 진짜요? 시간 조금 드렸다고 그러시는 거죠.

김병록: 제가 쓴거는.드리나요?

강: 아니요. 그럴까요?

김병: 안드리는게 낫구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다 얘기 나왔는데 미디어 교육을 앞으로 하실건가요?

정: 지금 저희가 저는 함께 하는 시민행동의 인터넷시민학교를 하고 있구요. 지금 이 일은제가 단체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건 아니구요. 민주 기념 사업회? 무슨 사업회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교육 사업을 하는거가 자기들의 주요 사명인데 어떤 교육을 해야하는지 아무런 상이 없어서 지금 상태가 어떤건지 단순히 보이려고 하는건데...

저희가 저희로서는 그것하고 무관하게 시민교육을 하는 큰 테두리 내에서 나름대로 각자 분야를 문제의식이나 교육에 대한 시민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 구체적으로 관심이 이서요. 저는 고민은 이게 그쪽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될 수 있을까는 사실 의문이에요.

저한테는 굉장히 이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뭐 미디어 교육을 하겠다 안하겠다 그런게 아니라 저와 한승희 교수님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이렇게 다녀보면서 보니까 크게 시민교육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개별적으로나 공통적으로나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런거를 정리하는 거에 의미가 있구요 그.. 기념 사업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러면 어떤 식의 역할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겠죠. 미디어 교육을 꼭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김병록: 또 하나의 단체가 했으면 좋겠다..어떻게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안드린거 같아서.. 그런거 자료집이 많이 있으니까요. 잘 쓰셔가지고 하시기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새로운 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제 바램은 민주시민차원에서의 미디어교육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 저는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자 그 하고 있는 영역에서 얼마만큼 잘

한다는건지 잘한다는 것이 과연 뭘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국은 용어가 그렇게 얘기 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얘기인거 같은데요. 계속 지금 보편은 세미나를 하건 저 개인적으로 문제점 얘기 나오고 그 동안 했던거 계속 되짚어보면서 평가작업이 되고 있는거 같아요. 이게 결국은 발전하고 있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뿌듯하고요, 가능성들이 보인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서도 막 확장을 해가 그 상태에서 하나 하나씩 결실들이 조그맣게라도 맺어져야....

그것들이 하나가 중요한 단계를 넘어가는 외국의 사례나 남의 나라 것을 계속 보면서 아 저기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저만큼 가지 갈까라는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정도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좀 되고요. 어쨌든 방향성이나 정체성의 문제는 늘 갖고 있는 고민인거 같아요. 그거는 가져갈 수 밖에없는 고민이구.

가족이 이걸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쌍둥이가 나와도 개성이 다르고. 쌍둥이가 같은 배에서 나와서 출발은 똑같이 했지만은 다르듯이 미디어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쪽 지향하는 그런 미디어교육에 대해서 서로 인정해주고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공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내놓고 그러는 작업들이 얼마만큼 잘 되는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미디어 교육이 발전을 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혹여나 아까 언론재단 얘기를 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지만 다 같이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은 당사자 쪽에서도 문제 의식을 해야되지 않느냐 어떻게 갖게 하느냐...

예를 들자면 함께 공유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우리나라의 미디어 교육에 있어서 큰 거시적으로 봤을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구요 생각을 하다보면은 그렇다는 거구요.

문: 저는 미디어 교육을 되짚어 보면서 정리해봤는데..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

이 들었어요. 제작년에 글을 썼는데 그 때 썼을 때 그 정리했던 내용과 지금은 진짜
속 앞으로 나갔어요.

참여하는 분들도 많아졌고 독립영화 쪽에서 영상 미디어 센터를 만든거라든지,
방송쪽을 주류로 하고 있었긴 하지만 독립영화쪽에서 그러한 시도를 한 것도 상당히
앞서 한발 전진을 한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청소년 단체 쪽에서도 미디어 교육에 관
심을 가진 것도 미디어쪽을 확산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을,, 도움이라면 좀 그렇지
만 기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짝나가고 있구나 앞으로 지금 짝
짝씩 벗어나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2년새에 그 전에 5, 6년 전
에 새로운 시도들이 확 일어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모니터만 한 십년하다가 그 다음에 제작이랑 영상읽기 조금 매체 읽기
만화 읽기 영화 하다가 이제 제작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단체들이 시간이 점점 짧
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서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각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런 방향으로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에 제대로 잘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김태: 여기 계신분들이 정말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자주 모이
는 사람들이지만.. 웃음.. 개인적으로 존경해 마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는 생각을 해요. 한국사회에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더 많이 강화될거다 그런 희
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현재도 자기 것을 안 내놓는다 하면 우리 네트워크에서 빼버
리면 되요. 교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때는 우리는 더 이상 너희랑 네트워크하지
않겠다. 선언을 하면 되는거고.. 공짜다라고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좋은 소스 가져
갈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간혹 있긴 있었어요. 딱 꼬집어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안된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열린 마인드여야 된다고 보
고요. 여기 계신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거구요

문: 하나를 내 놓으면 열을 가져갈 수 있는데 어떻게 안 내놔요.

김태: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모인게 친한 사람들끼리니까 모였다 그건 절대 아니구요. 우리가 또 모인다고 해서 이런 진지한 얘기를 나눌 적은 없구요.. 개인적인 얘기들을 주로 나누기 때문에 누구 씹고 이런거... 여기 올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자리에서 내놓을 수 있는거 준비해가지고 오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음번에도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가지고 잇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강: 네 마무리하면요 다른 분들의 말씀에 동의를 많이 하구요. 가장 중요한건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는 저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할 사람들이나 늘 자기에 대한관리나 긴장감이나 그런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놓치는 순간 굉장히 도태될 수 있다라는 거.. 자만하거나 오만하지 말아야겠다, 어느 순간 자만하고 있는데 뒤돌아 보면 아 이러면 안되지 이럴 때가 있는데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로 특히 미디어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그런 생각도 있어야겠다.

아까 사실은 정말 개인적인 친분이나 잘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초대한거 아닌거 잘 아시죠? 일단 일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에 모셨고 또 중요한 건 어떤 세미나였던간에 저는 제가 말을 안하고 있거나 휴 이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올수 있어서 좋았구요 저도 다시 한번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긴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았군요. 박수로서 긴 시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 녹취 자료 8 - 주민자치 분과 2차 회의

일 시 : 2002년 12월 2일 월요일 19:00-23:00

장 소 : 광명YMCA

참 가 자 : 이영이(이: 광명YMCA 총무)

박윤희(박: 의정부YMCA)

강옥희(강: 광명YMCA 범씨학교)

김기원(김: 광명YMCA 등대생협)

<대중강좌에 대해>

이 : 우리가 교육하면서 기획단계의 고민과 난점은 무엇인지? 단체마다 교육의 형태가 다를 것이다. 무작위 교육, 대상별 교육..등 초창기 무작위 교육은 윤곽이 드러나면서...

박 : 무작위 교육 많이 함. 여가 문화 지도사 등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전단작업. 사람을 모으는 자체가 어려움. 목적성을 민주

시민교육으로 한다고 할 때는 어려움. 등대처럼 구성원을 구성후 들어가면 목적성 구현에 적합함. 무작위는 그렇지 않음. 50명 정도가 와도 2-3명만이 관심을 갖고 참여함

이 : 참여만이 교육의 목표?

박 : 그렇지는 않다. 15명이 관심을 갖고 남음. 그 이상의 인원의 경우 지속화에 어려움이 있음

강 : 공개강좌의 형태는 공개강좌로 가야하는 경우도 있음

이 : 어떤 목표로 기획하느냐?

박 : 그 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일거리를 위한 교육의 경우 15-40명 정도 모 집됨. 이 경우 이 후에 다른 모임으로 연결될 때 12-20명 정도 남음. 10회 강좌만 으로는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만족스럽지 못함. 이 후 활동 즉 조직의 목적으로 갈 경우 공개 강좌로는 힘들다. 그 이상의 기획이 필요하다

이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좌 안에 교육목표가 있을 것이다. 관심 갖는 사람 모 으기 이상의 목적이 있다.

박 : 강좌를 모임으로 전환하는 의도가 있었지 강좌 자체에 그 의도가 들어가지 않음

이 : 숨겨진 의도?

박 : 그렇다. 대형강좌의 경우 내용상의 시사점은 줄 수 있으나 민주시민교육의 경우 한계가 있을 뿐이다.

강 : 사람들을 끌어내는 방법은 공개 강좌 밖에 있지 않은가? 이를 통해 사람을 추려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김 :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평가 달라짐.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인가? 조직적인 차원인가?

박 : 종이 접기 강좌를 들러 오든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적용할 수 있는가?

강 : 공개강좌도 그 주제에 맞아야 한다. 즉 민주시민교육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목적으로 모아야 한다. 시작 자체를 그것으로 가야한다.

박 : 민주시민교육은 공개 강좌로 시작해서는 안된다.

강 : 공개강좌를 하면서 밑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 : 대중강좌가 조직적 역량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좌 그 목표는 있지 않을까?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은가?

박 : 부정적이다. 지역적 이슈를 모을 때, 알음알음으로 오게 하는 사람에게서 힘이 전달되어 질 수 있다. 활동의 힘을 갖게 할 수 있지만 참여자들이 그렇게 나아가

는 경우 공개강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밀작업과 이후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강좌 자체로는 불가능하다.

강 : 공개강좌로도 효과는 있다. 인식의 변화가 발견된다.

김 : 강좌의 표면적인 목표가 있다. 이면적인 목적도 기획자에게 있다.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표면적인 목표에 맞춰 있다.

박 : 대중강좌는 많이 알려진 내용을 전달한다. 유행이 되는 정보에 맞춰 학습자들이 판단을 한다. 자기 자신의 반성에 터하지 않는다.

강 : 평생학습원의 대중강좌를 기반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의 경우는?

이 : 단순한 취미 모임 아닌가?

강 : 아니다. 교육모임 등. 단순한 배움의 모임이 아니라 '나를 찾는 여행' 팀의 경우 취미 강좌라고 볼 수 있다

김 : 흔적모임이다. 모든 강좌 후에는 모임이 남는다 이것은 흔적모임이다

이 : 그 모임 자체는 굉장히 폐쇄적이다. 비참여자는 참여하지 못한다.

김 : 같은 교육문제를 고민한다고 해도 다른 소모임과는 성격상 다르다. 그렇다면 대중강좌가 성격을 가르쳐 하면 유의미한 조직을 남길 수 있는가?

강 : 깊이 있는 모임에는 대중강좌는 불가능하다. 대중강의에서 건진 사람조차도 위험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대중강의의 목적은 지역의 이슈를 만들고 홍보하는 등의 이상은 없다. 대중강의의 첫 번째 원칙은 유명한 강사를 섭외하라!

김 : 이면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다는 데에는 동의하는 듯하다.

강 : 흔적 모임 자체로도 의미 있지만...

김 : 유명강사 섭외를 통한 대중강좌도 회원 모집의 목적을 갖지 않은가?

이 : 아닐 수 있다.

김 ; 경실련의 경우...

이 : YMCA의 노동자 교육 등은 YMCA에 사람들을 남기려고 한 것이 아니다.

김 : 새로운 씨앗찾기에 대중강좌는 아니다? 부천 Y의 경우 주부모임이 발전적인 형태로 나아갔다. 이는?

이 :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한다. 교육이 일상 모임이 정착된 예가 아닌가? 교육으로 모아진 힘을 조직의 힘으로 전환된 것이다. 우리의 경우 조직활동을 하다가 필요하면 교육을 하지 않았는가? 일상활동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 일상활동으로 접목이 되었을 때 교육의 힘이 나타난다. 시민교육을 했을 때 시민교육을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활동으로 어떻게 연결시키는가에 포인트가 있다.

강 : 교육자체도 일상화되어야 한다. 일상활동으로 강의가 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이 : 자기 삶 속에서 펼쳐진 일상활동이다. 일면에서만 만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 사람의 총체적인 가치관이 바뀌어 가는 양상.

김 : 느낌은 오는데 일상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부천의 일상의 경우 강의가 일상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의미의 일상?

강 : 강의와 생활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인지, 교육 행위 자체가 일상화되었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김 : 내용의 문제보다는 교육 자체의 일상화와 관계 있다.

이 : 강좌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육의 힘이 실천을 담지할 수 있는 소모임으로 나타났을 때...강좌 끝난 이후에 이루어진 ...

박 : 강좌 후 등대라는 조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때 이는 대중강좌의 목적이 아니다.

이 : 대중강좌를 통해서도 조직으로 이어지는 것은 맞다

김 : 무작위 광고해서 하면 대중강좌이다.

강 : 이후의 목적성을 염두해 두고 대중강좌를 할 경우 안할 경우도 있다

이 : 목적성을 염두해 두지 않는 경우... 그 자체로 교육의 효과를 노리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 정리하자면 대중강좌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조직을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진 대중강좌가 있다.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고 대중강좌를 했을 때 성공가능하는가? 가능하지 않지만 조직은 만들어진다. 의도된 조직은 아니더라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 : 꽃꽂이 모임을 생태모임으로 전환가능한가?

박 : 불가능하다

이 : 마찬가지로

김 : 전환을 목적으로 하면 깨진다. 조직의 목적은 여러 가지이므로 조직에 맞는 교육에 맞춰서 가야한다. 꽃꽂이는 꽃꽂이로, 종이접기는 종이접기로... 대중강의는 대중강의대로 의미 있다.

김 : 대중강의 자체의 목적에는 의미가 있지만 이면의 목적이 적용될 때는 그 의미가 없다.

강 : 대중강좌 이후에 그 목적을 실현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박 : 부천의 경우는 합목적성을 띠고 있었을 것이다.

박 : 대중강좌는 숨은 목표 없이 무작위 사람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대중강좌다?

모 두 : 그렇다. 숨은 목적이 있을 경우 이후의 조직이 가능해진다.

김 : 대중강좌도 여러 단계가 있다. 낮은 수준(의도 없는 강좌), 높은 수준(의도에 의해 구성된 대중강좌) 모두... 그렇다면 조직이 되고 안되고의 차이는? 대중강좌 형태 없는 교육이 있는가?

박 : 일상활동이 그렇지 않은가?

이 : 생협의 경우 개별적으로 조직으로 포함시킨 것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다르다

박 : 조직을 목표로 할 때에는 대중강좌가 시작이 되어서는 안된다. 타겟을 정해서 해야한다.

김 : 아닌 것 같다. 대중강좌, 높은 단계의 대중강좌와 일상적 활동 속의 활동의 경우 가능하다.

박 : 부천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였을 것이다.

강 : 민주시민교육은 취미교육과 다르다. 기본적 전제가 일상활동 자체가 되어야 한다

이 : 교육 자체를 떼어서 보는 사람도 있다. 일상과 결합된 것은 기본전제이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음.

김 : 프로그램적 접근과 일상활동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의 차이.

강 : 교육 자체는 변화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대중강좌는 일상의 변화를 담지하지 못한다

김 : 그렇다면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강 : 인식의 변화는 교육이 아니다

김 : 인식의 변화로 일상도 변할 수 있다. 일상적인 활동의 변화도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이 : 그것이 중요한 교육적 핵심이다.

박 : 그렇다 대중강좌를 이를 보장해 줄 수 없다.

김 : 일상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속에서의 일상이다.

이 : 촛불들도 샴프를 쓰지 말자고 했을 때 자기 혼자 실천 안된다. 모임에서 서로 점검할 때 변화가 가능해 진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가 될 때... 내적인 힘이 나온다. 그것이 교육이다

김 : 관계가 중요하다

박 : 이 때문에 대중강좌에서는 이런 관계를 형성하기 힘들다.

이 : 방법론을 많이 하는데 이 방법론의 도입이 일상적인 변화를 가능케 하는가?

김 : 방법론만으로는 안된다. 그 이상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만족한다. 너무 효과에 만족하여 멈춰 선다

박 : 강의 자체에서도 관계가 맺어지기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

김 : 방법론이 그 관계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박 : 그것은 대중강좌에서 유효한 것은 아니다

강 : 효과적 방법을 통해서 대중강좌에서도 관계 형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대중강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이 꼭 조직으로 남아야하는가? 대중강좌도 효과가 있고 나름의 역할이 있으며 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박 : 그것이 작건 크건 간에 효과는 효과로서 인정할 수 있나?

김 : 이야기의 범위를 정하자. 대중강좌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할 것인가? 아니면 좁은 의미로 조직화와 관련된 것만 볼 것인가?

이 : 굳이 읽매일 필요는 없다.

이 : 조직이 중요한가요?

박 : 그것이 남지 않으면 허탈하다. 대중강좌에서의 경험이 자기 과시(유명인 만났다)로 남을 때 교육적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 사람에 대한 변화에 대해 더 이야기 해야할 것 같다.

김 : 교육운영에서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 해보는 것도 나는 대상자의 질 차이, 프로그램의 빈곤이 크다고 생각한다

강 : 본인은 그런 것이 크지만 나 같은 사람은 항상 그 상황이 새롭다.

강 : 식상함은 프로그램의 질 때문이 아니라 요구되는 수준 때문일 수 있다. 새로운 촛불과 기존의 촛불이 혼재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중간에 맞춰져 있다. 이것이 식상함을 낳는다.

김 : 그것이 대상자 질 차이와 프로그램 빈곤의 문제이다. 대상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단계가 있다 . 등대지기 수련회 - 촛불수련회-지도력 수련회 : 각 단계마다 달라야하는데 프로그램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식상해 한다.

강 : 아니다.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다.

이 : 참여자 개인의 특성일 수 있다. 개인마다 같은 것을 해도 새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식상해 하는 사람도 있다. 참여자와 관계와 각자의 역할과 역량 그리고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울 수 있다.

김 : 반복에도 한계가 있다. 7년차 8년차들은 식상할 수밖에 없다.

박 : 지나치게 실무자가 모든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 기술적인 문제다. 나눠놓고 하면 되지 않은가?

<실무자와 참여자의 관계>

이 : 초보자 교육이 왜 어려운가?

김 : 실무자와 초보자와 간격이 너무 멀다. 최소한 실무자의 위치에서 먼저 고민하고 먼저 제안하고 먼저 프로그램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박 : 권리의식이 내면화되어 있다. 프로그램을 먼저 고민한다는 것이 많고 훌륭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강 : 저학년의 경우 내 중심이지만 고학년은 그럴 필요가 없다. 합의를 한다. 같이 하게 된다. 저학년은 합의없이 끌고 간다. 합의가 있으면 편하다

박 : 대중운동에 있어서 합의는 당위적인 것이다.

김 : 나는 교육의 목적과 프로그램 기획과 계획 단계에서 성장하는 바가 있다. 하지만 실무자로서 이런 것을 마음 편하게 쉽게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하는 의

무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 초기 단계에서 교육 기획자가 주도성을 갖는 것은 불가피. 단계가 높아질수록 그 주도성을 이양해야한다. 그러나 김기원은 계속해서 실무자가 가지고 가야한다?

김 : 아니, 다른 게 있다. 최소한의 실무자의 역할이 있다. 주도성을 갖고 잘해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한다.

이 : 주도성 이양과 다른 것인가? 자리를 펼쳐주는 것 등의 지원 활동?

김 : 아이디어 + 최소한의 방향

강 : 그것은 주도성이다

김 : 드러내지 않는 주도성이다

이 : 온전히 맡기는 것은 아니고 기획자가 의도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력자의 역할 이상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

김 : 내가 생각하는 조력은 의도성과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참여의 한계 문제>

이 : 다른 어려움이 없는가?

박 : 등대 등의 참여률이 낮고 이를 견인하기 힘들다

김 : 경험이 쌓일수록 그리고 다른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경우 문제해결 능력이 높다. 따라서 일상활동과 전면적인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강 : 경험과 시간의 차이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 : 시간의 차이가 모든 사람의 정도의 차이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 경험이 쌓이지 않은 경우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할까지는 하지 못한다.

강 : 한 모임에서의 경험이 그 모임에 기여하지 못하고 다른 조직에 기여한다(법씨의 경험이 생협의 기여로) 거꾸로 생협에서 떨어지면 그 여파가 법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 : 등대생활이 가장 일상생활을 영향을 미치는 기본이므로 다른 모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 소모임 안에서 어떻게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까? 등대의 역할이 그러한 견인이 되는가? 전면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자기가 드러날 때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를 통한 지도력 성장이 가능할 것

강 : 뱀씨 안에서의 지도력 훈련은 별 의미가 없다

이 : 그 이유는 뱀씨라는 모임 자체가 실천활동이 매개되지 못한다

강 : 일상적인 실천활동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 활동만을 위한 활동도 한계가 있으며 다른 형식의 모임이 필요하다.

이 : 아이를 학교로 보낸다는 이해관계가 같은 모임으로써 뱀씨학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교육모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 참여자의 역동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강 : 소모임의 목적에만 갇혀있게 될 때(뱀씨) 역동성은 보장받을 수밖에 없다

김 : 전교조가 노조로서 갖는 한계와 유사한 것. 뱀씨만이 갖고 있는 한계

강 : 그렇다면 뱀씨 학교 안에서 교육을 통해 역동성을 담보하는 것은 힘들다?

이 : 뱀씨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의 문제가 아니라 활동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모임일 뿐이지 삶을 나누는 등의 활동성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 사람들의 역동성은 뱀씨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등대를 통해서 나온다. 역동성이 그 안에서 나온다고 할 때도 부정적(분파적)으로 나타난다.

김 : 역동성 활동 등이 들어가면 해결된다?

이 : 그런 시도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다

강 : 그 안에서 해결하고자하는 시도(교육 등)이 가능한가라는 고민이 계속 든다

이 :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갖는 성원을 갖는 것이라고 할 때 그 공동체의 역할은 더욱 확장되어야하는데 소모임만으로 갈리게 될 경우 위험성을 안고 있다. 범씨라는 교육공동체에 침잠될 때의 위험성. 공동체 확장을 자기 목표로 갖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박 : 이를 범씨 내에서 하기는 힘들다. 생협활동과 연계하여야 할 것이다

김 : 그러나 생협활동의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 : 자기 이해관계에만 머물지 않고 공공선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 관계를 기반으로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생협과 범씨는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변화의 확인>

김 : 내가 대할 때 그 개인을 대하는 사람은 1단계, 이 개인에게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은 2단계, 생협을 전체적인 단계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3단계.

강 : 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누구에(자신, 타인, 조직)게 초점을 맞추는가

박 : 고백에 초점을 맞춘다. 그 사람이 자기의 관심의 영역에서 이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것이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끄집어낸다. 관계성을 파악하기 시작했다...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이 : 같은 맥락이다. 형태가 고백이라는 말로 표현될 뿐

강 : 같이 공유할 수 있는....누구와 공유하는가

김 : 생협을 고민할 수 있다면, 이는 광명지역에서의 생협...이것이 가장 큰 단계이다. 그 이상도 있다. 인간 실무자의 생협에서의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 : 단계에서 단계로 올라가는 과정은 어떻게 보는가?

김 : 그 사람의 지위가 그렇게 만든다. 그 사람의 역할. 등대지기 이상의 역할.

이 : 구성원이 많을 경우 역할이 한정된다. 이 경우는?

김 : 따라서 그 안에 소모임이 또 구성되어야한다.

박 : 이기적인 리더십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역할이 중심은 아니다.

강 : 삶 속에서 변화하는 각도. 얼마만큼 변화했는가에 따라 역할도 주어지고 성장했는가의 여부도 판단된다.

김 : 역할을 주어야지 성장하고 그것이 확인된다.

박 : 등대지기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대중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을 역할로 환원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김 : 역할이 주어져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임. 각 역할은 하나의 교육과정이다.

이 : 등대까지는 구조화된 교육과정이고 그 이상의 역할은 비구조화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상에서 실무자의 어려움이 따른다.

김 : 역할은 결국 지도력의 표출로 나타나야한다. 그러나 최고의 지도력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에 대해 실무자로서 상을 가져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 역할과 지도력 그리고 성장은 개방적인 것이다. 그것까지 실무자가 규정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열린 상태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 서로를 변화시킨다.

<기타 - 비록음 부분>

이 : 기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김 : 스스로 공급자가 되는 교육이 중요하다

이 : 어느 정도 수준을 참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공급자가 된다는 것은 교육대상자들이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받아들여

야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념적 동조 이외의 지지가 이루어져야한다.

김 :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 어느 것이 중요한가?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교육이 더 핵심적이지 않은가? 비공식적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서로의 이야기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이 때문에 전면적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강 : 그래서 비공식적인 것의 공식화에 실무자들이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

이 : 그런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가?

강 : 소그룹을 하면서 배웠다. 토론 대형 말고 관계와 표정 등을 읽어 가면서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나도 모임의 일원이 되면서 체득하게 되었음

김 : 기본적으로 교회의 경험이 컸다. 학생회, 학생회 회장, 후견인, 대학 학생회 등을 하면서....체득하였다.

강 : 대학교 때 나는 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많이 깨졌다

이 :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교육에 있어서 계량화되고 지표화 되지 못했었다. 앞으로 이를 공식화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 : 지표화 데이터화하는 것에 대해 총무님이 혼내지 않았나?

강 : 중요하다고 한 훈련과정을 공식화해서 실무자들의 교육으로 표명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김 : 실무자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무자 역량을 발휘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 소모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회원들이 거치는 과정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 : 멋모를 때 들어가야 가능하다. 지금 단계에는 어려움이 있다. 내가 똑같이 겪을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비슷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지금 그럴 수 있을까 의심이 된다.

박 :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총체적인 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육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접근할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는 관계망까지 포함한다. 한 회원이 가입하면 신입교육부터 지도력 과정까지 얼마나 총체적인 과정인가 가늠해볼 수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신입회원에서 지도자로 형성해 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강 :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민주적인 구조.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라 민주 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10. 녹취 자료 9 - S대 사회교육원 J씨 면담 녹취 내용

일 시: 2002년 09월 25일
장 소: 성공회대
면 담 자: 정민승(정), 박혜경(박)
면담 대상자: J씨(S대 사회교육원)

정: 언제 시작했어요?

J: 1999년에 기획해서 2000년도에 시작했다. 그 때 문제의식이, 한국 노동운동이 위기다 뭐다 얘기는 해도 세계적으로 노동운동면 에서는 일등이라매, 워낙 판데서 죽을 썩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90년대초보다도 엄청나게 죽어있다는 게 그때 판단이었어요. 투쟁이나 조직의 발전에 비하면, 교육이 그동안 고용문제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당면사안에 급급하게 그걸 대처하기 위한 교육이지 폭넓고 사회에 대한, 세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결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은 오히려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보다도 죽었다는게 저의 판단이었고,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할 때 내용이나 방식을 단기과정으로 가지말자. 제대로 좀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당면한 사안에서 벗어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 당면한 사안보다 좀 넓은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J: 예, 제가 노동대학에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동운동을 노동운동으

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운동,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노동사 교육원 같은 데도 하는 것도 있고 다른데서 하는 데 우리는 다르게 대학에서 한다는 특성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간을 다른데 보다 훨씬 길게 잡은 거죠 3월부터 1월 이렇게 해서 가고. 그 공간에 온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리후레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현장이나 자기의 조직 내에서 복잡한 상황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왔다 갔을때 신선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을 주는 걸 동시에 생각했고, 교육의 목표 관련해서는 이 자료집 맨 앞에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 지금 노동 운동의, 노동자의 이런 목표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완전히 같고 닦아서 만든 문장이니까 그것을 외울 수는 없고, 요지는 이시대의 필요한 노동운동관은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고집하지 않고 폭 넓게 세계를 바라본다. 그런 전체적인 사회의 연대를 교육의 목표로 잡은 게 있어요. 노동대학은 이런 사람을 목표로라는 노동운동을 그런 걸로 잡은 게 있는데 그것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인용을 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의 목표지.

정 : 그렇게 열린 마음이라는 것하고 노동자가 노동자의 단결성을 증대시키는 것하고는 좀 상치하는 것이 있잖아요.

J: 저희는 상치된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정: 어떤 점이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J: 노동자 계급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노동자 내부에서만 단결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식이라고 하는 건,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적 또는 진보적 발전에 노동자가 계급으로써 단결에 어떻게 공헌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

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구요. 그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전체 사회의 발전에 대해 노동자가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노동자의 단결이고 계급의식의 각성이라고 보는 거죠

정: 그런 것하고 민주노총의 견해하고 다르거나 부딪치는 거나 하는 없어요? 노동자들이 오거나 할때

J: 그런거는 그 자체로는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민주 노총에서 다양한 교육이 있는데 민주노총에서 하는 사안별 교육하고 또 민주노총에서 하는 노동 대학이라는 저희가 만들어지고 1년 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교육 목표하고 큰 틀에서 대치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 쪽은 아무래도 조직 내에서 하니까 그 조직 내의 지도력을 키워내는 점이 조금 더 분명할텐데 우리는 한국노총에서도 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는 관점은 민주노총이 물론 지금의 노동운동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질적으로 커다란 차이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민주노총만 하고 한국노총은 배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것이지요. 그렇게 되고 교육을 시작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이게 과연 장사가 될까 사람들이 울까 불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시작하기 전에 내가 예전에 80년대 에서 90년대 초까지 일했던 노동교육단체가 있었는데 옛날 동료가 그때까지도 계속 노동자 교육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나라도 물어보니까 그 친구 왈, 노동자교육 장사 안된다 하지 마라 보나마나 실패할꺼다. 그래가지고 되게 고민했었지.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의 참고가 되면서 그러면서 기획과정이 그랬는데, 처음에 올 때는 사람들이 노동대학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때는 처음 쓰는 용어였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했고, 그다음에 성공회 대학교에 대한 신뢰가, 김동진 선생님과 신영복 선생님. 그 개인들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노동운동에 대해서 뭔가를 말 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상당히 컸

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왔을 때는 1회만 해도 이 노동자대학이 될 지향하는 가에 대해 사람들이 몰랐던 것 같애. 심지어는 노조, 새로 만들지도 않은 데에서 노동조합 만들려고 하는데 오겠다고 해서 그거는 아마 여기 교육에 해당이 안 될 것 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로 오는 거지 그리고 몇 번 오고 나서 이걸 아니구나 하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1회 때 110명이 왔어요. 우리가 감당이 안 되 가지고 원래 정원을 60명이라고 써놨거든.

정: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J: 홍보는 매일노동신문에, 거기서 공동주체 형식으로 하는데, 거기서 해 준 것은 광고만 한달동안에 이틀에 한 번 간격으로 계속 내줬고, 민주노총 신문에 한번 냈고 그것 말고는 없었구. 한겨레신문에 기사가 한 번 크게 나갔어요.

정: 수요가 있었네요. 기본적으로. 조직 동원이나 이렇게 아니라

J: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노동운동에 중요한 조직, 기아자동차, 한국통신, 대우자동차, 그런 수도권에서 중요한 조직에 주요한 어떤 경력을 가진 노동 운동 지도자들이 많이 왔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노동운동의 일선에 있다가 현장으로 내려가서 당장에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재충전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노동 조합도 없지만 자기의식의 이런 걸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1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왔는데, 그 때 1기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죠. 2기때가 65명정도 모집을 했는데 저희는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는 60명만 되면 50명만 되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기때는 너무나 많이 와서 우리가 주체를 잘 못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매기마다 주체를 가져가요. 첫 번째 기가 '한국사회와 노동운동' 두 번째기가 '사회운동과 노동운동' 세 번째기가 '지배권력의 세계와 노

동자 계급의 대응' 이렇게 주제를 크게 가져가는데 주제가 달라도 크게 흐르는 맥락은 노동조합 운동이, 노동운동이 노동조합운동만으로는 하나의 날개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노동운동이 사회운동과의 결합 더 나아가서는, 아까 얘기 했던 사회발전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요새는 노동조합주의 그런 말을 쓰기도 그렇고 노동조합의 기득권, 내지는 노동조합 이기주의 이런 부분의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 가면서 그게 왜 안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고.

정: 그러면 주제 선정의 기본적인 원칙이 오히려 노동조합의 폐쇄성, 이런 걸 벗어나자 이런 취지예요?

J: 그 폐쇄성을 벗어나자 이렇게 되면 너무 좁구요 노동운동의 제역할은 사회운동에서의 제 역할을 노동운동이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적점을 계속 넓혀가면서 사회운동에서 노동운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세력이라는 걸 자각하는 게 만들어내는 것.

정: 근데 아까 장기적으로 보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1기부터 계속 참여하는 사람도 있는 거네요?

J: 우리는 1기, 2기, 3기, 4기를 마쳐야 졸업이예요. 하나만 마치면 수료예요. 우리가 정한 개념이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1기만 마치고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1기 마치고 2기 때 쉬었다가 3,4,5를 해서 네 개를 마치면 졸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학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4기 학기를 마치면 졸업. 그걸 마친 사람들이 지난 겨울에 처음 나온 거죠. 1,2,3,4기를 마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열 몇 명, 그 사람들이 계속적인 공부를, 프로그램으로 해달라 이래가지고 노

동대학원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걸 박혜경 선생님이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정: 아까 학위를 짜는 거잖아요. 어떤 식의 과정을 원칙으로 하세요?

J: 일하는 방식이 지난번에 그날 얘기 할 때도 파악하셨겠지만 저는 체계적으로 일을 안하거든요. 괜히 회의단위 만들고 골 아프고, 저는 개인스타일이 취재 스타일 이에요. 앉아가지고 생각내지 자료들을 봐서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겠다해서 대체적인 골격을 짜고 김동출 선생님이 저희 노동대학 학장이니까. 그 분이 노동운동과 관련한 중요한 흐름은 잘 꿰고 있는 분이니까. 그 분한테 보여주지, 내가 짠 걸 보여주면, 주제를 대략 잡고 보여주고 강사를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서로 의논하고, 그 분이 얘기하는 거랑 내가 얘기 하는 거랑 조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략 잡아요. 나한테 누구누구 얘기 하면 내가 나름대로 체크를 해서 어떤 사람이 적당할지, 기존에 없으면 또 다르게 찾기도 하니까. 강사 잡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적당한 사람 잡는 거니까. 주제만큼이나 강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과정이 오래 걸리죠.

정: 여기 학습자들은 와서 꼭 한번 거치면서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시각의 편협함 이라든가 활동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되나요? 문제가 된다고 스스로 느끼나요?

J: 전 그런 것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그 얘기하기 전, 시안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이번 계획이 대략 이렇다. 나눠줘요. 설문지 붙여가지고 이것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바꾸고 싶은 게 있는지. 이렇게 해서 받으면 그건 그게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요. 별로 사람들이 내놓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좋다) 그런 식이야.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제가 보는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 중심의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렇게 회의를 거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경험상 회의 소집하는 것부터 너무

힘들고 잘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한테 만약에 설문지 형식으로 나눠줬을 때 응답이 안 오면은, 내가 아까 한 취재 형식이라는 게 주요 포스트들한테 전화를 하지 전화를 해서 어떠냐, 어떠냐를 물어보고 그것에 의한 감으로 종합되는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 같다. 대체적으로 어떻구나. 바뀌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결정이 되고 홍보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물어본 게 뭐였죠?

정: 학습자들이 정말로 개방성...

J: 그런 거는 전체 몇 점을 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한 기만 말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잘 파악이 안되는데 두기라든지 세기라든지 네기라든지 이렇게 쪽 해나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에서 변화가 많은 듯.

정: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예요?

J: 거기서도 편차는 많은데, 내가 요즘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사람이 이광성씨 같은 경우는, 큰 기업의 해고자였고 그 당시 해고된 상태였는데 자기가 노동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도 많았고, 그 다음에 집행부가 민주노조라고 하기에는 회사측에 가까운 노조가 되면서 자기가 노동운동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전혀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노동대학에 와서 자기가 가장 크게 배운게 이거다라고 얘기한게 노동운동은 집행부중심으로 되지 않으니깐. 자기가 노동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되고 무엇을 하는 것이 노동운동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됐다라는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기쁘더라구요 그렇게 얘기 하는 사람이 있고, 한..같은 경우 그사람은 노동대학에서 그사람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는 생각보다는 노동대학에서 자기 정리내지는 원래 그사람은 자기의 틀이 있는 사람이

고 그 틀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노동대학 때문에 변화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나름대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채워가는. 그 다음에 도저히 또 노동자의식이라고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도 어느 회사, 그 사람이 첫 번째 1기때 질문 맨날하면 사람들이 끌어파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하도 똥똥지같은 질문하고 헛갈리는 질문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2기, 3기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다듬어지는 물론 아직도 문제는 있는데,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다 다르게 나타나요. 이영란 선배같은 경우도 물론 개인적인 캐릭터가 있지만 느티나무 회장으로서는 자기가 어떻게 느티나무를 이끌어 가야 하는가를 이야기 할때 노동운동의 폭을 자기는 넓혀내는 쪽으로 느티나무가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하드라구요.

정: 처해있는 상황에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좀 더 조직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폭 넓은 시각에서 본 다거나 이럴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것 같다. (자신감이라든가) 아까 오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기교육하고 장기교육, 1기 이상했던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조직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여러 차원에서 가능 할 것 같은데.

J: 우리 교육에서 1,2,3,4기를 다 한 사람 아니면...

정: 사람을 중심으로가 아니고 교육을 짜잖아요. 교육을 짤 때 사실은 대중교육이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교육은 쏘는 형식이잖아요. 한 번하고 마는. 근데 이렇게 오래한다. 오랫동안 교육을 실시한다라는 게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지만 대학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의 교육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J: 나는 교육을 한 번 들었을 때 가지는 의문이, 그 교육 한 번에서 해결이 안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어떤 큰 맥락에서 계속 듣게 되면은 좀 자기 정리가 되는 것 같애.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학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정: 참가자들 사이의 관계는...

J: 그니까 그 점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만 듣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강의 듣고 조별 토론을 하는데 조별 토론을 하다보면은 얘기하는 느낌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교육생들 간의 인터럽션, 상호작용 속에서 배우는 것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정: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한 학기를 다닌 사람이 그 다음 학기에 처음 온 사람들 하고의 상호작용이 처음 토론하는 사람들만 있을 경우와 계속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

J: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아까 사람들 속에서 배우다는 것이 굉장히 큰 게 강사가 얘기하는 것은 '아, 그렇구나' 하지만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는 건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면서 자기의 사고를 한 번 거울 속에 비춰보는,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 그거는 토론의 특성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J: 오래하면서, 이게 한 번 나를 비춰보고 가는 거랑, 그게 지속적으로 되는 거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애. 그니까. 한 번의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횡수로 치

면은 16번, 18번 정도로 가는 건데 그렇게 가는 동안에 ,아까 얘기 했던 강의 내용 속에서 계속 자기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제 초점은 다르다 해도 계속 발전시켜가는 것 하나, 두 번째가 교육생들의 상호관계 또는 토론 속에서 거기 문제 의식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두 번째. 그것이 4회 내지 6회로 단절되는 거랑 10번 정도 넘어가면서 반복, 같은 내용의 반복이 아니라 그런 과정의 반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 그 실제로 조별 토론을 하잖아요. 그 조별토론이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J: 처음에는 조별토론의 의미를 어떻게 들 것인가가 정착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방식을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굉장히 많이 써 봤는데 어차피 우리가...

정: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것도 써 봤다가 저것도 써 봤다가 이렇게 정착이 된 것.

J: 내 세울만 한 것은 없어요. 7시부터 9시까지 강의와 질의응답을 끝내고 9시부터 10시까지 조별토론을 한 게 우리 계획인데 그게 잘 안 지켜져요. 강의하다보면 길어지고 질의응답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정착이 잘 안되고 조별토론이라고 하니까. 주제도 정해서 던져보기도 하고, 자체 내에서 정해서 해보기도 했는데 그랬는데, 대자보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정: 어떤 방식으로 정착 됐는지...

J: 하다보면은 어쨌든 말을 만든 사람이 계속하게 되고, 중심멤버들이 계속하게

되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뭘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가 안되고 막 얘기의 얘기 꼬리를 물고 토론이 안 되는 거야. 대자보 토론 같은 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지금 정착 시킨 방법은 토론에 너무 별도의 토론회가 아닌 상태에서는 당의질의응답 토론이라고 할 때는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말자. 그래서 방식을 이렇게도 해 봤어요. 토론 주제를 하나에서 세 개 정도를 잡는데 그 토론주제, 그게 너무 어마어마한 것을 잡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이라고 하면 자기가 속한 현장 내에서 여성의 지위와 관련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게 있다면 얘기를 해보자. 그 수위를, 스스로의 생각을 얘기를 해보는 정도로 해서 도화지 반절정도 나눠주고 매직 나눠주고 자기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1분정도 쓰게 해서 대자보에다 붙이면서 나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주제를 두, 세개를 줄 때도 있고, 인상 깊었던 것을 얘기를 해봐라 이 강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내가 강사한테 질의하지는 못 했지만 이 자리에서 사람들하고 얘기 하고 싶었던 것이 어떤 주제가 있는지 한 번 얘기를 해봐라 뭐, 써요. 처음에는 죽어도 못쓰는 사람이 있어요. 뭘 써야될지. 그런데 그것도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1분내에 딱, 딱 써내드라고요. 그렇게 정착이 되고.

정: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은 토론이, 정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자기의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가 쥔 일반적이예요? 노동자대학에서...

J: 강의에서 내가 제일 하게 하는 것은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적이고 가슴에 와 닿았던 내용이 뭐가, 당신이 이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이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뭐가에 대해서...

정: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개개인이 새롭게 생각하게 된 걸 얘기를 해라 그러면 사람마다 편차가 많이 나는 것 같은지...

J: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강사가 강조했던 어느 지점에서의 어떤 공통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정: 그렇다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아까 토론이나,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이런 관념적인 질문을 하는 건데, 오랫동안 참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걸 보는 것은, 그 차이가 많이 날수록 자기가 이런 차이 속에서 나는 이런 위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렇게 강의를 보다 더 능숙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지금 이야기를 하다보면 사실은 강의내용을 흡수를 하기는 하지만 차이 속에서 자기가 어떤 식의 보호를 본다는 것은 적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J: 근데 그거는 그렇게 구분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 그래요

J: 거의 뭐 비슷한 내용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속에서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붙이면서 아까 강사가 이렇게 얘기하든데 자기는 이점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했는지 얘기해 봐라 윗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붙이기도 하고.

정: 그러니까 그런 과정 자체가 사람들은 기수를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허심탄회, 편안해하고, 좋아하고.

J: 그런 걸 익숙해진다고 하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쑥스러워하고, 문제

는 참여율이 100%안되는 거죠. 강의 끝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 어느 정도되요?

J: 60%정도 되요. (남는 사람들이)

정: 하나만 더 질문을, 노동대학이 다른 기관하고 차이는 대학이라 점이라는 것에서 찾아지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전체 노동조합운동을 볼 때 이런 모델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사용된다라고 보면 기존의 노조, 연맹과 차이가 있다고 보셨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모델이 일반화 된다고 할 때, 말하자면 쉽게 일반화될 수 있다든가 어떤 조직과는 어떠한 차이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것은 어렵다거나 전체판을 볼 때 감이 어떻게 보세요.

J: 대학에서도 시도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정: 대학이 아니구요 대학은 할 수 있겠죠. 그런 시각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연맹이라든지 노동조합, 지금 현재 노동조합 교육을 하고 있는데서 실제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렇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견해. 여기가 독자적이고 독보적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화 된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J: 제 생각에는 교육의 특성을 단위마다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위가 다 다르다면, 단위의 성격에 맞게 내용은 같더라도 내용의 수위나 강사가 전달하는 방식을 다르게 한다든지.

정: 예를 들면 오랫동안 하는 것 있잖아요. 오랫동안 교육을 실시한다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관에 다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J: 그러니까 나는 그 점에서 예를 들면 노동조합, 민주노총 단위에서는 그야말로 노동자 간부학교 그런 식으로 해서 장기 이런 것 보다도, 숙박교육 같은 형식으로 해서 완전히 일주일 이렇게 해서 열흘정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내가 말한 특성을 살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그냥 시간을 우리처럼 매주 한번씩 해서 20번을 한다는 것을 다른데서 똑같이 한다는 것은 그런 거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 왜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J: 왜냐면 단지 형식의 문제만을 얘기한 것을 아닐텐데 우리가 얘기 했던 것은 학교라고하는 안정적인 공간에서 이려고 저려고 하는 것을 다른 노동조합 조직에서 똑같이 마련해 내는 것도 너무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이 그런 조합 간부들이라고 했을 때는 웬만한 열의를 갖자 않고는 매주 한번씩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거든요. 그거를 나는 노동조직같은 데서는 조직 내에서의 결의에 맞춰가지고 자유로워져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일선 업무로 부토 자유로워져가지고 딱하고 딱, 나온다든지 하는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 저희 노동대학도 이게 시간이 가면 어떻게 우리도 바뀌야 하지 않을까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해요. 우리가 하는 방식이 민주노총 같은데서 하는 노동대학이 얼마든지 받아 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설 때에는 지금 노동대학원 같은 그런 더 심화 발전된 전문주제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될지도 모르죠. 지금 해야 될 몫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언제까지나 우리학교에서 담당하고 다른데서는 아니다. 지금 민주노총에서 하는 노동대학이 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게 몇 명 오는지 아세요? 그것이 우리 학교에서 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

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하는 노력이 사실 우리보다 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얘기들어보면 매번 회의하고 강사가서 만나고, 사실 나도 그렇게 해야되는 건데 나는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혼자 역량 갖는다 이것도 오프 더 레코드지만 지치지 않을 만큼한다. 지쳐서 다음 것 못하는 것 보다는 안 지칠만큼해서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정: 학점인정 이런 부분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라든지...

J: 그 건 고민이에요. 지난번에도 같이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학점인정으로 해서 사회학과 전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도교육에서의 어떤, 이 사회에서 제도교육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주는 거죠. 그것을 해서 들어갔을 때 우리한테 좋은 게 뭐고, 남는 게 뭐고, 우리한테 힘든 게 뭐냐 따져보면, 나는 별로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실제로 노동조합 간부들이 그렇게 해서 대학졸업자격증을 따는 것이 대단한 의미를 가져서 그렇게 오는가. 지금 노동조합간부들도 웬만한 사람들은 대졸이잖아요. 이제 생산직에서도 많이 이동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교육부와 상대하는 게 싫어. 아주 피곤해. 그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이나 많아가지고 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단기하면서 힘만 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정: 기존의 80년대 말만 하더라도 정치의식 교육이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교육이라고 했었잖아요. 이제는 정치의식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개념이 바뀐건가요?

I: 근데 이제 80년대 정치의식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그 당시 정치조직 그것과의 연관 속에서, 조직적 연결이 굉장히 강했고 교육을 시키는 단위자체가 그 정치조직에서 어떠한 맥락으로라도 자신들의 정치적 노선을 확대하기 위한 이런 목적

의식이 훨씬 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는 그 교육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롭지, 당신이 이런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좋고, 공통으로 이런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하는 그런게 강하고. 그런 점에서는 많이 열려있는 거지, 자유로운. 사실 우리 노동자대학에 온 사람들을 보면 따져보면 무지하게 다양할꺼야.

정: 그걸 정치의식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J: 있죠.

정: 민주노총에서 하는 것도 정치의식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지겠죠?

J: 그러니까. 정치의식교육 이런 표현 쓰지는 않고 정치교육이라는 말은 쓰긴 쓰는데, 내가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예전의 정치의식화교육이라든가가 그것이 너무 협소하다. 지금의 노동운동지도자나 이런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내가 아까 이 문장 얘기했지만, 훨씬 더 예전에 가졌던 것보다도 굉장히 폭넓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교육이라는 것으로는 너무 작다.

정: 그러니까 동일하게 정치교육이라고는 얘기 하지만, 내용상에 있어서는 많이 변했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민주시민성의 교육, 약간의 그 부분하고 교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J: 모르겠다 그거는. 어쨌든 지금의 교육을, 제가 얘기했던 것 번복을 좀 하겠는데, 지금 노동대학 교육을 정치교육이다라고 한정하고 싶지않아요. 너무나 좁다. 지금의 사안이...

정: 뭐라고 부르면 제일 적합하겠어요?

I: 뭐라고 부르면 될까...

정: 한 편으로는 굉장히 난감하실 수도 있는데

J: 정치교육이라는 말 우리로서는 너무 작아요. 의식화교육이라고도 안하고 의식화교육이라고 하면...

정: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고 포괄하는 얘기를 붙여야할지 사회교육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정치 교육인데 정치교육의 내용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요.

J: 다른 이름이 필요해요. 정치 교육의 내용이 달라졌다 이거는 설득력이 약한거야.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자체적으로도... 조직내에서 이번에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이런 식으로 되더라구. 건설건 뭐다 이러면 자기가 이번에 번호를 땀다 서울지역본부,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이 새롭게 발전되가고, 예전에는 그 조합에서 교육부장이 너가가 너가라해서 가는데, 그런 식으로 내부에서 합의해서 이번에 번호를 두명이 땀다해서 가는거지

정: 그럼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책임도 지는 거네요, 여기 왔다가 거기서 뭔가 기여를 해야된다 이렇게...

J: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 책임감이 있으니깐 열심히 하겠네.

J: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이 빠져요. 조 직내에 문제있고 그러면은 많이 빠져요. 실제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잘 빠지게 되요. 재충전하려고 했던 사람들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합에서 돈을 대주고 오는 사람들하고 자기 돈은 내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도 있죠.

정: 재충전하러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해요?

J: 재충전하러 오는 사람들은 다 이런퐁 저런퐁 단데... 조직에서 이걸 보내지 않고 내가 이걸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는 오죠. 그런 게 있는 게 있는 거 같애. 운동을 오래한 사람들과 이제 운동을 한 지 한달, 두달 된 사람이 같이 모여 있는 게 굉장히 재밌어. 한 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은, 한 지 얼마안 되면서 머리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또 하나의 거울이야. 나도 옛날에는 그랬지 보니까 겁나. 겁난다. 지금 저러는 걸 보니까 겁난다. 그런 게 서로 간에 볼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거 같애요. 그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여자들도 만나고 아줌마들도 만나고 결혼 처음 한 사람들과 결혼 한지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

정: 특성인 것 같아요. 차이가 좀 다른 식으로 나면서,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고 같이 배워 볼 수 있는 소재가 있고 이를테면 역동이 아주 괜찮게 되는 것 같애. 너무 비슷해도, 그래서 나는 노동 대학이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단위 노조가 아니니까. 그런게 그렇게 학습자간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고,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오면 더 동기 부여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J: 또 하나는 강의를 기획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신문이나 잡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걸어서 온다. 교육장에 온다. 왜 오며, 무엇을 기대하면서 오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 뭘 것 같아요?

J: 그거는 그거야 서로 거울이 되고, 만나고, 사람 속에서 배우다 이거야. 그 점에서 노동자 교육에서의 재미가 뭐냐면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려있어요. 교사들과 비교했을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교사들은 토론하는 걸 별로 재밌어 하지 않아요. 욕구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표현하는데 있어 굉장히 주저하고 교사 집단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난 번에 내가 얘기 했듯이, 노동자들은 굉장히 그 점에 있어서 겸손하고, 열려 있고 자기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 어느 정도 열리는 것에 대한 훈련을 되면

J: 응, 자기를 뺀내고 과시해야 될 뭔가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자질인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질인 것 같아요. 겸손해, 일단 나는 배우러 왔어. 나는 잘 몰라. 그게 분명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뭘 소리를 해서 좀 부끄러워도 부끄럽고 마는 그런게, 꺾데기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정: 어떻게 보면 토론집단이 갖는 응집성이나 그런 것도 그런 개방성 하고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드시죠?

J: 그렇죠.

정: 그 다음에 교사아카데미도 오던 사람들끼리 뭉쳐진 사람들이 계속 간다잖아요.

J: 그거는 교육사랑방이라고 하는 다른 형식으로 모임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교사아카데미 처음에 와서 할 때 당연히 조별토론을 넣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 더러구요.

정: 기존의 다른데서 묶임이 있어서 오는 것은, 교사아카데미 자체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토론 집단이나 이렇게 공모화되기는 어렵다. 교사집단은?

J: 지금 두 가지를 얘기 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뭐 어떻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거고, 어쨌든 여기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노동자들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교사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게 교사들의 직업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의 교실에서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은 아무도 못 보잖아요. 노동자들은 모든게 같이 하는 거고. 작업의 성격이나 이런 그거는 교사아카데미 자료집의 작년 것에 보면은 교사문화에 대한 성찰에 그거가 들어가 있어요. 왜 교사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요번에는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거는 어그저께 의견을 물어봤어 '내가 질의응답까지 마치고 나서 토론모임을 준비를 한다'면 '나는 참여 하겠다'. 아니면 '나는 못 하겠다.'는 걸 손을 들고 조사를 한 적이 있어. 물어볼 때 있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니다 우리는. 당신이 거기에 오겠느냐? 말겠느냐? 이걸로 대답을 해라. 근데 일단 들이 많이 오는데, 여교사들 대부분은 집에 가야 되요. 빨리 집에 가야 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오고 마는 사람들은 말고 다양성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할 것이거든요. 노동대학도 올 수 있는 사람은 오고 말 사람은 말지만, 교사아카데미는 조별토론을 진행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정: 전교조나 이런 쪽에서 교육할 때는 다 하는데...

J: 그거는 자기들 내에 이게 좀 되어있는 게 아닌가. 동질성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 오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정: 아까 얘기한 게 그런 식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여있는 게 오는 경우는 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강의를 통해서 그게 만들어지기는 어렵다. 시민교육도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그죠?

J: 그러니까 방법이 중요하지. 자기를 들어내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드러내는...

정: 전망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옛날에 인천에 노동자대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정치투쟁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한 것이니까 막 못 박히고 못 들어가고 이랬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랑 똑같은, 물론 다르지만, 이름은 노동자들에 대한 고등교육수준의 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성공을 했던 사례고, 여러 가지 상황변화나 이런 것도 있고, 성공회 대학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J: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노동자대학에 대한 내 생각은, 그 당시에 같이 제가 인천에 있었어요. 저는 다른 교육 단체에 있었는데 우리 단체에서 노동자대학을 볼 때는 저것은 이름만 대학이다. 그냥 일종의 씨클에서 정치교육을 하고 있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이름을 대학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라고 생각을 했고,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봤고, 그걸 비교를 한다기 보다는 그 당시의 했던 전체적인 정치교육하고 지금의 교육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점이고, 그 당시에 목표로 했던 것과 지금의 목표로 하는 게 어떻게 다르면서, 어떻게 지향을 가져야 할 것인가

가를 물어보아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아까 얘기 한 것과 같아요. 여기까지 해보면서 평가를 해보고, 다루는 주제를 바꿀 것인지, 아니면 형식을 바꿀 것인지, 또는 다른 어떤 민주노총 같은 데와 협력관계를 더 갖춰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아겠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노총이 처음에 노동대학을 하면서 처음에는 장소를 성공회대학교에서 쓰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거는 말이 안되지않느냐. 같은 장소에서 다른 교육은 한다는 게 그건 그러면서, 공동주체로 하면 어떠냐 제안도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여기다 하지마세요 비공식적인 것은, 그거는 검토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특정함 속에서 각각을 살려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같이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나는 만약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합쳐지면 어떤 식으로 뭔가 좀 될 수도 것 같애.

정: 그게 장기적으로는 노동조합 쪽에서 민주노총의 대학을 한다는 것은 좀 안되지. 거기서 조직단위에서 재원을 개발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협력관계를 맺어주고, 교육원도 없는 상태에서 일부러 백까지 다 할려고 하면은, 우리 남편은 대학 얘기를 할 때, 위탁을 해라, 한국노총 이런 게 있으니까 얘기해보고 일이나, 그런 걸 위탁하는 그런 걸로 삼고 이렇게 조절해 나갈 수가 있잖아. 성공회대학 강남지구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통째로 위탁을 하고 사람들 계속 고용을 해주고 이러면 자기들도 편하고...

J: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

정: 폐쇄성이잖아.

박: 안되는 이유가 폐쇄성이예요?

J: 거기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그 안에서 조정이 돼야 하는데 그 점이 조직에서 할 때 힘든 거랑, 우리같이, 난 너무 진짜 일을 엉성하게 하잖아. 따지거는 사람없지. 근데 만약에 내가 조직에서 이랬다. 당장에 비평감이지.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 누구를 거쳤느냐, 그러면은 하나도 못하지.

박: 근데 그렇지만은 아마 교육개혁 차원에서는 최소한의 라인이 무슨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지...

J: 그것 조차도 합의가 안 되고 위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아마 내용부터 강사까지 다 따지를걸고 넘어가는데...

정: 그런 걸 보면은 조직의 폐쇄성이라기 보다는 민주노총이 판데로 나가기 어려운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워선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조직적인 특성인가요?

J: 그렇게 말하기 보다는, 왜냐하면은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의 절차라는 것이 있고, 또 그 조직의 절차를 충분히 밝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그게 나쁘다거나 그거는..

정: 내 말이 무슨 말이나면, 기존의 조직들을 보면 특히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자율성이 별로 없거든요. 위에서 어떤 교육을 실시해라라고 하면 그걸 집행하는 단위지 자율적으로 기획을 해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위에서 인준을 받는 형태가 많다는 거죠. 위의 어떤 정치적인 노선이라든지 조직적인 필요성이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교육이 통제받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것을 왜곡, 아까 얘기 했던 부분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사실 그걸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할 해 준다면 지금의 얘기가 그렇게 답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창의적인 영역이라고 인정을 해주면 개별적인 자기 활동영역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박: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얘기하기에는 좀 안일하
네. 교육담당자들도 자기의 방향과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노동교육을 이
렇게 발전해야 되겠다. 확고하면, 하라고 할 수도 있지 물론 예산이라든가 조건이라
는게 뒷받침이 안되는 경우가 있지는 하지만...

정: 그것은 민주노총쪽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봐야겠다.

J: 민주노총은 노동자학교를 계속 발전을 시키면 좋겠어.

정: 지금 노동자학교 말고도 노동자대학을 했다가 실패를 계속했는데, 그거를 왜
이쪽하고 연결을 안하고 독자적으로 해요?

J: 독자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하겠죠.

정: 그 얘기는 못 들어보셨나요? 왜 여기와 다르게...

J: 그래요 그쪽에 물어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조직적으로 참여를 시키겠다. 이
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애. 그것이 훨씬 더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강화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애

박: 어느 연맹이든 그래 자기 사업이 돼야되는 거지.

정: 그러니까 그게 수단적인 의미의 교육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물론 교육 중 심적으로 보는 오류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교육이 조직발전의 수단으로 기능을 해야 된다.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것 보다는. 그게 조직의 생존 논리죠.

박: 나는 오히려 폐쇄성이, 많은 자원들에 대해서 확보를 안 해준다는 거지.

정: 그러니까 왜 안 끌어주냐는 거지. 교육이 좀 더 넓은 스케일로 보면

J: 그 점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 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대학하고 연결해서 보는 게 뭐냐면, 조직의 단기적인 목표든, 장기적인 목표든, 구체적인 목표 속에서 그런 교육을 하는 거랑. 우리는 자유롭잖아. 그게 그것 나름의 장점이 될 수 있지.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노동조합에서는 우리가 했던 내용하고 같은 강사가 하는데, 거기서 볼 수 없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업무를 내려 놓고 여기서 만나는 거잖아. 그런 어떤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한 거야.

박: 그런 부분은 있잖아 우리도 그런 것은 느끼지.

J: 그래도 더 다양하지 않나? 한국노총 거기도 많잖아

박: 그렇지 그렇기는 하지. 그런 부분은 어떤 공통면이 있을 거라는 것. 일단 업종이 다양하니까. 연맹에서 할 경우는 일단 같은 업종이 오니까 대체적으로 동질감이 있는 반면에, 다양성이 적으니까. 교육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해 여러 연맹에서 같이 오니까. 제조업, 유통쪽에서 오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해. 그런 부분이 노동자 학 교리든지 이런 걸 유지시켜주는 힘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애.

11. 녹취 자료 10 - D단체 교육국장 P씨 면담 녹취 내용

일 시: 2002년 10월 25일
장 소: 명동성당 집회 천막안
면 담 자: 홍은광(홍)
면담 대상자: P씨(D단체 교육국장)

홍: 먼저 민주노총의 교육사업 전반적인 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P: 가장 기본적으로 노동정세, 민주노총 투쟁방침과 관련한 기본 교안 제작 사업, 강사 파견활동이 먼저 있는데 이런 활동은 매우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예요. 다른 단체와 같은 경우는 이런 활동이 필요 없겠지만, 민주노총조직에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 다음이 내부교육 사업으로 지난 몇 년 간 간부교육 1,2 과정, 위원장 교육을 실시했어요. 이 사업들은 교육 성격자체가 노동조합 간부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소양과 실무력, 자세 활동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프로그램을 보면 참여식 프로그램으로 하구요. 2000년에 시작했던 노동대학, 2001년에 시작했던 노동자 학교는 이런 사업들과 좀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주로 노동자의 의식강화 교육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이전에 민주노총의 '다섯 나라 노동교육의 사례와 한국 노동교육의 과제'라는 책자를 보면, 노동교육사와 민주노총의 고민들도 좀 정리되어 있어요. 간부 교육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중앙본부에서 내려서 실시하곤 했는데, 이제 2-3년전부터는 지역본부, 예를 들어 영남권, 경기도 지역에서 알아서 하고 중앙에서 한 명씩 파견 나가는 형태로 하는 그런 방식이 진행되기도 해요. 연맹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간부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프로그램상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대부분 자기 방식으로 해요. 영남권 같은 경우는 제작년부터

했었고, 전라권 같은 경우는 광주가 올해 했었고... 요즘에는 노동자 학교도 하나까
여력이 있으면 간부교육과 노동자 학교를 같이 하고, 힘들면은 노동자 학교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구요.

홍: '간부교육'과 '노동대학노동자 학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P: 간부교육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소양, 자체, 실무능력에 초점이 있
고, 노동자 학교와 노동대학은 노동자의 의식강화에 좀 더 초점이 가있죠. 노동대학,
노동자 학교를 만들게 된 이유는 노동조합 활동하는 사람들이 학습소조모임을 많이
했었는데, 90년대 들어와서는 학습소조 활동이 많이 약화되었고, 각 단체에서 부분
적으로 정치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치교육이 굉장히 약화된 상황
에서, 간부들이 5-10년씩 활동을 하면서도 활동의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받
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필
요하다는 주장이 2-3년 전부터 내부에서 많이 이야기되기 시작했어요. 노동조합의
활동을 하면서 대의, 원칙, 순수함이 많이 희석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
다고 생각해서 먼저 만든 것이 노동대학이에요. 노동대학 1기를 하면서 문제가 교육
대상의 의식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어요. 10년씩 활동하면서 공부도 좀 한 사람들
과 1~2년씩 활동하면서 공부를 한번도 안해 본 사람들의 의식 차가 큰거죠. 그런
편차가 문제가 되었었고, 그래서 대상 선정 과정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2기 하면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면서 해야 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강의식 교육으로는 잘 안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무리 들어도 들
을때는 좋고, 토론도 어찌어찌 하고 그러는데, 토론을 잘 못하더라구요. 그러니까 토
론능력은 향상되지가 않는거죠. 특히 한국사회 토론문화가 약하긴 한데, 그나마 노동
조합에서는 토론을 하긴 많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토론이기보다는 자기 주장이고,
논쟁이고, 잘 듣지도 않고, 자기 발언을 잘 요약해서 정리하는 훈련도 안돼 있고, 이

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상집회의, 대의원 대회, 상급단체에 올라오면 그 문제가 누적되는 것이, 계속 밑에서부터 훈련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토론을 중심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기 노동대학같은 경우는 토론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한 것이죠. 근데 상당히 무리를 한 것이죠. 과연 책을 읽어와서 토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상당히 모험을 하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 학교 같은 경우는, 노동대학을 하다보니까 노동대학 이전에 기초과정을 하고 노동대학에 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노동자 학교를 마치고 노동대학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노동대학은 1년 단위이지만, 노동자 학교는 한달 코스로 경제, 역사, 철학 등의 기본적인 기초과정으로 만들었어요. 작년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단위노조까지 합하면 10개 정도에서 한 300~400정도 들었고, 올해는 더 많은 지역에서 하는데 참가자는 작년보다 좀 적어요. 아무래도 작년에 했던 데는 올해는 참가자가 좀 적은 편이구요. 분위기가 올해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도 있는 것 같고.

홍: 간부교육과정에서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기획합니까?

P: 같이 만들죠. 민주노총에서도 만들고, 노사연에서도 만들고, 만들어서 공유하고, 해보구서 고치고, 보습되고 그런거죠. 연맹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홍: 1기 노동대학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P: 대상선정에서의 문제가 먼저 있었구요. 그리고 교육수준의 문제, 즉 교육 대상자의 수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먼저 만들어 놓고 다모여라라고 했었던 문제에 대한 평가가 있었죠. 어떤 사람은 한 10년정도 활동도 했고, 기본교육과정 다하고 재훈련 차원에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2년 활동하고 아무 공부도 안한

사람이 있으면, 그 차이는 매우 큼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거 빨갱이 교육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거 다 아는 것 아니냐?”라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식의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초급간부라고 봐야 할 사람이 거의 80%정도였고, 훈련되거나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은 20%정도밖에 안됐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학습수준을 낮출 수 밖에 없었죠. 다수에게 수준을 맞추어야 하니까.

그러는 가운데 많이 놀랐어요. “우리 노동조합 간부들이 정말 이런 정도의 수준일 줄이야”라는 생각을 했죠. 박정희가 좋은 사람인줄 알았다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겠다 기초과정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자 학교를 시작한거죠.

홍: 노동자 학교의 주요 교육내용, 방법은 무엇입니까?

P: 기본적으로 교육내용은 철학, 역사, 경제이구요. 내용은 노동대학이나 노동자학교나 비슷해요. 시간 배분의 양이 다를 뿐이죠. 예를 들면 노동대학은 역사를 5번, 경제를 8번 한다면, 노동자 학교는 한번에 한개 씩 혹은 두번 정도, 그리고 내용은 더 쉽게 하죠. 교재는 강사들이 마련을 하고, 강사 강의 듣고 토론하는 방식이죠.

교육방법에 있어서 노동대학을 하면서 많은 문제를 느꼈어요. 노동자 학교는 한달 밖에 안되니까 강의 듣고 토론하고 그래도 기초과정이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노동대학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 되어야 하는데, 별로 향상되지 못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무슨 토론이나. 토론하지 말고, 그냥 강의 3시간 하자”라고 그랬어요. 2학기, 3학기 지나고 보니까 “강의 한시간 듣는것보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구요. 본인들이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거죠. 졸업생들 평가하면서도 토론을 강화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좋은 강의도 중요

하지만 자신이 책을 읽고, 정리하고 토론하는 것이 그냥 강의를 듣고 입력시키는 것과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강의식 교육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스스로 책을 읽고 발췌하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말도 하고, 사회도 보는 훈련을 해야지 하나라도 자기 것이 되고, 조합원들에게 가서도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고, 나중에 핵심 간부 상층간부가 되어서도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 교육자료는 어떻게 제작합니까?

P: 담당 강사들이 만든 교안을 묶어서 교재를 만들죠. 철학같은 경우는 옛날 학생운동 때 하는 것 같은 걸로 했어요. 역사도 역사와 노동운동을 했고. 경제도 자본론을 쉽게 풀어서 하는 내용으로 했고. 훨씬 더 쉽고 그래요.

홍: 학습자들의 주요한 특성은 무엇입니까?

P: 외우질 못하죠. 암기력도 떨어지고. 근데 성인들의 특징은 노동현장에서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 때는 외우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 살아온 경험에 근거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아무리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살아온 경험에서 자본주의적 삶의 경험도 많기 때문에, 노동 대학하면서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몇몇은 자기가 그 동안 헛살았다는 생각도 하고, 기치관의 혼동이 오니까 잡도 못자고 그랬어요. 학생운동 처음 시작할 때도 혼동이 많이 되잖아요. 노동자들도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투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바뀌고 그러면 좋은데, 일부에는 내용에 반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깨고 나오면서 '학교 때에는 보지 못했던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반발 때문에 중간에 이탈하고 그런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많긴 한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것 때문에 안나오

고 이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대부분은 임투 시기에 4월달에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서 못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내용 때문에 안나오는 경우가 있을까 해서 중도 탈락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경우는 안나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너무 참여하기 어려웠다. 노동조합 파업 들어가는데 시간 문제가 심하고, 일주일에 한번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홍: 학습 이후의 과정이 있습니까?

P: 몇 명은 모여요. 지금도 두 달에 한번씩은 졸업생 모임을 하는데 많이 안와요. 서로 보고 싶은 사람들 중심으로 오고, 한번은 강의를 듣기도 하고, 어디 가고 싶은 곳에 가기도 하고 그래요. 학습 이후의 과정이 사업으로 배치되진 않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업으로 배치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졸업식 끝난 후에는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하기를 바랬죠. 학생회에서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노력이 충분치 못했을 수도 있고.

홍: 평가 방식은 어떻습니까?

P: 졸업식 하면서 평가를 했었고, 졸업한 이후 5개월 이후에 또 한차례 평가를 했어요. 그때 많이 나왔던 것이 “노동자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참필요하다.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기가 힘들었다. 강의 한시간 듣고 토론하기는 힘들었다. 듣고나서 소감 나누는 정도고, 강의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론하는 게 어려웠다. 토론식 교육 강화할 필요성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노동 대학같은 경우는 “우리(1기)는 실험대상이었다. 그러나 한번에 완성되는 것이 없으니까, 2기도 계속해야 하고, 그러면서 완성도를 높히면서 잘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홍: 학습자들의 경험을 학습의 공간으로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P: 토론할 때도 현장 사례와 경험을 중심으로 뽑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강사가 우리가 원했던 내용으로 해준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구요. 노동대학은 외부교수들이 많으니까 리허설을 사전에 하기는 힘들고, 노동자 학교의 경우는 대부분 내부 사람들이 강의를 하니까 1기때는 하지 못했지만, 2기 때부터는 사전에 교안 만들어와서 강사가 리허설, 브리핑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학생들의 상황은 이렇다고 이야기도 해요. 문제는 그렇게 해도 강사들이 현장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원했던 내용들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제법 있었어요. 민주노총 조직에 있어도 상층에 있으면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힘들니까 현장 상황을 보고 자료도 구하고 그러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현장을 거의 모르니까 이론, 일 반론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죠. 많이 이야기 해도 안돼. 그래서 내가 코드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노동대학은 교수진이 대부분이었죠. 노동자학교는 3명이외에는 대부분 민주노총 교육담당자나 연맹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2기 노동대학은 대부분 참여교육으로 했으니까 강사가 3명밖에 없었어요.

홍: 교육을 진행하는데 가장 어려운 지점은 무엇입니까?

P: 교육환경 문제이지요. 노동조합 활동을 하니까 시간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가 크고. 내부적으로는 본인들의 학습의지죠. 가짜라해서 끌려나온 경우는 안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등록만 해놓고 안나오게 되더라고요.

홍: 모집 방식은 어떻습니까?

P: 노동대학은 1기 때는 지역연맹의 신청해서, 심사를 해서 민주노총으로 올려보내는 식으로 했었는데, 2기 때는 너무 초급간부이거나 그런 분들은 빼거나 그래야 하지 않나 싶어요. 참가신청서를 내는 거지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가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오는 저우도 있죠. 학습의지가 강한 사람은 결석을 안 해요. 웬만하면 출석하고 개근하는 것이 눈에 보이죠. 나름대로 의지가 있으면 현장 문제가 겹쳐도 한 두 번 빵구가 나도 어떻게든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몇몇은 가봐라 해서 오다가 하루 이틀 나오다가 그만 나오는 경우가 있죠.

홍: 학습소조 운동이 계속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P: 지금도 지역본부에서는 그런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노동대학 2기는 그런 시도를 대중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이죠. 2기 노동대학이 제대로 마무리 되면 학습소조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구요.

홍: 노동조합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P: 고민은 교육을 해도 실제 교육이 그 사람의 의식과 활동에 얼마나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기존 몇 년간의 교육은 그냥 씨뿌리기 교육이죠. 짝뿌려서 현장에서 되면하고 안되면 못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제대로된 간부나 활동가들이 양성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교육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30명에 대해서 짧은 시간 교육하는 것보다 5명이라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을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노동대학 1년과정을 졸업하는 사람이 삼분의 일이 안되요. 그게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외국같은 경우는 노사관계가 안정적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교육을 좀하다보면 파업하고 있고, 좀 하다보면 해고되어 있고, 좀 하다보면 회사 때려쳤고... 너무나 안정적이지 못해요. 1기 노동대학 입학생들을 보니까 2하기가 되고, 1년이 되니까, 핸드폰연락도 안되고, 보직도 바뀌고, 너무나 변화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이 쉽지않죠. 연맹이나 지역단위에서 일정정도 담보해주고, 후속교육과정을 계속하면서 교육이 교육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에서 접합되면서 활동과 삶과 교육이 같이 맞물리면서 실제적인 도움과 변화를 줄 수 있는 교육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동대학 끝나고 보니까 학생들은 노동대학에서 뭔가 배웠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되었어야 한다는 미흡함을 느끼게 되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대학 졸업생 대상으로 후속교육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노동자학교가 정착이 되고, 노동대학 2기를 좀 해보고 좀 되면 더 그 후속전문과정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운동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올바른 관점과 능력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주는게 실천과정에서도 얻을 수도 있지만 교육에서 보다 체계적이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홍: 민주노총 집행부에서 교육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P: 마인드가 없진 않아요. 초기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교육하는 데도 '지금 집회가 있으니 다음으로 연기해라'라고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집회랑 겹쳐도 그냥 하죠. 사람이 조금 덜 오긴 하지만 그래도 해요. 물론 중앙에서 노동자대회 하는데 교육을 잡지는 않지만, 근데 매주 토요일에는 집회가 있잖아요. 그것 피해 가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겹쳐도 그냥해요.

12. 녹취 자료 11 - K노동조합 교육위원 C씨 면담 녹취 내용

일 시: 2002년 11월 14일
장 소: 신촌 음식점
면 담 자: 정민승(정), 박혜경(박)
면담 대상자: C씨(K 노동조합 교육위원)

정: 조합원 교육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니까?

C: 교육위원들이 모여서 조합원 교육을 위해서 이번에는 뭐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면,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쪽 한번 듣죠. 그리고 교안을 만들어서, 프리젠테이션 영상까지 만들어서, 시간을 일주일 정도 내서 몇 명이 그 작업을 해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강사를 요청해서 강의를 듣는거요. 조합원 교육에 대한 주제를 정하기 전에 이번 교육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면 강사를 섭외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의 경우에는 복핵문제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복핵문제에 대해서 듣고, 노동과 교육이면 교육에 관해서,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자동차산업의 전망, 그리고 요즘에는 근골격계가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근골격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자, 그리고 요즘에 농민문제가 크니까 농민문제에 대해서 등에 대해서 적절한 강사를 섭외해서 듣고, 그리고 이게 부족하다 생각이 들면 보충강사를 섭외를 해요. 그리고 교안 만드는 시간으로 넘어가는 거죠. 첫날 1강하고, 토론하고, 2강하고 토론하고.... 교안 작성을 하는거죠. 스스로 공동 교안을 만들고, 그게 끝나면 공동 교안에 기반해서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개인 교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강의에 들어가는 거지요. 자기가 강의를 해야 하니까 긴장하고 열심히 해요. 자기가 만든 것을 가지고 4-5개월을 해야 하니까. 일종의 강사를 양성하는 곳이죠. 시작하면 5개

월 정도 해요. 작은 공장은 3개월 정도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 정도 해야 하는 강의를 해야 하니까 긴장하고 준비해요.

박: 한사람이 몇 번 정도 강의를 하지요?

C: 거의 매일 하는 것이죠. 두 강의까지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준비를 덜하거나 사정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강의가 훈련이 되지 않은 경우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번 한 강의만이라도 해봐라'하면서 하고. 물론 전문가들이 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생생하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조합원들이 같은 동료인데도 잘한다고 생각도 하지만, 계속하다보면 외부강사에 대해서 신선함을 느끼는 경우도 거꾸로 있어요. 같은 사람이 계속하니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해요. 그래서 일 방식, 강의식, 주입식교육만으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토론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저희가 노조교육에서 가장 처음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사용을 했어요. 영상교육도 하고, 캡처 받아가지고. 시사문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프칸 문제면 KBS, MBC 다 찾아가서 영상 자료 받아서 보여하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도 신선함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대화식, 토론식 교육 고민하고 그러고 있죠. 내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 교육위원은 몇 년 정도 하신 것인가요?

C: 현장 내려오고 나서부터이니깐 한 4년 정도 되었어요.

정: 교육위원 운영방식은 어떻습니까?

C: 교육위원 내부 규정이 한번 교육위원 하면 영원한 교육위원인데, 본인이 탈퇴 하면 몰라도, 새로 들어오면 교육위원이 만장일치제예요. 저 사람이 교육위원을 해도 되겠다고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교육위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새교육위원이 되려고 한다고 해서 거부한 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노동자보고 교육하라고 하면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교육위원 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듣는 것도 훈련이 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3개 공장 2개 부분까지 작년에 도입해서 올해는 정착이 되는 상황이죠.

정: 조합원과 교육위원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C: 자기 공장 교육은 자기 공장의 교육위원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전에 잠깐 교육위원을 교환해보자라는 것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소하리 공장인데, 광주공장에 가면 사례가 달라요 그래서 “광주공장에는 이러 이런 일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공장은 이렇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면적으로 교환을 하지는 못해요. 그 이유는 각자가 책임져야 할 자기 공장이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한번만 잠깐 해봤는데, 전면적으로는 하기 어려워요. 교육 시기는 같은데, 자기 공장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 자기 공장 교육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강의를 하다보면 “몇 강 남았지, 몇 명 남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요. 마치 라인을 처리하는 거와 비슷한 느낌이 하게 되는 거죠. 2망 4천명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 한번에 100명 150명 하니까.

정: 조합원과 교육위원이 긴밀하게 결합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C: 예 그렇지는 않아요. 이번에 제일 잘하고, 능력 있는 교육위원 분들이 대거 교

육위원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교육위원들이 대부분 활동가들이데. 활동가들의 꽃은 대의원이거든요. 교육을 하다보면 대의원 활동을 등한시하게 되거든요. 대의원은 자기 선거구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싸우고, 생활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활동을 잘 못하는 거죠. 그게 언제 평가를 받나면 선거 때 평가를 받아요. 선거 때 떨어지는 거죠. 아주 증견 활동가들이. “너는 교육위원 한다고 부서에 신경도 쓰지 않고 맨 날 돌아다니기만 하지 않았느냐, 4개월 6개월씩 공장 비우는데 너 같은 사람은 대의원 하면 안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거 목하겠어”라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준비되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대거 참여를 한하게 되었고.

정: 교육위원 활동과 조직의 생리가 맞지 않는 거네요?

C: 교육위원을 하려면 대의원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몰라도, 라인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나머지가 힘들어 지잖아요. 대의원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교육위원이라고 해결하지 않고, 개별적 상담도 할 수 없고, 고충처리도 할 수 없으면 돌아서 버리는 거죠. 그런 점이 활동가들이 어려운 점이지요.

정: 토론교육을 많이 하신것 같은데...

C: 조합원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인원도 많고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고민하고 있어요. 게시판 토론도 고민하고, 게시판 토론의 방향, 실천활동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정: 노동조합의 교육경우에는 다른 교육과는 달리 교육이 실천성을 강하게 가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C: 우리 교육위원들의 토론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항상 같이 논의되어야잖아요.. 토론 자체만을 위한 토론을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죠. 말하자면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근골격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면, 우리 교육위원들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죠. 노동조합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작업에 대한 표준화를 요청하자,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근골격계에 대한 사례와 대처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산재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골병들었어, 옆구리가 쑤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들은 스스로 자질향상과 실천적 적극성을 도출하기위한 토론을 했는데, 교육이 없는 시기에 스스로 연구모임을 강화하자라는 내용, 실천방도를 끊임없이 도출해서 실천하자라는 내용이 토론되었어요.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결정이 되죠. 결정을 하면 다는 안되더라고 하는 만큼은 하는 거죠. 안되면 나중에 또 평가를 하니까.

정: 조합원 교육의 주제 선정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C: 맨 처음에 교육위원들을 1박 2일 정도로 모아요. 모아서 이번 교육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토론을 해요. 그러면 이런이런 문제들이 지금의 사회적 문제이고, 이러 이러한 욕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강사를 섭외해라라고 하죠. 그 강사 섭외는 집행부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집행부가 노정연을 좋아하면 그쪽으로 많이 하고, 한노연을 좋아하면 그쪽으로 섭외를 많이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강의를 받고 나서 이건 너무 편향되어 있다거나 부족하면 보충 강의를 요청

해요. 그 보충강의는 누구를 섭외해라라는 식으로 하죠. 섭외는 노동조합 교육부장, 교육실장이 하고요. 섭외해서 오면 강의를 받고, 토론하고, 교안을 만들고. 그래서 영상팀이 중간에 결합을 하는데, 영상팀에게 이러이런 자료가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 부시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 자료를 수집해 달라고 하면 방속극 같은 곳도 가서 자료를 수집해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프리젠테이션 교육을 받은 교육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필요한 자료를 따오라고 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개인교안을 만들 때는 영상 자료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고, 갑자기 다른 사진이 필요하거나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영상 팀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교육위원에게 보내줘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정: 교육위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니까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하여 노조원들은 강의를 듣기만 하니까 많은 발전이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조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C: 참여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번에 가을 조합원 대상 강의를 하는데, 대개 정치성을 띄는 것이지만 강의를 개설을 하면 모이는 사람들이 결국은 활동가들이죠. 조합원들이 접할 수 있는 교육은 교육위원들이 하는 조합원 교육밖에 없어요.

정: 조합원들이 뭔가 같이 만들고, 예를 들어서 동아리 방식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C: 활동가들은 하지요.

정: 활동가들만 하나요?

C: 일반 조합원들이 할 리가 없지요. 조합원들 중에 적극적인 사람이 활동가가 되는 거잖아요.

정: 일반적인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은 없습니까?

C: 그것은 조합 체계로 묶여 있어요. 노동조합에서 목적의식적인 토론을 하게 되는 경우는, 50명당 1명씩 있는 대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지요. 대의원들 교육은 따로 해요. 예를 들어 이번에 '근기법 개악, 경제특구 법안' 문제가 있으면 하룻정도 대의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조합원들 교육시키라고 하지요. 그러면 자기 선거구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번 경제특구법의 핵심은 뭐고, 과정은 뭐고, 문제는 무엇인지, 근기법 개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동지들이 열심히 함께 싸워야 한나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하지요. 근데 보통 다 생활인이라서 조합원들이 소모임으로 모여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는 못하죠.

정: 조합원들과 교육위원들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나요?

C: 조합원들이 교육위원들을 '기능'으로 이해해요. "저 사람은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정: 교육위원들에게 상담을 한다면 그런 경우는 없나요?

C: 그건 다른 코스들이 있으니까. 고충처리 상담실이 있고, 대의원들이 있으니까 그건 다른 문제이지요. 대개 1인 2역 3역들이 있긴 해도. 요즘은 활동가들이 하나만 집중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정: 그럼 교육위원들이 약간은 선전, 선동에 초점을 맞추는 셈이네요?

C: 물론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전, 선동 기능에 강화하는 것은 아니예요. 각각의 노동조합 활동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집회 열고 선전, 선동하는 사람들은 다 따로 있으니까. 교육위원들 구성이 전직 간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직위원장들은 거의다가 교육위원들이예요. 전직 위원들이 교육위원 요청을 많이 받아요. “당신이 고민도 많이 했고 전직 간부도 했는데 교육위원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요청을 받죠. 근데 요즘을 좀 달라지고 있어요. 점점 전직 간부들이 교육위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아래에서 활동가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특이하게는 활동가가 아니었던 보통 조합원이 “나는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나에게는 교육이 매력 있는 것 같다. 교육을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와서 “그러면 들어와서 훈련받아라”라고 해서 이번에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박: 원하면 다 받아주는 것인가요?

C: 꼭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정: 외부 강사가 아닌 교육위원이 노조 교육에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C: 외부강사가 다 처리를 할 수가 없고. 교육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강의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교육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까지의 교육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주입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이런 것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교육을 하고, 받는 것을 스스로 선정해내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해요. 왜냐하면 교육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강의식 교육에서 다른 방식으로.

정: 조합원교육에서 조합원들이 교육내용을 공유하는 정도가 높습니까?

C: 지금 상황에서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질문시간에 질문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노동조합 간부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 한데, 그런 강의가 아니면 공격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가끔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교육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지만, 노동조합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여식 교육을 도입했다고 하면, 참여식으로 해야하잖아요. 스스로 쪽지에 자신의 생각을 한 줄이라도 써서 자기가 붙이고 싶은데다 붙이게 하고, 몇명씩 모아서 토론하게 하는 이런 참여식 교육을 하면 잘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훈련이 일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정: 그런 훈련이 되어 있나요?

C: 왜냐하면 현장에서 항상 분임토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상에서 하는 분임토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의 기술의 발전에서 분임토의가 차이하는 것이 엄청나잖아요. 현장에서 일상화되어 있지요. 토론능력이 있는 거죠. 방향만 틀어주면 할 수 있는거죠. 예전에는 분임토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시간을 메꾸는 것으로 하고 있는 식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해본 경험은 있어요. 우리도 분임토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해요. 왜 그러냐면 분임 토의를 안 해도 한 두 명이 요구하는 바를 문서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빼서 토론하지 않아도. 도입, 전개 다 과학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예전에는 다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지면서 “저것

은 회사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를 쥐어짜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왜 저걸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깔리면서 할당량이 있으니까 조장이나 고참들이 앉아서 혼자 써요. 그것을 제출하면 상급을 주거든요. 상급이 걸려 있으니까 한건당 얼마이고 그러니까 하는거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재산상의 효과가 수십억, 수백억인 경우가 있으니까요.

정: 회사측의 분임 토의에 대한 조합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C: 별로 좋아하지 않죠. 별로 긍정적이지 않죠.

정: 노동조합에서의 현장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C: 있었죠. 예전에 대표적인 현장토론으로 광주공장에서 도시락 간담회라는 것을 했어요. 대의원대회를 하라고 하면 하는데는 하고 안하는 데는 안하는데. 어떤 반을 정해서 그 날은 점심을 도시락으로 준비를 해서 점심을 먹으면서 토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집행부 고민은 이것입니다. 조합원들 고민은 뭘니까. 이것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왜 이런 것은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식의 도시락 간담회를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집행부의 열정이 없으면 정말 하기 힘들기도 하지요. 조합원들은 이런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와 구체적인 문제가 걸리면 적극적이예요. 예를 들어 근기법, 임단투의 문제면 피튀기죠. 자기의 구체적인 문제가 걸려 있으면. 주제와 개입하는 방식이 중요한 문제죠. 교육위원들이 한 두번씩 하는데 중복해서 다 바쁘는데.. 그 시간 빼서 교육위원들에게 주문을 하는 거죠. 교육할 때 임원과의 대화시간을 넣어요. 그러면 임원 분들이 나와서 “현정세는 이렇습니다. 진행하는게 이거고, 이렇게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 4개월 정도 교육을 하다보면 뭔가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C: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강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아주 구체적인 관심을 갖는 사항, 예를 들어 임단협 시기에는 단협에 이번에 꼭 따내야 할 핵심, 요구안,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많죠.

우리 교육과 회사 교육이 경쟁을 해요. 회사에서도 교육을 해요. 회사 교육실에서는 사외 강사를 섭외해서 훨씬 재밌고, 돈도 투자하고 그래요. 그게 사람들이 거기에 더 호응을 하면 위기감을 느끼죠. 말도 안되는 코메디 같은 교수들 데려다가 교육을 하죠.

정: 성공회대 노동대학에서 참여하셨는데, 그쪽에 참여하시면서 느낀 바와 이곳에서 교육위원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는 바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C: 나는 노동대학 분위기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 속에서 노동대학을 간거거든요. 내 스스로는. 예전부터 소모임부터 교육을 받기도 하고, 활동도 하면서 이제까지 해왔는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대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사회적 영역이. 대학은 구체적인 실천과 벗어나서 자기추적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때로는 쉬러도 가잖아요. 쉬러도 가면서 자기의 에너지를 추적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특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교육위원은 노동 현장이라는 치열한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여가를 가지고, 추적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열한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요구하고, 실천으로 전환하는 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활동가들이 특히 노동조합은 여기 현장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노동자는 사회적으로 스스로 그런(대학)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학제도라

는 담은 보통사람들에게는 특히, 대학의 문지방을 밟아 본 사람들에게는 간단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하늘같은 곳이잖아요. 내가 성공회대를 좋아하고, 1기부터 하는 이유가 그런 점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부담을 안주잖아요. 대학에서 고민하는 내용이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는 대학이 없잖아요. 그 정도의 고민을 하는 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훌륭한 대학이죠. 그런 고민의 십분의 일이라도 하는 대학들이 자기 권위로 존재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학이 있어야 한다. 활동가가 한 걸음 바깥에서 고민할 수 있는 대학. 노동자도 쉽게 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대학. 대학은 제도적이면서도 대학다우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대학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성공회대가 맞아 떨어져서 거기에서 “나를 실험으로 생각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마치고 고민해서 대학원 과정도 만들어보자 한 것이죠. 성공회대의 관점은 학생이 만드는 대학이라는 것이죠. 학생이 고민하고, 학생이 강의 스케줄을 짜고,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원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모델이 되겠다고 한 것은 “이렇게 해서 교육해서 마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것이죠. 기대했던 것은 유덕상이나 장○○같은 사람들, 이름 좀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같이 왔었어요. 1기 때. 근데 다 떠났어. 장기적 비전이 없기 때문에 떠났고. 나는 처음부터 그런 구상을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만들어지면 노동자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길을 만드는 것이죠. 없는길을.

민주노총 노동대학은 길을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또 성격이 달라요.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노총은 중간간부에서 고급간부까지를 양성하는 교육사업을 해야 되요. 대학을 하면 안되요. 명쾌하거든요. 조직으로서의 조직 내에서의 양성 프로그램을 해야 하지 대학으로 가면 안되고, 조직의 특성상 대학으로 갈 수도 없어요. 민주노총 내부에서 는 간부양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동조합, 활동가를 조직하는 방법, 대중을 조직하는 방법,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학은 노동자가 접근할 수 있는 대학이 되어야 하고, 민주노총 교육은 현장의 조직화에 뿌리내리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내가 연맹에 있을 때 제 꿈이, 제 공약이 연맹에 '간부양성 교육기관 수련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 만들지는 못하고 내려왔는데 그것과 연동해서 생각해 보면, 노동조합의 상급조직은 명쾌하게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소모임 조직'을 들 수 있죠. 말하자면 기층 공방조직인데, 공방조직은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공방조직을 정치사상학습공간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 노동조합이 생황에 가깝고 자발적으로 하는 학습 소모임 같은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C: 그것이 교육의 핵심이에요. 제가 현장에 내려와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제가 씨클 연합회라고 회사에서 만든 것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스킨 스쿠버, 행글라이더, 스키, 바둑, 서예, 덴싱, 축구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을 회장에서 전력으로 잡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 내려오면서 내가 아는 후배들은 전부다 씨클에 들어가라고 하고, 저도 들어갔어요. 유도부, 검도부 그런 데가 옛날에는 구사대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데에 다 들어갔어요. 저도 들어갔는데 씨클에서 씨클 스스로의 공부를 해요. 뭐냐면, 사진반은 사진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강사도 섭외해서, 햄(HAM)은 햄공부하고 행글라이더는 행글라이더 공부하고. 그것을 지원받고 스스로 회비 내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무엇이나면, 이런 공부를 통해서 적어도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방향을 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진은 누드부터 시작해서 환경까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너무 누드나, 고궁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할 수 있고, 현장에 생동하는 투쟁하는 모습이나 환경도 모델로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는 공부가 가능하다는 것이예요. 내가 교육이라는

테마에 대한 실천과 고민은 이런 것들이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고민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예요

내가 정말로 조직을 하면 활동가들에게 아직 조직화할 수 있는 역량이 안되니까 역으로...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 공부나 자기 전문성이 사회성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듯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사회적인 것이 사회성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 활동을 하면서 원칙을 세우자는 거예요. 뭐냐면 활동가들이 최소한 현장조직에서만이 아니라 두개 정도의 조직에 가입하자는 거지요. 하나는 정당에 가입해야 한다, 가능하면 활동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하면 좋죠. 또 하나는 시민단체 하나는 가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예요. 활동가들이 그런 조직에 가입하게 되면 그것을 매개로 해서 주민사회에 가는 거예요. 정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민사회로 가고, 시민단체를 통해서 주민사회로 가고, 활동가 하나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활동가가 쉬게 된다면 성공회대 노동 대학 같은 데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

나는 성공회대의 노동대학에도 관심이 있지만, NGO대학에도 관심이 많아요. 노동대학이 완성이 되면 NGO대학을 가려고 해요. NGO대학과 노동대학원이 넘나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동대학을 졸업하고 NGO를 들어가면...퓨전이 될거라는 거죠. 노동운동과 NGO라는 것이 교육이라는 영역, 활동가의 영역에서 노동조합과 NGO가 결합되는, 노동조합을 하면서 하나의 NGO에 가입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노동성과 시민성과 대중성을 함께 획득하는 가능성이 있고, 상당한 실험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이라는 것이 성과를 바로 내기는 힘들겠지만, 맥을 이어나가는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 활동가가 정치성에서 사회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C: 이런 고민을 이야기 한 적은 처음이지만,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니까 사례만이 아니라 사례를 일반화 시켜서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운동의 여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 운동에서의 결정적인 한계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일관성이라고 주장했던 편협성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일관성이라고 주장했던 편협성이 깨지는 순간 사람들이 운동에서 이탈해 갔지요. 제가 운동을 20년 정도 했는데, 저와 처음에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현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평생을 같이 가자고, 목숨을 걸자고 했는데 지금은 없단 말이예요. 왜 그럴까? 그들이 의지가 약해서일까? 그런 점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것 만은 아니란 말이예요. 지금도 대부분은 자기가 노동출신이라고 이야기 한단 말이지. 왜 우리만 남아 있고, 활동가는 떠나고 대중만 남아 있는 운동이 되었는데 생각해 보면, 다양성 속에서 일관성이 존재해야 한단 말이죠. 다양성이 없는 거예요. 다양성이 없으니까 운신의 폭이 너무 좁게 되고, 운신의 폭도 좁고 포용력도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시민단체에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중속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사이에는 루비콘강과 같은 건너 설 수 없는 경계가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이 강을 넘나들어야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 같이 헤썰리게 가지 않고, 저쪽이 저쪽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편협하게 가지 않고 그렇단 말이죠. 이런 것을 넘나들 수 있어야죠. 개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노동운동이 시민운동을 개량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개량이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노동운동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개량이라고 하는 거죠. 함께 하면 개량이 안되게 하는 거잖아요. 노동운동이 여러 욕구를 다 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시민들의 요구 환경, 첨단 테크놀로지,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노동운동이 다 담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고맙고, 함께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재들은 우리와 떨어져 있으니깐, 재들은 어쩔 수 없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한 욕구를 아는 사람들은 떠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면, 재들은 편협한 애들이야라고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저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욕하면서도 와주면 고맙고 같이 하고 싶고 좋은거잖아요. 결국은, 함께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런 것이 되어야 하죠. 이런 것이 되면 노동운동도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으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해요. 얼마남지 않았어요. 근데 NGO는 다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기 주민의 문제인데, 정작 안으로만 자기 삶의 영역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데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신경을 안써요. 예를 들면 쓰레기장 문제가 터지면 왜 마누라만 보내냐고 했어요. 정작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문제인데 노동운동을 한다면 노동운동 현장에만 있고, 마누라만 보내느냐는 것이죠. 꼭 시간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술도 먹고, 피업을 할때는 연월차 휴가도 쓰고 그러는데, 업무가 끝나면 그런 곳에도 갈 수 있는거죠. 예를 들면 학교 가는 육교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가지 않고 마누라만 보내느냐는 것이죠. 우리 운동은 자기가 거쳐하는 삶속에 뿌리내릴때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운동은 공장 안에만, 직장 안에만 들어와 있는거죠. 그런 점에서 운동의 확장이 필요한 것이죠. 한 노동자가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삶이 확장되고, 운동에 참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확장되는 그런 운동을 해야 하는데, 하나의 생각으로만 그렇고 노동조합 내에서만, 대의원이 되어야 하고, 간부가 되어야 하고, 위원장이 되어야 하고, 이진투구를 해야 하고, 헤게모니를 잡아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정치한다고 하면 뭐하는 거냐고 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양성이 존재하는 운동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합원들 교육하면서도 이런 점에 가끔 대해서 말하죠. 예들 들어 당신네 학교, 동

네에 문제가 생길때 간사람 손들어보라고, 그럼 없어요. 그럼 할머니나 마누라가 간 적은 있다고 물어보면 좀 있어요. 왜 남자들은 안가냐.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나 남편은 권위적인 남자이니까 안가고 마누라라 할머니만 보내는 거죠. 당신은 왜 안가냐라고 물어보죠. 대부분 바빠서 안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바쁘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죠. 당신들은 자신들이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은 당신 마누라들이더라고 교육을 하죠. 여성들이.

정: 현장에 계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처음 봐요.

C: 이런 교민이 우리 교육위원들 중에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서도 현장이라는 것이 현재의 문제에 허덕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현장의 문제에 계속 허덕여야 하니까. 경제특구법 오늘 통과되었는데 그 문제도 있지. 고민되잖아요. 일년의 프로그램이 계속 있는 거니까.

정: 소모임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나요?

C: 어렵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예전에 소모임했을 때 경험했던 거랑, 지금 활동가들이 소모임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많이 다르니까. 다르잖아요. 예전의 소모임은 정말로 숨어서하는, 드러나면 큰일나는 그런 소모임이었으니까. 지금 소모임은 반공개화 되어 있어요. 강사가 필요하면 섭외도 하고. 소모임들도. 근데 이제 그거야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 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적으로 시민운동단체, 환경운동단체라도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삶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봐요. 역으로 오른쪽으로 가있는 씨클 운동을 왼쪽으로 만드는 것. 이제 까지 노동조합에서 그런 것을 등한시 했어요. 씨클 활동을 하면 저거는 회사에서 하

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우리 인사들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그럼 달라지는 거죠. 적극지원을 하면서 여러가지 활동가층의 영역을 더 많이 확장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 안에서 활동을 하던디던가, 그러면서 돈을 지원한다던가, 더 많은 시간을 빼준다던가.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도하는 바대로 강사를 섭외한다던가. “사진에는 이런 공부도 있지만 이런 공부도 있다. 이것도 다 작품이나. 그리고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플리쳐상이 있잖아요. 플리쳐상 받은 사진을 전부다 뽑아보세요. 전부다 시사적인 거잖아요.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바뀐다고 생각해요.

정: 노동조합에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C: 조금씩은 관심을 가지는데. 그렇게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노동조합운동이 맨날 입단투에 허덕이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사람들은 살사댄스도 배우러 다니고, 사교댄스도 배우고 다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고민하는데 그것도 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항상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거죠.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서 ‘이렇게 하니깐 좋더라’는 것이 쉽죠. 그냥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일반화 시켜야죠. 실천하면서 일반화해야 하죠. 모범을 창출하고, 모범을 일반화하고, 모범을 창출하고 모범을 일반화하고, 그런 과정을 해야 하는거죠.

정: 노동자이자,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그런데....

C: 폭력남편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자식 기죽은 것을 못보는 부모가 많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운동가는 새로운 세계를 잉태하고 있어야 해요. 스스로가. 참 정 말 새로운 사회를 잉태하지 않고서 새로운 사회를 말로만 한다는 것이죠. 집에서

그렇고, 그래서 안돼요. 운동을 너무 패배적으로 하니까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집에서는 누워서 옆에있는 마누라보고 재털이 가지고 오라고 하고서는 나와서는 멋있는 이야기만 하는거지. 누가그러더라고요. 운동을 안하는 사람이. 부부하고 같이 지하철을 탔는데 부인이 애기를 업고 탔는데 자리가 하나 나니까 남자가 펄쩍 앉더라 말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니까.

박: 교육위원들 사이는 친밀합니까?

C: 교육위원들은 서로 편하죠. 합숙을 꼭 2주씩 하니까 토론하고 술먹고 토론하고 술먹고, 같이 고민하니까 조직에 상관없이 편해요. 그리고 합숙이 끝나면 여행을 떠나잖아요. 1박 2일이나 가서 평가하고 같이 술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죠. 그 일정이 일종의 특권이죠. 그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박: 교육주제를 정할때 마찰은 없습니까?

C: 교육 주제 정할때 가끔 그래요. 나는 절충형인데. 한쪽에서는 소파, 통일, 이라크, 반미로 가져고 꼭 이야기 해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민중생존권, 노동조합, 근거법 쪽 내요. 그러면 그걸 추려가지고 하자고 그래요.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공동교안을 만드는데, 공동교안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개인교안을 만들때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통일만이 살길이다. 아니다. 민중권력 쟁취해야지 통일이 뭐냐”라는 식으로.

박: 교육진행상에서 갈등은 없습니까?

C: 교육시간에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데로 하죠. ‘너 왜 그렇게 교

육을 하나?“라고는 하지 않으니까. 다만 임단투 교육, 고용에 대한 교육을 할 때는 갈등이 좀 있는데, 조합하고 반대되는 조직에 있는 사람은 조합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조합은 화가 나는거지. 교육한다고 해 놓고서는 씹고만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갈등이 있는거지.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 교육을 하면 사람들이 변하나요?

C: 변하죠. 많이 변하죠. 처음에 교육위원 할 때는 덜위험해요. 근데 상투적으로 할 때, '2시간! 내가 때울 수 있어'라고 할때가 가장 위험해요. 준비안하고 그냥할때. 교육이라는 것은 언제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난 술먹다가도 마이크 잡으면 교육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땐 위험하죠. 문제가 되죠. 교육이라는 것은 대중과의 만남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이 별로 안좋거나, 삼부의 일이 잦았던가 그러면 그날은 망치는 거죠.

제가 골방교육부터 수백, 수천명 교육까지 들어보기도 해보기도 했는데, 받을때는 할때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제가 적절했느냐, 그리고 주제를 풀어내는데 대중과 하나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어떤 느낌이 있어야죠. 이런 교육은 이래서 불만이야라는 느낌이라도. 교육이라는 것은 문제의식을 줘야 하는데. 문제의식을 주지 않는 교육은 뭔가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회사교육이 그렇거든요. 회사에서는 데리고온 교수들 탈랜트처럼 뭔가 나볼대기만 하고. 재미는 있어. 저도 일부러 많이 보는데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재미만 있고. 텔레비전에서 하는 주부교육은 그래도 뭐라도 주더라고. 옳건 그르던. 남편한테, 자식한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반대적 생각이라도 갖게 만들어야 교육이지. 나도 처음에는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하나의 문제의식이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거죠. 그것도 없이 어떻게

해. 설문지를 받아보면, 설문지가 적나라해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니까 별로 안 좋은 교육이죠.

회사교육은 명심보감 같은 유익한 내용을 하나 넣는다는가 그러는데, 그 내용이 삶으로 젖어들지 않아요. 삶으로 젖어드는 교육은 뭔가 갈등구조를 만들고 그래야 하는데, 명심보감을 아침마다 읽는다고 해서 삶으로 젖어들진 않아요.

정: 정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C: 주고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거죠.

13. 녹취 자료 12 - D단체 교육국장 P씨 면담 녹취 내용

일 시: 2002년 11월 20일

장 소: 민주노총

면 담 자: 정민승, 홍은광

면담 대상자: P씨(D단체 교육국장)

정: 지난번 면담내용을 봤는데, 몇 가지 더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노동자 대학, 노동자 대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어떻습니까?

P: 그 문제는 박혜경 실장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웃음). 왜냐하면 그 논의과정을 다 알고, 물론 노동대학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논의했던, 고민했던 내용들은 대체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구.

정: 아 너무 빠른 이야기인가요?

P: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오래된 이야기이구. 준비하고 시작한지 한 3년 됐구. 그 당시에서는 전반적인 노동운동이 담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니까.

정: 저는 일반론보다는 구체적으로 교육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판단에 대해서 더 듣고 싶습니다.

P: 그러니까 그 당시 지역이나 연맹의 간부들이 했던 이야기가 87년 전후로 많이

했던 소모임들이 90년 넘어서 2000년대가 되면서 많이 약화되었죠.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일반적인 실무능력이나 정책능력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 왔는데, 노동운동의 상태에 비추워봤을때 노동운동을 하는 자신의 동기, 마음 그런 것들이 투쟁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내가 왜 노동조합 활동, 노동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 돌아봄 속에서 시작하지 않으면서 운동에 대한 왜곡된 모습이나, 몇 가지 나타나는 좋지 않은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노동운동을 생각하고, 자기 단련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회의를 느끼는 활동가들이 많았고, 실천과정 속에서 실무역량이 향상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올바른 노동자의 관점 속에서 스스로 단련시켜내고, 항상 운동의 순수함을 지켜내려는 자기 정리과정, 이런 것들이 없으면서 약화되었던 거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운동의 뿌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한거죠.

정: 노동운동은 실천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잖아요. 그리고 자기 정리 과정은 예전 같으면 소모임과 같은 단위에서 소화를 했잖아요. 근데 2000년대에는 교육이라는 것으로 전환된 것같은 느낌을 가져요. 자기정리를 실천이나 소모임을 통해서 소화를 했었는데, 이제는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교육이라고 하면 80년대에는 계량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P: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교육의 형태가 다양한데, 전노협,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고 대중들이 상대적으로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면서 일부 비공개적, 반합적으로 활동했던 소모임이나 단체활동들이 많이 약해졌고, 그런 소모임에서 예전에는 많이 담당했었는데, 민주노총 건설된 이후에 그런 단위들이 많이 문을 닫고 약화되었죠. 그러면서 그런 교육을 담당하던 단위가 많이 약화된 반면에 대중조직에서는 그런 의식화 교육

을 중심에 두지는 않는거니까. 기본적인 노동조합 기본교육, 임단협 투쟁관련 교육,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것만도 버거웠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그런 소모임 교육이 가지고 있는 효과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운동가를 키워내는 유의미한 지점이 있었죠. 그것의 긍정적 측면을 현 시점에서 어떻게 계속해들어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교육을 하긴 어렵죠. 그런 교육이 세미나식, 토론식 교육이기 때문에, 강의식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조합간부들이 토론식 교육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자기가 직접 책을 읽고 토론하고 이런 것을 할려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강의식 교육으로는 한계가 많고, 그런 교육들을 전국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봐요. 정치교육이라는 표면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의 방식을 통해서 노동자의 의식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사람이 실천과정을 통해서 키워지기도 하지만, 이론이나 노동자의 세계관을 정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더 단련이 되면,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관점을 잃지 않는데, 그러지 않으면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

정: 민주노총에서의 교육에 대한 관점이 강의식보다는 토론식이 더 좋다는 것입니까?

P: 노동대학을 하면서 갖게된 문제의식이죠. 그러면서 노동대학 교육과정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던 것이고. 다른 연맹이나 단체에서 하는 숙박식 교육에서 볼 때도, 강의는 두개정도 있고 나머지는 토론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죠.

정: 학습 소모임에서의 고민들이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졌나요?

P: 옛날 같으면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도 나름대로 하는 곳이 있긴 있어요. 그런 대에서 교육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대중들은 소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 조직에서 몇 군데 정도에서 토론식 소모임 학습을 시도하는 곳도 있긴 있는데, 그런 문제의식으로 노동대학을 시작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노동대학이 그런 실천을 환기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 노동자 학교가 노동대학보다도 더 넓은 층을 상대로 하고, 그러면서 그런 교육을 더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는데요.

P: 노동자 학교는 한달 짜리 단기 교육과정이에요. 그리고 노동자 학교는 강의식 교육이에요. 노동대학을 2기까지 굴러보고 나서 노동대학을 한번 더 해보고, 토론식 교육에서는 교재가 중요하니까, 교재 작업이 조금 되면 강의식의 비중을 줄이고, 토론식 비중을 올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국사회가 워낙 토론문화가 약하다보니까, 토론교육을 얼마나 소화해낼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고. 노동자 학교에서는 그냥 일단 강의로 시작을 했던 거죠. 노동자학교를 마치면 기본적인 것이라도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정: 노동자학교 같은 짧은 시간에도 참여자들이 많이 변하나요?

P: 본인들은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모든 교육이 변한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곤란하더라도. 평가서에서는 사람들이 쓰는 소감문 정도를 보는 정도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의식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 평가서의 소감내용은 대략 어떤 것들이가요?

P: 주로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사회나 경제나 뭐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동자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감성, 느낌 수준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고 현실에서 활동하다보면 토론했던 내용들이 문득문득 생각나서 현실과 부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좀더 지나면 별로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정: 그러니까 노동대학에서 보다 깊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P: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우선 기간도 길고 6개월이니까. 시간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방식이 바뀌니까 부담을 많이 가지고.

정: 중도 탈락자들이 많나요?

P: 1기 때는 임투 시기가 거치면서 많이 떨어져 나갔죠. 1년은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졸업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막상 현실의 문제가 걸리면 원칙을 고수하기에는 현실이 안맞으니까. 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줄여서 6개월로 잡았던 것인데, 그것도 부담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 '대학'이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실천과는

거리가 있는 곳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노동대학에서는 대학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P: 노동대학은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민주노총에서 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들 생각하는데. 꼭 정치의식이라기 보다는 노동자의 세계관을 전파하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정: 노동자들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는 것인가요?

P: 커리큘럼을 보고 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일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오겠죠. 1기 할 때는 현장의 투쟁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왔다.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갑갑해서 왔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민주노총교육이니까 온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1기 할 때 요구분석을 해보니까 참여자들이 활동가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온다는 사람들도 많았죠. 2기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였고.

정: 참여자들의 요구와 기획 의도와의 갈등은 없나요?

P: 현장에서 활동가로서 필요한 실무능력교육은 연맹에서 카바를 하고 있어요. 파업학교, 단체교섭 교육 등, 이런 교육들은 연맹에서 하고 있고, 민주노총 다른 교육에서 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대학에서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노동대학에서 다룰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활동가 실무능력에 대한 교육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런 교육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 교육은 해당 연맹에서 하거나, 해당 연맹이 어려우면 민주노총과 같이 논의해서 하거나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 그러면 다른 교육과 다르게 노동대학을 하게 된 취지는 무엇이었나요.

P: 다른 교육과 다르죠. 왜냐하면 저희가 노동자 학교, 노동자 학교를 하기 전에 했던게 신입간부교육, 간부교육 1코스, 2코스, 교육활동가 양성교육, 각종 부서별 실무교육들을 했었는데, 그런 간부교육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한쪽지식은 의식화 교육, 노동이론 등이 들어가는 하지만 주요하게는 임·단협 때 조직분석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력 훈련하고, 노동조합 간부가 왜 되었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회의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교육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각 단위에서 그런 교육을 해왔고 하면 되기 때문에 노동대학에서는 그런 실무력 강화를 위한 교육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노동대학의 케치프레이즈가 '노동운동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일꾼 양성을 위한 노동자 학교, 노동대학'이었는데, 활동가들을 키우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실무능력을 잘쓰고, 컴퓨터 다루고 이런 능력도 중요한데,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꼭 정치의식이라고 딱 짚랄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몸은 노동자이면서 노동자의 세계관을 갖지 못하고 머리 속에서 자본가들이 주입한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노조간부 활동 한 이삼년씩 했지만 실제로 기본적인 의식은 보통의 시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런 상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 그런 교육을 성공회대 같은 다른 기관이 아닌 민주노총에서 해야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P: 성공회대와는 다르잖아요. 그 기조가. 성공회대는 시민, 지역 이런 쪽도 많이 가있지만 우리는 노동자적 관점을 갖는데 방점이 많이 가있죠. 강사진도 좀 다르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정: 학습자들도 다르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P: 다를 수 있겠죠.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예기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사회운동, 일반 시민운동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노동운동에 방점을 가지고, 거기는 여러 가지 방향의 내용을 다루지만 우리는 그렇게 다루지 않고. 기본적으로 학습 소모임 때 했던 내용을 기본으로 하니까. 그래서 너무 고리타분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고리타분해도 그런 게 안 잡혀져 있는데 세계경제가 어떻고, 기초가 안잡혀져 있는, 관점이 안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이야기 해봤자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안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육에 대한 욕구가 없기 때문인가요?

P: 그럴 수도 있고... 작년에는 많이 왔었죠.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안오긴 했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잘 안와요. 연맹에서 교육을 해도 날짜 잡아놓고 한명 밖에 안와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교육내용의 문제보다도 교육 환경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활동하면서 교육을 받으려면 그만큼 시간투자를 해야 하고,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니면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교육휴가제도나 이런 것들이 되어있어야 부담 없이 올 수 있을 텐데. 단적으로 보면 연·월차, 생리휴가에서 빼서 와야 하는 데, 아니면 회사에서 못 가게 한다던가, 이런 여러가지문제가 걸리면서 부담이되서 못 올 수가 있죠.

정: 그러면 노동자들이 개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의식이 당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P: 근데 저는 그것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면, 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또 노동자이지만 어쨌든 이 사회에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노동자의 세계관을 정립한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고민하는 것이고...

정: 그렇다면 성공회대 노동대학과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이네요?

P: 그럴 수 있죠.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고. 교재나 이런 내용을 봐도 상당부분 중복되죠. 거기는 시간을 오래하니까 더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시간이 짧으니까 그런 내용을 다 다룰 수 없으니까 꼭 해야 되는 내용만 다루는 거고. 강약의 차이는 다 있는 거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정: 민주노총의 교육이 진짜 이런 부분에서 노동자의 삶에서 기여를 했구나라는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P: 민주노총의 상태와도 맞물려 있는 이야기인데, 유럽이나 외국에 나가보면 노동 교육이 체계화되어 있는 데는 자체 교육원도 있고, 연간 교육계획이 나오잖아요. 일정표가 나오죠. 그 일정표에 맞춰서 조직별로 사람을 할당한다든지, 참석하고, 노조에서는 교육 참가비도 지급하고, 월급은 당연히 나오고 교육휴가제도 보장되어 있고, 사람을 지속적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계속해서 한 사람이 단계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이 되어 있어야 사람이 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을 받

고 현장에 투입되어 일을 하다가 재훈련을 받고, 이러면서 사람이 체험과 교육과정 이 증층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의 노사관계가 유럽같이 평화적이거나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이고 늘 싸우느라고 정신없기 때문에 교육원 만들어서 2년, 3년 교육을 해도 올 사람도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식이니까 그런 한국의 노사관계의 특징이 있는 거고, 예산문제도 있고. 근데 건물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건물은 근로에서 빌려서 교육하면 되는데 그렇게 계속 돌릴 수 있는 인력도 안 되지만, 인력이 된다 하더라도 연간 교육을 잡아놔도 집회, 투쟁, 파업, 임투 이런 것이 지나가면 다 못오고, 빗겨가야 하고. 그러니까 교육은 하반기, 그리고 임투 몇 개월 전 이렇게 교육 시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잡아서 집중적으로 해야 하지, 엄한 때에 잡으면 사람도 안오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를 노려서 교육을 해야지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나 시키고 나면, 그 후속 교육에 다음 사람이 교육을 받고 그래야 하는데, 이렇게 안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씨뿌리기 교육이라고 했던 것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현장에 돌아가서 그들 중에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되는 건데, 안되면 현장에 조합원으로 해야 하고.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이 사회 속에서 노동자의 나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생각해보고, 사회에서 나타나는 제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다못해 대선이 있으면 노동자로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최소한도 이 사회의 한 노동자로서 가져야 될 입장과 태도를 견지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고 노조라는 울타리 속에만 모여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노조 조합원라고 하지만 임금인상 할 때 같이 모여 있는 것 외에는 의식적 동질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가야한다고 지향을 갖고 있는 건데, 현실은 여러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 여러가지 과정을 일련의 한번 과정으로 끝내

고 있는 상황인거죠.

작년, 제작년에 제가 연간 교육일정표를 내는 것이 꿈이었어요. 근데 낼 수가 없어요. 내봤자 현실 일정에 밀리거나, 다른 일정이 있으면 '아 그거 미루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느니, 한두달 전에 공고 붙여서 오는 사람 데리고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거죠.

정: 교육활동 하신지 몇 년 되셨어요?

P: 초기부터 했어요.

정: 노동교육을 좀더 일상적으로 가져갈 수 없는 민주노총의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P: 민주노총 교육국으로 있으니까 더욱 힘들거구요, 교육원으로 있으면 조금을 다를 것 같아요. 외부에 자체적으로 있으면 일정은 살짝살짝 비껴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민주노총 집회하고 많이 겹치거든요. 한달 전에 교육을 잡아도 민주노총이 2주전에 집회를 잡으면 겹치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교육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도부가. '지금 무슨 교육이나. 집회가야하는데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나가리 시켰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예요. 지금은 집회 있어도 교육은 한다 이정도는 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시국이 총파업 들어가고 노숙투쟁하고 이러는데 교육을 하고 그러진 못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성공회대나 한겨레 노동센터 이런 데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죠. 총파업을 하던 안하던 그냥 하면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직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이 가줘야 하니까 그렇고. 상대적으로 교육원을 만들면 조금 더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그래

도 민주노총의 일정에 따라서 조금은 조정이 필요하죠.

정: 민주노총이 고유하게 담당을 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까?

P: 딱히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외부단체로 본다면 한저레도 실무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구요. 노동자 의식화와 관련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공회대 같은 경우는 실무교육을 안하고 주로 노동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곳도 있고, 마창(마산 창원) 이런 데에도 의식화 교육을 하는 곳도 있어요. 노사연(노동사회연구소) 같은 경우도 실무교육을 하고 있고. 외부에 있는 단체들이 자기들의 지향이나 색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실무교육을 하기도 하고, 노동자 일반론 교육을 하기도 하고 현장활동도 하고, 교재도 만들고, 의식화 교육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노총 내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조직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연맹이나 지역단위의 교육 담당자들의 네트워크나 관계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관계죠. 노동자학교는 서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이니까 그것과 관련된 교재나 강사를 준비하고, 강사들 훈련시키는 것도 전국적으로 논의하면서 하고...노동대학은 아직 서울만 하고 있지만.

정: 민주노총은 중앙조직과 지역, 연맹조직이 있는데, 중앙교육사업의 교육조직상의 위상이 무엇입니까?

P: 외부단체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지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이니까...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교육사업을 샘플로 만들어서 지역이나 연맹에 보급하는 것이죠. 노동자 학교가 그랬구요. 여기서 만들어서 전국의 8개 지역, 2개 단위노조에서

하고 그랬어요.

정: 노동자 학교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P: 전국 교육담당자 회의에서 제안을 해서 올려서 토론을 해요. 다 모이면 20-30명 정도 되요. 모여서 사업이 통과가 되면 5-6명 정도에서 준비팀을 꾸려요. 꾸려서 그 팀에서 세부 계획토론을 하고, 그 안에서 강사 뽑사람, 외부강사 쓸사람 정해서, 몇 개지역에서 올해 할건지를 정해서, 준비는 이러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메일, 자료를 보내고, 내려보내주면 지역에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인원하고, 명단하고 모아서 평가회의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 평가회의를 했고.

정: 1기 평가가 좋았던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P: 작년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평가도 좋았고.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올해에는 확대해서 할려고 했어요. 올해는 더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2기는 좀 평가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정: 노동자 학교가 시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P: 예. 간부들 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를 그 시간을 감당을 못해내요. 본인들이. 지방 지부들 다니고 출장가고 회의가고 집회나가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것도 힘들다고 그래요.

정: 교육일만 담당하는 것은 아닌가봐요?

P: 당연하죠. 보통 교선부장들이 교육일을 담당하는데 교선부장들이 조직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선전도 하고, 실무도 하고 그러죠.

정: 강사들은 민주노총 중앙에서 선임해주고 그러나 봐요?

P: 예 여기는 강사풀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신입간부 교육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프로그램 만들어서 영남권, 수도권, 호남권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면 중앙에서 지원팀 결합해서 같이 교육진행하고 평가하고, 지역 활동가 교육을 할 때도 프로그램 만들면, 지역이나 연맹에서 진행할 사람들도 결합해서 하고, 저희가 만든 모든 프로그램, 교재들은 지역과 연맹으로 내려가고, 공동으로 주관하고 주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중앙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시범 케이스로 한다고 보면 되요. 전국화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번 돌려서 자리가 잡히면 전국화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노동자 학교과정도 원래는 2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에요. 대학은 4년제 인데 2년 정도과정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1년 짜리 노동대학에 100명이 신청을 해서, 30명 졸업했는데. 설문조사 해보니까 의지 문제도 있지만, 임단투 있고 교섭 들어가니까 무리가 있는 게 뻔하죠. 그런 조건에서 무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대학과정을 해서 조금 자리가 잡히면 대학전문과정이라든지, 좀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으로 하는 부문별 과정으로 만들어서 좀 더 전문화시키려고 해요. 아직 우리 현실이 그 정도까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정: 강사 훈련, 강사풀 관리도 중앙에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P: 1기 노동자 학교같은 경우에는 중앙 강사단은 저희 중앙 교육 담당자 두명하

고, 지역 연맹 교육담당자 중에 각 분야별로 본인이 적극적 의지를 표현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6-7명정도로 꾸렸었어요.

정: 일반적인 수준에서 민주노총 강사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P: 표로 짜서 '민주노총 강사단'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는 해보려고 했죠. '노동 강사단' 요 정도로 해서 만들어서 올려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노총 강사단 말구요.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고 어떤 내용을 교육해 줄 수 있다는 정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참 애매한게, 단위 노조 교육에 와서 민주노총을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노동단체 사람이든, 노동교육 단체 사람이든. '뭐 요즘 민주노총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될 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면 듣는 민주노총 간부가 기분이 나쁜거죠. 그러면 '왜 그 강사 불렀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교육을 많이 다니는 강사들을 모아 놓고 1년에 두번씩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부르고 할 수가 없고, 너무 성향도 다양하고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요구를 공공연맹에서 해달라고 한적이 있는데 그냥 연맹에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말았어요. 애매해요. 상황이 되고, 여유가 생기면 민주노총 강사단이 아니라 노동강사단 이래서 올려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육 장소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올려 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교육장소와 관련된 정보가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걸 홈페이지에 올리면 홍보해주는 게 되는 건데, 내가 거기에서 돈 받고 홍보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장소를 쓰는 이유는 편하고, 싸고 그래서 쓰는 건데, 만일 전화가 오면 요구하는 교육장소의 특징이 뭐냐고 물어봐서 그것에 맞게 소개는 해주지만, 그걸 올리는 순간 홍보하는 것이 되니까 쉽게 그렇게는 못하겠다 생각해요. 만약에 손을 좀 대야겠다 생각이 들면 올해 내년이 되면 그런 정보를 정리해볼 필요도 있을것 같아요.

정: 민주노총 교육사업에서 가장 초점을 두는 지점이 무엇입니까?

P: 예전에는 신임 간부교육, 신임 위원장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초점을 두었어요. 2-3년 전에는 신임 간부교육 2박 3일, 신임위원장 교육 2박 3일, 이런 코스들을 개발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교재 작업을 해서 우리가 해본 다음에 권역별로 실시하게 하는 방식으로, '신임간부 교육은 니네가 해라'라는 방식으로. 중앙에서 한 1-2년 하다가, 권력별로 하게 되면 지원하고, 나중에는 권역별로 알아서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사업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지역이나 연맹에게 보급하고 그런 사업을 해 왔던 것이죠. 그렇게 신임간부교육, 위원장 교육, 노동대학을 지역에 보급했고, 노동자 학교는 아직 좀 프로그램 안정이 안되어서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최소한 지역에서 장기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역에서는 안정적으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쉽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한두군데라도 투자를 해서 하고자 한다는 데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역에도 초동 주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두군데에서 성과가 나면 다른 지역에서도 '어렵지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보급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노동대학도 좀 해보고 프로그램 개발을 더해서 지역에서 돌 할 수 있도록 해보고 그럴려고 해요.

정: 프로그램 개발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P: 팀을 꾸려서 해요. 지역연맹 교육 담당자들을 모아서 팀을 꾸려요. 모여 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 시안에 대해서 의견 받고, 수정 보완하고, 역할 분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정: 민주노총의 교육담당자는 몇 명입니까?

P: 저를 포함해서 2명이예요.

정: 2명이 하시기에는 약간 많지만, 지역 연맹 분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P: 그렇죠. 지역 연맹이 '이거는 자기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못하는 거죠. 근데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하지 않는게, 결국 여기에서 만들면 자기들이 가져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네 잘해봐'이렇게는 안하죠. 신임간부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지역별로, 권역별로 많이 했구요. 그거는 처음에는 중앙에서 3년차까지는 담당을 했었구요. 그거는 연맹으로 내려갔고. 이제 저희는 신임간부 교육은 안해요.

정: 노사연의 참여식 교육방법이 여러 지역에 퍼져 있던데, 어떤 과정으로 유포된 것인가요?

P: 저희 교육과정에 와서 보면 참석해서 진행하고, 교재는 가져가고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거고. 한노사연 같은 경우는 화학연맹하고 같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현장활동가 교육을 했었어요. 우리 신임교육간부교육과 비슷한데 조금은 달라요. 예를 들면 2박 3일 교육에 6쪽지가 들어가면 그 중에서 4쪽지는 비슷하고, 2쪽지는 다르고...

정: 어떤 점에서 다르죠?

P: 예를 들면 우리는 노동법 교육은 안해요. 거기 같은 저우는 노동법 꼭지 같은 게 들어가고....

정: 여기는 노동법 교육은 왜 안하죠?

P: 그것은 노동법 교육을 따로 하거나, 지역 연맹 단위에서 노동법 교실을 따로 해요. 그런 곳에서 따로 소화를 하는 거죠. 노동법 교육은 인기가 좋죠. 저희도 한번 2박 3일 했는데 백 30명인가가 왔어요. 그 다음에도 노동법 교육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노동법 교육은 법률원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 보면 지역이나 연맹에서 임단투 앞두고 노동법 교육을 2박 3일이나 주 1회 한달 정도로 해요. 근데 문제는 대상들이 거기에 다 가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갔던 사람이 여기는 안올 수도 있고, 거기에 안갔던 사람이 여기에 올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그 부분은 그런 단위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거죠.

정: 넓은 의미에서의 시민성을 담보하고 있진 않다고 할 수 있나요?

P: 저는 노동대학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넣은 것 중의 하나는 여성문제였어요. 여성 문제는 가족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주제인거고. 그 주제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정과 여성의 지위, 성역할, 성폭력이 어떻게 정착되어 왔는지를 보면서, 보통 노동 운동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철학적인 고민과 연결되고,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면서 자본주의 역사와 사회를 고민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란 존재는 뭐고, 역사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변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귀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주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많이 왜곡된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노동운동을 하기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가고 부인에게 소홀해도 되고, 노동운동을 하면서 성매매를 한다던지, 건전치 못한 부르주아 소비 향락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던지. 이런 지점들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여성문제와 관련해서 강의를 넣었었고. 1기 때는 처음으로 여성문제를 고민해서, 여성문제를 잘 못잡았는데, 그런 데로 하긴 했으니까 남자들이 보수적이니까, 반감 갖고 그럴 정도는 아니었는데 좀 못했어요. 울산 현대 자동차에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을 진행팀으로 결합하면서 제가 한번 들어 봤었는데, 강사가 '여성들은 자본주의를 싫어한다. 왜냐'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노동을 상품화시키고, 이중적 착취문제, 생매매,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하게 강의를 했어요. 근데 자동차 남자 대의원들이 굉장히 빠기잖아요. 빠기는 남자들인데. 그 중의 한 두 명이 굉장히 '가우'를 잡고 그런 자세로 강의를 듣다가 나중에 징행팀에게 혼나고 그랬어요. 몇몇 의식있는 간부들에게는 '정말 인상적인 강의였다. 이런 강의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성 말고 다른 강의로 문화강의도 따로 하죠.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과 문화와 운동이 파편처럼 분리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동자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순수성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화의 잣대로 보면 아닌것들이 참 많잖아요. 일주일에 한번씩 단란주점 가서 술마시고 아가씨 부르면 백만원, 이런거. 그리고 기부하면 아가씨 집에서 잠도 같이 자. 그런 말도 안되는. 도박해. 고스톱치고, 고스톱은 그렇다고 해도. 코가 삐뚤어지게 자기 통제도 안되게 마셔. 집에 가서는 부인과 자식들에게 폭군이고.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은 왜곡되게 살면서 노동운동만 열심히 하면 어찌겠다는 건지. 이런 것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식이 높다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은 하나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정말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화나 여성관련 강의를 1기에서는 비중 있게 넣었었죠. 성과는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정: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P: 문화는 강사의 강의 자체가 망쳤어요. 여성문제는 강의를 들어서 새로운 느낌이 있었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로는 못나갔어요. 2기 때에는 강의를 넣고, 토론을 좀 더 비중있게 넣고, 토론 결과를 발표해서 강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방식으로 할 거구요. 운동의 문화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넣었어요. 조직문화의 문제, 사회 일반적으로 있는 군사문화, 가부장 문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뭘 해야 하는 문화, 성차별 문화 등이 운동문화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나와 우리 조직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어떻게 우리는 운동하면서 살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정: 후속 모임은 어떻습니까?

P: 1기 끝나고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몇 명이 모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이죠. 점점 줄었죠. 처음에는 십여명 이상씩 모이다가 지금은 대여섯명 정도죠. 1기 끝나고 관리가 잘 못한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 제가 노동대학 하면서 담임하는 식으로 그 이후에도 학생들을 챙기지는 못했어요. 졸업하고 나서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노동대학 학생회장도 만들고 총무도 뽑고 그랬으니까. 알아서 해주길 바랬는데, 기대만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고 들어갔어야 하는데, 다시 하려고 하니 안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알아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안되니까.

정: 노동대학 이후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P: 공식적으로 노동대학 전문과정을 열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되어 있구요. 노동대학이 조금 더 자리를 잡으면 좀 더 연구

해서 해야 할 것 같구요. 한 2-3년 후에.

홍: 90년대 초반에서 90년대 말까지의 노동교육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P: 90년대 초반에는 전국적으로는 전노협이 있었고, 지역차원에는 지노협이 있었고 그 단위를 중심으로 교육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많이 했던 교육은 지금도 많이 하는 교육인데, 임단협 실무교육, 신입간부 교육, 교육역량 강화 교육, 선전학교. 지금하는 교육의 모델들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전노협 시절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그것을 지역으로 보급시키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그 때까지만 해도 일부 외곽 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교육을 소화해줬고, 소모임 학습 형태도 그 당시까지는 일부 있었구요. 근데 최근 몇 년 들어서면서 이런 교육이 급속하게 약화되면서 민주노총이 그런 교육을 담당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노동대학 같은 것을 하게 된 거죠.

정: 임원진 회의 같은 것은 어떻게 있는가요?

P: 의결기관으로 대의원 대회, 그 밑에 중앙위원회, 그 밑에 중앙 집행위원회, 그리고 그 밑에 상집회의가 있어요. 저는 사무처 전체 들어가는 사무총국 회의에 들어가고, 상집회의는 실장님들만 들어가요. 실장 6명하고, 저는 국장이구요. 손낙구 교선실장님이 상집회의에 들어가요. 프로그램은 저희가 다 결정하구요. 상집회의는 '하십쇼'이런 분위기 이지요. 저희는 결재라인에서 결제만 받구요. 상집단위에서 공유해야 할 사항만 보고사안으로 보고해요.

정: 다른 사업 단위의 사업에 대한 공유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P: 사무총극 회의하고, 상집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서 하죠.

정: 전체가 몇명이죠.

P: 임원까지 다 합해서 40명 정도에서 45명 정도 되요.

정: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13. 참관자료 1 - 노동사회 연구소 '노조간부기본교육과정'참관자료 노조간부 기본과정 - 노조활동과 나

일시: 2002. 10. 08- 2002. 10. 10

장소: 노동교육원

참가자: 약 26명

참관: 이지연, 홍은광, 정민승

■ 참가자 소개

·내용: 참가자 소개하기(조별진행)

·방식: 개별적으로 주어진 양식의 질문지에 글을 쓰고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발표.

·자료: 자료집 참고 要

- 예>1반

1) 이름 외우기

각자 이름을 말한 후,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앞사람 이름을 말하고 자기 이름이 어가기. 반시계방향으로 한번 더 진행. 이름을 외우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꼭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연습장에 이름을 써서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이름을 읽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 열의가 없어서 인지..

2) 자기 소개- 이름, 고향, 나이, 노조명, 직책, 입사년도, 함께사는 사람, 성격,

별명, 취미, 장점, 좌우명, 교육에 대한 기대에 대한 발표

글쓰기를 통해서 서로의 상황에 대한 공유의 과정을 거침, 쓴 내용을 책상앞에 붙임, 이때 서로 다른 노조에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오갔다.

예) 산재는 많이 나지 않았다.

노조가 힘을 갖기까지 파업을 많이 했었다.

대의원은 어떻게 뽑나.

교육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참여자 1(신한화구노조 위원장): 노조간부교육이 서로에게 좋은 추억으로 간직되었으면 한다.

·참여자 2(일산노조 총무부장): 신생노조라 노조간부의 역할을 배우고 싶다. 실무적인 교육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왔다.

·참여자 3(한국수력원자력 대의원): 노조에서 가라고 해서 억지로 왔다. 왔으니 열심히 하겠다. (한수원의 경우 3기에서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다른 간부가 추천해서 왔다고 한다.)

·참여자 4(한국도시철도) : 교육에 대한 기대를 쓰라고 해서 교육하는 강사에 대한 바램인줄 알았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주십사라고 적었다.

·참여자 5(금호미쓰이 화학노동조합) : 노조에서 가라고 해서 왔다. 이렇게 딱딱한 줄 몰랐다.

·참여자 6(무림제지 부위원장) : 솔직히 말해서 기대가 없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시 이런데 오면 그 때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한다. 사람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하지 않은가. 사람사는 거나 알아가면 좋겠다.

전반적인 소감: 전반적인 기대가 아주 낮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번 노조간부교육이 뭘하는 건지도 모르고 왔다는 응답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열의가 상당히 떨어지고, 일정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서로 토론하고 배워가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또 한편 도시철도노조의 경우 교육이 재밌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호응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반의 분위기가 그러한 열의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사전에 분명하게 교육내용을 홍보하고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문제의 일부가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교육참여 동기에서의 문제가 보인다.

* 교육에 대한 기대에 대한 주요 응답내용: 많이 배우자, 교육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현 노동조합활동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활동에 대한 지지기반 구축, 노동이론 습득, 초기 노동조합으로서 방향 설정과 조합의 조직 구축과정을 배우고 싶다. 개인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나아가 노조간부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같이하시지요. 진정한 조합 활동의 숙력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 수 있는 기대가 될 것 같다. 이번 교육과정으로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많은 지식을 배워 저에게 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교육 성과보다는 작더라도 알찬 교육을 받고 싶다. , 노동조합 간부로 갖추어야 할 마음 및 행동방향 설정에 도움..(내용이 섞여 있다. 무응답이 9명)

- 조합 간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참여, (홍보를 통해서 알게 되면, 앞번에 갔던 사람들의 권유)

■ 노조활동과 나

.내용: 노조활동에 대한 경험 공유

.방식: 조별 토론, 질문지 양식이 있었으나, 첫 사람만(생각할 시간이 없는 상황 고려) 질문지에 답을 하고, 두번째 사람부터는 앞선 사람의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 제출 요구했음(진행의도: 자신의 노조활동에 대한 성찰)

.자료: 질문지 제공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음.(토론을 위해서)

.진행 방법:

3분*7명 =21분 간부 전후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발표

3분*7분 = 21분 어려운 점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발표

반장의 역할 및 시간 분배, 해야할 과제에 대한 자세한 소개.

진행자가 조별로 돌아다니며 정리내용을 다시 확인.

.진행 예(1반, 전체는 4개반으로 구성됨)

- 상황: 조원 한명의 지각으로 상당 시간을 기다림, 다른 얘기들로 친목을 도모.

문) 다른 교육이 다 이렇게 뻑뻑한가.

답) (한국수력원자력노조) 회사에서 하는 교육(사측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상당히 뻑뻑하다. 고가 평가에 반영한다.

문) (교육이)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답) 사측에서 하는 교육이 맨날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 한다. 별로 도움이 안되는데 위탁교육의 경우 큰 도움이 된다. 일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주입식으로 실시. 교육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문) (도시철도노조): 성과급을 주면 처음에는 임금외 수당으로 받지만 다음해부터는 임금으로 인식 경쟁이 시작된다. 연대는 깨진다.

사람들 답) 성과급이 결국은 조직간의 갈등, 조직내의 갈등을 일으킨다.

답) (도시철도노조) 공기업의 경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하려고 한다. 공기업에서 하는 일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생산력 향상과 다른 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

문) 평가는 개별적으로 하나?

답) (한수원) 하는 일이 다 다르기에 개인별 평가가 어려워서 지부별로 팀별로 한다. 그러나 동등한 조건이 아니기에 예컨대 신형발전소와의 시설차로 인한 생산을 차이가 있는데 동등하게 비교한다.

답) (신한) 제조업의 경우, 생산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평가의 문제가 비교적 간단하다. 우리도 연봉제를 하려고 한다. 사무직은 형식적으로하고 있는 중. 큰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봉제하니까 오너들에게 꼭 잡혀 있다.

- 반중 1인이 결국은 오지 않으셔서 그냥 시작하기로 하였다.

문) (반장)노조간부활동전후의 자신의 변화는?

발표) (이택홍: 무림제지) 오래되서 전후의 생각변화라고 할 게 없다. 노조 설립을 33명이 했다. 초대 위원장을 쫓아내고 지금 위원장이 88년부터 하고 있다.

문) 오랜동안 위원장을 해서 일반 노조원들이 가지는 반발심이 없나?

답) 찬성률이 올해 98%가 나왔다.

문) 직선인가, 간선인가?

답) 직선이다.

문)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문) (일산) 연임규정은 없나?

답) 없다.

의견) (도시) 현장조직은 없고 한 조직으로 뭉쳐있겠다. 우리로서는 충격이다.

답) 회사하고 싸울때가 편하다. 승진시 노조가 회사랑 협의를 한다.

문) (일산) 노조가 인사권까지 쥐고 있는건가?

답) 협의를 하는 것이다.

의견) (신한) 그러나 협의차원이지만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거니까, 인사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것 같다.

답)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지금은 싫증이 났다. 변화가 없어서..노조도 너무 강해도 안되고, 회사에 명분을 주고 실리를 찾는게 좋은 것 같다. 양보할 수 있는 조건이 라든가. 요즘은 임금보다 복지에 더 많이 신경을 쓴다.

문) (신한) 임금수준이?

답) 초봉이 2200이다.

의견) (대부분) 수준이 높은 편이다.

답) 주야간 하니까.

의견) 10년 15년 하면 먹고 살만하겠다.

답) 먹고 살만하다. (무리제지의 노조자랑을 함) 여자는 결혼해도 안 나간다.

의견) (수원) 결혼하고도 안나간다. 복지가 잘되면 여자가 안나간다. 93년 이전에 입사한 여직원들은 노조에 가입하나 요즘은 계약직이라 노조 가입을 안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온다. 15년 정도 되면 연봉이 3000이니 거의 안나간다.

발표) (도시) 직장생활 5년 조합생활 3년 했다. 조합이 있으니까 조합이 있구나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회사가 크다보니 현장조직이 여러 개 있는데 현장활동을 하게 되었다. 같이 얘기하다가 해볼만하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는데. (열성노조원) 끈들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사회에 돌아가는거, 근무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게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다. 노동자에게는 필요한 거구나 생각했다. 무리제지가 너무 부럽다. 우리는 지금 싸워보지도 못하고 노동자들끼리 내분으로 분열되니까. 강사들이 말한대로 너무 안타까웠다. 정치조직화가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찍는 표가 사표가 되더라도 밀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권영길

을 찍는다. 그렇게 있는 반면 삶이 고달파진다. (다 웃음)

발표) (수원) 대의원이다 보니까 노조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부 대의원만 3-4년 하다보니까 대의원을 간부로 인정을 안해주는데 조합에서 필요할 때만 대의원을 써먹고 버리는 방식을 택해왔다. 현장활동가로서 대의원을 키워야 한다고 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라고 하고 그런다. 대의원도 직선이다보니까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서 술한잔씩하고 그런다.

(반원 경청) 현장에서 열심히 해야하는 생각은 있는데 잘 안된다. 뭘해야 할지도 모르고... 나의 경우에는 얘기를 들어서 본부나 지부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불만은 해소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이 좋아서 어울려도 뭐하려고 그런다 그런 인식이 있어서 편치가 않다. 지부가 본부와 갈등이 있어서 본부에서 받을 걸 못 받아오고 그런다. 위축되고 그렇게 있다. 노조 간부는 욕먹는 자리다. 빠른 시일내에 그만 뒤야 겠다. (웃음)

발표) (일산) 노조에 대해 관심은 있었다. 단순히 간부는 간부인가 보다 그랬는데 여기는 신생병원이다 보니까 다 새로 셋팅을 하고 있는 중이라 반목이 있다. 그러면서 물갈이 되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과일보라 간부일 하라 너무 힘들었다. 잠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하려고 왔나, 노조가 이렇게 체계가 없나 그런 생각을 했다. 우리 노조의 경우 노무관리하던 분이 노조 사무처장을 하다보니까 노조에 대해서 들었던 것들과 괴리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

자기 직책은 있으나 뭘 해야하는지를 잘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다. 여기에 와서도 실무를 배우는 건줄 알고 왔다. 직책에 따른 실무교육이 필요하다.

문) 여직원을 고용해서 하는 건 안되나?

답) 고용해서 한 적이 있다.

문) 사측에서 고용한 경우도 있고, 노조에서 직접 고용한 경우도 있는데, 조합비로 고용을 하는데도 잡무를 다 해야 하는가?

답) 불미스러운일이 있어서 여직원이 바뀌고 그러고 하는 가운데 역할이 불분명한채 유지되고 있다.

의견) 우리 노조는 여직원이 하다가 사무장이 다 하다가 여직원 한명을 고용해서 조합비에서 임금을 주고 있다.

- 노조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자 다른 조원들이 그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한다.

발표) (신한) 노동조합에서 간부 맡기 전에는 전임위원장이 2기 연임을 해서 6년을 했는데 회사, 이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문제가 계속 생기다가 그만두었다.

의견) (무림) 이사를 내보내야지...(웃음)

답) (신한) 원래는 그래야 하는데 자기도 지치니까 그만 두었다. 올 6월에 선거를 해서 몇 달 안되었다. 내가 간부를 한지.. 간부는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위원장이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도와줘야 한다. 나도 예전에는 회사측 하는 대로 도장을 찍어서 내가 볼 때는 야 저렇게까지 회사에 그렇게 해야하나 여기 관두면 못 먹고 사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다. 저렇게 과감하게 투쟁을 못하나 그랬는데 내가 맡고 부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많이 알았다. 괴리가 있었다. 노동사무소에 맡기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최악이 경우에 그렇게 하는거구, 위원장이 옷벗을 생각을 해야하고,, 부딪쳐보니까 과감한 투쟁도 좋지만은 실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전임위원장과 경선을 하고 그러다보니 갈등이 생겼다. 경선과정에서 생긴 갈등이 수습하는데 오래 걸리고 이어나 부장하고 힘들다. 위원장 길들이기 하니까 자꾸 건드리고 그런다. 위원장이 죽어 들어가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다. 위원장이 죽어버리면 노조원들이 힘들어진다. 위원장이 맞서줘야한다.

의견) (무림) 조직력을 키워서 (사측) 간부들을 죽여야지

답) (신한) 그게 아니다. 간부들하고 할 일이 있다. 중간역할을 제대로 해서 잘 되도록 해야겠다.

다시 강의실에 전원이 모여서 다음 꼭지 진행.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았다.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간혹 자신들의 경험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그러한 빈도가 상당히 적었다.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도 반장이 혼자서 하는 분위기였다. 토론이 아니고 발표 수준에서 멈췄다. 아시안 게임 축구를 하는 날인데다가 일정이 너무 빡세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이렇게 힘들면 내일은 못한다. 축구는 어떻게 되었는가. 술 파는 가게 문닫는다.” 등등

내용: 간부로서 바람직한 상

자료: 종이카드를 열 장씩

방식: 요구하는 내용을 종이카드에 적어서 발표

다 써야하는거냐.. 아휴.. 이런 탄성이 한두 명에게서 나왔다. 그러나 곧 나눠갖고 교육에 참여.

<진짜 이런간부 싫더라.라는 내용으로 카드에 쓸 것을 요구>

없으면 어떻게 하나. 없다니까. 그럴 수가 없다. 실갱이가 좀 있었다. 다섯 장 다 못쓴다... 고문이다. 몇몇 사람들 계속 비협조적.. 그러나 곧 종이에 쓰고 다 썼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

<배우고 싶은 간부, 바람직한 간부에게서 배울 점을 카드에 쓸 것을 요구>

진행 소개: 바람직한 간부가 되고 싶지만 쉽지 않다.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

그램이 필요하기도 하고 간부도 해야할 일이 있고 한다. 바람직한 간부가 되기 위해 무슨 일들이 필요할지 자료집 34쪽에 있는 질문지를 작성해보라. 왜 바람직한 간부가 되지 못하는지 장애물이 뭔지 고민을 해봐라. 어떤 교육이 어떻게 필요한지, 각 단위별로 세분화된 노력을 구체적으로 써라. “구체적으로”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했다. 그냥 자질부족이라 적지 말고,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자세한 설명을 진행자가 하였다. 카드를 각각 수합하여 앞에서 붙이는 것을 시범을 통해 보여준다. 반원의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고 소외되는 이점이 없을 것이다. 제목카드에 범주들의 제목을 적어서 정리. 소수의 의견이지만 심각한 간부는 번개카드.. 유형화... 그룹보고서를 작성해서 9시 15분까지 여기에 온다.

전반적으로 잘 생각이 안나는 분위기.. 진행자의 설명이 계속됨.. 사라진 참가자 2명은 어디에 갔을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후 진행자가 “하셔야죠”하자, 대답이 없다. 진행자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지만 잘 안되고 있음... 다시 분위기의실로 가서 조별로 진행 1반이 늦다고..진행자가 발표도구를 주기 위해서 가끔 둘러서 진행을 재촉하는 얘기를 한 번씩 하고 가는 방식으로 수업진행. 토론이 잘 안 이루어지고 한 사람이 이름을 붙이면 다른 사람들이 묵인하는 분위기 소극적인 동조. 제목을 정하는데도 의견이 잘 나오지 않았다. 한 사람이 한마디하면 침묵.. 가끔 동조.. 적극적인 토론이나 의견개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발언을 독점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 맞춤형에 대한 질문들, 분분한 의견...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각 분반에 1명씩의 진행 요원 혹은 도우미가 필요할 텐데 그렇지 않아서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의미있는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토론내용 1반.>

<토론내용>

- 바람직하지 못한 간부가 바람직한 간부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
- 바꿀 수 있는가
- 제대로 뽑는 수 밖에 없지 않은가.
- 위원장을 뽑은 다음에는 죽어라고 떠라가는 수밖에 없다. 조합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 무림제지가 강성노조를 결성하게 되어서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노조에서 처음부터 그랬는가. 어떤가 질문이 생김....
- 연맹에서 나와서 하면 회사에서 터치를 못한다. 그래서 연맹에서 나와서 의식교육을 한번씩 시켜주는 것이 효과적, 위원장들은 회사 눈치를 봐야하니까...단위사업장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힘들다. 상급단체에서 평균적인 사업장의 수준에 맞춰서 그것을 각 사업장에서 빌려다가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필요한 프로그램을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접 와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연맹차원에서 노조간부교육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달라.
- 노조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조합활동내에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야지.. 상시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해야한다.
- 사실 그렇게 해서 교육이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해야하나..
-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 한번도 상시적인 노조단위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
- 노조차원에서 예산을 들어서 교육 쪽을 육성할 수 있도록..
- 간부간의 친목도모
- 간부 스스로 해야할 일은 의식개혁, 자기 희생, 공부하는 간부가 되어야 한다.

진행방법

- 카드에 각자의 의견을 써서 수합한 뒤 범주화하고 주제로 요약하여 전지에

정리하는 절차를 따른다.

- 각 조별로 분임토의실로 가서 진행하고 다시 모여서 조별로 발표하도록 한다.

발표내용

1>1반 발표내용

<간부활동에서 이런 점이 어렵습니다>

- 부서일과 병행하다보니 노조활동에 제약이 많다.
- 원칙이 흔들릴 때
- 조합원과간부와의 생각차이
- 집안일에 무관심(소홀해짐)

<간부활동이 이런 긍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 직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게 됨
- 사고력의 확대
-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변화
- 자신감과 인내심

<이런 것들을 제안합니다>

- 중앙연맹차원: 연맹에서 조직극장을 파견해서 조합간부 의식 교육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작성 및 계획
- 노조차원: 상시적인 교육 / 간부간의 유대강화
- 간부스스로: 의식개혁 / 자기 희생 / 공부하는 간부

<이런 간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 늘부형: 이기주의, 독선적, 자기주장만, 조합을 승진의 발판으로, 회사 간부에

아부, 자기 욕심을 채긴다

- 시계추형: 원칙이 없는 간부, 주관이 없는, 편파적인 간부, 약속을 안지키는 간부, 경솔한 간부, 책임감이 없다
- 배짱이형: 게으른, 노는 간부, 소극적인, 게으른 간부
- 기타: 분위기를 흐리는 간부, 아는 척하는 사람, 돈에 약하다. (폭탄), 조합원과 눈높이가 다른, 비협조적인 간부

<이런 간부가 바람직하다>

- 김일성형: 강력한 리더쉽, 투쟁력 있는, 적극적인 간부, 활동적인, 솔선수범하는, 조직에 적극적인자, 현장중심의, 단합을 만들려는
- 이장형: 경조사를 철저히 챙긴다, 인간적 유대, 조합원과 함께하는 포용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노조원들에 관심을 갖는 간부
- 사육신형: 솔직한 소신, 소신있는, 솔직한 사람, 공부하는, 노력하는
- 기타: 공사철저히,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약속을 잘 지키는, 약속을 지킬 줄 아는

2> 2반 발표내용

<간부활동에서 이런 점이 어렵습니다>

- 회상에서 식사등을 제공받았을 때 조합원들의 시선을 대하기 어렵다.
- 노조비전임으로 활동범위가 제한된다.
- 조합원의 고령화에 따른 통제문제
- 교섭시 정책대안 및 전문지식 결여
- 투쟁동력이 1/2 이하시

<간부활동이 이런 긍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 회사의 많은 사람을 알 수 있고 활동영역이 넓으며 보람을 느낌

- 신입사원 OJT 교육을 통해 노동조합을 이해시킬 때
- 회사에 대한 노조간부로서 위엄과 조합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때
- 정책개발과 전문적인 지식 습득으로 교섭시 조합의견 관철

<이런 것들을 제안합니다>

- 중앙연맹차원: 조직력과 투쟁력 지원 / 주기적인 방문 지도
- 노조차원: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실시로 조합간부 역량 강화 및 인간유대 강화
- 간부차원: 인성교육을 통한 희생정신 습득 / 전문적 지식 습득으로 간부능력 향상

<이런 간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 나쁜 보스형: 우기는 사람, 남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 다른 간부의 의견 무시,
- 조조형: 아첨하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
- 마마보이형: 주관이 없는 사람, 불평불만, 횡설수설, 말뿐인 사람,
- 번개: 결과 속이 다른 간부, 밀실 교섭하는 간부.

<이런 간부가 바람직하다>

- 아버지형: 협상력 있는 간부, 조직력 있는 간부, 책임감 있는 간부, 주관이 뚜렷한 간부,
- 어머니형: 희생정신이 강한 간부, 솔선수범,

3> 3반 발표내용

<간부활동에서 이런 점이 어렵습니다>

- 사측에서 조합간 활동에 대해 무시(조직력 약화, 비조합원을 회유)
- 교육이나 회의 참석으로 다른 조합원들의 업무과중 초래
- 간부활동 때문에 업무지연, 동료간 불미스러운 일 초래
- 일반조합원들의 잔업, 휴식시간 감소에 대한 불만
- 파업투쟁으로 무임금: 사측의 노조탈퇴 권유
- 사측의 인식공격, 회유
- 노조간부와 노조원들간의 이해 부족
- 매일 일과에 대한 실적(전임자로서)

<간부활동이 이런 긍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 표현력 향상, 대화로서 해결방안 모색할 수 있는 능력 향상
- 타부서나 병원 운영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됨.
- 조합원들의 의견, 생각을 조합에 전달
- 회사 돌아가는 흐름을 알 수 있고 자기 발전의 계기
- 운영자와의 대화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음
- 가지고 있는 조합관을 실제할 수 있음

<이런 것들을 제안합니다>

- 중앙연맹 차원: 특성에 맞는 신노동문화 적립 및 전파 / 조합 홈페이지 운영(교육적, 흥미진진한 글 올림)
- 노조차원: 세미나 교육 / 실리추구를 위한 교육(동종업체와 상호 비교해서 좋은 사례 습득) / 집행부 투표
- 간부스스로 해야 할 일: 관심, 소신, 신념 / 지식 습득, 대화능력 향상

<이런 간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 마마보이형: 자기 주장이 없는, 보신주의자,
- 독불장군형: 심부름시키는, 권위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 언행불일치형: 자기 일에 무책임한 간부,

<이런 간부가 바람직하다>

- 개미형: 성실한 생활자세, 열심히 근무, 신뢰성.
- 당나귀형: 의견을 잘 들어주는 간부, 이해를 잘해주는 간부
- 의리파, 해결사형: 약속을 잘 지키는, 조합원을 먼저 생각하는

4.> 4반 발표내용

<간부활동에서 이런 점이 어렵습니다>

- 조합원들이 개개인의 이해관계로 행동할 때
- 경미한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할 때
- 개인적인 희생(시간이 없다)
- 사측의 노동조합 불인정
- 잘못된 모든 것이 귀속된다(조합원의 생각)

<간부활동이 이런 긍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 출세지상주의 탈피, 학벌·지연주의등에서 벗어남
- 인화력 증가, 성격개조(내향→외향)
- 적극적, 능동적, 사회 활동에 도움(대외적)
- 회상 대한 이해심과 소속감이 생김

<이런 것들을 제안합니다>

- 중앙연맹 차원: 자주 접촉, 활동에 대한 경험적인 교육 / 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주어야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연맹 부담 등)

- 노조차원: 전 조합원을 간부화 교육을 시킨다 / 비난보다는 포용으로 감싸야 한다.

- 간부스스로: 공부를 해야 한다. / 자기 자신의 수양 / 언행 일치 / 능동(긍정적 사고

<이런 간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 김현철형: 권력남용, 말을 아끼지 않음, 남의 말 무시, 자기 중심적인 간부, 직권남용.

- 내시형: 사측에 아부하는 간부 이기주의적,

- 무뇌형: 생각이 없어.

- 어리버리형: 왔다갔다.

- 번개: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만 주장하는 사람

<이런 간부가 바람직하다>

- 전태일열사형: 남을 배려하는 간부, 자리욕심없는 간부

- 이순신장군형: 소신 있는 간부 설득력이 높다. 포용력이 있는 간부.

- 안중근의사형: 언행일치, 활발한 노조활동, 실천하는 간부,

진행자: 짧은시간 잘 했다. 거의 비슷하다.

- 어려움 : 조합일과 회사일을 하면서 몸이 힘들고 회사와의 갈등, 조합원이 알아주지 않았다.

- 좋은점: 자기개발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자기 희생이라고 보지 말고, 자기개발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바람직한 간부가 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바람직하지 못한 간

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어느 간부도 부족한 부분을 다 가지고 있다. 반면에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발견하기 위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주 작은 거라도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바람직한 간부가 많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중요하다.

진행자의 정리발언 및 관점정리에 관한 “제몽적 발언”으로 정리

- 진행자가 낭독한 표비글 -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좀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러나 아아,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기 위해 자리에 누워
나는 문득 깨달는다.
만약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런지.

일정 변동에 대한 얘기... 익일 8시-9시까지 휴식

계속해서 틈이나는 대로 진행자들은 일정이 금방 끝날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쉬는 시간에도 그렇고,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도 그렇고 늘 진행자는 일정이 빠빠하지 않을 것이다. 일찍 끝난다.. 그런 얘기를 한다. 구스르듯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점점 더 시간에 대한 부담이 서로를 짓누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건강한 생활

·일시: 10월 09일 9:00-10:30

·강사: 이기주 교수

·내용: 활인심방

·진행:

- 바닥에 앉으세요. 겸연쩍어하면서 머뭇머뭇 거리다가 바닥에 앉았다. 원진 동지께서 선생님께서 바닥에 앉으셔서 하시면 안 보인다고 하시며 책상에 앉아서 진행할 것을 요구. 평좌에 대한 설명. 평좌 자세를 요구. 이후 활인심방을 실제로 시연, 내용 설명 및 참여자들의 참여.

- 대부분 열심히 참여함. 아침 식사 이후 졸린 시간에 몸으로 하는 건강강좌를 배치하여 참여자들이 졸지 않고 참여함. 건강에 대한 관심. “강의시간에 좀 잘려고 했는데.... 잠을 못잤네”

■ 노동법 강의

·일시: 10월 09일 10:30-12:00

·강사: 김영호(노동교육원)

·내용: 노동법 강의

·강의 진행:

- 노동법에 대한 강의, 강의 시작부에 안득기학생이야기, 연탄, 독수리 이야기로 시작함.

-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하여 강의 진행

- (임시 공휴일 임금지급여부에 관한) 상황설정을 하고, 이에 대한 참가자들의 입장에 대한 발표 유도.

- 휴일의 종류: 법정휴일(주휴일- 유급, 노동절- 유급), 약정휴일(노조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약정함: 공휴일- 유무급 약정사항, 임시 공휴일도 공유일 약정 사항에 준침함)

- 노동법은 무엇인가? 봉건체제 이후의 도시 근로집단의 형성, 노동관계에서의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 침해 증가, 사회법의 개념 출현,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규정하자는 의식의 형성, 최소근로조건의 규정(근로 기준법, 최저임금제), 사용자의 변칙 적용, 노동조합의 결성과 투쟁의 시작, 노동조합법: 노동조합의 권리 - 단결권, 교섭권, 단체 행동권.

- 연차휴가, 임금의 개념과 계산법에 대한 설명.

“노동조합 간부들이 느끼는 법이란 무엇인가? 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법 내용은 무엇인가? 법이란 또한 어떤 한계를 가지는가? 이른바 불법, 합법에 대한

관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법과 관련한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고려가 있는가? 없는것 같다.

- 임금문제에 대하여 참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도 많이 함.
- 참여자 중 “이런 교육을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을.... 다른 것 말고(Z)”이라고 말함.
- 인사이동에 대해서 판례를 들어 긴 설명
-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라는 질문...
- 해고문제에 대해서 판례를 들어서 설명, 질문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설명.
- 점심: 12:00-13:00., 1:05분 다시 시작, 추억의 개그.... 쟁의행위, 직권중재를 사례를 통해서 설명
- 질문 받고 대답.

풍부한 사례 제시 방법이 좋았던것 같다. 프리젠테이션 내용이 너무 많고, 잘 안보이며, 크기가 작다. 참가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것 같다. 하지만 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의 과정은 부족하다. “왜 진작에 노무사에게 물어보려고 하지 않았지”라고 함.

<참가자와의 대답: 원자력 노조>

- 참여자들은 조합 단협 사항에 교육시간 있으며(예- 일반조합원: 2시간, 조합간부: 월 8시간: 원자력), 이를 모아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경우는 년, 월차를 내는 경우도 있음.
- 실제로 단위노조의 경우 노조간부의 역할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이 필요하다. 전체 간부 중 간부교육을 받는 경우는 10% 정도뿐이다.

■ 노동운동사

·일시: 10월 09일 15:00-17:00

·강사: 박준성(역사학 연구소 소장)

·내용: 노동 운동사

·진행발언: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는 불평이 있다. 최대한 빡빡하지 않게 조절하겠다. 강의식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강의식은 들을 때만 기억에 남고, 참여교육이 단위 사업장에서 교육 방식으로 도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참여교육에 열심히 참여해 주었으면 한다.

·이후 내용진행: 슬라이드를 이용한 강연.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비하여 반응이 좋지 않았다. 슬라이드를 이용하였으나, 낮시간이어서 슬라이드의 선명도가 좀 낮았으며,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 노조 간부의 경우 강연 내용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노총의 어용성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인지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참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느낌 게시판

·시간: 17:20-18:00

·방식: 문방도구를 주고 느낌을 표현하는 방식, 조별로 진행, 각자가 하나씩 표현하

여 발표.

·준비물: 가위, 매직, 필기도구, 색종이, 도화지 등

<진행>

- 진행자 설명: 좌우뇌의 균형적 발달이 필요하다. 감성적인 영역의 발달도 필요하다.

-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됨. 몇몇은 제작을 하지 못하고 있음. 진행자가 돌아가면서 돌아다니면서 독려함. 몇몇 참가자들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음. 칩체된 분위기, 일찍 제작한 사람들은 기다림.

- 각 반별로 자신이 제작한 것을 가지고 발표하면서 토론함.

<4반의 예>

1) 과거나 현재에서 노동운동이 언젠가는 내일이나 미래에 노동해방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림을 그림.

2) 야생성을 갖는 독수리가 되자. 독수리그림.

3) 만화로 구성: 교육받으면서 느낀점, 뭐든지 할 수 있다. 선배들의 피와 땀, 투쟁의식을 보면서 내가 참 초라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새로운 이념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조합활동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다.

4) 노동자들은 어떤 탄압이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단결한다는 것을 연결된 쇠고리 그림을 통해서 표현

5) 발표하지 않음.

<각 조별 1인 전체 발표 내용>

1반 발표) - 강주룡 열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동운동의 가장 큰 힘은 연대의

식이 아닌가 생각했다. 이주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예비노동자 들에 대해서도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표현하고자 그렸다.

2반 발표) - 노동운동을 들으면서 예전부터 존경해오던 전태일 열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싸우는 모습이 생각나서 그렸다.

3반 발표) - 1. 슬라이드를 보면서 전교조 투쟁사진에서, 학부형이 교사에게 손가락지틀 하는 것을 보면서, 그 학부형의 자식이 지금은 전교조 활동을 하고 있다면... 어린이들은 대중매체를 많이 보는데, 대중매체에서는 편파적인 보도만 하는데... 정의에 대해서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느냐...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을 통해서 노동교육도 시키고, 노동가요도 알려주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 2. 신문을 보니까... 돈을 그렸는데, 인간 만사의 희노애락의 근원이 돈인 것 같다. 솔직히 느낀것은 돈을 부지런히 벌어서 내가 가장이니까, 내 자식에게 최대한 비참한 노동자의 굴레를 주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4반 발표) -1. 구름, 태양, 과거나 현재 우리 노동운동의 암울했던 배경이 있는데, 노동운동이 가열차고 끊임없는 투쟁을 바탕으로 내일이나, 미래 언젠가는 빛나는 노동해방의 태양이 뜰 것이라는 생각에 그림. / 2. 교육을 받으면서 느꼈던 것을 만화형식으로 그림: 처음 조합활동을 시작하면서 자만심으로 시작했는데, 교육에서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나의 초라함을 느꼈고, 이런 교육을 바탕으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듯이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다짐을 표현.

진행자 정리발언: 노동운동사 강사분은 역사를 잘 전달해주시고, 말해주실 수 있지만, 실제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노동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 노동조합의 일상활동

- 일시: 09, 19:00-20:30
- 강사: 이원보 소장
- 방식: 강의

<강의 내용> - 자세한 사항은 자료집 참고 要

- 정장차림. 거리감(?), 권위감(?)
- 노동조합의 힘약화. 조직운영의 혁신 필요. 조직활동 영역(기본활동, 일상활동, 정치활동)
- 한국노총 분위기에 맞추려는 시도가 있음.

나중에 강사분이 "오늘은 한국노총이 많은가봐. 역시 분위기가 달라. 민주노총하고."라고 말했다. 참여자의 성향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참여정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 노동운동사의 경우 미리 주어진 포맷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노총 분위기에 맞추지 못했지만, 이 강의의 경우에는 말로 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일정하게 맞출 수 있었다.

■ 나의 인생 곡선

1. 일시: 20:30-21:00
2. 방식: 인생곡선 그리기
3. 준비물: 매직, 도화지

강의실에서 만들어거 각 반 숙소에 들어가서 진행함.

■ 조직분석

- 진행설명: 조직에 대해서 판단하는 시간이다. 어제는 개인, 나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직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다. 자료를 참고로 하여 내용을 채우고, 반별로 분임 토의 하고 나서 전체 발표시간을 갖는다.

- 오늘도 진행자는 일정이 빡빡하지 않을거라고 참가자들을 알리고 있다. 결국 몇몇 일정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다. 참가자들에게는 뭔가를 얻었다는 것보다는 과정을 밟았다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교육받으러 온건가 시간을 때우러 온 건가? 진행자가 설명을 한 뒤 조용히 학습지를 푸는 듯한 분위기에서 조직 분석지를 만들고 있다.

- 참가 노조의 전체인 성향은 연대성과 이념성이 낮으며 자주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현장활동이 낮게 나왔다. 9시 40분에서 시까지 휴식.

연구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부가 차이가 많이 남니까?”

교육기획자: “예. 실제로 차이가 느껴져요. 민주노총계열 노동조합 간부는 대부분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의식 수준과 자세는 갖추고 있어요. 근데 한국노총은 반정도만 그래요. 한국노총 분들은 여기에 와서 벽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이라는 것을 발부해 주는데, 대부분 회사측에서 확인용으로 요구하거나, 조합에서 교육수료 확인용으로 요구한다고 한다. 그 이외 교육수료증이 특별하게 쓰이는 곳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일부 조합에서는 1년 간의 수료증을 게시하는 경우도 있단다.

- 10시 30분까지 조직분석표 작성 완료. 반별로 발표와 조언해주기.

<예-3반 발표 및 토론내용>

발표 1)

쓰면서 어려웠다. 노조활동의 강점, 약점, 원칙 등에서 쓰기 어려웠다. 강점- 1년 정도 밖에 안되었지만 잘해왔다. 메너리즘에 빠지지 않았고, 구태의연하게 하지 않고 모두 참신한 생각을 갖고, 성실히 하고 있다. 약점- 생긴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념성부족, 상급단체와의 연대의 부재, 경험의 부재. 좋은 방향의 타성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없다. 과제- 개인의 능력향상: 공부, 교육, 정보수집, 현장활동, 아직도 모르는 조합원들이 있다. 그래서 시간나는대로 병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관심이 적고, 의식 수준이 낮다는 문제, 집행부와 대의원들의 수준과 활동성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조합원 교육- 연간, 월간, 교육프로그램 기획, 실행이 필요하다. 조합원들의 무관심을 어떻게 깰 것인가? 현직 간부들이 현장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노조활동에 대한 일상적 선전이 필요함. 인터넷 등을 통해서 많이 알리는 작업을 해야겠다. 간부 자신의 능력 향상 필요. 우리는 아직 대의원을 떠밀려서 하는 경우가 많다. 떠밀려서 하게된 대의원들의 조합활동에 관심이 거의 없다. 대의원 모이는 회수가 임시, 정기 등으로 하는데... 좀 더 자주 와서 현자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노조,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개인적으로는 많은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만이라도 먼저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현장활동의 강화, 인터넷에 보다 많은 글을 올리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문답 1)

문) 노조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진단했다고 생각하는가?

문) 약점을 극복하는 대책방안이 의심스럽다. 노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게시판을 볼 것인가? 교육의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게시판은 병행되는 것이다. 일단 돌아다니면서 알리면서, 게시판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다. 홈페이지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다. 교육은 일단은 간부교육을 통해서 노동법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공부하다보면 능력개발이 되고, 그것을 나중에 조합원들에게 알려주고, 임단협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을 풍부히 분석하셨습니까?

답) 자원 부분을 고민 못했다. 의욕이 높다- 조합 간부의 경우 / 일반 조합원은 다르지만...

문) 단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핵심문제 세 가지의 우선순위를 잘 정했습니까?

답) 세 가지 핵심문제 - 조합원, 간부, 대의원의 의식강화, 활동력 강화, 관심 유도 / 문화선전국장, 교육국장, 후생복지위원장, 등이 있다.

문) 노사협의회, 임단협 구성, 협상단을 어떻게 하는가?

답) 집행부가 들어간다. 8명 정도가 들어간다.

문) 실천과제가 실천가능성을 가지는가? 구체적인가?

답) 조합원의 무관심을 해결 - 간부: 일상활동 강화, 역량강화, 선전-인터넷 선전 강화.

문) 우리는 158명인데, 10개의 조직에 조합원을 나누어서 배치 '전조합원의 간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가? 지금까지 안해본 조직 방안이 필요한 것 같

다.

의견) 교육을 아주 안정적으로 3명 정도만 맡아서 해도 만사형통이다. 골수분자 5명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인원이 적은 경우는 더욱 용이할 것 같다. 확실한 조합관이 필요4하다.

발표 2)

현재 조합원이 반반으로 양분된 상태이며, 모든 권력의 집중이 상집과 위원장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강점- 조합원들간의 단결에 대한 강한 의지, 약점-양분된 상태, 따르려 하지 않는 조합원, 미미한 기초활동. 조합원들의 조합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목표 설정, 교육자료의 효율적 흐름을 위해서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함, 재정비된 조직에서 교육을 진행-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간부 1인당 15명 정도의 조합원들을 점조직화해서... 조합간부는 로테이션 방식으로... 하다보면 각 부서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정도가 높아질 것 같다

조합원, 간부들의 장점- 양분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개인 장점- 대인관계, 조합원들의 기대감, 문제- 조합에 대한 관심도 저하, 조합에 대한 불신,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조합의 단결, 노사간의 문제보다는 노노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단결할 수 있게... 교육이 중요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한데... 머리 속에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다. 월 1회 이상의 교육을 통해서 조합에 관심을 갖게끔 해야.. 단기과제: 불신제거 장기과제: 단결, 상집의 힘이 너무 크다. 대의원과 임원들의 힘은 별로 없다. 임원들이 나서서 조합원들의 단결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상집들은 현장에서 조합원들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소모임을 통해서 교육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본조에 하급단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예를 들어 교육, 정세 자료 등을 요구해야 한다. 세심하고 상황에 맞는 교육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문답 2)

문) 노조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했는가?

의견) 그런 것 같다.

문)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을 풍부하게 분석했는가?

답) 현재 상집 중 대부분이 교육중이다. 토요일에 각 교육장에서 배운 것을 공유하고, 의논하고, 조합원에게 알리고자 한다.

의견) 한꺼번에 조합원들에게 주는게 아니라.... 2주에 한번정도씩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교육목표, 내용, 자료, 느낀점, 필요한 점들을 정리해서....

문) 핵심문제 진단이 올바른가? 문제의 우선순위는 적당인가?

답) 핵심문제는 조합활동에 대한 관심저하로 잡았다.

문) 실천가능성은 있는가? 해결 방안은 구체적인가?

의견) 그런 것 같다. 문제확인과 해결방안이 좋은 것 같다. 더불어 포용력이 필요하다.

발표 3)

우리 회상의 경우 여수지역, 여수 이외지역, 중간 등으로 나뉘어져있다. 초대위원장이 여수출신이었는데... 2대 위원장이 여수출신인데... 너무 많이 여수사람을 챙기는 문제가 있었다. 무뇌형이었다. 회사와 친분이 있어서 임금은 많이 올랐다. 여수사람들은 중심에 있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소외되어 있는 형국이다. 조합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 다음날 회사에서 부른다. 일종의 프락치문제다. 회사에서는 여수사람들을 모아서 정보책으로 쓴다. 결의대회를 준비했었는데.... 2대 위원장이 결의대회에 가지 말라고... (발음이 이상해--- 안들려) 문제점: 노노 갈등 심화, 노노 갈등을 풀려면 남자들의 경우는 결국 슬로푸는 건데.... 슬값도 부담되는 상황이다. 조합과 상집간의 유대감의 저하, 회사의 조합활동 관여 등의 문제가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 노노갈등 해결: 신뢰도의 복구가 필요. 노조의 힘이 있으면 회사의 조합활동 관여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

문답 3)

발표 4)

우리도 신생이다. 조합원들이 노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다. 조합에서 일이 있으면 간부들에게 전달도 잘 안된다.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앞으로 조합활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발표 5)

특수한 상황이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정부이다. 그래서 대외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정치권, 산자부, 과기처, 노동부 등. 실제 그쪽을 많이 만나고 있다. 분회도 있는데, 플뿌리 민주노조를 건설해서 현장 사업은 분회들에서 하게 하고, 집행부는 대외관계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업무능력은 상당히 탁월한데, 현장 조직력이 떨어지고 있다. 대외 업무를 많이 하니까 현장조직력이 너무 많이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현장 조직을 점조직화하고자 한다. 분회도 좌우파로 나뉘어져 있다. 조직 장악력이 60% 정도밖에 없다. 조합원들은 임금 올리는? 거창한 것? 그게 아니라 위원장이 사소한 것을 챙겨주는 것을 진정으로 바란다. 그것이 조직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점조직을 이끌 수 있는 골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골수 분자들에게는 확고한 조합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미미한 교육이 아니라, 자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전체 발표>

1반: 조합원의 의식교육이 가장 약하며, 가장 큰 문제이다. 집행부의 위원장 보좌가 약하다. 결정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을 보좌해야 하는데 그게 문제이다. 의식교육은 장기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집행부는 좀 인간적으로라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기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집행부를 만들

어야 한다. 조합원들에 대한 일상사업을 해야 할 것 같다. 경, 조사 등을 잘 챙기고. 그러다보면 조합원들의 응화가 잘 될 것 같다.

2반: 강약점 논의 전에 한전의 노동조합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면... 위원장을 대의원제에서 뽑았는데, 그래서 장기집권을 하는 경우도 많고, 집행부도 장기집권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많다. 작년에 회사가 분리되면서,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한수원은 신생 노동조합인데, 이전 집행부도 일부 있고, 어려운 시기이다.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어려운 점 있다. 약점 - 집행부 구성이 완성되지 않았다. 조직이 전국적으로 산개해 있어서 통제가 어렵다.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의식이 낮다. 노동조합을 처음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결속력이 낮다. 아마추어 냄새가 많이 난다. 교섭력 부분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다. 강점 - 자급력이 있다. 그래서 용역을 많이 한다. 노동조합이 힘이 있으려면 자급력이 있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점검 - 연맹이나 상급조직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조합원들의 장점 - 지부 집행력이 강함, 민주성과 자주성이 강점이다. 핵심문제에 대한 설정 - 정부의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단위 사업장의 결정권이 제한당한다. 교섭의 범위가 제한당해 있다. 단위조직이 전국적으로 산개해 있다는 점, 조직역량이 미흡한 점이 문제이다. 해결과제 - 정부 지침 편성되기 전에 노동조합에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탁교육을 통해서 전문지식도 많이 습득하고, 정부와의 협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번 교육이 끝나고도 서로 연락도 하고, 협력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3반: 현재 조합원이 반반으로 양분된 상태(반대를 위한 반대, 조합에 대한 불신, 50%의 조직이다.)이며, 모든 권력의 집중이 상집과 위원장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원들이 별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강점 - 조합원들간의 단결에 대한 강한 의지, 약점 - 양분된 상태, 따르려 하지 않는 조합원, 미미한 기초활동. 조합원들의 조합 참

여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목표 설정, 교육자료의 효율적 흐름을 위해서 조직의 재정비가 필요함, 재정비된 조직에서 교육을 진행-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간부 1인당 15명 정도의 조합원들을 점조직화해서... 조합간부는 로테이션 방식으로... 소모임 학습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하다보면 각 부서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정도가 높아질 것 같다

조합원, 간부들의 장점- 양분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개인 장점- 대인관계, 조합원들의 기대감, 문제- 조합에 대한 관심도 저하, 조합에 대한 불신,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조합의 단결, 노사간의 문제보다는 노노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단결할 수 있게... 교육이 중요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한데... 머리 속에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다. 월 1회 이상의 교육을 통해서 조합에 관심을 갖게끔 해야.. 단기과제: 불신제거 장기과제: 단결, 상집의 힘이 너무 크다. 대의원과 임원들의 힘은 별로 없다. 임원들이 나서서 조합원들의 단결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상집들은 현장에서 조합원들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소모임을 통해서 교육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본조에 하급단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예를 들어 교육, 정세 자료 등을 요구해야 한다. 세심하고 상황에 맞는 교육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4반: 우리 조합은 조합원수가 50명 이하이고, 그래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조직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운영위원 3명, 상집 5명이 있다. 대의원체제가 없다. 그래서 조합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고, 그래서 선배 노조 활동가들의 조언을 듣고자 이곳에 왔다. 강점은 조직이 작다 보니까 투명하게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조합원들간의 의심을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 약점-업무 특성상 조합원들간이 만나는 기회가 적다. 업무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선과제- 1.조합원들의 소속감 고취: 소그룹 조직 구성을 통한 소속감 고취, 2.인격적 무시가 일어났을 경

우, 자신감과 당당함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 필요 3.신입사원이 들어왔을 경우 조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필요. 정부 정책보다는 조합 자체의 문제에 많이 할애하고 있는 상황. 파업 이후 회사에서 노무관리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노무관리팀이 사측이나 조합측이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조율해줬으면 했는데, 그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조합원 숫자에 비하여 임원들이 적다. 임원들이 조합원간에 대화를 통해서 조합원의 의견을 읽어서 조합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계획- 사측의 자세 교정: 사측의 잘못에 대해서 즉시 지적, 시정요구. 투쟁을 통해서... 조합원수가 많다고 조합이 강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소규모의 사업장에서도 작은 힘이나마 많은 힘을 보태서 더 큰 힘을 발휘해서 사측에 대응해서 열심히 투쟁할 수 있기 바란다.

전체적으로 조합원의 의식문제, 활동가의 역량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의 해결방안으로서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 발표력 훈련

현장에 돌아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노조 간부들이 선호하는 교육이다. 발표력 훈련은 일차적으로는 노조간부에게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방침교육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논리력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능력이 없을 경우 설득력있는 발표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부대효과는 논리적인 사고력의 배양 및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방법

1. 글쓰기의 기본 원칙
2. 상황을 설정한 글쓰기
3. 비디오 앞에서 발표해보기
4. 팀별 평가 / 팀간 평가

교육방법상의 장점

비디오 사용 : 자신에 대한 객관화된 평가 가능. 미디어교육적 차원 가능.

논리적 사고 : 무엇이 부족한지를 되돌아보 수 있는 기회

상황중심의 교육진행 : 상황설정 후 발표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장면에 현장성을 부여함.

대중 앞에서의 자신의 태도 재 검토 가능 : 습관에 대한 모니터링

문제점

1. 설득의 기초 원칙제공 부재 - I statement. 동질감 유발의 전략 필요.
2. 수준에 따른 글쓰기- 발표의 원칙 정리되지 않음 : 노조간부대상, 노조원대상, 회사 대상의 경우, 초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정리단계에서 이야기해 줄 필요.
3. 발표시의 감정 :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4. 질문을 던지는 방식 정리
5. 노조 안의 용어의 일상화문제 : 대중화된 용어사용의 기본원칙 정리 필요(핍박, 억압, 투쟁, 탄압, 착취).
6. 교육과 선동의 차이 :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전형적인 발표를 하나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 위탁교육의 한계 : 교육장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초기에 이해될 필요.

-- 참여식 교육의 문제 : 참여자의 기본적 자질, 태도에 의해 분위기, 방향, 피드백이 달라진다. --> 교육의 의미축소 등의 저항에 교육진행자는 어떻게 대처하는가?/해야 할 것인가?

“다시 보니까 고칠 점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업무에 대한 세미나라면 하겠지만, 노동조합 자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느꼈어요.”

■ 찬반토론

목적 : 논리력/발표력 훈련을 위한 시간

방법 : 자신의 입장과 무관하게 정해진 입장을 변론하는 과정을 통해 역지사지의 체험 + 자기 논리력 향상 훈련을 함.

역할 : 찬성-반대-배심원

(전략회의 30분, 찬성4, 반대4, 배심원 6)

주제 : 남북 공동응원 불허는 국민 정서를 고려한 바람직한 결정이다.

사회자 조언 : 진행방식에 대한 안내. 반대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도록 유도

<찬성팀>

논거 정리 (리더에 의해 이끌어짐)

1. 공동응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의 합리성을 찾자

- 김대중정부 들어서면서 안보에 대한 의식이 줄어든 상태다. 서해교전에서도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적 태도를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

- 남-북간의 오해가 오히려 생겨날 수가 있다. 단편적인 이미지에 근거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다.

2. 역할을 나눠보자.

- 하나, 국민정서에서부터 출발하자. 공동응원을 하지 말자는 입장.
- 둘, 안보관련/ 세계적 정세
- 셋, 북한의 변화된 실상. 이중적 태도 공격.
- 국론 분열
- 국가간의 차이.
- 경제력이 있으면 수해민을 돕자.

<토론>

(핵은 주제다. 어떤 주제를 선택할 것인가?)

준거: 학습자의 특성/ 시의성/ 논쟁의 영역/ 의미있는 결과

특징: 시간준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규율의 중요성)

서로의 비판의 축이 맞도록 논의 전개능력.

문제: 토론의 기본 자세(정리해줄 필요)

평가표를 어떻게 논리화 할 것인가?(준비의 과정에 녹아들어야...)

14. 참관자료 2 - 성공회대 사회교육원 '노동대학' 참관자료

일 시: 2002. 10. 14. 19:00-22:00

장 소: 성공회대 정보교육관

참여자: 약 40여명(참여 연령이 다양하나 대부분 노조간부, 조합원)

내 용: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운동

강 사: 김태연(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참 관: 홍은광

방 식: 강의(90분), 질의 및 응답(30분) 휴식(10분), 조별토론(40분-70분)

<강의>

- 초기 기획된 강의 내용은 "주5일제 시행과 노동조합 활동의 방향"이었다. 주 5일제 시행에 따라서 노동조합 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였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주 5일제"안이 예상보다 반노동, 친자본적으로 제출되고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의 주 5일제 안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이후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강의하게 되었다. 정세와 연관된 강의 주제는 초기 기획 당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식이었으며, 내용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 구체적 쟁점과 반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는 내용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전문적인 내용이면서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질의 및 응답>

- 강의를 끝난 후 질의 및 응답 시간에는 강의의 주요 내용보다는 민주노총의

대응 방안과 계획에 대한 문의가 주로 제기되었다. (마치 민노총 대의원 대회같은 분위기)

<조별 토론>

- 3개조로 10여명 씩 장소를 달리하여 진행, 각 조 조장의 진행하에, 당일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 자신의 생각, 경험들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 6기가 대부분이었지만, 5기, 4기도 함께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음. 보통 4 학기를 수료해야 졸업함. 대학에서의 학회구조와 비슷함.
- 강의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공유, 동의, 공감 등이 이루어짐.

14. 참관자료 3. - 민주노총 '노동자 학교' 참관자료

일 시: 2002. 10. 30 17:00-20:00

장 소: 민주노총 강당

프로그램 순서: 강연, 강의 내용 및 학습자 평가토론, 졸업식, 뒤플이

주 제: 노동운동의 미래와 간부의 역할

강 사: 손낙구(민주노총 교섭실장)

참 관: 홍은광, 이지연

1) 강의: 노동운동의 미래와 간부의 역할(손낙구: 민주노총 교섭실장)

- 강의의 특징:

1. 언어사용을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추려고 한다. “어려운 이야기는 없죠?”
2. 정세나 정치의식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전망을 중심으로 이야기 한다.
3. 질의 및 응답은 없다.

2) 현장탐방 발표

.1조: “노동자 학교에서 연대의 중요성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요성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연대활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조: 백기완 선생님택, CMC 파업 현장 방문. “현장 경험을 통해서 연대의 저얼프 ㄹ 해서, 좋은 경험이었다”대자보로 공개함.

.3조: 까르푸 노조 투쟁 현장 탐방 홈페이지에 사진, 글 게재.

.4조: 현장탐방 하지 못함.

3) 평가

·방식: 조별로 집단 토론 방식, 30분 정도 진행

<예시- 2조>

- <총괄평가>

- 참여자 1: 노동자 학교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육아문제로 활동을 쉬게되면서 현장과의 거리감이 들어서였다. 앞으로의 활동을 위해서 참여했었다. 단위 노조 활동에서 현장 사안에 매몰되다 보니, 연대활동을 집회 이외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다른 사업장 사람들을 만나면서 연대를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참석을 많이 하진 못한 것 같다.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 단위만이 아닌 다른 동지들의 활동과 아픔까지 고민할 수 있었고, 우리 사회보험 노조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참여자 2: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었다.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역량을 갖추면 조합원들을 많이 묶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다. 교재를 보면서 달달 외워서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 참여자 3: 이번 기회에 좋으신 분들을 만이 만날 수 있었다. 우리 노조는 신생 노조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가부인데, 열심히 해보려고 하였다. 연대할 때 다시 만나면 힘날 것 같다.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을 내어서 만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서 각 사업장 상황을 듣고 배울점을 배웠으면 좋겠다.

- 참여자 4: 교육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았다. 교육받을 때마다 철학, 관점, 세상을 보는 시각 관점에서 좀 더 노동자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보편적, 일반적 시각에서 노동자적 시각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었다. 연맹을 통해서

참가하게 되었는데, 교육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단위 노조에서는 바쁘니까 참여가 어렵다. 단계별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강의를 빼먹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아쉽다. 다음 기회에도 계속 참여하고 싶다.

- 참여자 5: 아쉽다. 처음에는 좀 겁이 났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반원들과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친해질만 하니까 헤어지게 된다. 강의뿐만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하고 느끼는 것들에서 배운 점이 많다. 강의 들어서 배운 것도 매우 좋았다.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자리가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같이 토론할 수도 있다. 여유가 되면 노동대학도 참여하고 싶다.

- 참여자 6: 4년 가까이 간부활동을 했었다. 하지만 회의가 느껴졌다. 같이 입사한 동기가 나보다 훨씬 호봉이 높다.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왜 하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회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만들어가서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할 수 있길 바란다. 교육받고,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기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

<바람사항>

- 노동자 학교에도 여성할당제를... 여성 참여자가 너무 적다.
- 위원장을 TV에서만 보다가 진짜로 보면 마음이 설렌다.
- 1강의가 2시간인데, 첫 강의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교육으로 갔으면 좋겠다. 발표하면서, 토론하고, 올바른 쪽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듣는 강의만이 아니라 말하는 강의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철학과 같은 경우는 자신이 살아온 경험에 기반해서 해야 할 것 같다. 첫 강의에서 그러면 부담스러울 것도 같고, 어느 정도 안면이 트인 후에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재미있는 노동가요 시간, 노동가요를 통한 운동사,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노동가요 가사를 썼는지도 궁금하다.

- 시간을 좀 늘렸으면 한다. 특히 결제, 역사 부분의 시간을, 그리고 강사끼리 이야기해서 전 강의가 무엇이었는지를 서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 강의를 듣고 집에 가면 잊어버린다. 강의에 대해서 평가서 쓰고 내용에 대해서 되새김질, 내실화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 이전 기와 새기가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신입생들과의 만남. 강의 내용의 높고 낮음보다는 그 동안의 활동, 노동자적 관점 등 자체의 수준은 문제가 별로 없다. 자신이 다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더 깊어질 수 있다. 거의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처음엔 싫어했는데 자신의 활동과 관련해서 끌리는 것이 있어서 오게 되었다.

- 답임: 강의 끝나고 토론하는 시간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분위기, 자연스럽게 지났을 분위기이다. 좀 더 유연한 진행을 위한 방법을 위한 조언은 없는가? - 토론은 기술이라고 하는데 분위기를 편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메마른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의 팀웍이 좋다. 토론 주제가 무거울 수록 가볍게 해보는 것이 좋다.

<예시 -3조>

- 참여자 A: 노동운동을 하는게 잘 모르면서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그런 운동이 가진 한계가 있다. 민노총이나 상급단체에서 교육을 많이 배치했으면 한다. 참 좋았다. 몇 사람만 들어서는 안되지 않나. 간부들을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 답임: 지역연맹단위로 가다보니까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오는거다. 현장으로 들어가서 한 적도 있다. 그러나 그런 방법에는 예산부담과 강사부담이 따른다.

- 참여자 B: 다른 사업장의 분위기를 파악해서 좋았다. 전반기 교육프로그램을 찾으려고 했는데 잘 안됐다.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전파교육하고 싶다.

- 참여자 C: 막연히 생각하는 노조랑 체계가 잡혀 활동하는 거랑은 다르다. 간부를 맡으면 스스로 이념을 만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일반조합원들은 그렇지 않다. 그냥 따라온다. 밀고 나가도 안 따라오기도 한다.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다. 교육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교육내용, 자료가 필요하다. 대강은 알아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을만큼 알고 있지는 못하다. 신입사원교육 때 여기서 받은 자료집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설명을 활용했다. 간부들을 의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여자 D(버스노조): 6년째 노조활동을 하니깐 다 알거라는 생각에 망설였다. 교육을 받으면서 전에 들은 얘기, 새로 들은 얘기.. 7강하면서 남은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남은게 많았다. 한계에 부딪치곤 했는데 강의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면서, 나 스스로 잊어버리고 지라갔던 걸 다시 되새기며 다짐하였다. 반성도 하고 이후 전망에 대해 고민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우리 다음에 집회에서 만나면 여기서 교육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한잔 하고 그러자.

- 참여자 E: 1-7강의 강의를 어디에 중심을 둔 것인지 모르겠다. 대표자나 상집 간부나 비균질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것같다. 일하다 아쉬운 부분은 교육자료가 없다는거다. 선동학교도 1년에 1차례정도 밖에 없다. 경험에 바탕한 강의를 필요하다. 조직내 교육도 해봤는데 간부끌어다 시켜도 첫강의를 얼마나 머릿속에 새기느냐, 잊혀질만하면 다시 새기는 거 그런게 중요하다. 또 노동자성을 그대로 드러내

백을 잡아주는 강의가 필요하다. 자료들을 막 홈페이지에 때려 넣지만 참 어렵다. 노동자 학교라고 하면 조직안에 심어야 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고민이 있다.

- 느낀점

1) 여성동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 반별로 형성된 분위기, 성실성과 능동적 참여에 있어 여성동지들의 활동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2) 서로를 만나고 경험을 공유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3) 이후 졸업식이 진행됨. 전체 4개 조 중 2조만 담임이 들어감. 그래서인지 담임이 있는 2개조와 나머지 2개조의 참여율, 참여 정도가 현격하게 차이남.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쟁점
민주시민교육 기초조사분석연구사업 녹취·서관자료

2002 12 월 일 인쇄
2002 12 월 일 발행

발행인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 소

홈페이지:

전 화:

팩 스:

등 록

ISBN

인쇄처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 >